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KOICA 지원방안

이정환 · 고영곤 · 이명수 · 김재훈

2009.12

본 연구 보고서는 GS&J 인스티튜트에 연구용역으로 위탁, 작성되었으며,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이 연구 책임자로, 동 연구기관의 이명수 이사, 고영곤 연구소장이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김재훈 연구원이 연구를 보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목차

그림 목차 8
표 목차 8
약어 11
요약 15

제1장 서론 21
1. 연구배경과 목적 21
 가. 연구배경 21
 나. 연구목적 22
2. 연구방법과 범위 23
 가. 연구방법 23
 나. 연구범위 23

제2장 세계 식량위기의 현황과 대응 24
1. 국제곡물 가격급등현황과 원인 24
 가. 최근의 국제곡물시장 동향 24
 나. 국제곡물 가격급등원인 26
 다. 향후 국제곡물 가격 전망 32
2. 개도국들의 식량위기 영향과 대응 33
 가. 국제곡물 가격급등과 식량부족 실태 33
 나. 식량위기에 대응한 자구노력 44
3. 국제 사회의 식량위기해결 지원노력 50
 가. 주요 국제기구의 지원노력 50
 나. 주요 국가들의 지원노력 64
 다. NGO들의 지원노력 75
4. KOICA의 무상원조전략에 대한 시사점 80

제3장 식량위기에 대응한 KOICA의 무상원조 전략 82
1. KOICA의 대응 방향 82
가. KOICA의 대응 필요성 82
나. KOICA의 농업분야 지원 실태 84
다. KOICA의 지원전략 수립 87
2. 협력대상국가의 식량농업현황 88
가. 식량농업여건 개황 88
나. 식량위기국가 농업의 특성 90
다. 식량위기 요인 종합 92
3. 식량농업원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가이드라인 93
가. 원조효과 관련 국제논의와 지침 93
나. 식량원조 관련 국제논의와 규범 96
4. 식량농업 지원방식 선택 102
가. 다자 원조와 양자 원조 102
나. 협력대상 국제기구 104
다. KOICA의 접근대안 106
5. 식량 · 농업지원 대상국가의 우선순위 108
가. 기본원칙 108
나. 국별 영양상태 110
다. 우선순위 결정 112
6. KOICA의 식량원조 방안 115
가. 식량원조 여건과 접근 115
나. 식량원조 추진방식 116
다. 현물원조 가능성 판단 기준 117
라. KOICA의 식량원조 추진 121
7. KOICA의 식량증산 지원방안 122
가. 식량증산 지원의 일반적 원칙 122
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 124
다.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지원 129
라. 상황적 특성에 맞는 지원 133

제4장 KOICA의 식량위기 우선 지원 방안 136
1. 스리랑카 식량위기 지원방안 136
가. 농업여건과 생산현황 136
나. 식량위기 상황분석 141
다. 외부 지원 사업개요 145
라. KOICA의 지원방안 151
2. 에티오피아 식량위기 지원방안 168
가. 농업여건과 현황 168
나. 식량위기 상황분석 175
다. 외부 지원 사업개요 178
라. KOICA의 지원방안 184

제5장 결 론 196
1. 원조 가이드라인 196
2. 조기 우선 지원방안 199

참고문헌 201

별첨자료 206
〈별첨 3-1〉 협력대상국별 식량농업현황 기본지표 207
〈별첨 3-2〉 식량위기에 처한 협력대상국의 식량농업개황 383
〈별첨 3-3〉 WTO 농업협정의 식량원조 관련 조항 407
〈별첨 3-4〉 식량원조 관련조항 개정시안(DDA협상) 408
〈별첨 3-5〉 식량농업분야지원 협력대상기관 414
〈별첨 4-1〉 스리랑카에 대한 각국의 식량원조 사업 사례 420
〈별첨 4-2〉 스리랑카에 대한 FAO 지원 사업 사례 421
〈별첨 4-3〉 스리랑카 농업생산을 위한 각국 지원 사업 사례 424
〈별첨 4-4〉 Jaffna 지역 해수 유입방지제방 세부내역 425
〈별첨 4-5〉 에티오피아에 대한 각국의 식량원조 사업 사례 427
〈별첨 4-6〉 에티오피아에 대한 FAO 지원 사업 사례 430
〈별첨 4-7〉 에티오피아 농업생산을 위한 각국의 지원 사업 사례 433

그림 목차

〈그림 2–1〉 식량위기를 전후한 가격지수 동향 25
〈그림 2–2〉 세계인구 증가추세 29
〈그림 2–3〉 미국의 옥수수 용도변화 31
〈그림 2–4〉 개도국 식생활의 곡물의존도 35
〈그림 2–5〉 아시아지역의 주요곡물 생산 증가율 37
〈그림 2–6〉 아프리카 지역의 곡물생산동향 39
〈그림 2–7〉 중남미지역의 곡물생산량 42
〈그림 2–8〉 중남미 지역의 주요곡물 생산동향 43
〈그림 2–9〉 WFP의 연도별 식량원조 실적 60
〈그림 2–10〉 주요국의 대외원조 규모 64
〈그림 2–11〉 주요국의 농수산업분야 ODA 활동 65
〈그림 2–12〉 일본의 연도별 ODA 규모 70
〈그림 2–13〉 일본의 ODA 운용기관 일원화 71
〈그림 3–1〉 우리나라 ODA 규모 83
〈그림 3–2〉 지원대상국가의 우선순위 114
〈그림 4–1〉 스리랑카 행정지도 139
〈그림 4–2〉 스리랑카의 주요농산물 생산현황(2007년 기준) 141
〈그림 4–3〉 스리랑카에 대한 10대 ODA 공여주체(2006~2007년 평균) 148
〈그림 4–4〉 해수 유입방지 제방 단면도 158
〈그림 4–5〉 에티오피아 지도 169
〈그림 4–6〉 에티오피아의 주요농산물 생산현황(2007년 기준) 174
〈그림 4–7〉 에티오피아의 영양결핍인구 비율 175
〈그림 4–8〉 에티오피아 행정 지도 177
〈그림 4–9〉 에티오피아에 대한 10대 ODA 공여 주체(2006~2007평균 기준) 180

표 목차

〈표 2–1〉 쌀 수출 가격 지수 25
〈표 2–2〉 주요 곡물의 글로벌 재고율 28

〈표 2-3〉 지구촌의 인구증가 추세와 전망 29
〈표 2-4〉 미국의 옥수수 용도별 이용현황 30
〈표 2-5〉 주요 협력대상국의 곡물 가격급등 사례 34
〈표 2-6〉 곡물 가격급등과 저소득국가 식량부족량 변화 36
〈표 2-7〉 아시아 주요국별 곡물생산동향 38
〈표 2-8〉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곡물생산 동향 39
〈표 2-9〉 국내시장 및 국제교역관련 자구노력(2008년) 46
〈표 2-10〉 사회안전망 관련 자구노력 48
〈표 2-11〉 농업생산자 지원관련 자구노력 49
〈표 2-12〉 "세계 식량안보위기 대응 고위급 Task Force" 구성 내역 51
〈표 2-13〉 협력대상국들에 대한 ISFP 사업 사례 57
〈표 2-14〉 2009년도 WFP 사업계획 61
〈표 2-15〉 IFAD의 식량위기 대응사업 사례 62
〈표 2-16〉 협력대상국별 세계은행의 GFRP 사업 규모 63
〈표 2-17〉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 67
〈표 2-18〉 2009 미국 PFSRI 사업에 포함된 협력대상국 69
〈표 2-19〉 일본이 발표한 식량위기 지원약속 73
〈표 2-20〉 영국이 발표한 식량위기 지원약속 74
〈표 3-1〉 2009년도 농어촌개발사업 예산현황 84
〈표 3-2〉 추진 중인 농수산업개발사업 개요 84
〈표 3-3〉 KOICA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리스트('08년 6월 기준) 89
〈표 3-4〉 FAO가 지정한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식량위기 국가 90
〈표 3-5〉 KOICA 협력대상국 중 식량위기 국가 91
〈표 3-6〉 농업지역별 협력대상국 분포 91
〈표 3-7〉 위기에 상태에 있는 협력대상국들의 식량위기 원인 92
〈표 3-8〉 WFP의 대북한 식량원조 축소 실례 105
〈표 3-9〉 중국의 FAO 신탁기금사업 참여 실례 106
〈표 3-10〉 협력대상국의 1인 1일당 영양섭취량 110
〈표 3-11〉 협력대상국 중 WFP지원 대상국의 영양부족인구 비율 111
〈표 3-12〉 식량 및 농업생산지원 대상국가 우선순위 결정 112
〈표 3-13〉 협력대상국별 KOICA 지원 실적(2000~2007년) 113

〈표 3–14〉 쌀 소비 및 수입추세 117
〈표 3–15〉 식량증산에 필요한 기본요소 123
〈표 3–16〉 중동 및 북아프리카 협력대상국의 쌀 생산현황(2007년) 127
〈표 3–1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협력대상국의 쌀 생산현황(2007년) 128
〈표 3–18〉 KOICA의 사업유형별 원조실적(2008년) 134
〈표 4–1〉 스리랑카 경제 및 농업여건 137
〈표 4–2〉 스리랑카 내전 개요 138
〈표 4–3〉 스리랑카의 2009년도 곡물수입 전망 145
〈표 4–4〉 WFP의 2009년도 스리랑카 원조사업 예측 146
〈표 4–5〉 스리랑카에 대한 각국의 식량원조 내역 147
〈표 4–6〉 스리랑카의 ODA 수원 현황 148
〈표 4–7〉 진행 중인 FAO사업 중 스리랑카 관련사업 개요 149
〈표 4–8〉 국제기구의 스리랑카 농업분야 지원 사업(FAO 제외) 149
〈표 4–9〉 각국의 스리랑카 농업분야 지원 사업 151
〈표 4–10〉 Jaffna 지역 해수 유입방지 제방 현황 157
〈표 4–11〉 내전 이전 스리랑카 북부지역 종자공급소 현황 160
〈표 4–12〉 Murankan 종자공급소 복구 사업내용과 예산규모 161
〈표 4–13〉 Paranthan 종자공급소 복구 사업내용과 예산규모 162
〈표 4–14〉 양질의 벼 종자 공급효과 추정 162
〈표 4–15〉 북부지역 농업연구 시스템 복구 사업 내용과 예산규모 164
〈표 4–16〉 에티오피아 경제 및 농업여건 170
〈표 4–17〉 에티오피아 역사 170
〈표 4–18〉 에티오피아의 2009년도 곡물수입 전망 176
〈표 4–19〉 WFP의 2009년도 에티오피아 원조사업 예측 178
〈표 4–20〉 각국의 에티오피아 식량원조 사업내역 179
〈표 4–21〉 에티오피아의 ODA 수원현황 179
〈표 4–22〉 진행 중인 FAO사업 중 에티오피아 관련사업 개요 180
〈표 4–23〉 세계은행의 에티오피아 농업분야 지원 사업 181
〈표 4–24〉 IFAD의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 개요 182
〈표 4–25〉 각국의 에티오피아 농업분야 지원 사업 개요 183
〈표 4–26〉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 분야 184

약어

약어	정식명칭	한국어역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개발은행
AIDA	Accessible Information on Development Activities	개발원조 활동 정보
As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
BRIC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fast-growing economies)	브릭스(고속성장경제)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KOICA)	국별 지원 전략
CF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Action(UN)	종합행동계획
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CSSD	Consultative Subcommittee on Surplus Disposal(FAO)	잉여농산물처분 자문소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DA	Doha Development Agenda (WTO)	도하개발아젠다
DEVs	Development Operations(WFP)	개발원조 사업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국제개발부
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유럽개발기금
EMOPs	Emergency Operations(WFP)	긴급식량원조 사업
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FEWSN	Famine Early Warning Systems Network	기아조기경보시스템 네트워크
FPMIS	Field Progr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AO)	현장사업관리정보시스템
GFRP	Global Food Crisis Response Program (World Bank)	글로벌식량위기 대응사업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농산물
GPAFS	Global Partnership for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UK)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

약어	정식명칭	한국어역
HLTF	High Level Task Force on the Global Food Security Crisis (UN)	글로벌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태스크포스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World Bank)	국제개발협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UK)	국제개발법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SFP	Initiative on Soaring Food Prices (FAO)	식량위기대응사업
JBIC	Japanese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
JICA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개도국
LIFDCs	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	저소득식량부족국
LTT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Sri Lanka)	타밀반군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	새천년개발목표
MMA	Minimum Market Access (WTO)	최소시장접근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PDM	Project Design Matrix	사업계획매트릭스
PFSRI	President's Food Security Response Initiative (US)	대통령의 식량안보지원 사업

약어	정식명칭	한국어역
PRROs	Protracted Relief and Rehabilitation Operations (WFP)	구호·복구를 위한 연장원조 사업
SNNPR	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 People's Region (Ethiopia)	에티오피아 남부 주
SOs	Special Operations (WFP)	특별지원 사업
SPFS	Special Program for Food Security (FAO)	식량안보특별사업
TCP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 (FAO)	기술협력사업
UMR	Usual Marketing Requirement	통상적시장수요량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개발계획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R	Uruguay Round(GATT, WTO)	우루과이 라운드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청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무부
WARDA	West Africa Rice Development Association	서아프리카 쌀 개발협회
WFP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	세계식량계획
WFS	World Food Summit (FAO)	세계 식량정상회의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요약

2007년 들어 급등하기 시작한 국제곡물 가격이 이듬해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폭등하였다. 이어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폭동이 일어나고 수출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여기에 투기자본까지 유입되어 식량위기가 증폭되기도 했으나 뒤이은 대풍작으로 이제 곡물시장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따라서 급등시기에 비하면 국제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향후 농산물 가격이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이제 농산물 가격정체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으며, 이는 소득의 대부분을 식비로 지출해야 하는 개도국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식량위기의 끝이 아닌 출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급등은 국제식량 원조를 위축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개도국들은 가격급등과 외부 원조 급감이라는 2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 사회는 개도국들의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하여 식량원조와 농업생산능력배양 등 많은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제 개도국에 대한 식량농업지원문제는 최대의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개도국의 식량위기대응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이제 이를 담당하고 있는 KOICA가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와 같은 원조전략검토의 기초 작업으로 우선 56개 협력대상국 각각의 식량농업현황에 관한 기본지표를 상호비교가 가능한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여기에 식량수급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된 양식에 의한 지표만으로는 개별국가의 특성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15개 협력대상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황을 정리하여 추가하였다.

식량위기에 대응한 협력대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검토의 다음 단계에서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와 “식량원조” 관련 국제논의와 규범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원조 접근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원조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한 세 차례의 고위급회의를 통하여 공여국가의 원조정책을 수원국가의 시스템과 조화시키는 과제,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50개 항목의 이행, 그리고 원조의 비 구속화 확대 등은 KOICA의 향후 사업에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식량원조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WTO농업협정”과 “FAO 잉여농산물처분규칙”에 따라 해당수출국들과 양자협의, FAO/CSSD 통보, 그리고 다자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더하여 장기차관형식의 경우에는 “식량원조협약”에서 정한 조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DDA농업협상동향 특히 WTO 농업협정의 식량원조 관련조항 개정논의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원조와 관련해서는 그 장 · 단점을 정리하고 식량원조사업과 식량증산지원사업에 적합한 UN산하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KOICA의 단계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무상원조전략과 관련해서는 KOICA가 협력대상국들의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어떤 나라를 우선 지원할 것인가, 즉 지원대상국가의 우선순위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상국 식량위기의 심각성, KOICA의 기본정책방향, 그리고 국제 사회의 시각을 반영하여 56개 협력대상국 중 15개국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세 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식량원조”와 “식량생산지원”을 각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먼저 식량원조의 역기능 논란과 우리나라 농산물수급 및 가격구조상 제약요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KOICA의 식량 원조방안검토 차원에서 국제규범과의 충돌방지 그리고 원조효과제고를 위해 각 경우별로 기술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쟁점은 전술한 협력대상국들의 다양한 식량농업현황을 기초로 유사한 농업여건을 공유한 지역별로 식량증산을 제약하는 공통요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문제, 즉 식량증산 지원전략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56개 협력대상국을 6개의 농업지역으로 분류하고 그중 심각한 식량문제를 안고 있는 4개 지역을 중심으로 KOICA의 개별지원 사업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식량증산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곡자급 실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하고 발전시켜온 분야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상대국의 식량문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분야 발굴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원조전략을 토대로 2개의 우선 지원 대상국을 선정하고 그 각각에 대한 KOICA의 지원 사업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원 대상국의 하나인 스리랑카의 식량위기는 곡물가격폭등이라는 국제요인과 내전관련 국내요인이 얽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식량상황은 내전수복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시급한 것은 난민용 긴급식량지원이지만 정부는 이미 난민을 귀향시키기 시작했으며 연내에 80%를 재정착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우리가

식량 원조를 검토한다면 연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를 넘길 경우 실기한 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난민문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내전수복 지구의 농업복구 사업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전수복 지구 농업복구 사업을 제시한다: (1안) 쌀 생산기반 종합복구 사업(Jaffna지역), (2안) 종자공급시스템 복구 사업(Murunkan, Paranthan 지역), (3안) 농업연구시스템 복구 사업(북부지역).

에티오피아는 1천 2백만 명이 만성적 식량부족상태에 있는 최빈개도국이며 이번 곡물가격급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로서 농업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물 부족이 심각하므로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제1차 식량안보 5개년 계획"의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제 2010년부터 시행될 제2차 계획을 마련하고 외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KOICA가 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사업규모가 너무 커서 현재로서는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본 연구에 앞서 KOICA와 에티오피아 간에 이미 논의절차가 시작된 농촌개발시범마을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식량위기대응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업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식량위기 대응 차원의 신규 사업을 검토할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다만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농촌개발 사업과 식량위기에 대응한 신규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농업용수개발 사업(안)을 제시한다: (1안) Dodota지역 농업용수 개발 사업, (2안) Adama지역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

연구 핵심 찾아가기(Busy reader's guide)	
향후 국제곡물 가격 전망	제2장. p. 32
협력대상국 식량농업관련 기본 지표	제3장. p. 88, p. 207(별첨 3-1)
식량원조 관련 국제규범	제3장. p. 96, p. 407-408(별첨 3-3, 3-4) WTO p. 100 FAO, p. 101 식량 원조협약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원조방안	제3장. p. 102
협력대상 국가의 지원 우선순위	제3장. p. 112(표3-12), p. 114(그림3-2)
현물원조 가능성 판단 기준	제3장. p. 117
지역별 식량증산 지원방향	제3장. p. 124
스리랑카 식량위기 지원 사업대안	제4장. p. 156
에티오피아 식량위기 지원 사업대안	제4장. p. 188

Abstract

In 2008, the international prices of grain and food had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2007 and had soared to unforeseen levels. With a widespread perception of crisis, food riots broke out in some poorer nations and export bans were imposed in some other countries. Financial speculation in commodity future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financial derivative markets also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is crisis. However, the prices have come down from their peaks with a record high harvest in 2008 and led to a short-term stabilization of the market. International food prices, however, are still higher than they were before 2006 and likely to remain volatile. According to a joint study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he food prices of the coming decade are unlikely to fall back to their average levels of the decade prior to the peaks. It implies that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now just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global food crisis and their cost of staple foods will remain stubbornly high in the future.

The volume of international food aid had stagnated during the recent decades and the trend has been accelerated further by the food crisis. The combination of the stagnant food aid and soaring food prices have seriously undermined the food security of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They have tri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for themselves with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measure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providing food aid and other types of assistance to help them. The Korean government's intention to address soaring global food prices has already been express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s now in a position to prepare a package to address both short-term needs and longer-term solutions.

As an initial step to study the possible package to support partner countries' efforts in coping with the global food crisis, the country information tables

for each of 56 KOICA partners have been developed in a comprehensive and standardized manner considering the vast degree of varieties included in food and agriculture sectors. The development of tables is followed by a review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aid effectiveness and food aid. The outcomes of the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ave been provided for future works of KOICA,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he FAO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have been summarized as legal guidelines for possible food aid. In addressing the food crisis affecting KOICA's partners, five critical points of possible issues were raised and proposed solutions were sought in connection with the future strategy of the agency: The issues of choice betwe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proaches, priority in assisting partner countries, food aid and capacity building of food production,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environments of food produc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finally the issue of finding KOICA's competitive areas to address the food crisis.

Based on the solutions above, Sri Lanka, Ethiopia, and relevant projects were identified for immediate action models in this paper. The 26-year civil war between the Government of Sri Lanka and 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came to an end in May 2009. The majority of people in the conflict-affected areas of Northern Sri Lanka have experienced high levels of food insecurity and are currently housed in temporary transit camps. They are completely dependent up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meet their basic needs. The government has a resettlement plan to return at least 80%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to their places of origin this year. Considering the plan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for IDPs, KOICA's possible action for emergency food aid seems to be inappropriate in terms of timing. This paper includes three types of alternative projects for conflict-affected areas of Northern Sri Lanka instead:

(1) Rehabilitation of the rice farming infrastructure (Jaffna)

(2) Reactivation of the seed farm system (Murunkan, Paranthan)

(3) Rehabilitation of the agricultural research system

In Ethiopia, there are 12 million people who are threatened by hunger and malnutrition, and this deteriorating situation is compounded by increased food prices. Based on the evaluation that the ongoing "Food Security Program for 2005-2009" has made significant achievements to date, the government has completed a new "Food Security Program for 2010-2014" and remains open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KOICA's possible participation in this huge national program may provide different types of positive opportunities but it seems to be unrealistic for KOICA in terms of the scale of the program. This paper suggests two small irrigation projects in the Oromia Region instead.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가. 연구배경

식량은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다. 오랜 세월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추진한 기아해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의 식량문제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으며, 항상 지구촌의 어느 지역은 농업적 또는 비 농업적 요인으로 수억 명의 인구가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려 오고 있다. 식량문제는 자연조건, 자본과 기술, 인구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곡물의 타 용도 전환과 대규모 식량소비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 변화 등이 겹치면서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7~2008년의 국제 곡물 가격 폭등은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안고 있는 개도국들을 가장 먼저 위기상황으로 몰아갔다. 공급이 넉넉할 때는 식량원조가 늘지만 가격이 폭등하여 수입이 어려울 때, 즉 식량원조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식량원조의 특징이다. 이렇게 국제 곡물 가격급등을 전후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상황은 더욱 어려워 졌으며 이로 인하여 무려 8천만 명 이상의 기아인구가 추가된 것으로 FAO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한 국가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어느덧 지구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국제 사회로부터 이에 상응한 기여를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말에는 OECD/DAC에 가입하였다. 아직 ODA 공여국가로서 선진국만큼의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0년 1월부터는 정식 DAC 회원국의 일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로서 우리는 ODA 수원국가에서 공여국가로 변신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량순수입국인 우리 입장에서 대 개도국지원을 통한 국제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의 식량안보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가 식량문제의 접근대안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협력대상국들의 식량위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여 DAC회원국으로서의 활동에 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나.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글로벌 식량위기 문제와 관련한 두 가지 종류의 대 개도국(KOICA 협력대상국) 원조방안 제시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증가가 예상되는 무상원조 사업과 그 중에서 협력대상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식량문제해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KOICA의 일반적인 접근전략을 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력대상국들이 당면한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시급한 KOICA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 곡물 가격의 폭등현황을 살펴보고, 그렇게 촉발된 식량위기로 인하여 협력대상국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과 자구노력, 그리고 국제 사회의 지원노력을 정리한다. 또 이런 현실상황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56개 협력대상국 각각의 식량농업현황에 관한 기본지표를 작성하여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KOICA가 협력대상국들의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자적 접근과 양자적 접근의 선택문제, 협력대상국가의 지원우선순위 문제, 식량원조와 식량증산지원 방법문제, 농업지역별 지원전략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두 번째로 당면한 식량위기 해소를 위하여 앞에서 제시된 전략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국"을 선정하고 그 각각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의 1차 목표실현을 통하여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수행,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무상원조 수요와 KOICA의 미래역할 대비, 우리 농업분야의 인력, 기술, 산업의 대외확산 그리고 국제식량안보 강화 여건 조성 등의 2차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 연구방법과 범위

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책연구로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첫째,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검토 및 대내외 협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예상되는 일반접근전략(Guideline)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진행 중인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조기에 현장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현장감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만큼 미시적인 분석과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국내외 문헌조사 등을 기초로 일반전략이 작성되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국이 선정되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지원대안의 시안이 작성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관계 기관 및 현장방문과 관계자면담 등의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의 현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식량농업분야에 대한 해외원조 역사가 일천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 농업의 특성상 해당국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홈페이지 검색, 제3국 문헌조사, 국제회의 자료 등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현지 출장과 면담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협력대상국들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도출되고 이에 대응한 KOICA의 정책 대안이 모색되는 단계에서는 현장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자문을 구함으로서 연구결과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연구범위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을 56개 KOICA 협력대상국가로 한정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검토대상 사업도 “식량위기에 대응한 단기 조치 및 식량생산능력 제고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식량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농촌지역과 사회개발 분야, 식품안전 분야, 환경농업 분야 등 농업 · 농촌관련 기타 현안이나 주제들은 처음부터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구범위의 확대를 막고 일관성 있는 연구진행을 추구하였다.

제2장 세계 식량위기의 현황과 대응

1. 국제곡물 가격급등현황과 원인

가. 최근의 국제 곡물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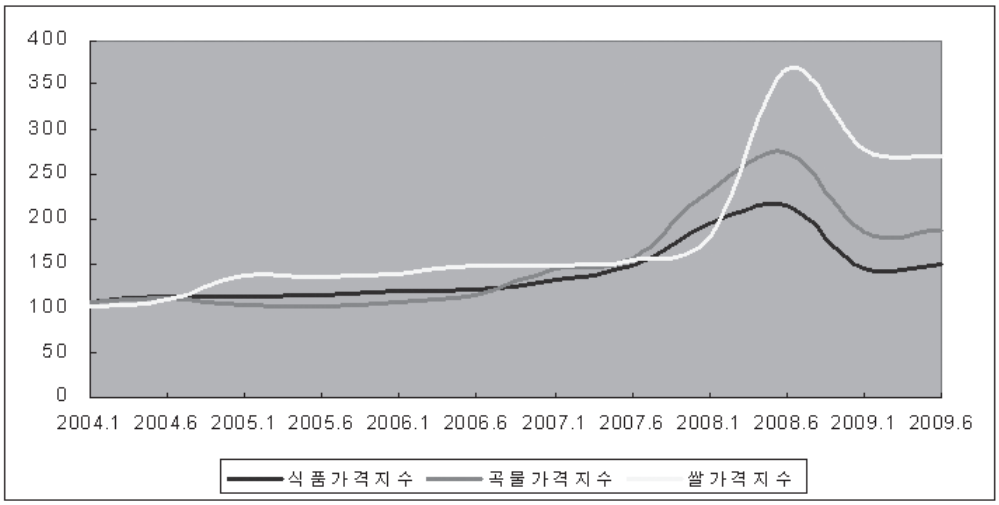
지구촌에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될 때까지 약 20여 년 동안 국제 곡물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국제 시장에 서서히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이다. 즉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던 곡물생산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해 재고가 감소하고 국제 곡물 가격이 고개를 드는 현상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2005년에는 극심한 기상재해가 겹치고 2007년에는 가파른 유가상승이 농업생산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변화의 영향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예측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치솟자 각국은 점점 심각해지는 식량부족과 국내가격 폭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게 된다. 일부 국가는 곡물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또 어떤 나라는 가격을 불문하고 무조건 수입물량 확보에 나서기도 하는 상황에서 일부 투기 자본까지 유입되면서 국제 곡물시장은 공황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주요 곡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이 되어 배합사료, 축산물, 가공식품 등 거의 모든 식품가격의 상승을 압박하고, 이로 인하여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진전된 것이다. FAO가 55개 품목의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식품가격지수(2002~2004 평균=100) 변동 상황을 보면 〈그림 2-1〉과 같다. 2007년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에는 193, 2008년 6월에는 214를 기록한 뒤 점차 하락하여 2009년 6월에는 150까지 떨어져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2008년도의 세계 식량작물 작황이 전례 없이 좋아 주요 곡물의 재고가 모두 증가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제 곡물시장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림 2-1> 식량위기를 전후한 가격지수 동향



자료 : FAO World Food Situation, “Food Price Indices”, 2009. 7
USDA, 「Rice Yearbook」, 2009. 3, 태국 산 2등품 기준, 지수 재 산정
USDA, 「Rice Outlook」, RCS-09f, 2009. 6

<표 2-1> 쌀 수출 가격 지수

	쌀 전체	인디카 쌀		자포니카 쌀
		상등품	하등품	
2000-2004 평균	100	100	100	100
2004	118	120	120	110
2005	125	124	128	108
2006	137	135	129	117
2007	161	156	159	157
2008.05	372	411	437	289
2008.12	265	237	178	237
2009.05	251	224	195	236

자료 : FAO Trade and Markets, “The FAO Rice Price Update”, 2009. 6
(http://www.fao.org/es/ESC/en/15/70/highlight_533.html)

최근의 국제 곡물 가격급등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산물시장에서 기상악화나 병해충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재고가 감소하고 이듬해에

농민들이 재배면적 조정 등을 통해 생산을 조절하면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얼마 전까지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가격 급등은 많은 나라에서 정치 ·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동요를 초래할 정도의 위기 형태로 나타났으며, 과거추세의 연장선상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곡물의 생산과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수요 측면 그리고 다른 거시 경제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단기간 내에 정상적인 추세로의 복귀를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AO[1]는 지난 수십 년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해 왔기 때문에 최근 연도의 국제가격이 상승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과거의 일반적인 추세와 구별되는 것은 가격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대상 품목이 수급 상에 문제가 있는 일부 농산물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식량과 사료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 국제곡물 가격급등 원인

곡물 가격급등이 왜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분석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아직 끝나지 않은 토론주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가격급등이 인지되기 시작한 2006년 말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요곡물 생산국의 가뭄과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 및 유통비용 증가가 지적된 적이 있다. 그 후 농산물의 바이오 연료 사용, BRICs 국가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식품수요 변화, 그리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다시 세계 곡물재고 감소와 연계되면서 가격급등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분석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이루어져야겠지만 농산물 생산과 교역구조의 변화, 선진국의 농산물 가격지지와 보조금, 연료용 등으로의 농산물 용도전환, 상품시장의 투기, 그리고 기후변화 등이 분석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식량위기는 많은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식량사정 악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KOICA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식량위기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먼저 그 동안 국내외에서 거론된 바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FAO World Food Situation, “The ten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rise in food prices in the marketing year 2007/2008”, 2008. 7. (http://www.fao.org/worldfoodsituation/wfs-faq/en/)

(1) 공급측면에서의 원인

기상조건은 농업생산에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기 마련이며 최근에는 이상 기후나 병해충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면서 주요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호주의 가뭄 사례: 호주는 연간 2,500만 톤의 밀을 생산하는 제2의 수출국이었으나 가뭄으로 2006년 밀 생산이 60%나 격감하여 1,000만 톤에도 미달.
- 미얀마의 태풍 사례: 2008년 태풍으로 바닷물이 48km나 떨어진 내륙의 논까지 덮쳐 전통적인 쌀 수출국이 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
- 깜부기 병 확산 사례: 케냐에서 80%의 감산을 초래할 정도로 치명적인 깜부기 병(Stem rust)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밀 산지에서 되살아나 확산.

또한 많은 농경지가 반복되는 토양침식으로 인해 황무지로 변해가고, 중국 북부지방 등에서는 지하수 층이 고갈되면서 지속적인 농업생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도시화 등으로 인해 사라지는 농경지는 농업생산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존층 변화에도 식물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수확량 감소가 대기 중의 오존층 상승결과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2)]

한편, 원유 가격 폭등은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생산 투입 자재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에 더하여 농기계 조작과 운송비의 증가를 가져와 농산물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또 한편 원유 가격 상승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수요를 자극하여 곡물의 용도를 전통적인 식량에서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서 곡물시장의 공급을 억제하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끝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소비와는 대조적으로 식량생산은 영농여건 변동에 따라 증감변동이 심한 추세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족분을 재고로 충당함에 따라 식량재고가 불안해지고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고율(재고량/수요량)이 하락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2) Wikipedia, “2007-2008 world food price crisis”, (http://en.wikipedia.org/wiki/Food_crisis)

또 다른 견해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많은 양의 식량재고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술적으로 단기간 내에 필요한 식량생산이 가능하고 부족분은 국제 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서 재고를 줄여가는 경향도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어쨌든 주요 곡물의 재고가 감소하자 2007년부터 수출입국 모두 재고확보에 나섰고 수출국들은 수출을 제한하면서 가격급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표 2-2> 주요 곡물의 글로벌 재고율

(단위: %)

	02/03~06/07 평균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전망)
곡물전체	22.3	23.0	22.7	20.3	20.2	23.6	23.2
밀	28.8	28.8	28.9	26.1	23.6	28.8	29.7
잡곡	17.0	19.2	18.2	15.5	16.6	19.6	17.8
쌀	25.3	23.8	24.5	23.8	24.3	26.2	27.6

자료 :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9. 7.
(http://www.fao.org/docrep/012/ai484e/ai484e07.htm)

(2) 수요측면에서의 원인

인구의 크기는 식량수요의 총량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1950년에 25억 명이던 지구촌의 인구는 매년 수천만 명씩 증가하여 현재 68억 명까지 늘어나 있고 2050년에는 80~11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UN의 전망이다. 그 중 80% 이상이 식량문제가 중요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의 개도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간 세계인구 증가 수는 1980년대 말에 8,7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2년부터는 7,500만 명 수준에서 안정되다가 2007년부터 7,700만 명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어 이것도 이번 식량위기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들은 먹는 문제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점점 식품소비패턴이 고급화 · 다양화되면서 전분질 식품보다는 더 많은 육류식품을 소비하고 이것이 사료곡물의 수요를 증가

시키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에 인구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소위 BRICs 국가들이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이들이 세계 곡물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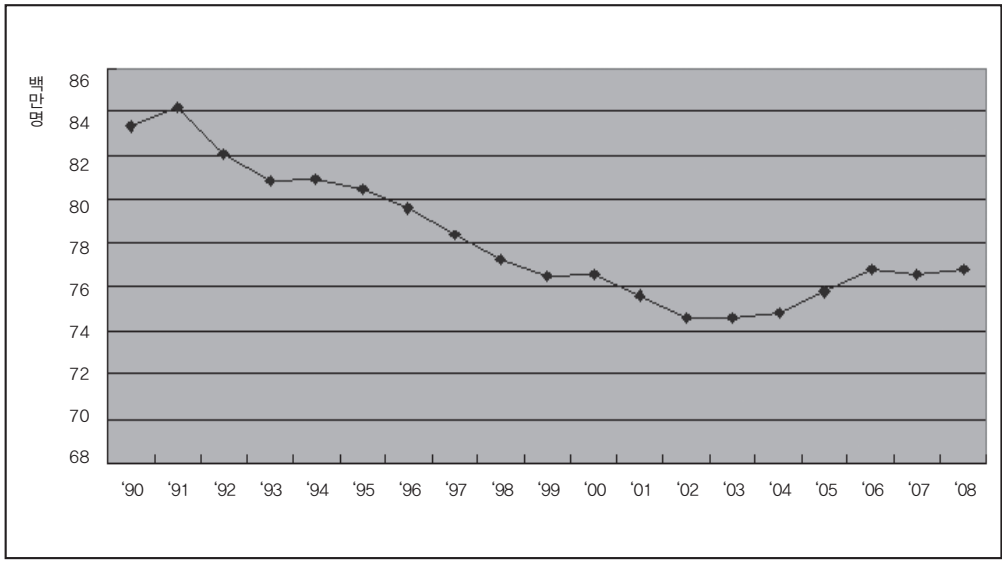
<표 2-3> 지구촌의 인구증가 추세와 전망

(단위: 백만 명)

	1950	1975	2009	2050 전망			
				낮은 증가	중간 증가	높은 증가	추세치
세계전체	2,529	4,061	6,829	7,959	9,150	10,461	11,030
아시아	1,403	2,379	4,121	4,533	5,231	6,003	6,010
아프리카	227	419	1,010	1,748	1,998	2,267	2,999
중남미	547	676	732	609	691	782	657
유럽	167	323	582	525	729	845	839
북미	172	242	348	397	440	505	468
대양 주	13	21	35	45	51	58	58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Highlight”, 2009.3

<그림 2-2> 세계인구 증가추세



자료: U.S. Census Bureau, World Population Trends, International Data Base (IDB)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3]에 의하면 2000/01~2007/08 기간 중 세계 옥수수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3.4%인데 비해 러시아의 소비량 증가율은 무려 11.2%에 이르며 대두 소비량의 경우도 BRICs 국가들 모두 세계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이 국제 농산물시장에서 수요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근의 국제 곡물 가격급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즉 FAO[4]에 따르면 2007/08년도 중 중국과 인도는 국제 시장에서 많은 곡물을 수입하여 가격상승 압력을 가한 국가가 아니며, 오히려 중국은 그 기간 중 옥수수를 수출했고 인도는 밀을 수입했지만 전체 소비량에 비하면 적은 양이라는 것이다.

그 보다는 바이오연료 생산용 곡물 소비가 급증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바이오 에너지의 경제성이 개선되자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에너지 개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량이던 곡물이 에너지 생산원료로 용도가 전환되고 결과적으로 식량작물의 생산에 할애되는 토지와 자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식용작물의 감소는 당해 곡물의 재고감소와 국제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개도국 국민들의 식량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을 유발하고 만 것이다.

<표 2-4> 미국의 옥수수 용도별 이용현황

(단위: 백만톤, %)

	사료용	바이오 에너지용	수출용	기타	합계
1990년	181.4(59.4)	13.7(4.5)	68.0(22.2)	42.4(13.9)	305.5(100)
1995년	184.7(54.9)	15.6(4.6)	87.7(26.1)	48.5(14.4)	336.5(100)
2000년	230.0(60.0)	24.7(6.4)	76.4(19.9)	52.3(13.6)	383.5(100)
2005년	242.3(54.6)	63.1(14.2)	84.0(18.9)	54.3(12.2)	443.7(100)
2008년	210.6(42.2)	157.5(31.5)	78.7(15.8)	52.6(10.5)	499.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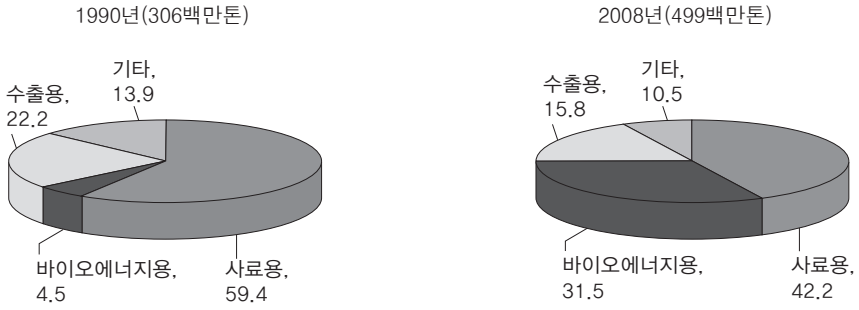
주1)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이정환 외,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GSnJ 시선집중 69호」, GS&J 인스티튜트, 2008

3) 김병률 외,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3

4) FAO World Food Situation, "The ten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rise in food prices in the marketing year 2007/2008", 2008. 7. (http://www.fao.org/worldfoodsituation/wfs-faq/en/)

바이오 에너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여기에 투입된 옥수수량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1.5억 톤의 옥수수가 바이오 에너지용으로 사용되어 미국 옥수수 총 소비량 5억 톤의 30%를 넘고 있다(세계 곡물생산량은 22억 톤 수준). 세계적으로는 2007년도 옥수수 소비량의 약 12% 정도가 바이오에너지 생산용으로 투입되었으며 60%가 사료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2-3> 미국의 옥수수 용도변화



자료: <표 2-4>와 같음

(3) 수급요인 이외의 원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역자유화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세기 말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관련협정을 출범시킨바 있다. 현재는 그 연장선에서 후속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이 진행되고 있다. WTO체제 출범으로 범지구적 시장통합과 함께 농업부문에도 시장 원리가 확산되고 정부 기능이 축소되면서 농정이 하나의 통일된 틀 속으로 편입 되었다. 이제 각국은 자국의 농정을 글로벌 규범과 조화시켜야 하는 농정개혁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농정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의 과다한 농업보호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생산지지 효과가 있는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휴경보상 또는 생산중립적인 소득직불까지 지불하면서 증산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교역자유화 확대로 선진국 농산물의 개도국시장 진입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해졌다. 문제는 이 농산물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WTO협정 내의 합법적인 Green, Amber, Blue, De minimis 등)을 받으면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에서 영세한 규모로 생산되던 농산물보다 수입 농산물이 더 낮은 가격으로 유입되고, 이에 따라 많은 개도국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역자유화는 농산물의 국내외 시장왜곡을 해소함으로서 세계적인 식량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수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생산억제와 개도국 영세농들의 경작포기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세계 식량수급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끝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과 관련된 요인 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안과 달러가치 하락으로 금융시장의 투기자금이 곡물시장으로 유입된 영향도 컸다. 특히 곡물시장은 시장규모 면에서 금융시장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금융투기자금의 일부만 유입되어도 곡물시장에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다. 향후 국제곡물 가격 전망

주요 곡물의 최근 가격은 얼마 전의 최고 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현 상황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공급과잉과 낮은 국제가격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FAO 분석에 의하면 현재 가격이 급등시기에 비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실질가격으로 환산하면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때의 가격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고 그 높은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5] OECD와 FAO의 공동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질가격 기준으로 2018년까지 향후 10년간의 농산물 가격은 지난 10년간의 가격보다 10~20%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농산물의 실질가격 정체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농업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국제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WTO체제 출범 이후에는 각국의 농업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더하여 물 부족 심화 등으로 증산요인은 줄어든 반면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식량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격이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5) FAO World Food Situation, “The ten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rise in food prices inthe marketing year 2007/2008”, 2008. 7.

6) OECD & FAO,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9-2018」, 2009 (http://www.agri-outlook.org/pages/0,2987,en_36774715 _36775671_1_1_1_1_1,00.html)

분석되고 있다. 지금처럼 재고에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높은 가격에 힘입어 특정품목의 경작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어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것은 다른 작목의 경작면적과 생산감소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식량이란 국민 생활의 기초 품목으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가능한 한 일정수준의 국내 생산과 재고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상품이며, 그 결과 총 생산량의 극히 일부만 국제 시장에 출하되고 거래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수요탄력성이 낮은 상품으로 알려진 곡물의 국제 거래 규모가 총 소비량에 비해 이처럼 미미한 구조 하에서는 지구촌의 작은 수급 변동 요인 발생에도 국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세계 생산량의 1% 감소가 47%의 국제가격 상승을 유발할 정도로 국제 곡물시장은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7] 이 같은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은 수입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며, 특히 엥겔계수가 높아 가처분 소득의 대부분을 가족의 식비로 지출하며 살아가는 개도국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국제 곡물 가격 전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살펴 본 OECD와 FAO전망, 국제 곡물시장의 민감성, 그리고 석유나 금융시장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개도국 입장에서의 식량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2. 개도국들의 식량위기 영향과 대응

가. 국제곡물 가격급등과 식량부족 실태

국제곡물 가격급등은 KOICA 협력대상국을 포함한 많은 개도국들의 국내가격에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운 충격을 가했다. 그 영향은 가처분소득의 많은 부분을 먹는 문제 해결에 사용하며 살아가는 개도국 국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저소득 가구의 생존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7) 이정환 외, “08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GSnJ 시선집중 69호」, GS&J 인스티튜트, 2008.11.

다행히 2008년도의 대풍작으로 곡물재고가 증가하고 국제가격이 과거 최고 수준에 비하여 하락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급등 때와는 달리 국제가격 하락효과가 개도국의 국내가격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아직도 국내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국제가격급등은 이미 진행 중인 국제 사회의 식량원조 감소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도국들에게 곡물 가격 상승, 외부 식량원조 감소, 그리고 석유 가격 상승이라는 3중의 어려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곡물은 많은 개도국 국민들이 전통적인 주식으로 삼아 온 기초 자원이다. 즉 이들은 식생활의 많은 부분을 곡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급등에 따른 일상의 고통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표 2-5> 주요 협력대상국의 곡물 가격급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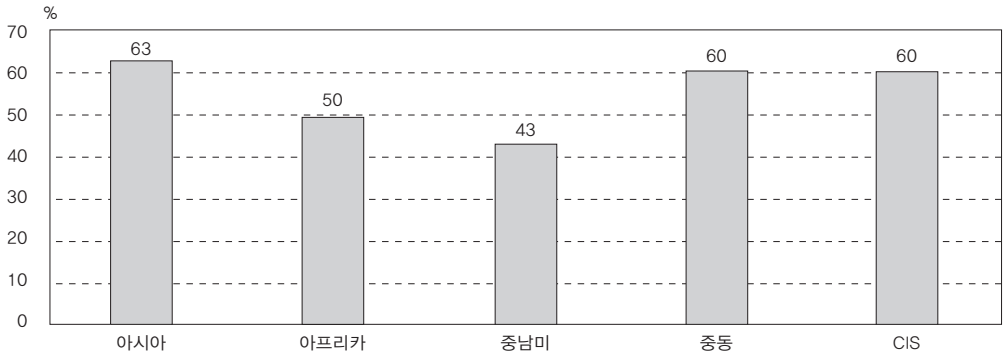
(단위: %)

지 역	협력대상국	곡 물	연간 가격 상승률
아시아 지역	아프가니스탄	밀	129.6
	스리랑카	국내산 쌀	74.6
	스리랑카	밀	45.8
	방글라데시	국내산 쌀	51.6
	중국	국내산 쌀	26.4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	옥수수	132.6
	에티오피아	밀	85.3
	세네갈	수입 쌀	112.3
	수단	밀	59.7
	케냐	옥수수	58.6
	마다가스카르	국내산 쌀	35.7
	탄자니아	옥수수	39.5
중남미 지역	볼리비아	국내산 쌀	102.4
	엘살바도르	국내산 쌀	85.3
	니카라과	국내산 쌀	65.7
	온두라스	국내산 쌀	53.6

중남미 지역	페루	국내산 쌀	48.1
	과테말라	국내산 쌀	46.1
	도미니카(공)	국내산 쌀	25.4

주) 연간 가격 상승률은 2007.8~2008.8 기간 중의 가격 변동 기준
자료: M. Demeke, G. Pangrazio and M. Maetz, “Country responses to the food security crisis”, FAO, 2009

<그림 2-4> 개도국 식생활의 곡물의존도



자료: USDA Amber Waves, “Rising Food Prices Intensify Food In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2008.

이번 국제 곡물 가격급등이 저 소득국가들의 식량수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미국 농무부 발표(2008. 2)에 의하면, 2007년도의 곡물 가격급등 결과 70개 개도국들이 감수해야 하는 식량부족량은 연간 2,720만 톤으로 나타났다.[8] 이는 2007년도 가격급등이 없었던 경우(다른 해와 같이 1% 상승)에 비하여 식량부족량이 7.8% 늘어난 결과를 초래했으며, 특히 중남미의 경우 23.7%나 증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개도국들의 경우 가격급등과 같은 충격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안전장치가 없어 외부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국제 사회의 원조규모는 수요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식량원조 규모는 지난 20여 년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며 원조물량은 매년 공여국가의 예산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가격 상승은 원조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개도국들이 직면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은 수입비용 증가보다 외부 원조물량 감소가 더 큰 경우도 적지 않다.

8) USDA Amber Waves, “Rising Food Prices Intensify Food In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2008 (http://www.ers.usda.gov/AmberWaves/February08/Features/RisingFood.htm/)

<표 2-6> 곡물 가격급등과 저소득국가 식량부족량 변화

(단위: 백만 톤, %)

저소득국가	연간 식량부족량(2016년 기준, 백만톤)		식량부족량 변화(%)
	국제 식품가격이 매년 1%상승 가정	'07 곡물 가격 28% 상승, 나머지 가정은 좌동	
아시아	3.6	3.9	8.7
아프리카	20.2	21.4	6.0
중남미	1.4	1.8	23.7
합계	25.2	27.2	7.8

주) 식량부족량: "1일 2,100 cal/인"에 필요한 식량소요량과 실제공급량의 차이
자료: <그림 2-4>와 같음

국제 곡물 가격급등 이전에 이루어졌던 연간 7,500만 톤 정도의 세계 식량원조 규모는 미국 농무부가 계측한 개도국 식량부족량의 1/3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이제 가격급등으로 여건은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거 수준의 식량원조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여국가의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식량원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 개도국 내의 농가들에게 식량증산 유인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농업구조가 취약하여 농가들이 이와 같은 시장변화에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입 자원이나 자금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증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국제 곡물 가격급등이 저소득 개도국들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아직도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채 식량위기 상태에 빠져있는 저소득 개도국이 30개 국가에 달한다는 것이 FAO 분석결과이다.[9] KOICA 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식량위기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시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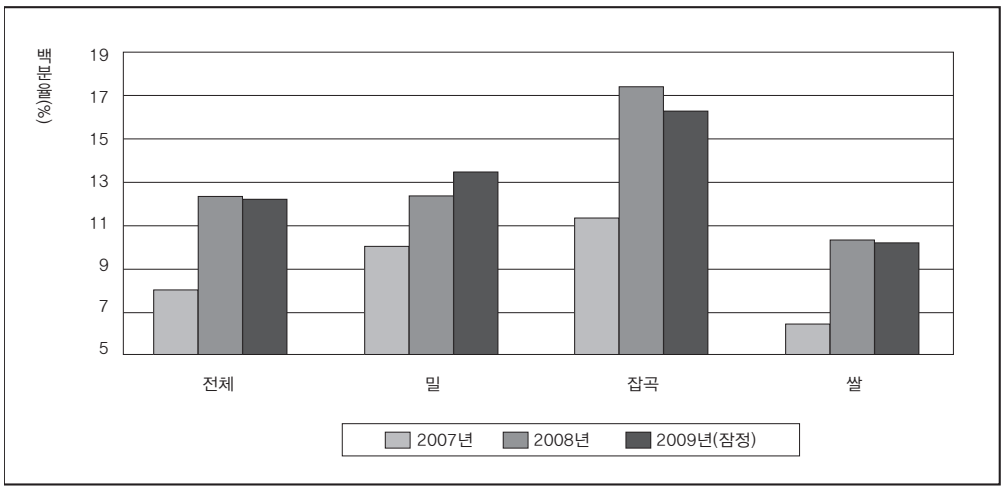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은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곡물 가격급등은 이 지역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

9) FAO, "New FAO database confirms that domestic prices in developing countries remain very high",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2009. 4, and "Countries in crisis requiring external assistance",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9. 7.

장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에 직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FAO분석에 의하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기아인구가 8,000만 명에 달하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4,100만 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10)]

아시아는 세계 곡물생산의 절반이 이루어지고, 쌀 생산과 소비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며 세계 쌀 수출량의 80%가 선적되는 등 국제 곡물시장에서 의미가 대단히 큰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 동안 국제 쌀 가격이 무려 3배 이상 상승하였고 이에 맞서 많은 나라들이 쌀 수출금지 조치까지 시행한 경험이 있는 그 식량위기의 현장이기도 하다. 곡물 가격급등 이후 아시아 지역 농가들은 석유, 비료, 농약 등 자재가격 상승으로 생산성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소비자들은 국내 식품가격급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이은 풍작으로 상황이 안정되어 가는 복잡한 상황이 다음과 같이 교차되고 있다.[11)]

<그림 2-5> 아시아 지역의 주요 곡물 생산증가율



기준: 2004년~2006년 기간 중 평균생산량 대비 증감률
자료: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6.7, 2007.7, 2008.7, 2009.7 자료 재산정
(http://www.fao.org/giews/english/cpfs/index.htm)

10) FAO Regional Information, “FAO Initiative on Soaring Food Prices”
(http://www.fao.org/isfp/regional-information/)

11) FAO,「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8.12, 2009.4, 2009.7
(http://www.fao.org/giews/english/cpfs/index.htm)
USAID, “USAID Responds to Global Food Crisis”, 2009. 5
(http://www.usaid.gov/our_work/humanitarian_assistance/foodcrisis/)

스리랑카는 내전으로 식품가격이 급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년 쌀 생산은 3,600만 톤에 달하는 풍작을 기록하고 있으나 2009년 6월 가격은 62.3루피/kg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년 전보다는 74%나 상승한 상태다. 필리핀의 쌀 가격은 2008년 7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2009년 5월의 평균 소비자가격 31.5페소/kg는 2008년의 최고수준에 비해 12% 밖에 하락하지 않은 수준이며, 2007년 5월 가격에 비하면 43%나 높은 수준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식량난에 더하여 2009년 5월 태풍으로 광범한 지역이 황폐화되었으며 40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들이 기본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밀생산은 주산지에서 극심한 겨울가뭄을 겪었으나 2009년 2~3월의 강우와 적기 해갈이 대풍작을 이끌어 금년에는 전년보다 700만 톤이 늘어난 1만 1,300만 톤의 수확이 예상된다. 파키스탄에서는 밀가루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밀 수입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높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무역의 성행으로 정책효과가 희석되는 가운데 다행히 2009년에는 대풍작을 맞았다. 그러나 2009년 5월 밀가루가격 29.2루피/kg는 2008년 10월의 가격대비 겨우 15% 하락한 수준이고 2007년 5월에 비하면 90%나 높은 수준이다. 한편 최근 북서부 지방의 내전으로 약 300만 명이 식량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

<표 2-7> 아시아 주요국별 곡물생산 동향

(단위: 백만 톤)

	전체곡물			밀			잡곡			쌀		
	07	08	09	07	08	09	07	08	09	07	08	09
중국	463	482	481	109	113	113	167	176	172	187	193	195
인도네시아	70	77	78	–	–	–	13	16	17	57	60	61
파키스탄	35	35	37	23	22	24	4	4	4	8	10	10
베트남	40	42	43	–	–	–	4	4	4	36	39	39
방글라데시	45	49	50	1	1	1	1	1	1	43	48	48

자료: FAO,「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9. 7
(http://www.fao.org/docrep/012/ai484e/ai484e06.htm#22)

네팔에서는 국내가격 상승과 2008년 11월~2009년 3월 기간 중 서부와 중부 고산 지대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겨울작물 흉작으로 수확량이 반감되어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식량접근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2008년도 가뭄과 밀 흉작의 영향으로 밀가루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승한 바 있고, 한때 최대 쌀 생산국 중 하나였

던 미얀마는 2008년도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농촌이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채 한 돌을 맞고 있어 피해복구와 재활 기반 조성을 위한 외부 원조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가격급등 이후 아시아 지역의 곡물증산에 기여한 주요 협력대상국들의 최근 생산동향을 정리하면 위의 〈표 2-7〉과 같다.

⑵ 아프리카 지역

2008~2009년도의 연이은 풍작으로 국제 곡물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최근 년도의 곡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내가격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높은 가격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식량접근이 어려워진 이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는 현재도 식량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위기해소를 위해 외부 원조가 필요한 나라로 FAO가 발표한 30개국 중 20개국이 이 지역의 개도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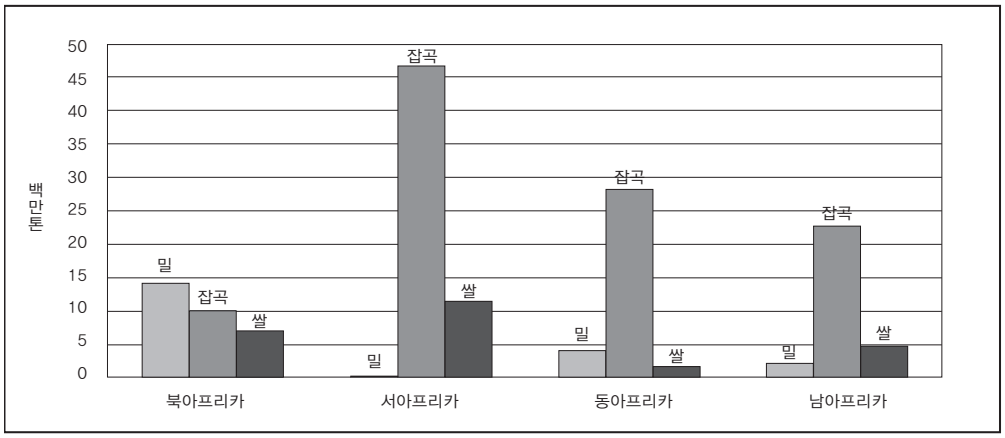
<표 2-8>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곡물생산 동향

(단위: 백만 톤)

	전체곡물	밀	잡곡	쌀
2007년	140.4	19.1	99.3	22.0
2008년	157.1	21.1	110.6	25.5
2009년(전망)	165.6	25.1	114.9	25.6

자료: <표 2-7>과 같음

<그림 2-6> 아프리카 지역의 곡물생산동향



기준: 2008년 실적,
자료: <표 2-7>과 같음

아프리카는 옥수수 등 잡곡 소비량의 95%를 자급하고 있지만 밀의 85%, 그리고 쌀의 4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같은 아프리카이지만 지역에 따라 곡물 소비패턴이 많이 달라 국제가격급등의 충격 양상도 서로 다르다. 또한 비료소요량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최근에 비료 값이 급등하여 식량증산의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북아프리카는 이 지역 최대의 밀과 보리 생산지이지만 지난 2007~2008년에 연이어 평년작 이하의 수확을 달성하면서 국제가격 급등의 충격을 키운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FAO분석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의 2009년 밀 생산이 1,860만 톤에 달하여 전년대비 30%정도 증산될 전망이고 이는 국제 밀 가격 하락과 함께 이 지역 식량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12)]

모로코는 지난 겨울 내내 기상이 좋아 전년보다 74%가 증가한 650만 톤의 밀 수확이 확실시 되는데 이는 최악이었던 2007년 수확량의 4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이집트는 곡물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컸던 국가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2008년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진정되었고 금년에는 북아프리카 최대 곡물 생산국에 걸맞게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밀과 옥수수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튀니지는 국제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강력한 증산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밀 생산량은 평년작 보다 8.5% 감소한 12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파종시기의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감수에 기인한다.

서아프리카는 동부나 남아프리카에 비하여 쌀을 더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옥수수보다는 쌀을 더 많이 수입하며, 쌀 가격 폭등에 따라 그만큼 식량위기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가나의 경우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의 수입 쌀 국내가격이 1년 전보다 23%나 더 높은 상태며, 세네갈의 2009년 4월 수입 쌀 가격은 1년 전보다 33%나 높은 수준이다. 서아프리카의 곡물 가격 상승은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지역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과도 관련이 있으며, 가처분 소득의 절반을 식비에 할당하는 계층의 식량접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급제나 취로사업 등 사회정책 차원의 정부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13)]

12) FAO,「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9.7
(http://www.fao.org/docrep/012/ai484e/ai484e06.htm#21/)

13) FAO,「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9.7

동아프리카 지역은 몇 년간 계속된 흉작, 치솟은 곡물 가격, 그리고 내전 등이 겹치면서 2,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외부의 긴급원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 작물 파종과 생육기인 3~7월 기간의 불충분한 강우는 앞으로도 상황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 2008년 흉작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12%나 감산되자 정부가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옥수수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생산량의 45%에 해당하는(종전에는 18%) 11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2009년 상반기에만 27% 상승했다. 2009년에도 생육초기인 3~4월 가뭄으로 감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350만 명 정도가 긴급원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티오피아는 곡물의 물가 지수 점유비중이 23%나 되며 정부의 가격안정 노력으로 2009년 4월 현재 옥수수 가격은 전년대비 5% 하락하였다. 또 저지대 지방의 주식인 수수 가격은 톤당 556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하면 26%나 높은 수준이며 500만 명이 구호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단은 남부 Dafur지역의 내전이 지속되면서 2009년 5월의 수수 가격이 두 배로 뛰기도 했으나 경작면적 증가와 기상 호조에 힘입어 평년작 이상의 수확에 힘입어 밀 가격은 안정되고 있다. 탄자니아는 비료가격 상승으로 금년도 비료사용이 줄었고 강우가 부족하여 감산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옥수수 금지조치 등을 취하고 있어 옥수수 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최근의 풍작으로 2009/2010년도 곡물생산량이 3,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이래 최대 기록인 2008년 실적보다 3%가 더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FAO와 WFP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지역의 짐바브웨에는 280만 명의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외부 원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약 22만 8,000톤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나라는 원래 정부통제 하에서 낮은 곡물 가격을 유지했으나 흉작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극심한 가격 상승을 겪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자국화폐 포기, 식품 수입제한 철폐, 민간무역 허용 등의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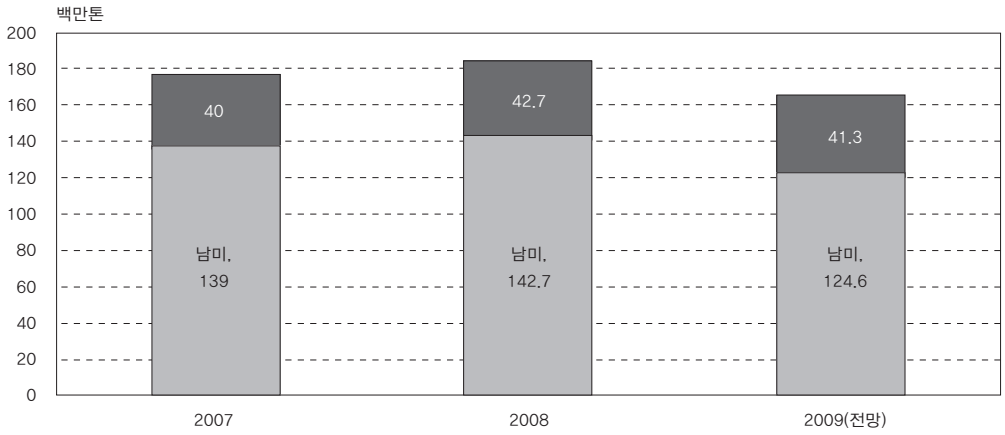
⑶ 기타 지역

〈중남미 지역〉

주요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남미 지역은 광활한 토지에 비하여 부양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농산물 수급상의 잉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지역이다. 2008년도에는 기록적인 풍작을 달성함으로서 전년대비 3.5% 증가한 1억 8,54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무려 10.5%의 감산이 예상되고 있다. 남미와 중미의 곡물생산 동향을 구분하여 표시하면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중남미 지역의 곡물생산량



자료: FAO,「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9. 7
(http://wwwfao.org/docrep/012/ai484e/ai484e06.htm#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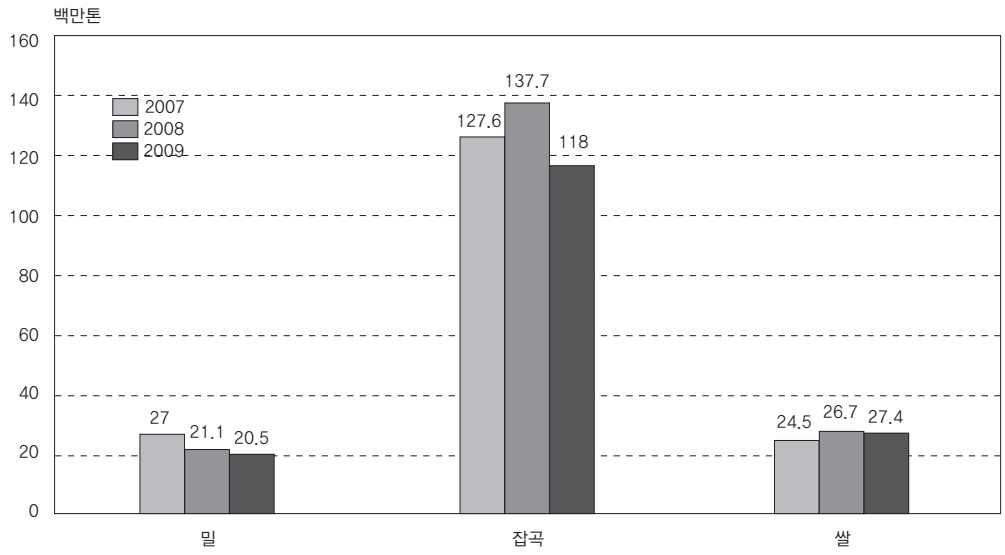
남미 지역의 경우 2009년도 곡물생산은 1억 2,460만 톤으로 기록적인 실적을 거둔 지난해에 비해 13% 감산된 수준이며 지난 5년간의 평균보다는 400만 톤이 적은 수준이다. 한편 중미 지역의 곡물생산량 4,100만 톤은 작년보다는 140만 톤이 적지만 지난 5년 평균보다는 6%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도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을 겪음으로서 국제가격 급등의 피해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물가 비중이 높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결국 경제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제 수입 농산물보다 국산비중이 높은 국가마저 가격 상승을 겪고 있어 중남미 경제의 세계경제통합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14)]

14) The World Bank, “The Food Crisi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9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LACEXT/0,,contentMDK:21778972~pagePK:146736~piPK:146830~theSitePK:258554,00.html)

사실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국가 안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식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난한 소비자들의 생활이 위협 받는 문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다. 볼리비아, 자메이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등이 높은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그림 2-8> 중남미 지역의 주요곡물 생산동향



자료: <그림 2-7>과 같음

〈동유럽, CIS, 중동 지역〉

우크라이나의 2009년 곡물수확 전망은 4,000만 톤으로 전년보다 24%나 감소했지만 지난 5년 평균치보다는 3% 높은 수준이다. 그 내용을 보면 밀은 2008년보다 640만 톤 감소한 195만 톤의 수확이 예상되고, 보리는 단수가 줄어 260만 톤이 감소한 1,000만 톤 생산이 전망된다. 금수조치를 해지하면서 2008/09년도 곡물 수출량은 2,500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곡물 수출량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러나 2009/10 곡물 수출은 생산감소와 수입국들의 수요 감소로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2008년도 곡물생산량은 1,700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톤이 적지만 평년작보다는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다. 2009년에는 밀 파종면적이 1,380만 ha로 증가했으며(2008년은 1,290만 ha) 지난해의 1,250만 톤보다 12% 증가한 1,400만 톤의 생산이 전

망되고 있다. 작년에 수출금지조치를 폐지하고 밀수출을 재개하였으며 2008/09년도의 밀수출은 550만 톤으로 전년도대비 30%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증산이 예상되고 있어 2009/10년도의 수출 여력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제르바이잔은 금년 곡물 파종시기에 적절한 비가 내린 상태에서 파종이 이루어지고 면적도 증가하여 평년작 이상의 수확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9/10년도 밀 수입수요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2008년 겨울의 혹한, 평균 이하의 강우,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감산이 예상되며,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2년째 흉작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의 밀 주산지인 북서부지방의 기상이 양호하여 금년도 생산량은 흉작을 기록했던 2008년보다 무려 38% 정도가 증가한 1,3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리는 220만 톤의 수확을 전망하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 밀 생육기인 2008년 9월~2009년 4월 기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25~65% 밖에 안 되어 감산이 예상되며, 2009/10년도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평균치 이상의 밀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요르단에서는 지난해 이상의 곡물생산이 전망되고 있다.

나. 식량위기에 대응한 자구노력

국제 곡물 가격급등이 글로벌 식량위기 형태로 다가오면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예멘 등에서는 시민들의 크고 작은 소요 사태까지 겪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들은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록 제한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OICA 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자구 노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AO의 "농업정책지원단(Agricultural Policy Support Service)"이 81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각국이 취한 자구 노력을 모니터링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도국들이 추진한 자구 노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조치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정리하기로 한다.[15)]

15) M. Demeke, G. Pangrazio and M. Maetz, 「Country responses to the food security crisis: Nature and preliminary implications of the policies pursued」, FAO, 2009

① 교역 관련조치: 수급안정을 위한 수입관세 인하, 수출제한 조치 등
② 소비 관련조치: 식량지원, 사회안전망, 조세감면, 곡물 가격 통제 등
③ 생산 관련조치: 농업 생산자재 보조, 농산물 가격지지 등

(1) 국내시장과 국제교역 관련 조치

국내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시장관련 조치로 가장 많이 사용한 수단은 곡물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조치와(22국) 공공 재고나 수입곡물을 국내시장에 방출하는 조치였다(21개국). 개도국 정부입장에서 관세감면 조치는 단기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대응수단이지만, 곡물을 공개시장에 방출하는 조치는 사전 비축 재고가 있거나 긴급수입이 가능할 정도의 준비된 일부 개도국에 한정된 조치이다. 이와 같은 노력 외에 곡물 수출제한 조치(16개국), 내국세감면 조치(13개국), 곡물 가격 통제 또는 민간곡물 거래제한 조치(10개국) 등이 시행되었는데 한 나라가 여러 가지의 시장 관련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등 자구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양하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등 중점협력 대상국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재고나 수입곡물을 시장에 방출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실제 곡물 가격 안정 효과는 방출 가능한 재고량과 수입량 수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정부가 유지해왔던 곡물비축제도, 국영무역회사제도, 그리고 2008년도의 풍작이 어울러져 곡물 가격의 급등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으며, 필리핀은 30일분의 재고확보를 목표로 2008년도에 전년보다 33%가 늘어난 280만 톤의 쌀을 수입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들은 외화부족으로 필요한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외부 원조를 호소하고 있다. 중점 협력대상국의 하나인 에티오피아는 곡물 가격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19만 톤의 밀을 방출하고 15만 톤의 밀을 수입하기도 했으나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WFP와 NGO들로부터 20만 톤의 원조를 받았다.

협력대상국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인 내국세나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조치의 효과는 그 감면 폭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의 관세수준은 선후진국 공히 WTO협정, 양자협정, 경제개혁 조치 등의 결과로 이미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인하 효과는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감면 폭이 큰 나라의 경우에는 식량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표 2-9> 국내시장 및 국제교역관련 자구노력(2008년)

		국내곡물시장 관련조치			국제교역 관련조치	
		공공재고 및 수입곡물 방출	VAT등 내국세감면	가격통제, 거래제한	곡물수입 관세감면	곡물수출 금지조치
아시아 (11국)	중점협력 국가(7)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일반협력 국가(4)	중국, 파키스탄, 네팔	중국	파키스탄	중국, 파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아프리카 (14국)	중점협력 국가(5)	이집트, 세네갈,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세네갈	세네갈,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일반협력 국가(9)	알제리, 케냐, 카메룬	케냐,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코트디부아르, 수단,	코트디부아르, 수단, 모로코	카메룬, 가나, 코트디부아르, 케냐,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케냐, 잠비아
중남미 (8국)	중점협력 국가(2)	과테말라			과테말라, 페루	
	일반협력 국가(6)	볼리비아, 도미니카(공), 온두라스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동구 CIS (2국)	중점협력 국가(1)					카자흐스탄
	일반협력 국가(1)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중 동 (4국)	중점협력 국가(1)	이라크				
	일반협력 국가(3)	요르단, 예멘	요르단	요르단	이란, 요르단, 예멘	이란, 요르단
합 계 (39국)	중점협력 국가(16)	10	4	4	7	7
	일반협력 국가(23)	11	9	6	16	9

자료) M. Demeke, G. Pangrazio and M. Maetz,
「Country responses to the food security crisis: Nature and preliminary implications of the policies pursued」, FAO, 2009

· 모로코의 밀 수입관세 인하(130 → 2.5%)
· 나이지리아의 쌀 수입관세 인하(100 → 2.7%)
· 몽골의 밀과 밀가루 부가가치세 폐지
· 케냐의 쌀과 빵 부가가치세 폐지
· 마다가스카르의 쌀 부가가치세 인하(20 → 5%) 등

일부 협력대상국들은 국내 곡물 가격을 직접 통제하거나 민간의 곡물거래를 금지시킨 경우도 있다. 스리랑카는 정부가 쌀의 도소매가격을 고시하고 있고, 파키스탄과 필리핀에서는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으며, 코트디부아르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은 후 가격안정을 위한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가격의 급등에 대응하여 일부 협력대상국들은 쌀 등 주요 곡물의 수출 금지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주요 쌀 수출국들의 금수조치에 따라 국제가격은 더 큰 탄력을 받으며 폭등한 바 있다. 사후에 조치를 철회하거나 철회를 약속했지만 높은 가격에 수출함으로서 단기적인 이익이 실현되었을지는 몰라도 세계적 식량위기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⑵ 사회안전망 관련조치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의 경우 "사회안전망 관련 조치"는 "국내시장과 교역 관련조치"보다 시행이 쉽지 않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의 중점 협력대상국과 11개의 일반 협력대상국들이 이 조치를 활용했다. 사회안전망 관련조치는 사회 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금지원과 식량지원을 두 가지의 기본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시행한 현금 지원 조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곡물 가격급등을 보상하는 수준의 지원단가 인상의 형태로 추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량지원은 양곡을 직접 지원하거나 식권 또는 학교급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시행된 취로사업,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시행된 비상식량 지원, 필리핀에서 시행된 취약계층에 대한 저가 판매 등의 형태도 있다. 식량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개도국에서 학교급식은 가난한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며 단순한 식량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로 공공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인상한 경우도 있으며, 이집트가 취한 공공 부문 종사자의 임금 30% 인상은 곡물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또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도 같은 이유로 공공 부문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재정상의 제약으로 선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 조치는 공공 부문 종사자가 실업자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더 양호한 계층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세네갈이 정부 각료의 25%를 줄이고 엘살바도르의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감면한 조치는 주목을 받을 만하지만 어차피 사회안전망 관련 조치는 각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표 2-10> 사회안전망 관련 자구노력

		현금지원	식량지원	가처분소득증대
아시아 (5국)	중점협력 국가(3)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캄보디아	방글라데시,캄보디아
	일반협력 국가(2)	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6국)	중점협력 국가(3)	이집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일반협력 국가(3)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중남미 (5국)	중점협력 국가(2)		과테말라, 페루	
	일반협력 국가(3)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중 동 (3국)	중점협력 국가(1)		이라크	이라크
	일반협력 국가(2)	요르단, 예멘	요르단	요르단, 예멘
합 계 (20국)	중점협력 국가(9)	4	8	5
	일반협력 국가(11)	4	4	5

기준 및 자료: <표 2-9>와 같음

(3) 농업생산자 관련조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등이 추진한 생산자 지원조치는 농업자재보조와 같은 생산자 안전망 형태의 조치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여기에 농업금융 지원, 농기계나 비료 관련 조세 감면, 영세농의 생산물을 정부가 구매해 주는 조치 등이 추가되었다.

2008년 3월 중국 정부는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실제로 밀과 쌀의 수매가격을 인상하고 종자 등 농업자재 보조와 농업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대폭 늘렸다. 2008년도 중앙 정부의 농업예산은 전년대비 30%나 증가했으나 아직 식량부족문제 해결까지는 먼 길을 앞두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정부는 생산자재 보조, 정부 수매 등을 통해 쌀 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석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농업용 유류가격을 보조하고 현재도 농업용 전기료의 20%를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매년 0.6%씩 감소하는 농지에 대응하여 남은 농지의 생산성을 최소한 같은 속도로 늘려나가야 하는 만만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곡물 가격 폭등에서부터 촉발된 식량위기로 인하여 많은 협력대상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도국의 특성상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2-11> 농업생산자 지원관련 자구노력

		비 시장적 지원			시장개입 지원
		생산지원	생산자안전망	비료종자지원	금융·조세·구매
아시아 (10국)	중점협력국가(5)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필리핀	방글라데시
	일반협력국가(5)	중국, 미얀마	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 네팔
아프리카 (11국)	중점협력국가(5)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일반협력국가(6)	알제리, 가나,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케냐,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잠비아	알제리, 튀니지
중남미 (6국)	중점협력국가(1)	페루			
	일반협력국가(5)	도미니카(공), 자메이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온두라스
동구CIS (1국)	중점협력국가(0)				
	일반협력국가(1)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중 동 (2국)	중점협력국가(1)		이라크		
	일반협력국가(1)				예멘
합 계 (30국)	중점협력국가(12)	7	5	2	3
	일반협력국가(18)	10	7	5	8

기준 및 자료: <표 2-9>와 같음

3. 국제 사회의 식량위기해결 지원노력

가. 주요 국제기구의 지원노력

(1)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세계 식량안보위기 대응 고위급 태스크포스": High Level Task Force on the Global Food Security Crisis, 이하 HLTF〉

국제 사회는 곡물 가격급등을 계기로 식품가격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역할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에 이른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UN시스템 차원의 위기 대응을 위하여 2008년 4월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의장으로 하고, Jacques Diouf FAO 사무총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HLTF를 발족시키게 된다. 이 HLTF는 기본적으로 세계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가 통일된 대응을 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조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UN 전문기구, Bretton Woods기구, 관련 국제 기금 등의 수장과 UN 사무국 관련부서 책임자로 구성되었다.

UN차원의 세계 식량위기 대응을 위하여 가동되고 있는 이 HLTF의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세계 식량위기 대응방안과 관련한 UN사무총장 자문
-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장단기 전략과 종합행동 지침 토의
- 종합행동 지침 및 향후 대응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 조성

· 행동 지침 이행 및 조정

이상과 같은 HLTF의 기능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TF 밑에 "Task Force Coordinator"가 주관하는 "고위급 조정회의"를 별도로 두고 분석, 자문 등과 관련된 실무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표 2-12> "세계 식량안보위기 대응 고위급 Task Force" 구성 내역

· 의 장 : UN 사무총장
· 부의장 : FAO 사무총장
· 위 원 : 다음 기관의 장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UN 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OHRLLS)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UNEP)
-Office fo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orld Food Program (WFP)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orld Bank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DPA)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PKO)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Task Force Coordinator

자료: UN, The Secretary-General's High Level Task Force on the Global Food Security Crisis (http://www.un.org/issues/food/taskforce/index.shtml)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행동 지침: Comprehensive Framework for Action, 이하 CFA)[16]

HLTF는 곡물 가격급등 직후부터 이것이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달성에 충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즉 식량가격 상승은 개도국의 빈곤인구를 추가시키고 취약 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을 어렵게 하여 첫 번째 새천년 개발목표(UN/MDG1)인 "절대 빈곤과 기아퇴치"에[17]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UN/MDG1은 HLTF가 주도한 CFA작성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과, 새천년 개발목표의 기초 위에서 장기적으로 식량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었다. 이 CFA는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대응계획 마련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인바, 먼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기적인 행동 지침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비상 식량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와 사회안전망 개선: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식량지원, 가난한 사람들의 기초식량 우선보호, 학교급식 제도, 연금 등 사회보호정책 조정, 수출금지 대상에서 인도지원 물량 제외 등

② 영세소농의 식량생산 활동촉진: 지역 환경에 적합한 종자, 비료, 펌프, 동물 약품 등 핵심 자재를 영세소농들에게 공급함으로서 생산자안정망 구축, 농업생산기반 복구, 수확 후 손실 감축노력 등

③ 농산물 교역정책과 과세정책 조정: 현재 시행중인 교역 및 과세정책이 농가와 소비자 그리고 국제 곡물시장과 국제교역 확대에 미치는 영향 점검, 국내가격 안정용 비축재고 방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형화된 식량보조제도 개선, (수출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제한제도 특히 국제 시장이 혼란 상태에 있을 때 자국의 재고방출을 금지하는 행위 자제, (수입국의 경우) 관세부과 등 농산물과 농업자재에 대한 수입제한 행위를 감축하고 식품의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감축 등.

16) UN, "Secretary General's High Level Task Force on Global Food Security Crisis", 2009 (http://www.un.org/issues/food/taskforce/pdf/framework.pdf)

17) ① 세부목표 1: 1990-2015년간 1일 소득 1불미만 인구비율 반감,
② 세부목표 2: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 반감

④ 거시경제 정책 조정 및 관리: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고 확보, 부족한 식량수입을 위한 외부 원조 동원, 식량수입의 국제수지에 대한 영향평가, 식량위기에 대응한 재정조치 점검 등

CFA는 이상과 같은 단기처방에 이어 식량위기 근저에 깔려있는 원인을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접근을 제시한 또 다른 4개 항목의 행동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⑤ 사회보호 정책과 제도의 확충: 대상자 선정과 효과적인 집행이 정밀하게 관리되는 사회보호정책 입안 및 집행능력 보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호제도와 식량지원을 연계하여 조건부 사회보호정책으로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식품의 다양화 및 품질향상

⑥ 영세소농의 식량생산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행 중인 거시 또는 미시 정책들을 점검하여 영세소농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보완, 전기 · 도로 · 수리시설 등 농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농업투자를 촉진하면서 특히 농업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핵심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과 자재가 유통되는 경쟁력 있고 투명한 민영시장에 대한 농민들의 접근 가능성 확보, 농업 생산자단체 육성지원, 농업금융과 농작물보험 등 위험관리 제도에 대한 영세농가의 접근 강화.

⑦ 국제 농산물 시장여건 및 교역제도 개선: 농업보조와 시장접근제한 등 선진국들의 농산물시장 왜곡행위 자제,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교역규범을 제정하기 위하여 WTO/DDA협상을 조기에 타결, 개도국들이 농산물 교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교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시행, 저소득 개도국들의 수요를 더 많이 충족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시장의 능력배양, 비상시 개도국 국민들의 식량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 구축지원

⑧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세계 식량안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이오 에너지 가이드라인 개발, 바이오 에너지 개발목표와 보조금 및 관세 제도 그리고 민간 바이오 에너지 개발 촉진 정책 재검토,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2)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FAO의 식량농업문제에 대응한 기능과 활동〉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는 인류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충분하고 질 높은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소위 식량안보 달성 또는 기아해방을 최고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농업 생산성 증대, 영양상태 개선, 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그리고 세계 경제성장 기여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UN의 식량농업전문기구이다. 이 기구는 인류의 식량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분야의 핵심 기구이며, 특히 최근의 국제 곡물 가격급등 이전부터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정치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계 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이하 WFS)" 관련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FAO는 1996년 11월 로마에서 183개국 정상들이 모인 WFS을 개최하여 기아퇴치 의지와 결의를 다지고 세계 영양부족 인구 8억 명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소위 "WFS 로마 선언"과 "WFS 행동계획(PoA)"을 채택했으며 우리도 국무총리 등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WFS 로마 선언 Rome Declaration

·8억의 세계 영양부족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 설정
·식량안보의 다면적 성격 고려, 식량의 정치경제적 압력수단 사용금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농업생산 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 촉진

WFS 행동계획, Plan of Action

·빈곤퇴치를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조성
·농업의 다원적 성격을 고려한 농업·농촌개발 정책 추구와 투자확대
·식량접근개선, 긴급 상황대비,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정책 등을 추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FAO는 WFS 로마 선언에서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아인구가 매년 2,200만 명씩 감소되어야 하나, 실제는 매년 600만 명씩 밖에 줄지 않고 있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보다 45년이 더 걸린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영양부족 인구를 4억으로 줄인다는 당초 목표달성이 점점 어렵게 되

자 FAO는 2002년 6월에 WFS의 후속활동으로 "세계 식량정상회의: 5년 후(World Food Summit: Five Years Later)"라는 이름의 세계 정상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되며, 이 회의에서 그 동안 추진한 국제 사회의 기아극복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수석: 국무총리)도 참석한 이 후속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공동노력을 다시 확인하고 "세계 식량정상회의: 5년 후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그 후 FAO와 각국은 이 선언을 이행하던 중에 식량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선언문 요지〉

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기아극복을 위한 정치적 의지 강화
② 기아극복을 위한 국내외의 재원확대
③ 여성 문제, AIDS 문제, 동 · 식물 질병 문제에 적극 대처

FAO는 이런 활동 외에 농업기술과 정보교류, 회원국 간의 토론 촉진활동 등도 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국제 식량안보 상황개선을 위하여 직접 다양한 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국들의 정례회비와 기여금을 재원으로 현재 FAO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식량안보 특별사업(Special Program for Food Security, 이하 SPFS): 부족한 식량을 스스로 수입하여 충당할 능력이 없는 82개 국가들(Low Income Food-Deficit Countries, 이하 LIFDCs)의 만성적인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에 시작된 사업이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증산을 통한 식량안보상황 개선을 위하여 주로 농업용수 개발과 관리, 작물생산의 집약화와 다양화, 농업생산 제약요인의 분석과 해결대안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FAO 정규예산이 아닌 신탁기금형태의 외부기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공여국과 FAO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② TeleFood 사업: WFS 이듬해인 1997년부터 매년 "세계 식량의 날"을 전후하여 식량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의 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모금운동의 하나로 신문, 방송, 음악회, 스포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각국에서 모금된 재원은 TeleFood 특별 기금에 종합되어 주로 저소득 국가 농촌현장의 소규모 사업

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70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현재 650개의 Telefood Projects가 추진되고 있다.

③ 기술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 Program, 이하 TCP): 1976년에 시작된 TCP는 정규 예산으로 운용되는 FAO의 핵심 사업이며, FAO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지원을 기본 축으로 하여 식량증산, 농가소득 향상, 영양상태 개선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FAO는 TCP사업의 특징으로 현장상황에 신축적인 사업승인과 추진, 저비용으로 비정상적인 긴급 상황에 대비한 사업 등을 표방하고 있으며, LDCs와 LIFDCs의 영세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FAO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650개의 Telefood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2,050개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6,800만 달러에 달한다. 그 소요예산의 6%는 FAO의 정규예산에 의해 충당되고(주로 TCP) 나머지 94%는 Trust fund 방식으로 조달되는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다.[18)]

〈FAO 최근 식량위기 대응노력: Initiative on Soaring Food Prices, 이하 ISFP〉[19)]

FAO는 일찍이 2007년 7월에 국제 사회에 식량위기를 경고한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부터는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생산농가들의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ISFP를 추진하였다. ISFP는 대단히 단순하고 효과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식량위기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의 소규모 농가에게 종자, 비료, 사료 등 생산자재를 충분히 공급하여 이들의 농업생산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다. FAO는 현재 ISFP라는 이름으로 90개가 넘는 나라에서 생산자재와 기술보급 등을 통한 식량생산 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5월에는 EU의 획기적인 지원에 힘입어 11개국에서 소규모 농가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곧 또 25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제 곡물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을 막 지난 2008년 9월 당시 KOICA 협력대상국들을 위한 긴급 ISFP사업의 사례를 요약하면 〈표 2-13〉과 같다.

18) FAO, Database of FAO Projects (http://www.fao.org/tc/tcom/)

19) FAO, Initiative on Soaring Food Prices (http://www.fao.org/isfp/isfp-home/en/)

<표 2-13> 협력대상국들에 대한 ISFP 사업 사례

		사업내용	수혜자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밀 종자 125톤 공급	2,500 농가
	방글라데시	종자(쌀 11.3톤, 옥수수 2.3, 두류 7.5, 채소 4,5)와 요소비료 공급	14,000농가
	캄보디아	쌀 종자 56톤, 비료 140톤 공급	2,800 농가
	몽골	농기구, 감자와 채소종자 공급	
	네팔	밀 종자 127톤, 채소종자 6.8톤 공급	
	파키스탄	밀 종자 250톤과 비료 공급	
	스리랑카	쌀 종자 615톤 공급	
	동 티모르	곡물저장고 건설인력 훈련, 옥수수종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쌀 종자 45톤과 복합비료 공급	3,600 농가
	DR콩고	쌀 종자 150톤, 비료, 농기구 공급	10,000농가
	세네갈	채소 종자166톤, 수수 종자 20톤, 쌀과 조 종자 및 비료 공급	
동구CIS	키르기스스탄	겨울 밀 종자 25톤 공급	
중동	예멘	옥수수와 수수 종자 100톤, 밀 종자 460톤공급	

자료: UN, “The Secretary-General’s High-Level Task Force on the Global Food Security Crisis”, 2009 (www.un.org/issues/food/taskforce/FACT_SHEET.pdf)

이와 같이 소규모 농가들에게 농업 생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 외에 ISFP의 또 다른 활동은 개도국들의 농산물 가격, 식량안보 상황, 국제가격급등으로 인한 충격 등 관련 상황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FAO는 개도국의 식량위기 대응전략과 정책수립, 지원단의 일원으로 당해 개도국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재정지원 주체, NGO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이 이루어진 26개국 중에는 다음과 같은 협력대상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 FAO가 식량위기 대응전략수립 지원단에 참여한 협력대상국(13):
(아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중남미) 볼리비아.

여기에서 다루어진 정책대안과 사업들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관련 정책분석 및 자문과 기술지원
· 비료, 종자, 농기구 등 생산자재에 대한 접근가능성 증대
· 수리시설, 보관시설 등 농촌과 농업의 생산관련 인프라 확충
· 농산물 생산제도, 수확 후 손실, 유통제도 개선 및 재해위험 관리 등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ISFP 사업예산은 총 3억 8,5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FAO 자체예산(3,700만 달러), EU(2억 8,300만 달러)와 회원국가의 지원, 그리고 미국, IFAD, 세계은행 등의 기여로 충당하고 있다. 물론 ISFP는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FAO가 추진한 노력의 전부가 아니다. FAO는 ISFP외에 전술한 UN/HLTF출범과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CFA작성과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기구의 성질상 FAO사업 대부분이 식량위기 대응과 무관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3)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 WFP)

〈WFP의 식량문제에 대응한 기능과 활동〉

WFP는 1961년 UN 총회와 FAO의 결의에 의해 창설된 UN산하 식량원조 전문기구로서 연간(2008년 기준) 78개국 1억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식량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현재 WFP는 2008~2011년 기간 중의 전략사업 목표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내걸고 있다.

· 긴급 상황에 있는 주민의 인명과 기초생활 보호
· 미래 긴급사태에서 발생 가능한 식량부족에 사전대비
· 긴급사태 종료 후의 주민 생활 복구
·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부족인구 감축
· 개도국의 기아 대응능력 강화

그런데 WFP의 식량 원조사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20)]

20) WFP, Operations (http://www.wfp.org/operations)

① 긴급식량원조(Emergency Operations 이하 EMOPs): 일단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WFP는 "UN 비상사태 평가팀(UN Emergency Assessment Teams)"과의 협의를 거쳐 당장 필요한 식량규모와 전달방법을 결정한다. 이 결정을 기초로 WFP의 해당 국가 책임자가 긴급대응 구좌에서 최고 50만 달러까지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행된 EMOPs는 통상 3~12개월 동안 지속되며 현지 사정상 불가피하게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WFP는 구호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연장원조를 검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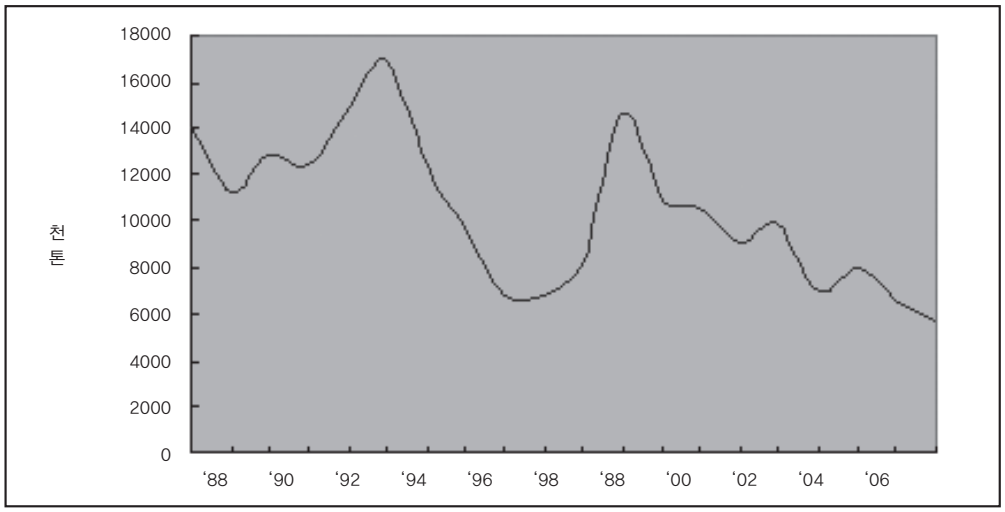
② 구호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연장원조(Protracted Relief and Rehabilitation Operations: 이하 PRROs): 내전이나 대규모 가뭄, 홍수 등은 농업생산과 삶의 기반을 파괴하게 되고 다시 정상적인 영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PRROs는 EMOPs만으로는 상황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검토되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식량안보 상황을 안정시키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 취로사업, 복귀 이재민 지원, 극빈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개발원조(Development Operations 이하 DEVs): DEVs는 하루 벌어 그 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해 무능과 가난의 악순환을 벗어나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가난한 주민들이 먹는 문제해결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잠시 해방되어 미래의 생산성과 건강을 위한 농업기술 훈련, 주택구조 개선, 학교와 병원방문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WFP가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④ 특별사업(Special Operations: SOs): 원조되는 식량이 필요한 시기와 위치에 원활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통 · 통신 인프라가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개도국 특히 오지인 경우에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시설이 부족하고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FP는 직접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등을 복구하고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SOs를 추진하고 있다. SOs는 성질상 단기적이고 보완적 성격의 사업이며 재원조달을 위한 모금은 EMOPs나 PRROs와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국제 사회모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있는 WFP의 식량원조규모는 〈그림 2-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작금의 식량위기에 대한 WFP의 대응능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2-9> WFP의 연도별 식량원조 실적



자료: WFP, Food Aid Information System (http://www.wfp.org/fais/quantity-reporting/)

〈WFP의 최근의 식량위기 대응노력〉

WFP는 UN의 HLTF 구성원으로서 가격급등에 따른 개도국의 식량위기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긴급지원과 중장기대책 등 단계적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WFP는 "국제가격급등으로 인한 기아(Price-Related Hunger)"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식량취약 계층을 위해서 2008년 하반기에만 30개국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긴급원조, 취약계층 지원, 학교급식 확대, 모자보건과 영양증진, 영세농가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곡물 가격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8월에는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16개국을 대상으로 2억 1,400만 달러 규모의 긴급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지원 대상에는 8개의 KOICA 협력대상국이 포함되기도 했다.(아프가니스탄, 네팔,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팔레스타인, 예멘)[21]

21)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Task Force on the Global Food Security Crisis", 2009 (http://www.un.org/issues/food/taskforce/FACT_SHEET.pdf/)

1억 200만 명에 이르는 2008년 WFP원조 수혜자가 2009년에는 1억 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원조재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표 2-14〉와 같이 곡물 가격급등과 다른 재난이 겹쳐 상황이 절박한 협력대상국들의 지원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의 원조수요에 비해 재고가 턱없이 부족하여 필요량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보다 많은 원조수요 충족을 위해 WFP는 국제 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표 2-14> 2009년도 WFP 사업계획

사업형태	개도국 요구	기존 재고	부족(추가모금)
EMOPs	1,615	235	1,380
PRROs	3,702	449	3,253
SOs	-	-	-
DEVs	648	117	531
합 계	5,965	801	5,164

자료: WFP, Overview of Operation 2009

(4)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IFAD는 개도국의 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는 UN전문기구로 1970년대 초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개최된 세계 식량회의(WFC, 1974년) 결의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개도국의 가난한 농민들이 더 높은 소득을 실현하고 식량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빈곤과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며, 많은 개도국에서는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최대 투자주체이기도 하다.

한편 IFAD는 개도국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농업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리 등 차관조건은 해당 개도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또 농업농촌개발 사업과 연계된 무상원조도 제공하지만 이는 전체 사업예산의 10%이내로 제한된다. 세계 각국에서 현재 200여개의 IFA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투자액은 32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50%가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해 지원된 차관이나 원조는 106억 달러에 이르며 사업을 같이한 파트너 기관의 지원까지 합하면 270억 달러에 달한다. 그 동안 IFAD가 비중을 두고 추진한 9개 중점지원 분야는 농업개발, 농업금융, 농촌생활 기반, 축산, 수산, 농가 능력개발, 농산물 저장 · 가공 · 유통, 연구개발과 지도, 농촌지역의 중소기업 진흥 등이다.

〈IFAD의 최근 식량위기 대응노력〉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IFAD는 국제 사회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UN의 HLTF 결성과 CFA작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현재는 HLTF 사무국의 로마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식량위기에 시달리는 개도국 빈농들의 농업생산 증진을 위하여 2억 달러 규모의 기금 활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돈은 농민들이 다음 농사철에 맞추어 적기에 영농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료, 종자 등 생산자재를 공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였다.

<표 2-15> IFAD의 식량위기 대응사업 사례

캄보디아	7개 주에서 현재 추진 중인 3,500만 달러 규모의 식량위기 지원사업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400만 달러 추가지원)
필리핀	쌀 생산과 관련하여 자재, 가공, 유통, 수리조합 등을 지원하는방안 검토 중(IFAD 1,600만 달러). ADB, FAO, WFP와 공조 방안 모색
가나	곡물증산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시범사업 형태로 소규모사업 승인(20만 달러), 국내 파트너의 공동사업 약속(200만 달러규모)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추진 중인 쌀 증산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종자, 비료등 자재공급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1,400만 달러).
DR콩고	대 농민 기술지도, 종자 등 자재공급, 농산물 출하를 위한 도로복구 사업 등을 추진 중
케냐	케냐정부, 현지은행, 아프리카 녹색혁명과 연대하여 영세소농을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사업 검토 중
니카라과	영세소농을 대상으로 한 자재공급과 기술지원을 위해 120만 달러 지원. 그 외에 종자생산을 위한 차관을 별도로 검토
온두라스	영세소농을 대상으로 한 자재공급과 기술지원을 위해 230만 달러 지원
예맨	종자와 비료공급에 중점을 둔 기존 농촌개발 사업 외에 150만달러 규모의 새로운 사업 검토 중

자료: <표 2-13>과 같음

IFAD사업의 성질상 이 지원은 다른 국제기관들이 추진하는 긴급지원 또는 식량원조와는 다르지만 상황이 어려운 개도국에서 다른 지원과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의 지원이다. 2008년 9월 현재 IFAD가 KOICA 협력대상국 들과 함께 검토 중인 사업의 사례로는 〈표 2-15〉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처럼 가난한 개도국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식량상황 개선지원을 임무로 하는 IFAD는 2008년 기금조성 회의에서 12억 달러의 기금조성에 합의하였다. 이는 2010~2012 기간 중에 IFAD사업의 획기적인 확대를 의미하며 그만큼 식량위기 대응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2)]

22) IFAD, “Rising Food Prices”, 2009. 7 (http://www.ifad.org/operations/food/response.htm)

(5)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은 개도국들에게 재정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개발금융의 핵심기구이며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라는 이름의 개발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3] IBRD는 중위소득 수준의 가난한 나라를 지원 파트너로 하는 반면 IDA는 최빈개도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와 같은 개도국들의 식량농업,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위해 저리차관, 무이자 차관 또는 무상원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최근 식량위기 대응노력:Global Food Crisis Response Program, 이하 GFRP〉

식량위기의 심각성과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계은행은 2008년 5월에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방안(GFRP)"을 수립하였다. 그 후 UN/HLTF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CFA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식량위기의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을 긴급 구조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GFRP는 20억 달러로 규모가 증액되었으며, 개도국의 어린이, 임산부,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과 영양공급 등에 활용되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GFRP예산 중 752백만 달러가 31개국에 집행되었으며, GFRP 이름으로 추진 중인 협력대상국들의 사업 규모는 〈표 2-16〉과 같다.

<표 2-16> 협력대상국 별 세계은행의 GFRP 사업 규모

(단위: 백만달러)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8, 방글라데시 130, 라오스 3, 네팔 36, 필리핀 200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275, 케냐 50, 마다가스카르10, 수단 5
중남미	온두라스 10, 니카라과 7
동구CIS	키르기스스탄 10
중 동	예멘 10

자료: World Bank, Food Crisis

23) World Bank, "about us"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EXTABOUT/0,,pagePK:50004410~piPK:36602~theSitePK:29708,00.html)

세계은행은 GFRP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을 새로 창설하고 2009년 4월 현재 1억 8,900만 달러의 외부기금을 동원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금은 16개국의 무상원조에 사용될 예정이며 기부주체와 사업대상에 포함된 협력대상국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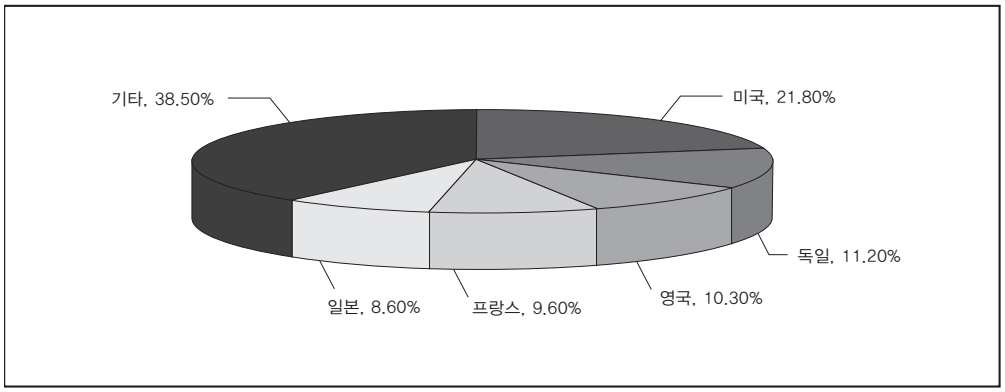
· 호주(5,000만 호주 달러): 캄보디아, 베트남, 세네갈, 짐바브웨
· EC(1억 1,100만 유로): 라오스, 에티오피아, 케냐, 온두라스, 키르기스스탄, 예멘
· 러시아(1,500만 달러): 키르기스스탄

세계은행은 식량위기 대응을 위하여 농업부문 차관을 2008년의 4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까지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차관은 450억에서 800억으로, 중남미는 250억에서 400억으로 증액되며, 아시아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지원도 추가된다.

나. 주요 국가들의 지원노력

지금까지 식량위기로 인해 협력대상국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국제기구들의 지원노력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제 다른 ODA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차례다. 국제원조는 DAC 회원국 전체 ODA의 61.5%를 상위 5개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는 분야이며, 이들 5개국은 오랫동안 국제 원조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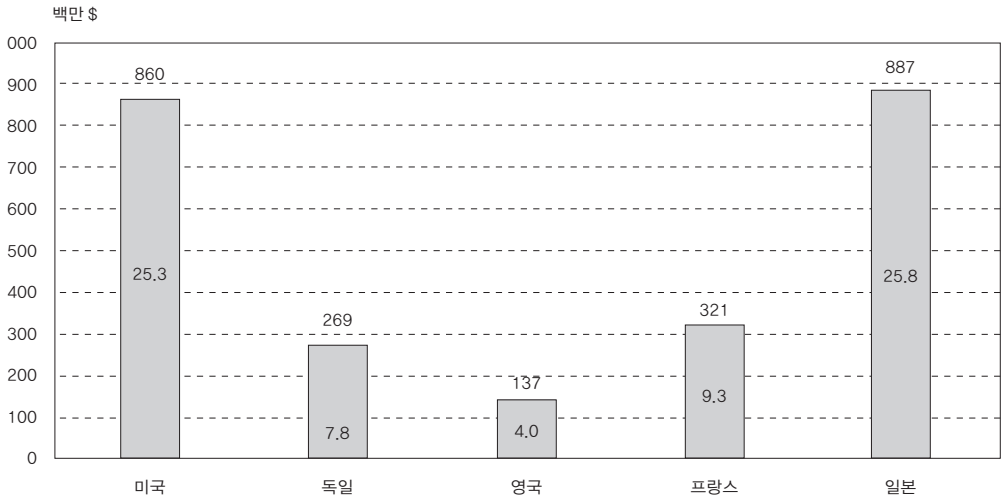
<그림 2-10> 주요국의 대외원조 규모



기준: 최근 3년간(2006~2008)의 ODA 실적 평균
자료: OECD, Development Database on Aid from DAC Members: DAC online
(http://www.oecd.org/document/33/0,2340,en_2649_34447_36661793_1_1_1_1,00.html#dac)

"농림수산업 생산"분야에 대한 ODA 실적을 보면 〈그림 2-11〉과 같이 상기 5개국의 활동비중이 72.2%에 이르며, 일본과 미국이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본 항에서는 최대 ODA 공여국가인 미국, 농림수산 분야의 ODA 활동이 활발한 일본, 그리고 유럽지역의 영국, 이렇게 3개국의 식량위기 대응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1> 주요국의 농수산업분야 ODA 활동(2005~2007년 평균)



주 1) 막대안의 숫자는 DAC 전체 대비 비율을 나타냄
자료: <그림 2-10>과 같음

(1) 미국

〈미국의 식량농업분야 원조제도〉

2009년 3월에 발표된 OECD 잠정 집계[24]에 의하면 미국은 2008년도에 260억 달러의 ODA를 공여함으로서 OECD DAC 회원국 원조 총액의 21.7%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가이다. 그러나 이는 세계 ODA 총액의 40%를 분담했던 1960년대 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수준이며, 미국의 ODA/GNI 비율은 0.18%에 그쳐 DAC 회원국 평균 0.3%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ODA 정책은 과거 공산주의 진영에 대응하고 있던 냉전시대에 그 기조가 형성된

24) OECD,「Development Aid at its highest level ever in 2008」, 2009.3.
(http://www.oecd.org/document/35/0,3343,en_2649_34447_42458595_1_1_1_1,00.html)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줌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시장경제를 번창하게 하여 결국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킨다는 국익추구 차원에서 ODA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9/11사건 이후 국가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ODA 정책도 국가 안보전략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추세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 ODA 정책은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원조업무를 수행하는 다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조정하는 국무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ODA의 대표적인 형태로 식량원조를 들 수 있으며 식량농업분야의 원조는 국제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USAID)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 두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식량원조는 오랜 역사가 집적된 결과답게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되는데 현재는 〈표 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480 Title Ⅰ, Title Ⅱ, Title Ⅲ, Food for Progress, Section 416(b) 등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최근 식량위기 대응노력〉

세계 식량원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은 식량위기를 맞아 개도국들의 기아문제 해소를 위해 2008~2009 기간 중 5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그 중 47억 달러가 다음과 같은 USAID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5)]

① 즉각적인 인도지원 사업: 2008년도에 26개 개도국에 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식량원조를 제공했으며 그 중 16개국이 KOICA 협력대상국이다. (스리랑카, 네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잠비아, DR콩고, 탄자니아, 짐바브웨, 카메룬, 콜롬비아, 에콰도르, 예멘)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원조 프로그램은 PL480 Title II에 의한 긴급지원이었지만 에티오피아와 네팔 등의 경우처럼 미국산 농산물을 미국 배로 수송하던 종래의 관행대신 현지에서 식량을 구매하여 제공함으로서 수원국가의 농업증산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수송비를 절감한 경우도 있다.

25) USAID, “USAID’s response to the Food Crisis”, Agriculture, 2009 (http://www.usaid.gov/our_work/agriculture/food_security.htm)

<표 2-17>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

관련규정	프로그램 (주관기관)	내용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1954 또는 Public Law 480 “Food for Peace Program” 개념규정	PL480 I : 무역과 개발 원조(USDA)	-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이 1차적인 목적 - 정부간의 지원이며 잉여차관형식으로 제공 (낮은 이율, 최고 5년 거치 30년 상환) - 차관형식이므로 수혜대상은 특정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상업적 채널을 통하여 판매가능
	PL480 II : 긴급 및 민간 원조(USAID)	- NGO, WFP 등을 통하여 개도국의 개발을 무상 지원하는 개발지원과 -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의 구호를 목적으로 농산물을 무상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있으며 - 수혜국은 다른 개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물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PL480 III: 개발식량 원조 (USAID)	- 최빈국 정부에 무상으로 식량을 제공하면 수원국은 이를 국내시장에서 판매하여 경제 개발추진 재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 기본적으로 정부 간 협약에 의한 원조며 최근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Food Security Act, 1985년	Food for Progress (USDA)	- 개발도상국 또는 민주화 추진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지원하는 형태는 무상지원과 신용판매가 모두 가능하다. - 소요물자조달은 PL480 1 기금, Section 416 (b) 재고 등을 활용
Agricultural Act, 1949년	Section 416 (b) (USDA)	- 가격지지를 위해 상품신용공사(CCC)가 매입한 농산물의 잉여재고를 개도국 지원 사업에 제공 하는 프로그램 - 원조수준은 매년 의회에서 규모가 결정되는 ‘평화를 위한 식량’프로그램과 달리 CCC의 재고 변화에 따라 매년 규모가 유동적

자료: ① 김영훈,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9
② 권율 외, 「국제 사회의 언타이드 원조동향과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언타이드화 방안」, 외교통상부 연구용역보고서, 2007.12,

② 식량상황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식량증산 투자지원 사업: 2009년에는 우선 가나, 나이지리라, 세네갈 등 5개 서아프리카 개도국의 주식용 식량작물(옥수수, 밀, 카사바, 수수) 증산과 유통에 1억 3,000만 달러의 투자를 지원하였다.

③ 교역자유화를 통한 가격 불안요인 감축지원 사업: 정부가 국내시장의 불안 요인을 줄일 목적으로 시행한 조치가 식량교역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들을 감축하여 시장개방 폭을 확대하도록 하는 농업통상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④ 선진농업기술 보급사업: 2008년도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주요 식량작물 관련 선진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백만 달러를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이하 CGIAR)에 지원하였다.

이상의 예산지원 외에 글로벌 식량위기로 인하여 늘어난 식량원조 수요에 미국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는 7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대통령 식량안보 대응사업(President's Food Security Response Initiative: 이하 PFSRI)"을 별도로 승인하였다. 이 PFSRI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4억 달러 규모의 P.L. 480 Title II 긴급 식량지원을 제공하였고(협력대상국: DR콩고,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짐바브웨 등), 이와 별도로 NGO와 WFP를 통하여 예기치 못한 원조수요가 발생한 네팔,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케냐, 짐바브웨, 키르기스스탄 등에 별도의 식량원조를 제공하였다.

미국은 "PFSRI" 사업을 통하여 개도국이 식량위기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인도적 조치와 함께 취약계층의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며 KOICA 협력대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에티오피아: USAID의 현지 파트너인 "Mercy Corps" 및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식량작물의 수확 후 손실방지, 농가소득원 다양화, 종자개량 등을 통해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2,000만 달러가 집행되었으며 수혜자가 80만 명을 넘는 사업이다. 또 이 사업과 별도로 100만 달러를 "국제의료단체(International Medical Corps)"에 지원하여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영양증진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케냐: 동부와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66만 명에 달하는 영세 농민들의 농업생산성 증대와 생존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하여 1,5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세네갈: NGO(Catholic Relief Services: CRS)가 세네갈의 Casamance 지역에서 추진 중인 빈농의 영양개선과 농업생산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FAO, WFP, UNICEP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영양 및 식량안보 상황 모니터링 능력강화 프로젝트 등에 62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짐바브웨: 미국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NGO(World vision과 Action Contre la Faim)와 FAO의 농업과 식량안보 개선사업에 42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들의 세부 활동을 보면 농업자재와 기술보급, 농촌소득원 개발, 가축질병검사와 예방, 한발지역의 수자원 보전 등이다.

이상과 같이 "PFSRI"의 2009년도 원조사업대상에 포함되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KOICA 협력대상국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표 2-18〉과 같다.

<표 2-18> 2009년 미국 PFSRI 사업에 포함된 협력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수혜국가	사업내용	사업수행 파트너	예 산
아프가니스탄, DR콩고, 케냐,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수단	PL 480 Title II 긴급식량지원	WFP	395
네팔	현지식량을 구매하여 지원	WFP	5
파키스탄	현지식량을 구매하여 지원	WFP	395
에티오피아	-현지식량을 구매하여 지원 -농업과 식량안보 시장제도 -농업과 식량안보 시장제도 -영양개선	WFP NGO/Food for Hungry NGO/Mercy Corps NGO/IMC	10.0 3.7 16.9 1.0
케냐	-현지식량을 구매하여 지원 -농업과 식량안보	WFP NGO/Food for Hungry	0.3 15.0
세네갈	-농업과 식량안보 영양 -농업과 식량안보 -농업과 식량안보 영양 -농업과 식량안보	NGO/CRS FAO UNICEF WFP	2.7 0.6 0.7 1.2
짐바브웨	-현지식량을 구매하여 지원 -농업과 식량안보 -농업과 식량안보 -농업과 식량안보 물과 위생	NGO/Mercy Corps NGO/ACF FAO NGO/World Vision	2.5 0.5 2.4 1.2
키르기스스탄	-현지식량을 구매하여 지원	NGO/Mercy Corps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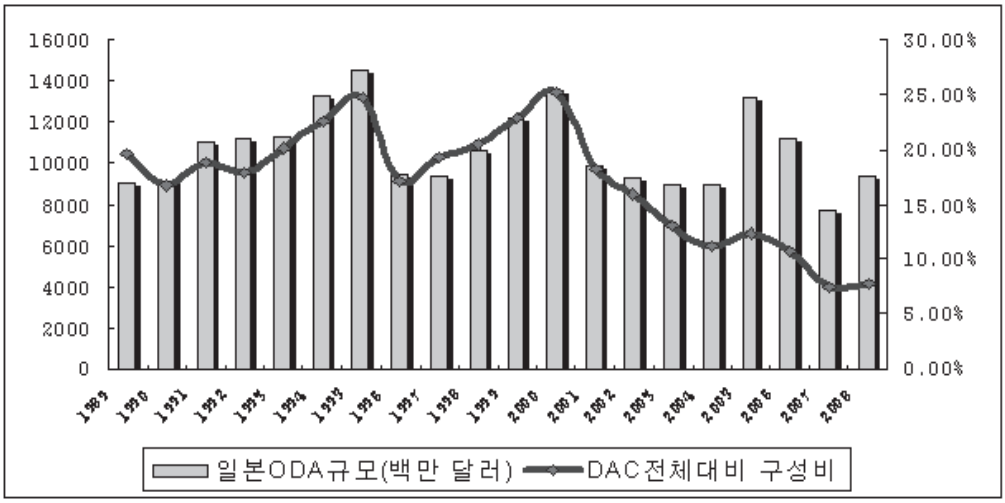
자료 : USAID, 「Global Food Insecurity and Price Increase」, 2009.5

(2) 일본

〈일본의 식량농업분야 원조제도〉

한 때는 일본 ODA 규모가 DAC회원국 전체 ODA의 1/4을 점하면서 일본이 세계 최대의 ODA 공여국가가 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에 최고 수준인 145억 달러를 정점으로 그 후 국내 경기침체와 대외 원조에 대한 비판여론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ODA 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2000년 이후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ODA가 증가하게 되자 일본의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일본의 ODA 기여율이 7.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5위). 이에 따라 ODA/GNI 비율도 0.18%까지 떨어져 이제 DAC 회원국 평균 0.3%보다도 낮은 수준이 되었다.

<그림 2-12> 일본의 연도별 ODA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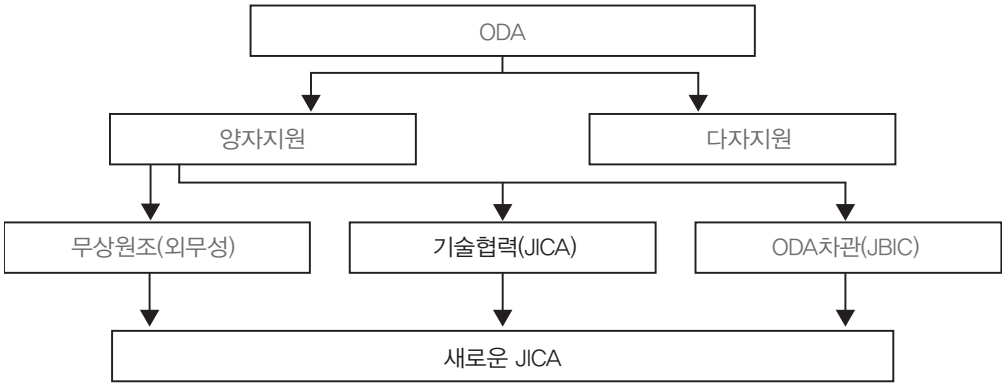


자료: <그림 2-10>과 같음

일본 ODA 정책은 외무성이 총괄하고 있으며 집행기능은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와 일본 국제개발은행(Japanese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2008년 10월부터 JICA를 중심으로 일원화 되었다. 이와 같은 기관 통폐합 과정을 통하여 종전에 대 개도국 기술협력 업무를 추진하던 JICA는 이제 무상원조 업무와 ODA 차관업무까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세계 최대의 양자 ODA 전담기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일본의 ODA 정책구조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ODA 헌장”에 철학과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 그 밑에 3~5년 동안 ODA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ODA 중기정책”이 있다. 그 아래에 “국가별 지원정책”이 있는데 이것은 수원국가에 대한 원조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그 외에 각 부문 별로 별도의 정책 가이드라인(Sector Specific Initiatives)이 있다. [26)]

<그림 2-13> 일본의 ODA 운용기관 일원화



자료: JICA, Facts and Figures

식량농업분야 원조와 관련하여 일본 “ODA 헌장”은 “ODA 목적과 정책 우선순위” 항목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농업 진흥과 식량문제 같은 글로벌 이슈를 우선 지원 분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필요시 긴급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생산기반 개선, 농업기술 보급,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이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ODA 공여국가로 남아 있는 것도 이 헌장의 규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근 식량위기 대응노력〉

일본은 오래 전부터 식량부족 개도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농업생산성 증대 노력을 지원해 왔으며, 2007년에는 160억 엔 상당의 식량원조를 제공하였다. 그 중 73억 엔은 양자 원조 형식으로, 87억 엔은 WFP와 UN의 팔레스타인 난

26) 김은미 외, 「개발협력 집행체계 개선방안 및 유엔기구와의 다자개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ODA 연구용역 보고서, 2007.

민 구호기구를 통하여 동티모르, 수단, 팔레스타인 등에 지원되었다. 식량증산 지원사업은 수리시설 보강과 농업기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아시아 몬순지역에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리조합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일본지원으로 수리조합이 결성되어 효율적인 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에티오피아와 몽골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에 시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과도한 방목으로 사막화 위기에 처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물 관리, 작물경작, 가축 사육 등을 위한 기술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로 "NERICA: New Rice for Africa"라는 이름의 새로운 쌀 품종 개발보급 사업이 있다. NERICA는 아프리카 지역에 맞게 개발되어 가뭄과 질병 그리고 병해충에 강하며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도 많은 품종이다. 이 사업은 "West Africa Rice Development Association: WARDA"이 추진하는 신품종 개발보급 사업을 일본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NERICA를 UNDP와 FAO 사업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확산하는 노력도 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18개국에 보급되고 있다.

2008년 곡물 가격급등에 따라 식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의 상황이 심각해져 긴급지원 필요성이 높아지자 2008년 4월에 일본은 1억 달러의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각종 국제회의를 통하여 국제 사회의 지원동참을 주도하였다. 일본이 주관한 2008 아프리카 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에서는 10년 내에 아프리카 쌀 생산의 배가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계시설 개선, 신품종 종자육성, 농업기술 협력 등을 약속하였다. 그 후에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간 국제 사회 기여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1억 달러 긴급 식량원조 외에 가난한 농가의 식량증산 지원, 기아선상의 극빈가구 구호, 식량작물의 긴급 파종 등을 위해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제 곡물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자 일본은 30만 톤의 수입쌀 방출의사를 표시하면서 다른 나라의 비축곡물 방출과 수출금지조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해 일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은 5,000만 달러의 추가 식량원

조 계획을 또 발표하는 등 2008년 1~7월에 일본 정부가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11억 달러에 달한다.

<표 2-19> 일본이 발표한 식량위기 지원약속

(단위: 백만 달러)

긴급식량원조(2008년)		253.1
농업지원	소 계	841.3
	무상원조와 아프리카 기술협력(향후 5년간)	230.0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차관지원(향후 5년간)	480.0
	가난한 농가 지원(2008년)	60.0
	기타(2008년, 국제기구 지원 등)	71.3

자료: 일본 외무성, 「Japan's ODA White Paper 2008,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2009.2.(http://www.mofa.go.jp/policy/oda/white/2008/part2.pdf)

(3) 영국

〈영국의 개도국원조 제도〉

영국은 오랫동안 식민지를 운용한 역사를 배경으로 많은 개도국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구촌의 빈곤퇴치를 국가적 차원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흔치 않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국은 1997년에 ODA업무 전담부처로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를 설립하고, 2002년에는 국제개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이하 IDA)을 제정하였다.

영국 ODA의 법률적 ·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는 IDA는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DFID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법률적 기반인 "공공 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이하 PSA)"은 DFID가 ODA를 추진하는 과정의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IDA는 정부가 ODA와 영국산 상품을 연계시키는 소위 구속성 원조(Tied Aid)를 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 이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영국의 ODA 수원국은 그와 같은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DFID는 64개의 해외사무소와 2,6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ODA 공여국가들과 달리 개발협력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면서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2007/08 연도에 106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영국은 이 예산을 매년 11%씩 증액하여 2010/11년에는 158억 달러까지, 2013년에는 GNI의 0.7% 수준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27] 2007/08년 ODA예산의 37%는 EU,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집행되었으며, 9%는 수원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빈곤퇴치 사업에 지원하였다.

〈영국의 최근 식량위기 대응노력〉

곡물 가격급등으로 시작된 글로벌 식량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Global Partnership for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GPAFS"라는 이름의 국제 사회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영국이 제시한 4가지 비전:
  ① 아프리카의 농업생산성 배증
  ② 아시아의 농업성장률 배증
  ③ 국제 농업연구 투자 배증
  ④ 사회보호조치 확대를 통하여 장기적인 식량원조 탈출 인구 배증

<표 2-20> 영국이 발표한 식량위기 지원약속

발표시기	사업내용	약속금액
2008.04	WFP를 통한 긴급식량지원(2008년)	60
	개도국관련 농업연구(향후 5년간)	800
	에티오피아, 빈민의 소득증대사업(2008년)	50
	소 계	910
2008.07	짐바브웨, WFP를 통한 긴급식량지원(2008년)	18
2008.09	아프가니스탄, 마약재배농가의 작목전환(2008년)	4
2008.11	DR콩고, WFP를 통한 긴급식량지원 (2008년)	4

자료: UK DFID, "UK announces aid package to tackle rising global food prices", 2008

27) UK DFID, (http://www.dfid.gov.uk/About-DFID/Quick-guide-to-DFID/)

2008년에 식량상황이 심각해지자 DFID는 진행 중인 긴급 식량원조(수단과 DR콩고: 1억 4,000만 달러)와 농업지원 사업(아프리카: 10억 달러)외에 9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단위: 백만 달러)

또한 2009년 3월에는 UN HLTF가 식량문제와 관련한 Global Partnership 구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17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 Partnership을 통해 개도국의 가난한 농민들의 재활을 돕고, 식량공급의 잠재적인 장애요인인 바이오 연료, 기후변화, 교역제한 등에 대한 연구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DFID는 금년 말쯤에 지구촌의 가난해소를 위해 영국이 향후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다. NGO들의 지원노력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기구와 주요국 정부의 활동에 이어 이제 NGO들의 활동을 살펴볼 차례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NGO들이 식량문제 해소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이 항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기대하며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공식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 활동 중인 NGO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CARE[28)]

CARE는 2차 세계대전 생존자 구호를 주목적으로 1945년에 창립된 단체이며, 현재는 세계 빈곤문제와 싸우는 가장 규모가 큰 인도지원 단체 중 하나로 60개가 넘는 나라에서 재난구조 및 복구활동 등을 하고 있다. 한편 농업분야에서는 농촌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각국의 농민들과 함께 신품종 보급, 수리시설 개선, 축산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작물과 축산물 증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CARE는 2008년 5월 국제 곡물 가격 폭등으로 기아인구가 증가하고 많은 개도국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 사회에 다음과 같은 6개 항의 긴급조치를 제안해 놓고 있다.

① 우선 취로사업 등을 조건으로 식량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단기 구호조치를 시행하여 가격폭등으로 인해서 식량접근이 차단되거나 기아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의 긴급수요에 대응

28) CARE, (http://www.care.org/about/index.asp)

② 중장기조치로서, 경제사회발전의 일반적인 수혜대상으로부터 비켜나 있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투자증대

③ 소규모 빈농들의 생산성 증대와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정책적 요인을 검토하여 제거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증대(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④ 각국 정부는 그간 이루어진 바이오 에너지 확대정책 약속과 국제 곡물 가격급등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이상의 신규 정책 약속은 자제

⑤ 기후변화는 이미 언급한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긴급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 공유

⑥ UN 시스템 내의 기아에 대응한 국제원조와 NGO들 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협조체제 구축

(2) Welthungerhilfe[29]

Welthungerhilfe는 1962년 독일에서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19억 유로(Euro)의 예산을 사용하며 70개국에서 5,5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 단체는 이번 식량위기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국제 사회에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계획실천을 요구해 놓고 있다.

① 식량원조는 농촌기반 시설이나 농업생산성 증진 등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지역농업을 저해하지 않는 현지 구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과거에 비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많은 지원이 농업과 농촌개발 분야에 제공되어야 한다.

③ 곡물 가격급등은 개도국의 식량작물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

29) Welthungerhilfe, (http://www.welthungerhilfe.de/about-us.html)

기를 불어 넣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④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둠으로서 세계적인 생산성 향상과 증산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식량재고를 늘려야 한다.

⑤ 건강한 사람만이 기아극복 노력을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보건에 대한 투자(특히 여성)는 기아극복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⑥ 개도국의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수입제한 조치와 수출보조 철폐가 중요하며, 개도국의 경우 일시적인 농업보호 조치가 허용되어야 한다.

⑦ 자연재해나 사회적 갈등사태로 인한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장치 또는 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⑧ 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 활동은 중지되거나 재고되어야 한다.

⑨ 선진국 소비자들은 높은 식량가격에 맞도록 소비활동을 조정하여야 한다.

⑩ 정부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한 개도국의 농촌사회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노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NGO들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3) Oxfam[30)]

Oxfam이라는 이름은 1942년에 영국에서 창립된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를 기초로 1995년에 빈곤문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3개국 단체가 연합한 형태의 Oxfam International이 설립되어 운용 중이다. 식량문제에 대한 이 단체의 일반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구상에는 인류가 먹고 살만한 충분한 식량이 있으나, 식량이 바이오 에너지 용도 등과 경합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기아가 확산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30) Oxfam, (http://www.oxfam.org/en/about)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20여년 간 투자측면에서 농업은 홀대받아 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토지소유는 집중화되고 시장여건은 영세농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또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식량생산 현장에서는 여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급등을 계기로 이제 농업이 다시 관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이때가 농업과 농촌여성의 생활여건에 대한 투자를 늘릴 적기이다.

〈선진국 정부는〉

- 가난한 나라들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곡물 가격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 현재 식량수요와 경합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개발관련 정책목표를 재검토해야 하며(이 단체는 바이오 에너지개발이 식량이나 환경 양 측면 모두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
- 자국에서 생산된 식량을 현물로 원조하는 방식보다는 수원국 정부가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원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개도국 정부는〉

- 영세소농들이 높은 곡물 가격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농업과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 이런 때일수록 공평하지 않은 협약에 서명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ActionAid[31)]

ActionAid는 1972년에 설립되어 오늘날 42개국 1,300만 빈민을 돕고 있는 단체로 성장한 세계적인 빈곤추방운동 단체며, 식량접근권(Right to Food), 교육, 에이즈 퇴치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가 내세우고 있는 "식량접근권"이란 모든 인류는 배고프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갖는다는 개념이며, 이와 관련한 추진전략으로 5개년 계획(2006~2010)을 수립하고 각국 정부가 2015년까지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약속을

31) ActionAid, (http://www.actionaid.org/main)

지키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ActionAid의 5개년 계획은 세계 식량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명한 상황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5년까지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MDG목표 달성은 120년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개도국 내 취약계층의 식량접근권이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거부당하면서 세계 기아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농업생산의 효율성 추구결과 전통적으로 지역 공동재산이었던 토지, 수자원, 종자 등이 사유화되고 기업농이 이런 자원을 독과점하면서 소규모 영농으로 생존을 이어가던 주민들은 생산수단과 자원으로부터 거부되고 있다.

- 최근 많은 개도국들이 신 자유주의모델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함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기본 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농업개발 투자도 소홀해져 농촌사회의 피폐를 방치하고 있다.

- 농업 근대화 정책 추진으로 영농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양질의 종자보급, 비료와 농약의 집중사용, 기계화 등이 실현되면서 영세한 가족농의 생존과 활동공간이 사라지고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는 자연에 생계를 의존하던 빈농에게 타격을 주게 되고,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외부 식량원조는 지역의 소규모 농업 생산기반을 또 무너뜨리면서 이중 충격을 받은 소농이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ActionAid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장 대신에 빈민이 주도하는 토지개혁, 종자은행 및 생물 다양성 보전, GMO 대신 지속 가능한 종자보급, 식량주권을 인정하는 각국의 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농업생산 자원과 생계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

- 강력한 농업개발 정책은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인 농촌빈민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이므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각국 정부의 농업개발 정책이 빈농에게도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사업

· 시민의 식량접근 및 생계유지와 관련된 기본권 개념이 확산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국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면서, 식량원조와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공급정책을 유도하는 사업

· 식량접근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교역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도록 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WTO가 교역제도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개도국들이 직면한 현실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사업

(5) World Vision[32)]

World Vision은 빈곤과 불의를 극복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세계최대의 기독교 NGO 중 하나이며, 최근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저소득층 어린이와 가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 식량위기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만큼 당장 간단하고 용이한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World Vision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World vision이 직접 에티오피아, 케냐 등 식량사정이 어려운 나라들에 대한 식량원조를 계속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 사회에 대하여 WFP에 대한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World Vision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어린이 지원 사업을 통하여 어린이 자신이나 그 가족이 외부 식량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4. KOICA의 무상원조전략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글로벌 식량위기의 실체와 당사국들의 대응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들은 식량문제와 관련한 KOICA의 무상원조 전략검토에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번에 불거진 세계 식량문제는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던 문제이며, FAO 등 국제기구는 물론 많은 NGO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인류공통 관심사이다. 그런데 국제 사회가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최대 수출국으로 잉여 농산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외에 우리와 같이 전형적인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이 식량농업문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32) World Vision, (http://www.wvi.org/wvi/wviweb.nsf/)

둘째, 최근의 식량 위기를 발생시킨 것으로 위에서 분석된 요인들, 즉 지속적인 식량 수요 증가, 생산의 정체와 불안정,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 급증 등의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급등했던 가격이 다소 진정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가격이 지속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식량원조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NGO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공통적인 시각은 원조 식량의 현지구매를 권장하고 식량부족 위기를 증산의 계기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도 원조식량의 현지구매를 늘리고 있고 WFP의 식량원조는 원칙적으로 3~12개월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기에 처한 개도국의 식량문제는 수많은 대내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도국이 식량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국제 사회가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법모색도 위에서 살펴본 만큼 복잡하고 포괄적이다. 예를 들면 정부대응에 필요한 재원확보나 식량가격안정을 위한 거시경제 관련 지원, 그리고 식량과 농업생산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세조정과 농산물시장 개방 또는 보호 같은 국제통상 관련 지원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식량소비와 관련된 내국세 조정, 정부비축재고 운용과 시장가격관리 등 식량소비 관련 지원도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국제기구와 ODA 공여국가들의 지원내용은 이와 같은 지원활동보다는 식량원조와 농업 생산지원이라는 두 가지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수단들은 수원국가의 주권문제와 관련하여 외부자의 역할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 정부가 일정한 대안과 수단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식량원조와 농업 생산지원 문제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KOICA의 무상원조 전략도 유사한 범위 내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지원노력이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수단 중 일부일 뿐이며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은 수원국가 정부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점도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자조노력 없이 외부 원조만 가지고 식량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교훈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위기해결을 위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원국가 정부의 정책을 먼저 살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항상 이와 보완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식량위기에 대응한 KOICA의 무상원조 전략

1. KOICA의 대응 방향

가. KOICA의 대응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ODA 혜택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후 대외부문의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성공하였고 이제 지구촌의 중요한 일원이 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를 요구받고 있다. 정부도 이런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창설하여(1987년) 유상원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을 설립하여 무상원조의 기반도 다져 놓았다. 여기에 더하여 2009년에는 OECD/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서 2010년 1월부터는 명실 공히 완벽한 ODA 공여국가로 활동하게 되었다.[33)]

이렇게 제도적 토대를 갖추는 것만으로 바로 공여국가가 된 것은 아니며 ODA 공여국가로서의 역량과 경험을 비축해가는 기간 동안에는 사회적으로 수원국가 체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공여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환기적 단계를 거치기도 했다. 그 결과 최근에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한 ODA 증가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OECD 집계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 ODA는 8억 달러로 GNI 대비 0.09%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12년 0.15%, 2015년에는 0.25%까지 높일 계획이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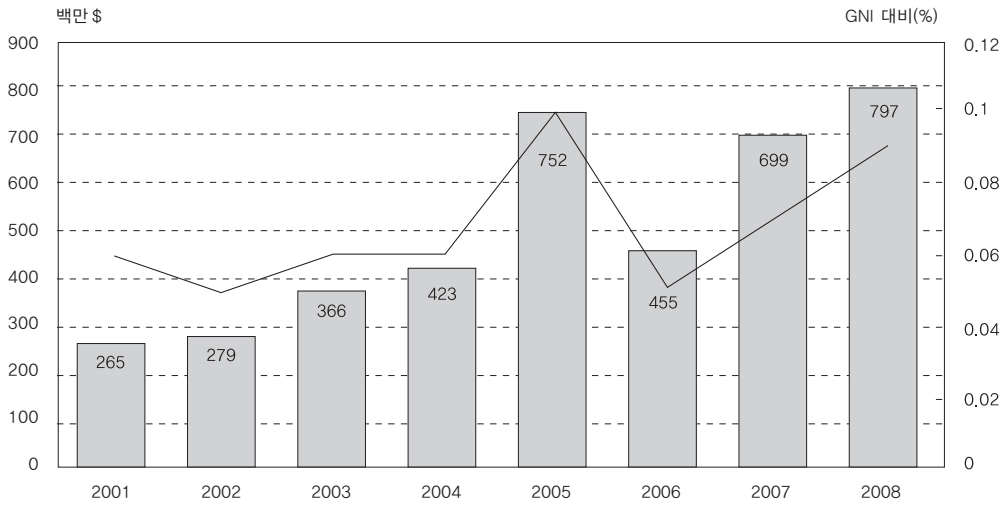
한편 세계적인 식량부족과 기아문제는 오랫동안 국제 사회의 현안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지구촌 차원의 협력이 요구되는 항구적인 성격의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며 이번 식량위기 발생 이전에도 국제 사회는 World Food Summit(WFS), Millennium Development

33)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9.11.26

34) 외교통상부 2009년도 업무계획

Goals(MDGs) 등을 계기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어 왔다. 우리의 식량위기 대응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모색되는 것이 마땅하며, 앞으로 국제 사회의 기대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ODA 공여국가로서의 위상을 추구한다면 세계 식량문제는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ODA를 통하여 국제 식량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시켜 가는 노력은 구조적으로 인구 대비 경지가 협소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림 3-1> 우리나라 ODA 규모



주 1) 막대안의 숫자는 ODA 규모를 나타냄

자료: OECD, Development Database on Aid from DAC Members: DAC online.
(http://www.oecd.org/document/33/0,2340,en_2649_34447_36661793_1_1_1_1,00.html)

이번 식량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 의지는 2008년 9월에 개최된 "제63차 UN 총회"의 국무총리 기조연설과 2009년 1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식량안보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관의 입을 통해 이미 국제 사회에 전달된 상태이다. 이는 향후 3년간(2009~2011) 개도국 식량지원 및 농업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35] 이제 ODA를 담당하고 있는 KOICA가 개도국의 식량위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장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계기로 식량문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미래 DAC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에 대비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셈이다.

35)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08.9.26), 외교통상부 대변인 브리핑자료(2009.1.29)

나. KOICA의 농업분야 지원 실태

KOICA는 협력대상국들의 많은 인구가 농어촌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원조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개발 사업을 8대 주요사업 분야의 하나로 지정하고 연간 2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09년 10월 기준).

<표 3-1> 2009년도 농어촌개발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야	2009년 예산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	12,955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5,461
농어촌생활여건 개선	1,945
사후관리, 사전조사, 예비사업 등	753
사업 행정비	139
농어촌개발 사업 예산합계	21,253

자료: KOICA 농어촌개발팀

그런데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OICA가 "농어촌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사실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수산 분야의 산업개발 사업(Industrial Development Projects)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 사업(Regional Development Projects)이 혼재되어 있고, 오히려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농어촌 개발 사업"이라기보다는 "농수산업 개발 사업"성격이 더 강한 부류의 사업들이다. 이와 같이 분류되어 추진되고 있는 2009년도의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추진 중인 농수산업개발사업 개요

(단위: 만달러)

구분	대상국가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 규모
신규 사업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	'09-'12	1,300
	세네갈	관개타당성조사 및 농지개발 사업	'09-'10	180
	캄보디아	한일공동사업(수로복구, 농촌개발)	'09	20

계속 사업	라오스	관개수로건설(폰홍군)	’08–’09	170
		관개수로건설(문군)	’08–’10	320
	몽골	채소재배 온실설치	’08–’10	140
		할흐골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08–’09	255
		가축바이러스성 질병진단센터 건립	’07–’09	130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개발	’08–’10	165
	미얀마	농업관개기술센터 역량강화사업	’08–’10	200
		홀레구지역 농업 농촌개발 사업	’08–’10	200
	방글라데시	꾸밀라지역 농촌종합개발 사업	’07–’10	350
	필리핀	수산물가공공장 건립사업	’08–’09	220
	세네갈	양식장개발 조사 및 기술협력	’08–’09	160
		포도르지역 관개 재개발	’08–’10	180
		농업생산성개선사업	’07–’09	150
	알제리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	’07–’09	180
		새우양식장건설 및 양식기술 이전	’08–’10	230
	짐바브웨	농기계 시험평가센터 개선	’08–’10	300
	탄자니아	농산물가공훈련센터 건립	’08–’10	300
		관개시설개선 및 농업기계화	’07–’09	170
		잔지바르주 농산물가공훈련센터 건립사업	’08–’10	230
	나이지리아	미곡처리기술 지원 사업	’08–’10	180
		4개 지역 농산물가공센터 지원	’07–’09	160
	튀니지	패류양식 기술지원	’08–’09	160
	과테말라	난민정착지원 및 교육 강화사업	’07–’09	250
	에콰도르	관개수로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08–’10	250
	엘살바도르	중부지역 채소재배 생산성 향상	’08–’10	200
예비 사업	인도네시아	농업개발계획수립 및 시범사업	3년	300

예비 사업	캄보디아	캄퐁주 시범마을 개발시업	3년	140
	라오스	비엔티엔 주 농촌개발 3차 사업	3년	150
사전 조사 사업	몽골	할흐골 시범농장 개발 사업	3년	400
	에티오피아	아르시 농촌개발 사업	3년	200
	페루	꼬라오 지역개발 시범사업	3년	100
	알제리	사하라사막 기술협력사업	3년	600
	수단	Gezira 농업기술훈련원 지원 사업	3년	500
전문가 파견	케냐	농촌개발전문가, 1명 6개월	전문가 선발완료	
	튀니지	버섯재배전문가, 1명 2개월	후보자 접수완료	

자료: KOICA 농어촌개발팀(2009년 10월 기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사회가 개도국의 식량위기 대응노력을 지원하는 수단의 대부분은 직접 식량을 원조하는 사업이거나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 즉 "농수산업 개발 사업"이다. 이는 KOICA가 "식량위기 대응방안"이란 이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이와 차이가 없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수산업 개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번 식량위기 대응방안 모색은 국제 ODA의 항구적인 과제이면서도 지금까지 농어촌 개발 사업 카테고리 안에 뒤섞여 취급되던 "식량문제"를 분리하여 그 사안의 비중과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을 찾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은 작업결과 도출된 프로그램이 한 단계 격상된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식량문제의 본질과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우리나라 ODA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된 형태로 녹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식량문제는 시장의 수급 불일치라는 비교적 단순한 외형과 달리 국토와 인구, 기상과 토양,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 주변의 국제여건, 그리고 역사와 의식수준 등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 KOICA의 지원전략 수립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한 KOICA의 지원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의 본질이나 특성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요인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 문제의 본질은 협력대상국들을 상대로 하는 "국제지원 사업"이다. 따라서 관련분야의 국제적 논의내용과 오랜 기간의 논의결과를 기초로 형성된 국제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략검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이 문제의 또 다른 본질은 본 연구가 "KOICA의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KOICA의 기본정책 방향의 범위 내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외 무상원조사업 주요 실시기관인 KOICA는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국제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36]

- 수원국가의 Needs에 따른 성과 중심적 원조시행
- 협력대상국가와 분야 선정에 "선택과 집중"원칙 유지
-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
-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확대 및 민간 부문의 KOICA사업 참여확대

따라서 본 연구의 식량위기 대응전략도 위기에 처해있는 협력대상국들의 필요를 우선 고려하고, 대상국가와 사업선정에 "선택과 집중"원칙을 유지하며, 우리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사안의 핵심은 "식량문제"이다. 식량문제는 수많은 대내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빈곤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다. 즉 기아가 영양부족 해소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빈곤은 영양부족 해소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소득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37]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접근이 서로 다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량위기 해법도 빈곤문제 해법만큼이나 포괄적이라는 의미가 되며 KOICA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

36) KOICA, KOICA 사업, (http://www.koica.go.kr/)

37) Ricardo Sibrian, "Undernourishment and critical food poverty: Indicators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SDWPS ESSG 2009-14, FAO

는 모든 사업이 결국 식량위기의 해법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광범한 선택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장의 시사점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수단들은 수원국 정부의 몫으로 남겨두고 KOICA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식량을 직접 원조하거나 수원국가가 스스로 식량을 증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량생산 지원방식에 국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포인트이다.

본 항에서는 KOICA가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과 같은 전략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 등을 정리한다. 첫째, 양자채널을 통한 원조의 보완수단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원조 선택 및 확대문제, 둘째, 56개 협력대상국 중 어떤 나라부터 지원할 것인가, 즉 대상국가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셋째, 그 대상국가에 대하여 "식량원조"와 "식량생산 지원"을 각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 넷째, 해당국가의 지역성 및 특수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업 및 식량문제의 특성을 지원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즉 수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전략에 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식량증산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분야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쟁점들의 정리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협력대상국들의 식량농업현황을 검토하고, 뒤이어 국제적 논의와 규범을 분석한다.

2. 협력대상국가의 식량농업현황

가. 식량농업여건 개황

지원대상 개발도상국과 관련하여 KOICA는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표 3-3〉과 같이 국제 사회의 원조가 필요한 개발도상국 중 56개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또 19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식량위기와 관련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당연히 이 국가들의 식량농업 관련 지표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기술적인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개도국의 특성상 체계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접근이 쉽지 않다. 둘째, 식

량문제의 출발인 농업생산은 각국의 기후, 토양, 경제사회제도, 역사 문화적 여건 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56개국의 현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량문제는 단순한 농산물 수급상의 부족문제가 아니며 경제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식량수급 관련 지표만 정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표 3-3> KOICA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리스트('08년 6월 기준)

구분	아시아	중남미	동구·CIS	중동	아프리카
56국	16국	11국	6국	5국	18국
중점 협력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라크	이집트, 세네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19국	8국	3국	2국	1국	5국
일반 협력국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중국, 파키스탄, 피지, PNG	니카라과, 콜롬비아,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예멘, 요르단, 이란, 팔레스타인	모로코, 알제리,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가나, 카메룬,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DR콩고,케냐, 마다가스카르, 수단
37국	8국	8국	4국	4국	13국

자료: KOICA,(http://www.koica.go.kr/)

이 세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지표별로 자료출처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서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식량수급관련 지표 외에 국토, 인구, 거시경제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별첨 3-1 참조).

별첨 3-1

①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별첨 표1”

- 농업여건: 국토면적, 인구, GDP, 인구구성, 종교, 언어, 산업별 구성비
- 식량지표: 1인1일당 열량섭취량, 영양부족 인구, 소득수준 분류, 식량위협 요인, 식량위기 원인, ODA 수원규모

② 농업생산관련 지표: “별첨 표2”

- 농업성장 지수, 농지 및 경지면적, 농업용 트랙터, 쌀 생산 및 소비량, 맥류 및 잡곡 생산량, 면화 생산 및 수출량, 비료 사용량, 식량생산 지수, 농업노동자 비율, 육류생산량.

③ 주요 농산물생산 및 교역관련 지표: “별첨 표3”

- 국가별 주요 농축산물 20개 품목에 대한 생산량과 수출입량(2007년 기준)

나. 식량위기국가 농업의 특성

(1) 협력대상국 중 식량위기 국가

FAO는 식량안보관련 조기경보시스템(GIEWS: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운영의 일환으로 국제지원이 필요한 정도의 식량위기 상태에 있는 국가들의 명단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는 해당국의 식량사정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2009년 7월에 발표한 식량위기 국가 30개국은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 3-4> FAO가 지정한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식량위기 국가

(단위: 개국)

	아시아/중동	아프리카
전국적으로 식량부족이 극심한 상황(6개국)	1	5
식량부족이 대부분 국민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6)	2	4
지역적으로 식량부족이 극심한 상황(18)	7	11
합계(30개국)	10	20

자료: FAO, “Countries in crisis requiring external assistance”,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9.7 (http://www.fao.org/docrep/012/ai484e/ai484e02.htm)

이 식량위기국가 명단에는 KOICA 협력대상국 15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가 6개국, 중동 2개국이다.

<표 3-5> KOICA 협력대상국 중 식량위기 국가

지역	국가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동티모르
중동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	DR콩고,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짐바브웨

자료: <표 3-3> 과 <표 3-4> 종합.

(2) 식량위기에 처한 협력대상국의 식량농업 개황

지난 2001년 FAO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영농유형에 관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농업지역을 ① 동아시아 · 태평양 지역 ② 남아시아 지역 ③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 ④ 동유럽 · 중앙아시아 지역 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⑥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 지역 등 6개로 대별하고, 각각의 영농유형(Farming System)을 구분하여 발표한 바 있다.[38] 56개 협력대상국과 식량위기에 처한 15개 협력대상국을 상기 6개 지역별로 분류하면 〈표 3-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농업지역 중 심각한 식량문제를 안고 있는 곳은 4개 지역이다. 〈별첨 3-1〉로 제시한 56개국의 기본지표에 더하여 현재 식량위기에 처한 협력대상국들의 식량농업 개황을 추가로 정리하여 〈별첨 3-2〉로 첨부한다.

<표 3-6> 농업지역별 협력대상국 분포

지역	협력대상국 총수	식량위기에 처한 협력대상국(15개국)
동아시아/태평양	11개국	미얀마, 동티모르
남아시아	5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중동/북아프리카	9개국	이란, 이라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4개국	DR콩고,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짐바브웨

자료: <표 3-5>와 같음..

38) Dixon John,「Farming System and Poverty, Improving Farmers' Livelihoods in a Changing World」, FAO & World Bank, 2001

다. 식량위기 요인 종합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에서 촉발된 글로벌 식량위기가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식량문제가 이 곡물 가격 폭등이라는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협력대상국들의 식량농업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건들은 이들이 식량위기를 경험하게 된 원인의 다양성을 다시 한 번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식량위기에 대응한 KOICA의 지원전략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협력대상국들이 식량위기에 처한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FAO와 WFP가 식량위기 상태에 있다고 지정한 30개 개발도상국 중 KOICA 협력대상국의 식량위기 원인을 정리해 보면 〈표 3-7〉과 같다.

<표 3-7> 식량 위기 상태에 있는 협력대상국들의 식량위기 원인

	국가[1/]	FAO 위기원인[1/]	WFP 위협요인[2/]	여행제한 내용[3/]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사회 불안정, 기상불순	치안불안, 시장접근 곤란, 공중위생 열악, 교육저수준, 가뭄, 홍수, 환경피해	여행금지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고질적 취약계층. 자연재해, 건강 및 위생관련 서비스 취약	여행자제
	네팔	시장접근성취약, 가뭄	빈곤, 홍수, 산사태, 식량가용성 저하, 식량접근성취약, 시장 및 인프라 빈약	여행자제
	파키스탄	내전	지진, 빈곤, 자연조건 극히 열악, 교육수준 저위	여행제한
	스리랑카	내전, 피난민	내전, 자연재해, 빈곤, 식량접근성취약	지역별 제한, 자제
	미얀마	사이클론 후유증	지역 간 생산격차, 높은 식량가격, 취약계층 증가, 자연재해, 병충해, 농자재부족	지역적으로
	동티모르	피난민	극도의 기후불안정, 치안불안, 산사태, 농외취업기회 제한. 산림황폐화, 내전	제한, 자제, 유의
중동	이란	가뭄후유증	내전 복구 중, 다수의 난민	여행자제
	이라크	내전(conflict), 강수부족	내전, 치안불안, 다수의 피난민, 식량접근성 취약, 인프라 취약	지역별 자제, 유의
아프리카	DR콩고	내전, 난민귀환	내전, 극도의 치안불안, 인프라 파손, 피난민, 위생시설 취약	여행금지
	코트디부아르	내전피해	치안불안과 피난, 인프라취약, 수송비 고율, 의약접근성 취약, 수출품 가격하락	여행제한 (일부)
	에티오피아	기상불순, 지역적 불안정	가뭄빈발, 산림황폐화, 토양침식, 홍수, 빈곤, 수출품(커피)의 가격하락	여행자제

아프리카	케냐	기상불순, 내전	빈곤, 인구증가, 가뭄, HIV/AIDS	지역별 제한, 유의
	수단	내전, 사회불안, 작황부진	내전, 인프라 극히 취약, 피난민, 극도로 열악한 환경조건	지역별 제한, 자제
	짐바브웨	경제적 이행문제	빈곤, 농업기술 부족, HIV/AIDS	지역별 제한, 자제

주 1/협력대상국 중 FAO가 '09년 7월 발표한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위기국가에 해당하는 국가
(http://www.fao.org/docrep/012/ai484e/ai484e02.htm)
2/WFP. (http://www.wfp.org/countries)
3/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main/index.jsp)

〈표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전(conflict), 피난민(IDP) 등과 관련된 정치 · 사회적 불안, 가뭄과 홍수, 산사태,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 관개시설 및 도로, 교통, 통신 등 취약한 인프라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식량증산을 비롯한 정상적인 경제활동 여건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정된 치안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외교통상부의 해외여행 안전경보시스템은 식량위기 국가 15개국 중 짐바브웨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여행금지(2개국), 여행제한 또는 일부지역 여행제한(7개국), 여행자제, 여행유의 등의 경보가 발령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3. 식량농업원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협력대상국들의 식량농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협력대상국들이 안고 있는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무상원조"가 국제 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원전략 검토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국제질서의 기본 틀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원조효과와 관련된 국제규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식량원조와 관련된 국제규범이다. 일반적인 국제질서 형성과정과 마찬가지로 원조효과 그리고 식량원조의 방향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이루어진 국제적 논의결과는 사실상 그 분야의 행동규범 또는 국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무상원조전략 검토에 앞서 이와 같은 국제논의 동향과 규범을 먼저 살펴본다.

가. 원조효과 관련 국제논의와 지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가이드라인은 개발원조 태동기부터 국제 사회의 지침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70년대의 가이드라인은 성장 중심의 개발이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데 주력하였고, 1980년대에는 인적자원 개발과 여성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원조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빈곤, 기아, 환경이 범세계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 참여적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39]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UN 천년개발목표(MDGs) 등장과 함께 수원국가 중심의 원조가 강조되면서 소위 "원조의 효과성 제고"가 국제 논의의 중심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ECD가 UN 및 World Bank와 공동 주관하는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는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협의체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동안 고위급회의의 논의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0]

(1) 제1차 로마 고위급회의 (2003년)

회의개요: 2003년 2월 로마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의는 관련 국제기구, 원조 공여국가, 그리고 원조 수원국가 대표들이 다수 참석하였으며, 원조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여국가 또는 공여기관의 원조 관련정책을 수원국가의 시스템과 조화시킴으로서 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회의결과: 이 회의 참석대표들은 원조물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원조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조화(Harmonization)에 관한 로마 선언"에 합의하였다.

첫째, 공여국은 원조내용을 수원국가의 우선순위와 일치시키고 수원국가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공한다. 둘째, 공여국은 원조 관련 제도, 절차, 관행 등을 원조조화를 위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공여국은 수원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주인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원국가와 강력한 파트너쉽을 형성한다. 넷째, 공여국가의 절차와 관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원국가 주도의 노력을 확대한다.

39) 허장 외, 「국제농업협력의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3

40) 외교통상부, OECD/DAC 개황, 2009

(2) 제2차 파리 고위급회의 (2005년)

회의개요: 2005년 3월 파리 OECD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91개국의 장관급 대표와 26개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부문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로드맵 설정에 합의하였다.

회의결과: 이 회의에서 채택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은 다음과 같은 5개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Partnership 구축을 위한 50개 항목의 구체적인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의 실질적 진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서 12개 항목의 발전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리선언에 포함된 5개 원칙은 ① 수원국가가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스스로 빈곤 퇴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원조 공여국가들 간에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조화 있는 원조(Harmonization)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한다. ③ 공여국가는 수원국가의 기관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관된 원조(Alignment)를 제공한다. ④ 공여국은 성과를 중요시(Result-Driven)하는 원조정책을 추구한다. ⑤ 수원국가와 공여국가가 상호책임감(Mutual Accountability)을 갖고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그 이행을 위한 성과지표, 목표, 달성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 선언문의 이행은 MDGs 달성 및 수원국가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제3차 아크라 고위급회의 (2008년)

회의개요: 2008년 9월 100개 수원국가 대표, 공여국가, 관련 국제기구, NGO대표 등 1,500여 명이 가나 아크라에 모여 개최한 회의다. 이 회의는 2차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2010년 이후 원조효과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는 또한 파리선언의 착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결의하고,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원조의 비 구속화 대상국가 확대 등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목표도 수립하였다.

회의결과: 이 회의에서 합의된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아크라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원국가의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시민, 의회, 지방정부, 언론 등)의 참여확대, 수원국가의 역량강화, 수원국가 시스템의 우선적 사용 강화, 둘째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을 위한 수원국가 주도의 원조분업 논의 심화,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 취약국가에 대한 파리선언 적용, 셋째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원조 투명성 및 책임강화, 비구속화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제4차 고위급회의 (2011년 예정)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2005)"과 "아크라 행동계획(2008)"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 논의를 위하여 2011년에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009년 3월 DAC 원조효과 작업반 회의에서 결정).

지금까지 살펴 본 OECD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 논의내용과 회의결과는 식량증산을 위한 무상원조 전략의 배경을 형성하는 한 축이 될 것이다.

나. 식량원조 관련 국제논의와 규범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식량원조는 수원국가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박한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원조라는 점에서 인도적인 성격이 짙게 배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국제원조와 성격이 다른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의 식량원조는 이와 정반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제원조 차원에서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즉 식량원조가 국제농업통상 규범상의 수출보조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그 결과 현재 FAO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 의무에 관한 규칙(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and Consultative Obligations), 식량원조 협약(Food Aid Convention)과 같은 국제규범들이 제정 · 시행되고 있다. 식량원조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생각보다는 더 복잡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원조수단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식량원조 경험이 별로 없고 또 원조 공여국가로서 관련 협약이나 규정에 직접 서명한 당사국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지

만, UR 협상 결과 탄생한 WTO 농업협정이 모든 회원국에게 식량원조 절차와 조건측면에서 이 협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제 우리에게도 원조정책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한 규범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중에서 국제 식량원조(International Food Aid)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이 WTO협정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국제협약들의 상호관계를 종합 · 정리한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KOICA의 무상원조 사업과 그 중에서 많은 협력대상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식량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특히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검토사항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1) WTO 농업협정(WTO Agreement on Agriculture)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이하 UR) 농업협상의 산물인 WTO농업협정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교역제도 수립(To establish a fair and market-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41] 동 협정 제10조 4항은 식량원조 공여국가에게 다음과 같이 식량원조와 상업적 수출의 연계금지, FAO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원칙 준수, 식량원조 협약 상의 규정 이상으로 특혜적인 조건준수를 규정하고 있다(WTO 농업협정의 식량원조 관련조항 원문은 〈별첨 3-3〉으로 첨부).

· (4-a)식량원조로 제공되는 농산물이 수원국가에 대한 공여국가의 상업적 수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 4-b)식량원조는 통상적 시장수요량(Usual Marketing Requirements)을 포함하여 FAO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 의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 (4-c)식량원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전한 무상공여이거나 "1986년 식량원조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조건 이상으로 특혜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식량원조와 관련한 이 조항은 WTO발족 이후 시행과정에서 국제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쟁점이며, UR 후속협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농업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DDA 농

41) WTO 농업협정 서문에 명시

업협상은 여러 차례 타결시한을 넘기며 10여 년째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를 제외하고 기술적인 쟁점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인 계기가 마련되면 언제든 타결 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어 DDA 협상의 내용도 현행 WTO 협정과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진행 중인 DDA 농업협상 동향으로 보아 농산물 수출보조는 완전히 철폐(선진국 2013년, 개도국 2016년)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식량원조 관련조항(제10조 4항)은 수원국가의 입장이 확대 반영된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남은 협상과정을 거쳐 확정될 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식량원조 수원국가의 관심사항인 "식량원조 감소효과에 대한 우려"와 수출국의 관심사항인 "식량원조의 상업적 교역수요 대체방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며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2](DDA 협상의 식량원조 관련조항 개정시안 원문은 〈별첨 3-4로〉 첨부).

① 모든 식량원조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모든 식량원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a) 식량원조는 수원국가의 필요에 따라 시행된다(needs-driven)
(b) 식량원조는 완전한 무상공여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c) 식량원조는 농산물 또는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상업적 수출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d) 식량원조는 공여국가의 시장개척 목적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e) 식량원조로 제공된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재수출할 수 없다.

식량원조는 관련 농산물의 수원국 시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제공되어야 하고, 수원국가의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현물형태의 식량 원조를 자제해야 한다. 또 비구속화된 현금형태의 식량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되는 농산물은 가능하면 수원국가 또는 인근 지역에서 구매하여 제공한다. 수원국가의 정부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식량원조 관련 활동의 조정과 집행에 대하여 일차적인 역할과 책임을 진다.

42) WTO Committee on Agriculture/Special Session, "Revised Draft Modality for Agriculture", TN/AG/W/4/Rev.4, WTO, 2008. 12

② 긴급 상황에서의 식량원조거래 관련 원칙(Safe Box)

다음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식량원조는 당초 의도와 달리 원조추진에 장애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Safe Box”로 분류되며 이 경우 본 조항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수원국가의 정부 또는 UN 사무총장이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그 필요에 대하여 관련 UN 기구 등의 평가가 있는 경우
(b) 해당국가, UN 기구, 적십자사 등 관련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긴급 조치 요구가 있고 그 필요에 대하여 관련 UN 기구 등의 평가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긴급사태 선포나 요구에 따른 필요성 평가기간은 3개월이다. 또 최빈개도국 내의 수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afe Box로 분류된 식량원조를 현금화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식량원조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공여국은 6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상시의 식량원조 거래에 적용되는 원칙

긴급 상황이 아닌(Safe Box 이외) 평상시에 현물로 제공되는 식량원조는 앞에서 살펴본 “모든 식량원조 거래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외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현물로 제공된 식량 원조를 현금화하여서는 안 된다.

(a) 평상시의 식량원조는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야 하며, 그 평가는 원조목적과 빈곤 및 기아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b) 평상시의 식량원조는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를 유발하는 식량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공되며, 식량상황이 취약한 구체적인 계층이나 집단의 영양부족 상태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c) 평상시의 식량원조는 관련 농산물이 수원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장의 상업적 거래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공되어야 한다.

④ 협정이행상황 점검

식량원조 공여국은 자국의 식량원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례보고 형식으로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FAO 잉여농산물처분과 협의의무에 관한 규칙

〈FAO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and Consultative Obligations〉

식량원조가 상업적 교역과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54년에 FAO는 "잉여농산물 처분 협의 소위원회(Consultative Subcommittee on Surplus Disposal: 이하 CSSD)"를 설치하였다. 이 CSSD는 각국의 식량원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FAO내의 기구며, 기구의 운용은 "FAO 잉여농산물 처분규칙(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에 따르고 있다. CSSD는 식량원조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제규범으로 이 규칙을 제정하였다. CSSD는 모든 FAO 회원국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41개 회원국, 16개 옵서버 국, 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FAO 잉여농산물 처분원칙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한 적이 없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도 서명한 WTO협정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우리도 이 원칙의 이행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FAO 잉여농산물 처분원칙"은 농산물을 식량원조로 제공하거나 특혜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국제 농산물 교역 또는 수원국가의 농업생산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식량원조가 수원국내의 정상적인 "시장공급을 대체"하는 효과보다는 "추가적인 소비"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식량 수출국의 관심사항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추가적인 소비(Additional Consumption)"개념은 원조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소비를 의미하며, 이처럼 추가적인 소비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은 후에 "통상적 시장수요량(Usual Marketing Requirement: 이하 UMR)"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즉 UMR보장은 당해 식량원조에도 불구하고 수원국가가 제3국으로부터의 관련 농산물 수입량을 종전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보장을 의미하며 원조협상 시 원조 공여국가와 수원국가간의 계약내용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식량원조 제공으로 인하여 종전에 수원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식량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면 이 식량원조는 당연히 "FAO 잉여농산물 처분규칙"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식량원조 공여국은 원조계약 체결 및 물품선적에 앞서 수원국가에 이미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제3국에게 자국의 원조계획을 통지하고 양자협의를 가져야 한다. 이 양자협의에서 통상 UMR이 논의된다. 이와 같은 양자협의를 통해 제3국과의 의견이 조정되면 원조 공여국은 FAO/CSSD에 이를 통보하고 다자간 협상에 들어간다. 이 때 원조 공여국가는 CSSD에 식량의 종류, 금액, 수송일정 등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UMR, 양자간 협의 대상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CSSD 사무국은 이렇게 통보 받은 내용을 모든 FAO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들에게 통보하고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없으면 식량원조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CSSD 협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FAO 잉여농산물 처분규칙"은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동 규칙 자체가 직접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농업통상의 규범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CSSD는 긴급원조나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의 식량원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런 절차대신 사후통보만을 요구하고 있다. 쌀의 경우 연간 수원국가 당 1,000톤 이하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도 일정규모 이상의 식량원조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이상과 같은 절차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 동향 특히 식량원조 관련 조항(WTO 농업협정 제10조 4항) 개정 논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식량원조 협약(Food Aid Convention)

"식량원조 협약"은 런던에 소재한 "국제 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 종전의 International Wheat Council)"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67년에 조인된 이후 운용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국제 사회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식량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식량원조 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협약에 서명한 가입국들이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1986년에 개정된 식량원조 협약은 제4조에서 이 협약에 의한 식량원조는 가능하면 무상공여(Gift)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식량원조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식량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무상공여: 이 경우 현금은 수원국가가 곡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 식량을 수원국가의 통화로 현금판매: 이 경우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원국가 통화는 공여국가 통화 또는 공여국가 소유의 재화/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
(c) 식량을 신용판매: 이 경우 상환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자율은 국제 시장의 상업적 이자율보다 낮아야 한다.

한편 WTO 농업협정(제10조 4-c항)은 식량원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상공여 형태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1986년 식량원조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조건보다 더 특혜적인 조건이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동 협약은 식량원조 조건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진행 중인 DDA 협상의 제4차 세부원칙 수정안에서는 현행 WTO 농업협정과 달리 "식량원조 협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새로운 협정시안(세부원칙 수정안)에 이미 식량원조 관련 규정이 강화된 형태로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4차 세부원칙 수정안에 따르면 "모든 식량원조는 완전한 무상공여 형태로만 제공"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 DDA 협상 타결 이후에 강화된 식량원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KOICA로서는 관심을 갖고 협상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식량농업 지원방식 선택

가. 다자 원조와 양자 원조

식량원조 또는 식량증산 지원 등 협력대상국에 대한 KOICA의 원조사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이를 해당국과 양자채널을 통하여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원조 공여국가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차원의 원조보다는 양자 원조 실적이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제 원조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는 어느 한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문제가 아니며 원조여건과 사안에 따라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양자원조 대신 다자채널을 활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i) 당사자인 수원국가 외에 관련 국제기구의 전회원국에까지 원조관련 홍보효과를 확대할 수 있고, (ii) 원조행정의 선진화, 즉 원조관련 인력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iii) 수원국의 개발정책과 투자 사업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데 있다. (iv) 또한 정치, 군사 등의 이유로 양자 간에 직접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v) 경우에 따라서는 원조행정의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43)]

그러나 이 다자지원 방식은 결국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으며 (i)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직접 지원에 비하여 쌍무 외교적 효과가 희석되기 쉽고, (ii)수원국가에 제공되는 지원 외에 원조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iii) 국제 원조기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서는 공여국의 선택 폭이 제한되거나 (iv)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KOICA는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사업을 국제 사회의 공동노력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양자 원조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업추진 기반이 미흡한 국가나 분야에 대한 원조확대와 홍보효과(Visibility)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44)] 한편,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지원 사업은 IDA, 아시아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UNICEF, UNDP, UNHCR 등 UN기구의 분담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2006년 4월에는 정부와 UNDP가 기본협력협정(Partnership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고 신탁기금 설치를 통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본격화하였다. 이 협정은 우리가 다자 원조 기구와 맺은 최초의 포괄적인 협정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상호협력,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45)]

---

43) 이계우 외 2인, 「다자간 개발원조기관과의 협력지원정책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위한 연구」, 외교통상부, 2006, pp. 25~35

44)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45) 김은미 외,「개발협력집행체계 개선방안 및 유엔기구와의 다자개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2007

나. 협력대상 국제기구

상술한 바와 같이 대표적인 다자 원조 기구로 국제개발금융 기구와 UN산하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장기차관 형태의 유상원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의 협력대상은 개발금융 기구보다는 UN 산하전문기구가 적합한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협력대상 기구는 추진하고자 하는 원조분야와 원조형태에 특화된 전문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원조형태는 제2장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량원조 또는 식량증산 지원이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UN 산하전문기구로 식량원조를 위한 협력대상기관으로는 WFP가, 그리고 "식량증산 지원"을 위한 협력대상기관으로는 FAO가 있다.

UN산하 "식량원조" 전문기구인 WFP의 사업은 전액 자발적인 기여금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며, 기부형태는 현금이나 현물(식량) 외에 식량생산, 보관, 조리와 관련된 물품으로도 이루어진다. WFP는 정규예산과 같이 독립된 재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기금을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 또 모든 원조 공여자는 제공되는 원조물자의 이동, 관리,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WFP의 주요 기부주체는 각국의 정부지만 기업체나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도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WFP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으로부터의 기여금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15일 현재 연간 기여금 총액은 33억 5,200만 불이다. 그 중 46%인 15억 4,800만 달러를 미국이 부담하였고, 우리나라도 53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46) 그러나 국제 사회모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WFP의 식량원조 규모는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북한지원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금의 식량위기와 관련한 WFP의 대응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개도국들의 원조수요에 비해 식량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WFP는 국제 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46) http://www.wfp.org/about/donors

<표 3-8> WFP의 대북한 식량원조 축소 실례[47]

· 1995-2005년: WFP는 북한에 대해 4백만 톤(17억 불) 이상의 식량원조 제공

· 2008년 9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량원조 사업개시(목표: 6백만 명, 5억 불)

· 2009년 6월: 재원부족으로 지원규모 축소 (8개도 131군 · 6개도 57군)

식량증산지원 분야의 전문기구인 FAO의 원조사업은 WFP와 달리 그 재원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규예산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회원국들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탁기금 사업이다. 그런데 전자는 연간 350~400백만 달러에 달하는 FAO 현장사업예산의 10~2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80~90%는 신탁기금 사업이다.

신탁기금사업 참여방식은 원조공여국과 FAO 그리고 수원국가가 개별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추진하는 Earmarked Funding과 비교적 포괄적인 형태의 파트너십 협정에 의해 지원되는 Programme Approach Funding이 있으며 FAO의 경우 현재로서는 전자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 신탁기금사업과 관련하여 FAO는 프로젝트 전 단계의 투명성과 집행책임을 보장하며 지원 사업내용과 대상지역은 원조공여국의 선택을 존중한다. 원조공여국은 이와 같은 개별지원 사업 이외에 FAO가 마련하여 추진하는 식량안보나 식품안전 등 대규모 특별사업에 다수 공여국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48]

또한 신탁기금사업은 자금 공여국가에게 젊은 직원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거나 개도국 간 협력방식을 가미하여 기술 및 전문가 교류를 촉진할 수도 있다. 원조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예산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FAO는 전통적인 공여주체 외에 새로운 공여주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터키, 체코, OPEC 등 새로운 공여국과 국제기구, NGO, 기타 민간분야 등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49]

47) http://www.wfp.org/countries/korea-democratic-peoples-republic-dprk

48) http://www.fao.org/tc/tca/funding_en.asp

49) http://www.fao.org/tc/tca/trust_en.asp

<표 3-9> 중국의 FAO 신탁기금사업 참여 실례[50]

· 중국과 FAO는 2009년 3월 개도국들의 농업생산성증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 달러 규모의 신탁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

· 내용: 사업기간은 3년이며 중국은 매년 1,000만 달러를 동 신탁기금에 출연

– 본 사업은 남남협력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기술 지원과 훈련을 위해 농업전문가를 파견하고 농업자재와 소형 농기구를 공급

· 배경: 중국은 FAO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기술지원을 해오다가 이번 신탁기금 설치 이전인 2005년에 남남협력촉진을 위한 FAO와의 전략동맹을 공식화

– 이 전략동맹은 FAO의 식량안보사업 테두리 내에서 추진되며 3,000명의 중국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하도록 되어 있음(지금까지 700명을 각국에 파견).

다. KOICA의 접근대안

국제기구협력과 관련하여 식량농업 분야의 특성을 이유로 양자 원조보다는 다자방식의 원조를 더 확대해야 할 특별한 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KOICA 입장에서는 다양한 원조여건과 사안에 대비하여 상응하는 원조방식이 준비된 상태에서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사업을 "국제 사회의 공동노력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양자 원조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KOICA 추진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홍보효과 확대와 원조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훈련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적극성을 보일 때가 되었다.

다만 협력대상 국제기구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비교적 신생 공여국가로서 나름대로 한국적인 ODA 기반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FP를 통한 식량원조의 경우 보유재고가 턱없이 부족하여 WFP가 국제 사회에 협조

50) http://www.fao.org/news/story/en/item/10802/icode/

를 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KOICA가 협력확대를 추구한다면 두 기관, 즉 KOICA-WFP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설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ⅰ) 이 경우에 필요한 신탁기금설치 등이 WFP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 ii) 제공되는 원조식량의 이동, 관리,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모두 KOICA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iii) 이와 같은 조건에 비추어 양자차원의 현금지원 또는 수원국내 시장에서 현물구매 지원 등의 대안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 iv)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긴급 식량원조의 성격을 벗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식량원조가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v) 우리는 농산물 수출국처럼 잉여농산물 처리 등을 위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KOICA가 현 시점에서 WFP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 설정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KOICA와 WFP간의 협력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상황에 따라 긴급 식량지원과 관련된 국제 사회의 공동노력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관계 유지는 필요하고 또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KOICA가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양자원조 대신 다자채널이 필요할 경우 그 협력대상 국제기구는 WFP가 적합하나,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인 관계 설정보다 우선 긴급 식량원조 중심으로 단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관계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FAO를 통한 식량증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신탁기금 사업을 추진하되 식량농업 분야의 원조행정 선진화 등 사업 참여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1단계 협력으로 글로벌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KOICA가 관심 있는 사업과 원조대상 지역 또는 국가를 지정하고 이 분야 전문기구인 FAO가 현장사업을 추진하는 소위 Earmarked Funding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한 원조사업 준비에 필요하다면 KOICA가 수원국가 또는 FAO를 사전에 접촉하여 준비할 수도 있고, 제2장에서 설명한 ISFP나 식량안보 관련 사업과 같이 FAO가 추진 중인 기존의 신탁기금 사업에 공여국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 보다도 더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실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 FAO내 관련부서인

"Field Programme Development Service (FAO 내 약자 TCAP)"를 접촉하여 신규 참여의사와 대체적인 구상을 밝히고 구체적인 원조사업 발굴을 협의할 수도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FAO 주도로 수원국가를 포함한 3자 협의를 가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작은 규모로 시작한 Earmarked Funding 방식의 FAO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되면 당연히 원조대상 국가 수나 사업규모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전문 인력의 참여가 확대되고 KOICA의 경험축적이 일정 수준에 달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제2단계 협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단계에서는 KOICA-FAO간에 이루어진 그간의 상호경험을 기초로 하여 우리 정부가 UNDP와 체결한 "Partnership Framework Agreement"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비교적 포괄적인 형태의 신탁기금을 설치하는 소위 Programme Approach Funding 방식의 원조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은 FAO와 회원국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산하 기구나 NGO 등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단계 이후에는 KOICA와 FAO간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기존사업 평가, 신규 사업 협의 등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게 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식량농업 분야 원조행정의 선진화와 관련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식량 · 농업지원 대상국가의 우선순위

가. 기본 원칙

이제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협력대상국들이 처한 어려움과 국제적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KOICA의 대응전략을 모색할 단계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 개별국가에 대한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식량위기대응 차원의 사전전략"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전략 외에 상대국의 요청내용, 다른 분야의 지원 사업내용, 통상 외교적 고려 등 다양한 현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결정되고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이와 같이 동태적인 상황에서 KOICA가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사업의 내부검토, 상대국과의 초기협의, 이 문제와 관련한 대내외 입장정리 등 가변적인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수준의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지원 대상 국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협력대상국들의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과정을 돕기 위하여 KOICA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국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인은 대상국가의 식량위기 상황, KOICA의 정책방향, 그리고 국제 사회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상국가 입장에서는 식량위기 상황이 가장 심각한 나라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며, KOICA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지원대상국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또 국제 사회의 시각에서는 지나친 원조선호 국가나 원조소외 국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대상국가별 식량위기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식량부족 원인(최근 가격급등에 의한 영향, 토지부족 등 구조적 여건, 토지제도 등 경제시스템 등), 기아인구, 영양수준, 국제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FAO가 식량안보 관련 조기경보시스템(GIEWS) 운영의 일환으로 이미 이와 유사한 분석을 거쳐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외부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의 명단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FAO가 최근 발표한 내용 중 국제지원이 필요한 30개국과 그 리스트에 포함된 15개 KOICA 협력대상국들은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따라서 56개 협력대상국은 외부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식량위기 상태에 있는 15개국 그룹과 그렇지 않은 41개국 그룹으로 분류되며 당연히 15개국 그룹이 후자그룹에 우선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KOICA는 전 항의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56개 협력대상국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원조효과 제고 차원에서 19개 중점 협력대상국 그룹과 37개 일반 협력대상국 그룹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여 지원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중점협력 대상국 포함여부가 15개 식량위기국가 그룹 포함여부에 우선하여 고려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주제를 감안할 때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 중점 협력대상국이라는 이유로 식량위기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대상국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야한다.

첫째, KOICA 협력대상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식량위기에 있다고 규정된 15개국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둘째, 15개국 중 식량이 특히 부족하여 영양 상태가 심각한 국가에 우선순위를 둔다. 셋째, 15개국 중 KOICA의 중점협력대상국을 고려한다.

나. 국별 영양상태

협력대상국들의 식량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영양 상태를 계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하여 "1인 1일당 영양섭취량"과 "영양부족 인구비율" 등이 지표로 사용된다. 자료입수가 어려운 5개국을 제외한 51개 협력대상국의 1인1일당 영양섭취량을 정리하면 〈표 3-10〉과 같다.

<표 3-10> 협력대상국의 1인 1일당 영양섭취량

	국가수	아시아	중남미	CIS	중동	아프리카
2,000kcal 미만	4					앙골라, DR콩고, 에티오피아, 잠비아
2,000~ 2,400kcal	20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동티모르	볼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예멘	카메룬, 케냐 ,수단,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탄자니아, 짐바브웨
2,400~ 3,000kcal	19	네팔,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콜롬비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3,000kcal 이상	8	피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란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1) 자료부족으로 제외된 국가(5국): 아프가니스탄, 파푸아뉴기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라크

2) 굵은 글씨는 KOICA의 중점협력대상국

자료: FAO, "Monitoring process towards hunger reduction targets of the World Food Summit(WFS)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2008. 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2,000kcal 미만을 섭취하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4개국이고, 여타국가의 대부분인 39개국이 2,000~3,000kcal 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3,000kcal 이상을 섭취하는 국가도 8개국에 달하며 CIS국가들은 모두 2,400kcal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가별로 1인 1일당 적정 영양섭취량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느냐, 또는 최소한의 열량섭취량이 얼마냐는 국민들의 신장과 체중 등에 따라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2000

년대 섭취량이 대략 3,000kcal수준이고 1980년대에 대략 2,400kcal수준이었음에 비추어볼 때 협력대상국의 식량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국가별로 기준이 상이하지만 1인1일당 영양섭취량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이 표는 KOICA 56개 협력대상국 중 WFP가 식량을 지원한 국가 40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표 3-10〉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부족하여 제외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제외되었다.

<표 3-11> 협력대상국중 WFP지원 대상국의 영양부족인구 비율

영양부족 인구비율	국가수	아시아	중남미	CIS	중동	아프리카
5%미만	3				이란	알제리,이집트
5-10%	9	인도네시아, 미얀마, 동티모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 바이잔	요르단	가나
10-20%	8	네팔,라오스, 필리핀	엘살바도르,		팔레스타인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20-30%	8	파키스탄, 스리랑카	볼리비아,과테말라 온두라스,니카라과			수단,카메룬,
30-40%	5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예멘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케냐
40-50%	4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잠비아,짐바브웨,
50%이상	1					DR콩고,(74%)

1) 자료부족으로 제외된 국가(2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2) 굵은 글씨는 KOICA의 중점협력대상국
자료: WFP (http://www.wfp.org/countries)

〈표 3-11〉에 포함된 38개 협력대상국 가운데 영양부족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DR콩고의 74%이고,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4개국은 40~50%가 영양부족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0% 이상의 영양부족인구를 보유한 국가는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영양부족 인구비율이 20~40%에 해당하는 국가는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가 각각 4개국씩이며 중동이 1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표 3-10〉과 〈표 3-11〉를 비교해 보면 1인 1일당 영양공급량이 2,400kcal 이상인 국가들은 대부분 WFP의 지원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영양부족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란, 알제리, 이집트 등은 1인 1일당 공급량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표보다 높은 3,000kcal 이상이면서도 WFP의 지원 대상 국가 명단에 올라있다. 또 온두라스의 경우는 1인당 영양섭취량이 2,400~3,000kcal 국가이면서도 영양부족인구 비율이 20%이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영양부족 인구나 기아문제는 소득분배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양부족 인구 비율이 20%이상인 국가 가운데 KOICA의 중점협력대상국은 아시아에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의 3개국이고 중남미에서는 과테말라,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 등 2개국으로 총 6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우선순위 결정

FAO가 식량위기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국가별 영양 상태를 고려하고, KOICA의 중점협력국가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식량 및 농업생산지원 대상국가 우선순위 결정

KOICA 지원 대상	국별	FAO지정 식량위기국가	영양부족비율 (20%이상)	평균섭취열량 (2400kcal이하)	우선순위
중점협력 대상국	방글라데시	O	O	O	I 순위
	스리랑카	O	O	O	
	에티오피아	O	O	O	
	이라크	O	O(?)	O(?)	
일반협력 대상국	아프카니스탄	O	O(?)	O(?)	II 순위
일반협력 대상국	파키스탄	O	O	O	II 순위
	DR콩고	O	O	O	
	케냐	O	O	O	
	수단	O	O	O	
	짐바브웨	O	O	O	

일반협력 대상국	네팔	O	X	X	III 순위
	미얀마	O	X	X	
	이란	O	X	X	
	코트디부아르	O	X	X	
	동티모르	O	X	O	

주 1)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의 영양실태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국별 상황 검토 결과 본래 농업생산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장기간의 전쟁과 내전으로 농업생산기반이 파괴되었으므로 영양상태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KOICA 사업이 특정국가에 편중될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하여 지난 7년간 KOICA가 제공한 원조실적과 해당국가의 인구를 감안한 1인당 지원액이 적은 순서로 정리하면 〈표 3-13〉과 같다.

<표 3-13> 협력대상국별 KOICA 지원 실적(2000~2007년)

협력대상국		전 체		인구(2007년) (백만 명)	1인당 지원 (US$)
		7년간 지원액(백만 불)	건수(건)		
아시아 (7개국)	파키스탄	14.0	14	162.4	0.1이하
	방글라데시	17.0	29	158.6	0.1
	미얀마	14.2	20	48.8	0.3
	네팔	14.1	30	28.1	0.5
	아프가니스탄	51.2	69	약30	1.7
	스리랑카	38.8	31	19.9	1.9
	동 티모르	3.3	2	1.1	3.0
아프리카 (6개국)	DR콩고	2.4	12	62.4	0.1이하
	짐바브웨	1.4	17	13.4	0.1
아프리카 (6개국)	코트디부아르	2.6	10	19.3	0.1
	케냐	4.5	24	37.5	0.1
	수단	4.5	25	38.6	0.1
	에티오피아	12.5	21	79.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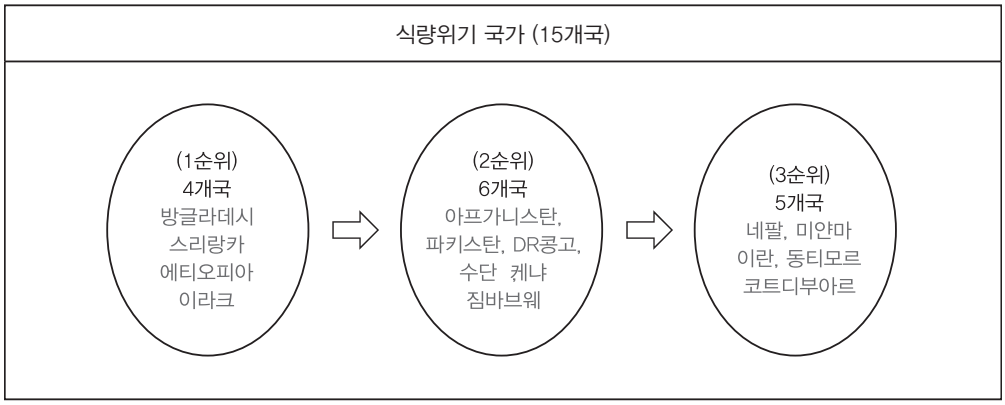
중동 (2개국)	이란	7.2	9	71.0	0.1
	이라크	269.4	113	28.9	9.3

자료: KOICA, 통계시스템(http://stat.koica.go.kr/)과 OECD “Statistical Annex of the 2009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www.oecd.org/dac/stats/dac/dcrannex) 재구성, 다만, 아프가니스탄의 인구통계는 현지 대사관 자료 인용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파병 대상국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있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면 검토대상국 모두 연간 지원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 적은 수준이며, 1인당 지원액도 대상국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을 제외하고 1순위 또는 2순위 국가들을 선정하여 지원할 경우 KOICA 원조가 특정 국가에 집중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한 KOICA 지원 우선순위를 나열하면 〈그림 3-2〉와 같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 증산잠재력이 큰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이들의 식량증산이 자국의 식량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수입수요 축소 또는 수출확대에 의한 국제 시장의 안정을 통해 모든 국가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3-2> 지원대상국가의 우선순위



6. KOICA의 식량원조 방안

가. 식량원조 여건과 접근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협력대상국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해법은 식량을 직접 공급하는 소위 식량원조(Food aid) 방식이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량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는 일찍이 T. W. Shultz에 의해 제기[51] 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식량원조가 인도적 또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원국의 식량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황을 더 어렵게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식량원조가 잉여농산물 처분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거나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피해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원국 주도의 대책(recipient- driven response)이라기보다는 공여국 주도(donor-driven)의 대책이었고, 따라서 수원국의 관심사보다는 공여국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52]

더욱이 식량원조가 수원국의 식량수급에 있어서의 대외 "의존성(dependency)"을 높일 수 있고, 식량증산을 위한 제도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외부 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원국의 부패와 비리 때문에 식량원조가 꼭 필요한 계층에 전달되지 않을 우려 등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하여 극단적인 비판론자들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 즉, "명확하게 정의된 긴급 상황"에서의 인도적 원조가 아닌 모든 현물 식량원조(commodity food aid)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53] 이처럼 다양한 비판과 함께 앞에서 살펴본 국제적 논의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식량원조는 최근 들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는데 극적인 개선을 보여 왔다.[54]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경지면적이 대단히 협소한 나라이다. 따라서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산물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잉여

51) Shultz, T. W. "Value of Farm surpluses to under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farm economics, 42(1960):1019-1030

52) OECD,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food aid: does tying matter?」, 2006; FAO,「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06, Food Aid for Food Security?」, 2006 p.3에서 재인용.

53) International Relation Center, "Congress rejects food aid for local development", Bad Neighbour Policy No.1., 2005. 10

54) FAO,「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06, Food Aid for Food Security?」, 2006

농산물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국제 식량원조를 주도해온 국가들과 위치해 있는 좌표가 다른 특징이 있다. 사실 쌀의 경우에도 UR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약속한 물량을 매년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입국임에 틀림없다. 그 밖에 밀, 보리쌀, 옥수수, 두류의 국내 자급률도 2008년 기준으로 각각 0.4%, 36.1%, 0.9%, 7.1%에 불과한 전형적인 식량수입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55] 또한 거의 모든 식량작물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단국가의 다른 한쪽은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라의 하나이다.

따라서 KOICA의 식량원조는 이러한 현실과 국제적 논의를 충분히 감안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 입장에서 보면 식량원조는 언제라도 활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는 잠재적 대안 중 하나이다. 다만 전술한 우리나라 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상황에 따라 식량원조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나라들의 식량원조와는 배경과 성격이 전혀 다른 특이한 경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KOICA로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국제규범 등을 기준으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WTO/DDA 협상 등 이를 둘러싼 국제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식량원조 추진방식

식량원조는 지원형식에 따라 (1) 현금을 지원하여 수원국가가 그 돈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방법, (2) KOICA가 수원국 내의 시장 또는 인근 국가의 시장에서 현물을 구매하여 원조하는 방법, (3)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재고를 수원국가까지 수송하여 현물을 공급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로 제공된 식량을 수원국가 정부가 국내시장에서 판매토록 하느냐 아니면 무상으로 취약계층에 공급되도록 하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이처럼 방법에 따라 식량원조가 수원국가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이 다르고, 수원국내의 수혜자, 해당 품목의 생산자, 그리고 원조식량 수혜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항에서 살펴본 원조효과 면에서는 현금지원의 경우 효과가 크고 현물지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 것이 국제적 논의내용

55)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9

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식량원조가 지닌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의 상당부분은 현물지원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KOICA 식량원조는 첫째, 수원국에 식량구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원하거나, 수원국에서 현물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식량원조는 원칙적으로 내전 및 전쟁, 재난 등으로 식량이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고 지원기간도 WFP와 같이 3~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 밖에 식량이 지원되는 채널에 따라 (1) 양자차원의 직접원조와 (2) 국제기구 등 다자채널을 통한 간접원조 방식이 있다. 대규모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1회성 긴급 식량원조의 경우에는 양자지원 방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며, 원조행정의 인력과 비용절감,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효과의 다자화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자채널이 활용된다.

다. 현물원조 가능성 판단 기준

원조되는 식량의 원산지에 따라 (1) 국내산 식량을 원조하는 경우와 (2) 수입된 식량을 원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쌀을 실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가능성과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왜냐하면 쌀은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소비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급상의 잉여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해외원조 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표 3-14> 쌀 소비 및 수입추세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119.6 kg('90)→106.5('95) →93.6('00) →80.7('05) →75.8('08) ·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 증가 2004년 수입량 20만 5,000톤(소비량의 4%)을 매년 약 2만 톤씩 늘려 2014년에 41만 톤(소비량의 8%)까지 증량.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09

(1) 국내산 식량을 무상원조하는 경우

원조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식량원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WTO 농업협정 제10조 4

항 b"와 "FAO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 의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원조물량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KOICA 또는 우리 정부는 원조협약 체결에 앞서 수원국가에 이미 쌀을 수출하고 있는 제3의 교역상대국들에게 우리의 원조계획을 통보하고 양자협의, FAO/CSSD 통보, 그리고 다자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식량원조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제이다.

우리 요청에 따라 양자협의 테이블에 나올 쌀 수출국들의 관심 사항과 입장은 나라에 따라 다양할 것이며 정확한 사전예측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대응준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짚어보아야 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쌀 수출국 입장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당연히 UMR 보장여부일 것이다. 즉 우리의 식량원조로 인하여 지금까지 수원국가가 협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쌀 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면 상대국은 합의해줄 이유가 없으며 이 식량원조는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특정 국가에 대한 식량원조를 검토하는 것은 제3국의 UMR 보장 대안이 동시에 검토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문제이다. 국내외 가격 차이는 국제가격 변동이나 환율변동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며 비교하는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쌀은 국내외 가격차이가 대단히 큰 대표적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가격구조 하에서 KOICA의 원조비용 측면만을 고려하면 국산 쌀을 구매하여 원조하는 방안은 국제 시장에서 구매하여 원조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대안이다. 따라서 "국내산 쌀을 무상원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원조비용과 원조효과간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원조효과 제고와 국내 쌀 시장안정이라는 두 정책목표 간의 조화에 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셋째, 우리의 쌀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에 따라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를 받고 있는 품목이며, 동 협정의 기본원칙(제4조의 관세화 Tariffication)이 아직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품목이다. 양자협의 상대인 쌀 수출국들은 이와 같이 WTO 체제 내에서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생산된 한국산 쌀이 원조형태로 국제 시장에 공급될 경우 대단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은 결코 무리한 가정이 아니다. 그들은 특별대우와 관련하여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에 명시된 조건들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

하고 양자협의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특별대우와 관련하여 협정에 사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건(효과적인 생산제한 조치: Effective production- restricting measures)과 사후적으로 발생한 상황(수급상 잉여 및 해외원조)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전준비가 필요한 문제이다.

● 판단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산 쌀을 무상 원조"하기 위해서는

① 쌀 수출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수준의 UMR 보장대안 준비, 원조비용 및 효과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WTO 농업협정상 특별조치의 전제조건이행 등 수출국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이와 같은 선행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식량원조 대신에 식량생산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국내산 식량을 장기차관 형식으로 원조하는 경우

"국내산을 장기차관 형식으로 원조하는 경우"에도 "국내산을 무상원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WTO 농업협정"과 "FAO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 의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쌀 수출국들에게 UMR을 보장하는 대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차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식량수출이 되므로 국제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더 복잡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대안이다.

첫째, 차관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WTO 농업협정 제10조 4항 c"와 "1986년 식량 원조협약"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식량대금의 상환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자율은 국제 시장의 상업적 이자율보다 낮아야 한다.

둘째, 수출보조 문제이다. 국내외 가격차이가 몇 배나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산 쌀을 장기차관 형식으로 원조(수출)하는 것은 높은 국내가격으로 쌀을 조달하여 낮은 국제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내외 가격 차이는 WTO 농업협정 제1조(e), 제9조 1항(b)에서 규정한 "수출보조(Export subsidy)"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동 협정 제8조는 농업협정 및 각국의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보조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UR 협상 당시 해당 수출보조 지급실

적이 없어 이행계획서에는 쌀 수출보조나 감축 등에 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방안은 장기차관 형식으로 원조되는 쌀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아야 하는 극히 비현실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대안이다. 또한 시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내적으로 고가수매-저가원조(수출)에 따른 "적자를 누가 어떤 형식으로 부담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생산된 한국산 쌀이 장기차관 형태로 국제 시장에 공급될 경우 쌀 수출국들은 무상원조보다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특히 그들은 쌀이 특별대우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관세화가 유예될 당시 "수출보조가 지급되지 않았다(No export subsidies have been provided)"라는 전제조건(WTO 농업협정 부속서5 제1항 b)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 판단 기준

"국내산 쌀을 장기차관 형식으로 원조"하는 방안은

①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심각한 국제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WTO 농업협정상 특별조치 전제조건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는 대안이다.

② 별도의 특별한 카드가 없어 수출국들과의 합의도출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⑶ 수입된 식량을 무상 또는 장기차관 형식으로 원조하는 경우

이 경우도 쌀 수출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수준의 UMR 보장 대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내산 쌀을 원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국내외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조비용과 효과간의 괴리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산을 원조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대신 수입쌀을 원조하는 방안은 농업통상규범과 관련하여 국내산 쌀과는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산 쌀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에 의하여 소위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이하 MMA)" 형태로 수입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MMA는 UR 협상 당시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의 경우 관세화와 함께 국내 소비량의 일정비율(3~5%)에 대하여 수입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MMA는 관세화 메커니즘

의 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WTO 농정개혁의 핵심제도며, 수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내소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입수요를 신규로 창출하여 점진적인 교역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쌀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에 의하여 관세화가 유예되고 있으면서도 일반기준(3~5%)보다 적은 MMA(95~04년 1~4%, 05~14년 4~8%) 특별조치(Special Treatment)를 받고 있는 품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된 쌀을 무상원조하기 위하여 수출국들과 양자협의를 시도할 경우 UMR에 앞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쟁점이 이처럼 MMA로 수입된 쌀을 원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일 것이다. MMA로 수입된 식량을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찾지 못했지만, MMA제도의 본래 취지와 우리 쌀의 특별조치 상황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장기차관 형태로 원조할 경우의 차관조건 문제(상환기간, 이자율), 수입비용과 수출(원조)가격 간에 역 마진이 발생할 경우의 수출보조 관련 논란 등은 국내산을 원조하는 경우의 검토내용과 같아 차관 형식의 원조는 더욱 현실성이 적다.

● 판단 기준

"수입된 식량을 원조"하기 위해서는: 쌀 수출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수준의 UMR 보장대안 준비, MMA로 수입된 양곡을 원조·수출하는 것에 대한 수출국들의 문제제기에 대응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 KOICA의 식량원조 추진

상술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구조적인 여건을 종합하면 KOICA의 식량원조 추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식량원조란 대단히 까다로운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우며, 특히 보유하고 있는 식량재고를 현물로 원조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다양한 국제상황과 원조수요에 대응해 나가야할 무상원조 기관이 선택대안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해버릴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KOICA의 식량원조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DDA 협상 타결 여부 또는 관세화 유예의 지속여부 등 통상규범과 관련된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식량원조가 지닌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과 규제의 상당부분은 보

유하고 있는 재고식량을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의 원조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KOICA의 식량원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현금을 지원하여 식량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수원국 내의 시장에서 구매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다. 셋째, 앞에서 설명한 "식량원조 관련 국제규범"에서 밝혔듯이 수출국들과의 사전협의 의무가 면제되는 긴급 식량원조, WFP 등 국제기구에 대한 증여,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식량원조(밀, 보리, 옥수수, 수수 등 곡물 10,000톤 이하, 쌀 1,000톤 이하, 분유 400톤 이하 등) 등의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후 통보는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KOICA가 식량원조를 추진하더라도 이는 단기조치에 그쳐야 하며 동일한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식량원조가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식량원조는 적정한 시점에서 식량증산 지원으로 전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7. KOICA의 식량증산 지원방안

가. 식량증산 지원의 일반적 원칙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식량증산과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실로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 일찍이 개도국의 식량농업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졌던 A. T. Mosher는 이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56] "농업의 기본요소", "농업발전의 기본요소", 그리고 "농업발전의 가속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농업의 기본요소로서 태양, 물, 공기, 토양 등 농업이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과 함께 농민들의 의식 · 관행 · 태도 · 종교 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용하는 토지의 이용방법과 소유제도 그리고 영농체계 등도 농업의 기본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농업발전의 기본요소로는 시장, 기술, 영농자재, 증산유인, 수송 등을 들고, 특히 영농기술과 영농자재의 경우 패키지에 의한 종합적인 접근 그리고 현장 가용성을 강조하

56) Mosher. A. T,「Getting Agriculture Moving: Essentials for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1966

고 있다. 또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믿음, 그리고 영농자재와 생산된 농산물을 운반할 도로와 운반수단이 농업발전의 기본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셋째, 농업의 기본요소로 강조된 바 있는 농민에 대한 교육훈련과 이를 담당할 요원, 농업금융, 농민들의 협동 활동, 농지의 질적 향상과 개발, 그리고 정부의 발전계획 등은 농업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다.

<표 3-15> 식량증산에 필요한 기본요소

농업의 기본요소 Essentials of Agriculture	농업발전의 기본요소 Essentials of Ag. Development	농업발전의 가속요인 Accelerators of Ag. Development
1. 생산과정(생산여건) 태양, 물, 공기, 토양 등 2. 농민: 의식, 관행, 태도 3. 농장(토지): 화전, 정착, 목축, 소유·소작제도 4. 영농체계: 영농규모, 복합(전문)영농, 작부체계, 비용과 수익 등	1. 시장: 수요, 접근성 및 제도, 시장에 대한 신뢰 2. 기술: 패키지 (신품종, 시비, 병충해, 파종·관리·수확방법 및 시기), 기술전파, 지도·연구 3. 영농자재 현장 가용성 적시성, 품질, 가격, 패키지 4. 증산유인: 가격(보상), 임차료, 생활여건,사회적 인식 5. 수송: 농촌도로	1. 교육 훈련: 모든 연령계층 현장, 관심과 필요, 성인, 농한기, 기술적·경제적 적합성, 교육요원 2. 농업생산 금융: 고리채 대체 영농자재 외상공급, 지도금융 등 3. 공동 활동: 시설 (도로, 다리 등) 병충해, 협동조합, 자치활동 4. 농지 개량 및 확대 토질향상, 신규농지 확대 5. 국가적 농업개발계획

자료: Mosher. A. T,「Getting Agriculture Moving: Essentials for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 1966

KOICA 협력대상국들은 농업발전 또는 식량증산을 위한 기본요소에 있어서 국가별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의 기본요소인 기후, 토양 그리고 농업용수의 가용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증산의 주체인 농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의식, 관행, 태도 등의 문화적 차이도 크다. 또한 토지 이용방식에 있어서도 아프리카의 화전농업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와 중동의 유목(遊牧)형태의 목축업도 있고, 아시아 벼농사 중심의 농업도 있다. 식량증산에 이용되는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양 그 자체의 조건은 물론 소유제도나 영농체계 등이 서로 다르다. 중남미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이 있는가 하면 소농중심의 국가들도 있다.

이처럼 농업의 기본요소가 다양한데 더하여 농업발전의 기본요소나 농업발전 가속요인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량증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콘텐츠를 수원국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리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즉 수원국의 정

치 · 경제상황이 현재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영향권 내에 있는가, 아니면 이들이 종료되고 복구단계나 평상시 상태인가, 또는 농업발전 수준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시설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자연조건이 열대우림인가 사반나인가 몬순인가, 지배적인 농업형태가 무엇인가 등에 따라 원조사업의 콘텐츠가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방향〉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협력대상국은 모두 11개국이며(중국,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피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쌀 농업이다.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몽골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쌀은 주식이며 생산액 1, 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얀마(소량) 외에는 쌀 순수출국이 없는 특이한 지역이다. 이는 이 지역의 식량사정에 여유가 없으며 작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급기반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의 식량수급 상황에 따라 주변 국가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농지감소, 축산물 소비와 사료곡물 수요급증 현상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 지역 협력대상국 가운데 FAO가 발표한 식량위기 국가 명단에 포함된 나라는 미얀마와 동티모르 등 2개국이다. 미얀마는 한때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을 정도로 증산 잠재력이 큰 나라이며, 그 잠재력의 개발여부에 따라 국제 쌀시장 및 식량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식량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 정치 · 사회적 불안정, 서방의 제재조치, 사이클론 피해 등이 겹쳐 심각한 빈곤과 경제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량위기 완화전략 차원에서 미얀마의 쌀 증산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이클론 피해지역의 쌀 생산시설 복구가 중요하며 특히 해수유입으로 인한 염분피해를 조기에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와 기술 또는 장비의 지원도 검토될 수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정착농업이 지배적이고,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유교 또는 불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많으며, 소농구조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식량증산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과 교훈을 전수할 수 있는 토양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물적 지원 외에 위에서 소개한 “농업발전의 기본요소”나 “농업발전의 가속요

인"과 관련된 분야의 지원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남아시아 지역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방향〉

남아시아 농업지대에 속하는 협력대상국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5개국이다. 이 중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쌀보다 밀이 더 중요한 국가이며, 강우량이 적어 관개시설이 식량증산의 관건인 나라들이다. 반면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쌀 중심의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지역 5개국 모두 최근의 글로벌 식량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했던 국가들이며 FAO가 발표한 식량위기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인재와 자연재해가 겹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이 지역의 오랜 내전과 정정불안, 테러 등의 인재와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겹친 결과이다. 그렇지 않아도 과밀인구와 빈곤으로 인한 만성적 식량부족 상태에 있는 국가에 인재와 자연재해가 겹친 상황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곡물 가격급등은 이들 협력대상국의 식량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아시아 지역 협력국가들의 이런 상황은 KOICA의 무상원조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적 착안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이 지역은 극심한 식량부족에 직면한 피난민과 이재민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며, 향후 KOICA의 식량원조 검토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지역이다. 둘째, 무력충돌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식량생산 관련 시설(도로, 교량, 관개시설, 방조제 등)의 피해복구와 공공서비스(종자공급, 농업기술 연구와 보급 등)확충에 대한 원조수요가 많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신규사업과 달리 과거의 식량생산 능력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실패의 위험부담도 적어 원조효과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셋째, 농가단위 식량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의 공급 또한 이 지역 식량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장기간의 피난민 또는 이재민 생활에서 귀환한 농민들의 생활과 영농활동의 재개를 위한 다양한 원조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은 인도적인 측면 뿐 아니라 피난민에 대한 긴급 식량원조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이 지역 협력대상국들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즉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관개수리, 방글라데시의 홍수방지, 네팔의 홍수와 산사태 방지와 관련된 기술과 시설 등에 대한 원조가 이들 국가들의 안정적인 식량증산에 기여할 것이며 이 분야의 원조수요가

상존한다는 점 또한 중요한 착안점이라고 하겠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방향〉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다양한 식량작물재배 그리고 양과 염소 사육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11억 ha의 토지가 있지만 대부분 물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계절에 따라 고지대와 저지대 또는 비가 내리는 지역과 건조한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는 유목민이 많다. 건조한 여름과 온화한 겨울을 지닌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면적으로는 10% 미만이지만 농업인구의 거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반면에 전체 면적의 태반을 차지하는 건조지대에는 관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주식인 밀, 보리 등의 겨울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이 발달해 있다. 이 지역에는 식량위기 국가로 분류된 이란과 이라크 외에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예멘, 팔레스타인 등 9개의 협력대상국이 있다. 이들은 밀을 주식으로 하면서도 막대한 양의 밀을 수입하는 구조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밀 생산 증감은 국제가격의 등락으로 연결된다.

이 지역 식량증산과 관련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관개시설인데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따라 물 사용에 있어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라크의 예에서 보듯이 대규모 관개시설을 중심으로 한 물관리가 소수 농민 또는 정부기관에 집중됨으로서 물의 이용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그로 인한 식량증산의 제약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KOICA가 지역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협력대상국 가운데 이집트는 700만 톤 가까운 쌀을 생산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란도 350만 톤이 넘는 쌀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식량증산을 위하여 쌀 증산과 관련된 지원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 협력대상국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농촌의 인력부족 및 우수한 농지의 전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가 유사한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시켜 온 영농 후계자 제도, 우량농지 보호제도, 농업 기계화 촉진 제도와 경험 등도 이 지역 협력대상국가의 식량증산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지역 협력대상국들이 최빈국 또는 저소득국 단계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및 전문가 초청 등 학술 및 기술 분야의 교류와 전수, 그리고 공동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원조방식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건조지대 토양 중 상당 부분이 염해에 노출되어 있고, 이란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표토가 깊지 않은데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지력저하 문제, 비료와 농약 사용에 기인하는 수질저하 문제,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자원 감소문제 등은 우리나라 농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여 협력대상국들의 공동대응(필요시 한국 참여)노력을 지원하는 원조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6> 중동 및 북아프리카 협력대상국의 쌀 생산현황(2007년)

국가	재배면적 (천ha)	생산량 (조곡 천 톤)	ha당 수확량 (조곡Kg/ha)
이라크	124	393	1,500
이란	630	3,500	5,556
이집트	668	6,877	10,288

자료: FAO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방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비교적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어 극심한 빈곤과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협력대상국들은 유럽의 식민지 시대를 거쳐 20세기 후반에 독립된 국가들이 많아 법령이나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드물어 전쟁과 내전 등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 있고 다수의 난민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농업구조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과 생계위주의 영세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짐바브웨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농업여건이 좋은 고지대에서는 유럽인들이 개발한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커피, 코코아, 차, 고무 등의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영세소농들은 화전농업 또는 저지대의 정착농업을 통해 바나나, 망고, 코코아 등 다년생 작물과 카사바, 얌 등의 아열대성 작물을 재배한다. 표고가 높은 지역은 비교적 온도와 습도가 낮아 밀, 보리, 수수 등 잡곡 생산 지역이 많지만 강우량이 충분치 않은 곳에서는 목축업이 성행한다. 이 지역의

협력대상국들의 식량농업 상황은 KOICA의 무상원조 전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착안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수많은 피난민과 극한 수준의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많고 이들을 중심으로 식량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들의 경우 당장 식량원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DR콩고, 케냐, 코트디부아르, 수단, 에티오피아 등의 협력대상국들이 그 예에 속한다. 둘째, 이 지역의 식량증산과 관련한 최대의 제약요인은 물 부족인 경우가 많다. 기후적으로 건조지대가 많기도 하지만 중점 협력대상국가인 에티오피아의 경우 잦은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으며, 케냐의 가뭄피해도 심각하다. 농업용수 개발, 관개시설 투자, 수리시설 개선 등은 단지 에티오피아나 케냐뿐만 아니라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증산의 가장 핵심적인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구의 온난화 및 사막화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 지역에서도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쌀 농업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지역의 쌀 생산국에는 식량위기국인 DR콩고와 코트디부아르가 포함되어 있고, 식량위기국은 아니지만 KOICA 중점 협력대상국인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 협력대상국인 마다가스카르는 쌀이 생산액 제1위의 품목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협력대상국 중 이들 쌀 생산국의 ha당 생산량은 DR콩고의 0.7톤에서 마다가스카르의 2.7톤까지로 우리나라의 7.4톤(조곡기준)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표 3-1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협력대상국의 쌀 생산현황(2007년)

국가	쌀의 생산액 순위	재배면적 (천ha)	생산량 (조곡 천 톤)	ha당 수확량 (조곡Kg/ha)
나이지리아	9	2,451	3,186	1,299
세네갈	5	80	193	2,407
탄자니아	5	710	1342	1,890
코트디부아르	8	356	696	1,701
DR콩고	8	418	316	755
가나	12	120	342	2,016
마다가스카르	1	1,300	3,596	2,766

자료: FAO

이들 국가의 쌀 단수 부진요인과 증산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KOICA의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시키는 구상도 구체화할 가치가 있는 분야라 하겠다. 에티오피아도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원 하에 증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지원

식량증산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분야선정과 관련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해당사업이 수원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사업은 공여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으므로 본 항에서는 후자와 관련하여 우리가 경험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분야를 정리해 본다.

우리가 식량증산을 위해 그 동안 경험하고 발전시켜온 분야가 다른 개도국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식량증산 경험과 관련된 성과와 시행착오는 협력대상 국가들, 특히 그 중에서도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개도국 식량증산에 의미 있는 교훈과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선진 공여국가들이 갖지 못한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농지관리 및 수리시설〉

1950년대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가 호당 3ha를 상한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법에 의해 추진된 농지개혁의 추진 과정과 방법은 현재 농지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협력대상국들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전후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70년대까지 토지이용의 집약도와 토지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도시화 · 산업화의 진전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영세소농 구조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농지 임대차의 허용과 구조개선 사업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업구조의 영세성은 한국농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 또한 개도국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식량생산의 기본인 농지와 관련하여 이처럼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대외지원이 가능한 분야가 농지제도 운용 및 관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협력대상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분야도 우리가 주곡 자급실현을 위해 농지를 새로 조성하고 기존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적한 역사의 집적이다. 한편 이 분야는 현재 진행형 성격이 더 짙은 분야이며 우리가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지금도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과 지하수 개발 및 농어촌 용수를 확보하고,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불규칙한 농지를 기계화 영농에 맞도록 정비하여 영농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하는 사업, 채소류 주산(主産)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하는 밭작물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농업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기계화 및 영농자재〉

우리 농촌은 60년대 이전의 농업부문 과잉취업 시대를 거쳐 70년대에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이 식량증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에는 학생, 공무원, 군인들까지 동원되어 영농지원 활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농업기계화로 이를 극복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최근 농촌주민의 도시 이동으로 농촌의 식량증산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여러 협력대상국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농업기계화는 현장에 맞는 기계가 개발되어야 하고, 상응하는 인프라(농로 포함)가 조성되어야 하며, 농민들이 농기계 조작 및 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부품공급과 수리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지원과 농기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의 공동이용 시스템 내지는 위탁 작업시스템도 중요하다. 이처럼 농업 기계화와 관련된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요원의 양성과 함께 농업 기계화와 관련된 물자나 장비의 지원 또한 KOICA의 식량증산 지원활동 분야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특히 영세소농 구조하의 쌀 생산국가의 증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농촌의 과잉인구를 지니고 있는 협력대상국들의 경우 현장 여건에

맞는 영농도구와 장비(예: 낫, 살 분무기, 운반도구, 탈곡기 등)의 개량과 지원도 중요할 것이며,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영농자재 산업육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영농 자재 산업의 경우 단지 농업 기계화나 영농도구 및 장비에 그치지 않고 비료, 농약, 시설원예용 철제와 비닐, 농산물의 포장 자재, 운송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양곡관리제도 및 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주식인 쌀 생산량이 절대 부족하였고 해외의 무상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무상원조가 중단된 데다가 세계적인 석유파동과 식량위기가 겹치면서 극도의 식량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때는 인구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때였다. 그리하여 강력한 가족계획을 통한 인구증가 억제, 혼·분식 장려, 쌀 7분 도정제도, 음식점의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무미일(無米日)제도 등 쌀 소비절약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증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비료, 농약 등의 생산자재 공급능력을 확충, 다수확 신품종 재배 확대, 시범포의 설치 운영, 수리시설 확충, 다수확 농민에 대한 시상제 등이 증산정책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쌀과 보리에 대한 2중 가격제(수매가격〉방출가격)의 시행으로 농민들에게 강력한 증산유인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에 힘입어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고 쌀 소비는 억제되어 주곡의 자급이 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축산물 소비가 현저하게 늘어나는 반면 쌀 소비는 줄어들어 사료용 곡물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70년대 초에 비해 40%이상 감소하였고, WTO 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량까지 수입되어 국내 재고량 증가가 정책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국내외 가격의 괴리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독특한 경험 즉 법령과 제도의 정비, 종자생산 및 공급체계, 영농자재 공급체계, 영농 기술지도 체계와 방법 등과 함께 다양한 관련 조직의 운영과 역할,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은 식량부족 개도국의 식량증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각종 시설과 장비의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신용과 협동조합〉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은 다른 곳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동남아 등 여러 개도국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촌과 도시의 신용사업을 통해 농촌의 고리채(高利債) 문제를 극복하고 농촌발전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의 외상공급을 통해 농업기계화 및 병충해 방제에 기여했다. 특히, 동일지역에서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조직인 작목반을 육성하여 상업영농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양곡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수매, 보관, 판매 등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였고 이 모든 기능은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이룩한 성과와 그 과정에서 경험한 부작용 등은 개발도상국의 식량증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및 현장조사와 컨설팅의 제공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타 분야〉

개도국의 식량증산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허장 · 정기환[57] 및 정기환 · 김용택 · 허장[58]등의 연구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그 중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분야가 KOICA의 식량증산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이들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의 전수와 아울러 그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의 지원 그리고 시범농장의 설립 운영 등도 검토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 쌀을 비롯하여, 과실, 채소 등 여러 분야의 육종기술
- 신품종 종자 생산과 보급체계
- 가축 인공수정을 비롯한 가축 개량기술
- 양계, 양돈 등의 집약적 축산기술
- 시설원예 중심의 집약적 원예기술
-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체계
- 수자원개발, 경지정리, 관개시설, 개간 · 간척 분야의 기술과 경험

57) 허장 외, 「국제농업협력의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3.

58) 정기환 외,「대 개도국 농촌개발 경험 전수방안연구」, KOICA, 정책연구 2008

· 쌀의 도정기술(RPC 등) 및 각종 농산물의 저장 · 가공 등 수확 후 관리기술
·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육성 등 시장접근성 제고 분야

라. 상황적 특성에 맞는 지원

식량증산 지원의 일반 원칙과 관련하여 "가"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사업의 콘텐츠를 수원국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리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식량농업 여건의 지역별 특성에 대하여는 "나"항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항에서는 각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관련한 지원방향과 추진방식을 모색한다.

첫째, 내전을 포함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진행 중인 국가의 경우는 난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일단 긴급 식량원조에 중점을 두고, 요청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비료, 종자, 자재 등을 공급하여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전쟁이나 재해가 종료된 국가의 경우에는 파괴된 농업시설과 농업시스템을 복구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복구 사업과 더불어 난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시켜 추진할 수도 있으며, 특히 농업시설이나 시스템의 기본 틀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복구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정착민을 위한 식량지원과 동시에 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영농활동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복구 사업을 취로사업과 연계하여 원조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내전 외에 식량부족의 가장 큰 요인은 대부분 물 부족이므로 수원확보와 관계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농민의 자재조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종자와 비료 등의 자재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목농업 혹은 화전식 농업이 중심인 국가의 경우는 이 같은 지원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농업형태를 바꾸기 위한 장기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업생산 여건도 비교적 양호하고 내전과 같은 요인이 없지만 토지제도 등 경제시스템의 문제로 식량생산이 저조하여 식량부족이 발생한 경우는 외부의 지원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우므로 기초 인프라 구축, 기술지원과 전문가 교육 등 지원 전에 원조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농업노동력이 감소하여 식량생산 활동이 위축된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험한 소규모 기계화, 이중곡가제도에 의한 생산 인센티브 부여 방식 등 정책 컨설팅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방식〉

KOICA 사업 중에서 농어촌개발 분야의 사업유형을 보면, 프로젝트 유형의 사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다른 분야의 사업유형(긴급지원 및 행정비용 등 제외)과 비교하면 프로젝트 사업과 개발조사의 비중이 66%로 여타분야의 53%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물자지원과 전문가 파견의 비중은 농촌개발 분야가 월등히 낮다. 이는 농촌개발 분야의 특성 즉, 국내에 개도국 지원활동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많지 않고 역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59)]

<표 3-18> KOICA의 사업유형별 원조실적(2008년)

구분	농촌개발분야 무상원조금액 (백만원)	여타분야 무상원조금액[1/] (백만원)	농촌개발분야 사업유형별비중 (%)	여타분야 사업유형별비중 (%)
프로젝트	14,069	129,015	52.2	48.1
개발조사	3,453	13,549	12.8	5.1
연수생초청	3,382	32,822	12.6	12.2
전문인력파견	78	2,602	0.3	1.0
봉사단파견	2,916	46,173	10.8	17.2
NGO지원	2,619	7,201	9.7	2.7
물자지원	407	36,735	1.5	13.7
합계	26,924	268,097	100.0	100.0

주1/ 긴급원조, 행정성 경비, 개발인식지원 등 제외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2009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KOICA가 앞으로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수원국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 볼만한 착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협력대상국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국내 인력의 네트워킹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과거 해당국 공관이나 상사 주재원 근무경험자, 식량농업부문 봉사단 활동 경험자, 주한 공관원 등을 발굴하여 식량농업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원조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것이다.

59) 이해균, 전게서

둘째, 국내 대학이나 공공기관, 농업관련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학술교류나 연수과정 또는 안식년제도 등과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술교류나 연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세계화 시대에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연구와 연수는 선진국에서의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만 참가자들이 선진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KOICA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과 협조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이 방식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농업관련 정보부족을 보완하는 동시에 원조사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의 대학, 연구소, NGO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에는 이미 KOICA와 파트너십을 갖추고 식량농업 분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기관 중에 식량농업 분야의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보유하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KOICA 사업을 홍보하고 그들의 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량농업 분야의 잠재적 협력대상기관의 명단을 〈별첨 3-5〉으로 첨부하였다. 비록 비영리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지만 그 중에는 개인 또는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식량 농업분야 원조사업 협력과 관련한 접촉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KOICA의 식량위기 우선 지원 방안

이제 앞에서 제시된 무상원조 전략에 따라 2개의 우선 지원 대상국을 선정하고 그 나라가 겪고 있는 식량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과제가 남았다. 먼저 대상국 선정과 관련하여 전술한 협력대상국가의 지원 우선순위(그림 3-2)에 따르면 1순위 그룹은 현재 가장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중점 협력대상국가로 ① 스리랑카, ② 에티오피아, ③ 방글라데시, ④ 이라크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현재 유사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꾸밀라 지역 농촌종합 개발 사업, 350만 달러, 2007~2010) 최소한 사업기간 중이라도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고, 이라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KOICA의 지원이 이루어진 국가로 이를 우선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할 경우 특정 국가로의 원조 집중을 더욱 확대시키는 부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우선 지원 대상국은 ① 스리랑카와 ② 에티오피아로 선정하였으며, 이 두 나라에 대한 식량위기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스리랑카 식량위기 지원방안

가. 농업여건과 생산현황

(1) 농업여건

스리랑카(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는 인도 동남쪽의 인도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가 한반도의 1/3 정도 되는 섬나라로 2천만 명의 인구가 대부분 농어촌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개도국이다. 1948년 영국연방 내 자치국가인 "Ceylon"으로 독립하였으나 1972년 영연방에서 독립 공화국으로 전환하면서 국호를 "Republic of Sri Lanka"로 변경했다가 1979년 신 헌법 공포와 함께 다시 현재의 국호로 개명하였다. 스리랑카 농업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부군과 반군간의 내전이다. 2009년 5월까지 북부와 동부를 점령하고 있던 타밀 반군(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이하 LTTE)은 장기간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정부에 준하는 조직을 운영하며 정부군과 대치상태를 유지해왔다.

<표 4-1> 스리랑카 경제 및 농업여건

국가	국토면적	65,610㎢
	인 구	20,217천명(2008년)
	인 종	싱할라족(74%), 타밀족(18%), 기타(8%)
	종 교	불교(69%), 힌두교(11%), 회교(7.6%), 기독교(7.5%)
	언 어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경제	GDP	40,718백만 달러
	1인당 GDP	2,014 달러(2008년)
	총수출	8,137백만 달러 (2008)
	총수입	14,008백만 달러 (2008)
	물가상승률	22.6% (2008년 연평균)
	화폐단위	Rupee(1$= 약 114 rupee, '09년 8월말 기준)
농업	국토지형	섬 주변해안의 평야지대, 중남부의 산악지대
	기 후	고온 다습한 열대성기후(콜롬보 연평균 기온 27℃)
	농촌인구 -고용비율	전체인구의 84.9%(2006년) -농업부문 종사인구가 총 취업인구의 30.5%(2005년)
	농업생산	GDP의 11.7% 쌀, 차, 코코넛, 고무, 닭고기, 쇠고기
	농산물수출	총 수출액의 16.7%(2005)

자료: 1) 외교부, 국가별정보 DB, (http://countryinfo.mofat.go.kr/main/index.jsp)
2) WFP, Countries, (http://www.wfp.org/countries/sri-lanka)
3) IFAD, (http://www.ifad.org/)

LTTE와 정부군이 26년 동안이나 대치하는 과정에서 내전은 그 지역의 농업기반을 붕괴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켜 국제 식량원조 수요를 창출해 내기도 했다. 이렇게 스리랑카 내전은 식량농업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과제며, 그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스리랑카 내전 개요

’83.07	북부지역 Jaffna에서(그림 4-1 지도참조) 타밀 게릴라에 의해 정부군 12명 살해⇒ 타밀족에 대한 보복성 인종폭동 발생⇒ 타밀족 수백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국외로 탈출(1차 엘람전쟁 시작)
’87.07	인도-스리랑카 간 협정에 따라 인도평화유지군 진주⇒ LTTE는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인도군 1,000명 사망
’90.03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 LTTE는 Jaffna 북부장악(2차 엘람전쟁 시작)
’91.05	LTTE, 인도 타밀나두주에서 Rajiv Gandhi 인도수상 암살
’95.12	LTTE가 해군함정 침몰(3차 엘람전쟁 시작), 정부군은 Jaffna 시 점령
’06.07	LTTE, 동부지역 농민에 대한 물 공급 거부⇒ 정부군이 작전개시
’07.07	정부군, 동부지역을 LTTE로부터 탈환
’09.01	정부군, LTTE의 사실상 행정수도인 Kilinochchi 점령 (그림 4-1: 지도참조)
’09.05	정부군, LTTE지역인 동부해안을 점령하고 압박 작전⇒LTTE, 지역 내 억류 시민들이 대거 탈출하면서 사실상 전쟁포기⇒ LTTE 최고 지도자는 엠블란스를 이용한 탈출 시도과정에서 정부군에 의해 사살
’09.08	과거 LTTE 점령지역인 2개의 시에서 민주적인 선거 실시⇒ Jaffna시에서는 집권여당이, Vavuniya시에서는 타밀족 정당이 각각 승리

자료: 1) 외교부, 국가별정보 DB, (http://countryinfo.mofat.go.kr/main/index.jsp)
2) 연합뉴스, 2009.8.9, (http://www.yonhapnews.co.kr/)

내전발생 이전 북부의 Jaffna, Killinochchi, Mullaithivu, Mannar 그리고 Vavuniya District는 농업활동의 천국으로 스리랑카 식량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으나 내전기간 동안 지뢰매설, 군사시설 구축, 농민일탈 등으로 인하여 토양과 수자원 등 농업기반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외부 지원으로 스리랑카 북부의 농업복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문가가 인터뷰 형식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신속한 복구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60] 내전 수복지구의 농업기반 복구 문제는 현재 난민수용소에 수용중인 주민의 귀향여건 조성과 맞물리면서 스리랑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 전문가가 농업복구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으로 밝힌 사업은 종자 공급시스템 복구 등을 통한 양질의 종자 공급체계 구축, 방치된 농업기반 시설복구, 비료, 농약, 농기구 공급, 수확 후 관리 인프라구축 지원 사업 등이다.

60) Sri Lanka Guardian, “Political settlement can revive agriculture in Sri Lanka”, 2009.8 (http://www.srilankaguardian.org/)

<그림 4-1> 스리랑카 행정지도



(2) 농업생산 현황

스리랑카는 북위 5~10도에 위치한 열대국가로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지역에 따라 16도(중부 고원지대)에서 29도(북동부 해안저지대, 최고 37도)까지 다양하며 강우형태는 몬순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어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16세기부터 시작되어 영국통치하에 있던 19~20세기에 확산된 대규모 기업형태의 플랜테이션(Plantation) 농업은 고지대의 많은 원시림을 차, 고무, 계피 등의 농장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수출상품으로 성장하면서 농업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경제와 생활양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61)]

이와 같은 식민지 시대의 플랜테이션(Plantation)농장은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대부분 국유화 되었으며 그 후 농장규모에는 뚜렷한 증감없이 대부분이 정부관리 하에 운용되고 있으나 쌀 농업만은 이와 다른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즉 1970~80년대에 정부가 건조지대를 농토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관개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지대의 논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작은 마을 단위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쌀 농가들이 취락을 형성하면서 플랜테이션과는 다른 형태의 논 농업지대 마을이 많이 들어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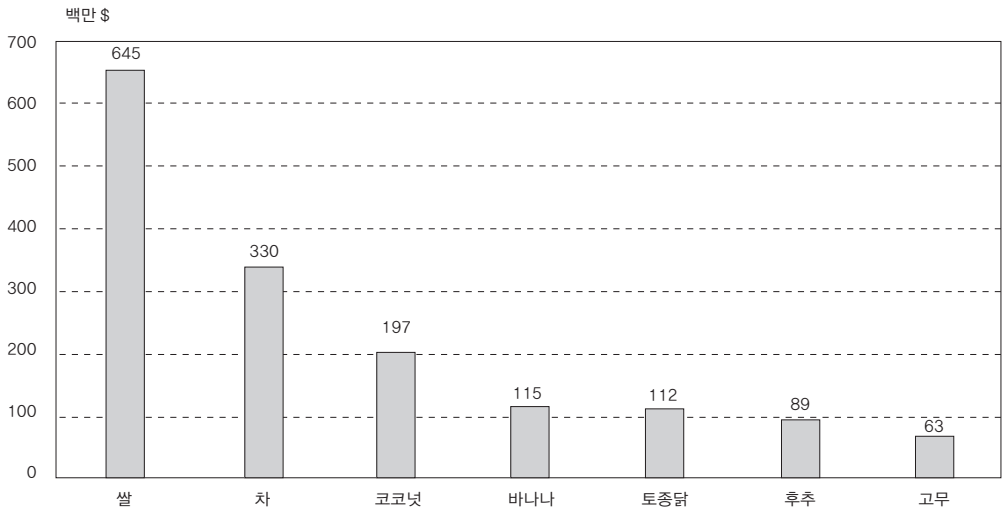
이렇게 품목별로 발달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스리랑카 농업의 주요 상품은 〈그림 4-2〉와 같으며,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쌀은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고, 차와 고무 등은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그리고 코코넛은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1970대 초까지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농산물이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했었으나 정부정책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으로 농산물의 수출상품 구성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 1996년에는 20%, 2005년에는 16.7%까지 감소한 반면 섬유의류의 수출상품 비중은 63%까지 상승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농업부문의 비전은 스리랑카 농업이 지역적으로 균형된 경제성장과 농촌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식량안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61) Country-Studies, Sri Lanka, (http://country-studies.com/sri-lanka/)

<그림 4-2> 스리랑카의 주요농산물 생산현황(2007년 기준)



자료: FAO, FAOSTAT, (http://faostat.fao.org/)

최근에는 느슨한 통화정책과 재정팽창이 맞물려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식량가격급등까지 겹쳐 22.6%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많은 국민들이 식량위기를 더 고통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 식량위기 상황분석

스리랑카는 국제 사회가 분류하고 있는 소위 "식량부족 저소득국가(Low Income, Food Deficit Countries: LIFDC)"에 속하는 나라이며, 이 나라가 식량위기를 맞게 된 요인을 WFP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압축 · 정리하고 있다; ① 내전 ② 쓰나미(Tsunami) ③ 가난 ④ 물리적 식량접근의 어려움.[62)]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내전이며 식량상황도 오랫동안 내전 영향권 내에 있던 북부와 동부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년 동안이나 계속된 내전은 농민들을 생활터전으로부터 일탈시켰고, 이렇게 농지와 영농시설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서 이 지역을 빈곤의 땅으로 변모시켰다. WFP가 2003년 9월 당시 스리랑카 내전에 의해 영향

62) WFP (http://www.wfp.org/countries/sri-lanka)

을 받고 있던 북부와 동부지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며 5~7세 아동의 51%가 정상 체중에 미달하는 상태며 이 지역 영양부족 인구는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WFP가 지적한 바와 같이 스리랑카가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게 되는 과정에서 내전 외에 또 다른 기폭제 역할을 한 재앙이 쓰나미이다. 2004년 12월 스리랑카 해안을 덮친 쓰나미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함께 농업 생산기반이 순간적으로 붕괴되어 식량안보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63] 그러나 이 자연재앙과 내전에만 식량위기의 책임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04년 바닷물이 스리랑카의 해안을 덮치기 전에도 전체 인구의 25%인 5백만 명이 이미 빈곤선 이하의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스리랑카 빈민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거주해 왔으며 농촌빈민의 40% 이상은 영세소농 형태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내전이나 자연재앙과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이러한 농촌빈민은 Central, Uva, Sabaragamuwa, Southern 주에 집중되어 있었다[64](그림 4-1: 스리랑카 지도 참조). 이 4개 주는 전기, 도로,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아직은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이 자리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결국 농업만이 주민의 고용을 책임지면서 다른 분야의 발전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스리랑카 독립 이후 역대 정권은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이 농업성장이 지지부진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세소농들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농업생산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아직도 취약한 재정과 낮은 수준의 농업투자, 전근대적인 농업생산 기술, 높은 수확 후 손실 및 관리부재, 일관성 없는 가격과 교역정책 등의 제약 요인을 안고 있다.

물론 현 정부는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 증대, 전통 농업의 상업농업 전환을 통한 식량

63)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Proceedings of the Workshop to Develop Strategies for Advancement of Agricultural Sector in Tsunami Affected Areas of Sri Lanka」, 2006. 3

64) IFAD (http://operations.ifad.org/web/ifad/operations/country/home/tags/sri%20lanka)

안보 개선 등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해 소규모 영농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 정부는 기술지도와 농산물 유통 발전, 효과적인 농업금융 서비스 제공, 농정의 지방화 등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를 위하여 과감한 경제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은 내전과 쓰나미에 의한 파괴적 충격 외에 스리랑카 농촌의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고 있다.[65)]

첫째는 정부의 발전전략과 정책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공급측면에 기초한 Top-down 방식의 계획수립과 집행, 재정지출 면에서의 농업부문에 대한 우선순위 부재, 정책집행의 낮은 효율성, 불분명한 중앙정부와 지방위원회의 역할 등이 농업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3% 선을 유지하던 농업 GDP의 실질성장률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0.4%대로 대폭 감소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나라 농촌에 빈곤을 구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농산물과 농업자재 시장에서의 공공부문의 과도한 개입 문제이다. 규제성격이 강한 시장정책은 농업생산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서 농가차원의 생산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제활동 범위를 비농업부문으로 다양화하는 노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지의 활용과 매매를 제한하는 정책은 농지소유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전략을 다양화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며 빈번한 수입관세의 변경은 국내 가격변동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셋째는 취약한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 문제이다. 스리랑카의 지방분권제도는 권한을 이양 받는 지방에 복잡하고 과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나마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지방위원회의 기능이 비 분권적인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민 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재정수입을 창출하고 납부하는 준 정부기관들의 능력부족, 상호 상충되는 법규 등이 겹치면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질 낮은 공공서비스는 빈약한 인프라와 상호작용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

65) World Bank, “Sri Lanka: Priorities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9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SOUTHASIAEXT/EXTSAREGTOPAGRI/0,,contentMDK:20273817~menuPK:548217~pagePK:34004173~piPK:34003707~theSitePK:452766,00.html)

농업과 농촌정책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지적한 World Bank와는 달리 아래와 같이 농업생산성 증대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제약요인을 지적한 현지공관의 시각도 있다.[66]

정부는 10개년 개발계획(2006~2016)인 "Mahinda Chintana: Vision for a New Sri Lanka"에서 농촌지역개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이다.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현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품종개발에 큰 진전이 없어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연구기관의 기능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농업용수 공급문제이다. 2007년에 시작된 North Central주의 Moragahakanda 개발 사업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개시설 개발 사업은 건조지대에 농업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농토를 조성하고 식량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내전 수복지구의 경우에는 수리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고 다른 건조지대에 이미 건설된 수많은 저수지 경우에는 침전물이 과다하게 퇴적되어 담수능력이 매우 적거나 아예 능력이 퇴화되어 버린 저수지가 많다.

셋째는 적절한 비료를 공급하는 문제이다. 널리 쓰이고 있는 요소비료의 경우 최근에 가격이 폭등하자 현 정부는 구매가격의 일부를 보조하면서 동시에 유기비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이 의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곡수매 문제이다. "쌀 Marketing Board"가 있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미소와 미곡판매소 등이 유휴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정부는 이 Marketing Board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효과적으로 수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식량문제 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은 우선 부족한 곡물을 조달하는 것이며 당장 2009년도에 수입해야 할 곡물이 122만 톤에 이를 것으로 FAO는 전망하고 있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그 중 약 50천 톤 정도는 외부 원조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66) 외교통상부, 최근 시장정보, 08.12.4
(http://www.mofat.go.kr/economic/marketinformation/trend/index.jsp)

<표 4-3> 스리랑카의 2009년도 곡물수입 전망

(단위: 천 톤)

2008년 실적			2009년 전망			
상업적 수입	외부 식량원조	합 계	연간 수입전망	2009년 6월말 실적		
				상업적 수입	식량원조	합 계
1,175.0	46.1	1,221,1	1220.0	372.3	7.2	379.5

자료: FAO,「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9. 7
(http://www.fao.org/docrep/012/ai484e/ai484e00.htm)

다. 외부 지원 사업개요

(1) 긴급 식량원조

긴급 식량원조와 관련한 다자채널은 WFP가 주도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 대한 WFP의 식량원조는 취약계층과 내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영양보조, 학교급식, 실업자와 토지 무소유 근로자에 대한 취로사업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내전종식이라는 상황이 없던 시점에서 WFP가 예측했던 2009년도 스리랑카 원조사업 수요는 〈표 4-4〉에서와 같이 745만 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09년 5월에 26년간 지속된 내전이 종식되기 직전 수개월 동안 정부군과 LTTE 간의 치열한 전투과정에서 28만 9,000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40개의 임시수용소에 이들을 수용하였으나(Vavuniya 수용소 26만 2,000명, Trincomalee 수용소 1만 6,000명, Jaffna 수용소 1만 1,000명) 식량문제는 거의 외부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WFP는 Vavuniya 창고의 식량재고를 늘리고 임시수용소 주변에 이동 창고를 설치하여 배급을 실시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식량배급대신에 스리랑카 최대 제빵공장 3곳에 밀가루, 설탕, 식용 등을 공급하고 이들이 직접 구운 빵을 피난민 수용소에 공급하고 있다.[67] 이 사업을 연말까지 지속하기 위해 4,000만 달러의 모금을 추진하던 WFP는 2009년 8월에 스리랑카의 내전종식 이후 복구지원을 위하여 1,700만 달러의 PRRO사업 예산을 증액하였다. 이 PRRO사업은 국내 파트너인 국토재건부(Ministry of

67) WFP, (http://www.wfp.org/countries/sri-lanka)

Nation Building and Est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와 협의하면서 2010년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표 4-4> WFP의 2009년도 스리랑카 원조사업 예측

(단위: 백만 달러)

	원조수요	원조실행	이월	부족률(%)
특별사업(SO)	1.5	-	1.5	100.0
복구를 위한 연장원조(PRRO)	71.6	13.1	57.6	80.4
개발원조(DO)	1.4	-	1.4	100
합 계	74.5	13.1	60.5	81.2

원조수요 내역 (단위: 톤)

	곡물	두류	식용유	혼합식량	설탕	합계
PRRO	61,868	8,716	3,868	6,725	3,152	84,329
DO	-	-	-	1,737	-	1,737
합계	61,868	8,716	3,868	8,462	3,152	86,066

WFP원조 수혜자 (단위 천명)

DO	PRRO	합 계
84	1,175	1,259

주1) WFP사업명칭(SO, PRRP, DO): 제2장. 3. 가. (3) "WFP의 기능과 활동"참조

자료: WFP, Projected Needs for WFP Projects and Operations,
(http://www.wfp.org/operations/projected-needs)

이상과 같은 WFP의 식량원조 활동 외에 양자차원에서 정부 간 별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내용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4개국이 6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600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것도 3/4을 부담한 미국을 제외하면 더 작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2009년 8월 기준). 그러나 금년 5월에 내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 피난민 구호와 복구수요를 감안하면 양자차원의 식량원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식량원조 사업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4-5〉와 같다(각국의 식량원조 세부사례는 〈별첨 4-1〉로 첨부).

<표 4-5> 스리랑카에 대한 각국의 식량원조 내역

(단위: 건, 천 달러)

	미국	독일	일본	스페인	합계
사업건수	59	3	1	1	64
원조금액	27,495	4,343	4,244	411	36,493

자료: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http://aida.developmentgateway.org/aida/CountryView.do?iso3=LKA)

이처럼 40개의 캠프에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스리랑카 정부의 조치는 성격상 어디까지나 임시대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들이 원 거주지로 귀향하여 재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2009년 중에 피난민의 80%를 재정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현재 캠프에 수용중인 피난민에 대하여 신원확인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8월 Vavuniya의 한 대중연설에서 정부의 북부지역 복구담당 최고책임자(Basil)는 재 정착지원 방침에 따라 피난민중 40천명이 이미 원 거주지 등에 재정착조치 되었다고 밝힌바 있다.[68]

North주 정부는 수용중인 난민이 귀향 후 재정착하는 과정을 돕기 위하여 가구 당 농장 개설비 4,000루피/Acre(약 9 달러/10a)를 지급하고 종자와 비료를 현물로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이들이 농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귀향지역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 수용시설에서 재정착지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외부 원조수요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단기적인 긴급 식량원조 필요성이 줄면서 재정착민들에 대한 중장기 농업생산 지원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장기 농업생산지원

OECD가 집계한 스리랑카의 ODA 수원총액은 연간 6억 9,000만 달러(2006~2007년 평균)수준이며, 주 공여주체는 일본, 독일, 미국과 AsDF, IDA 등이며 3,300만 달러 상당의 사업을 지원한 우리나라는 8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비농업부문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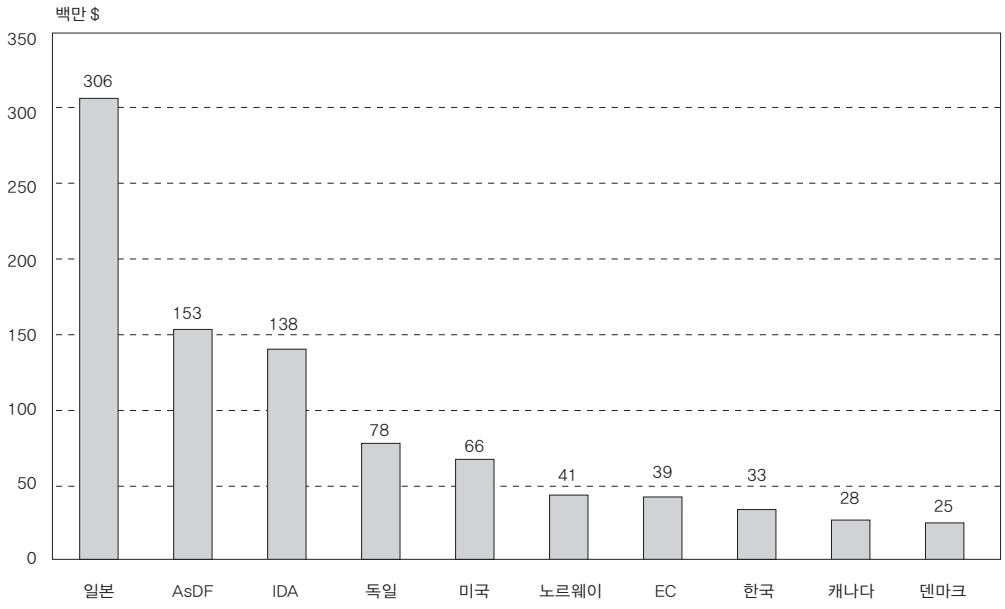
68) 외교통상부, 국가별정보 DB, (http://countryinfo.mofat.go.kr/main/index.jsp)

<표 4-6> 스리랑카의 ODA 수원 현황

	2006	2007	2006/2007평균
Net ODA (백만 달러)	792	589	690
양자 원조비율(%)	66	57	62
Net ODA/GNI (%)	2.8	1.8	2.3

자료: OECD, Aid Statistics, (http://www.oecd.org/dataoecd/21/7/1880804.gif)

<그림 4-3> 스리랑카에 대한 10대 ODA 공여주체(2006~2007년 평균)



자료: <표 4-6>과 같음

반면에 식량농업분야의 전문기구인 FAO가 추진하는 사업 중 스리랑카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총액은 7,780만 달러이다. 그러나 이 총액의 3/4이상은 스리랑카가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광역사업이며, 스리랑카만을 위해서 진행 중인 사업은 37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소규모사업으로 총액은 1,8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진행 중인 FAO 사업 중 스리랑카와 관련이 있는 사업개요는 〈표 4-7〉과 같다(스리랑카에 대한 FAO 사업 세부사례는 〈별첨 4-2〉로 첨부).

<표 4-7> 진행 중인 FAO사업 중 스리랑카 관련사업 개요

(단위: 건, 천 달러)

	스리랑카 단독사업		아시아태평양사업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업생산분야	7	397	4	4,603	11	4,990
식량농업정책	16	628	5	6,501	21	7,129
긴급조치/복구	6	10,383	2	8,452	8	18,835
농촌개발분야	3	53			3	53
수산관리분야	3	6,620	3	31,909	6	38,529
산림관리분야			1	4,354	1	4,354
정보관리/연구	2	226	1	3665	3	3,891
합 계	37	18,297	16	59,484	53	77,781

자료: FAO, (http://extranet.fao.org/fpmis/FPMISReportServlet.jsp)

FAO 외에 다른 국제기구들도 스리랑카에서 식량농업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개요를 요약하면 〈표 4-8〉과 같다.

<표 4-8> 국제기구의 스리랑카 농업분야 지원 사업(FAO 제외)

국제기구	사업개요	사업기간	금액(천$)
세계은행	Gemi Diriya 지역개발 사업	2004-2009	51,000
세계은행	내전영향권 내의 지역 개발 사업	2004-2011	13,720
세계은행	조류독감 통제시스템구축사업	2007-2009	1,433
UNDP	가뭄지역의 물 저장탱크 공급(4건)	2007-2009	48
UNDP	소규모 관개시설 건설사업(3건)	2005-2010	133
IFAD	소규모 플랜테이션 농업개발(융자)	2007-진행	22,500
IFAD	쓰나미 복구/수산자원관리(융자)	2006-진행	15,700
IFAD	건조지대 생활개선사업(융자+보조)	2005-진행	22,000 -보조: 339

자료: ① <표 4-7>과 같음,

② IFAD, (http://operations.ifad.org/web/ifad/operation/ country/home/tags/sri%20lanka)

스리랑카 농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사업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69] 이 의견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안이지만 스리랑카 농업의 문제점이 잘 녹아 있다는 점에서 농업생산 지원 대상사업 검토와 향후 추진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계획에는 농업성장과 식량안보를 위해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지 전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식량증산 및 자급의지가 담겨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통한 기술과 종자개선,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더 개방된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농업용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목표 중심의 우선순위를 수요자 입장에서의 계획과 관리로 전환하고 관련제도와 절차를 개혁하는 것이다.

셋째, 농민들이 더 많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개정이 필요하나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전 수복지역의 농지소유권 문제 등을 포괄하는 농지제도개선 종합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사회의 요구에 상응하는 지방정부의 능력발전이 중요하며, 특히 기본 인프라와 관련된 지방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농촌투자 분위기 조성과 고용기회 창출의 계기가 된다. 또한 마을단위의 공동주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접근은 지역의 공동대응 능력증진과 사회적 자본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FAO, World Bank, UNDP, IFAD 등 국제기구들의 지원 외에도 개별국가와 양자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리랑카 농업분야에서 양자지원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주체는 〈표 4-9〉(세부사례는 〈별첨 4-3〉으로 첨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JICA이다. 우리의 농수산분야 지원은 77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2개의 수산분야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농업분야는 아직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이 전부이다.[70]

---

69) World Bank, "Sri Lanka: Priorities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SOUTHASIAEXT/EXTSAREGTOPAGRI/0,,contentMDK:20273817~menuPK:548217~pagePK:34004173~piPK:34003707~theSitePK:452766,00.html)

70) KOICA, KOICA Statistics, (http://stat.koica.go.kr/)

<표 4-9> 각국의 스리랑카 농업분야 지원 사업

(단위: 만달러)

	사업내용	사업기간	금액
일본	농업관련 종합개발 사업 (41건)	2007-2011	1,799
캐나다	쓰나미 관련 농업기반복구 사업(2건)	2005-2009	387
이태리	식량작물생산 지원 사업	2005-2010	100
한국	농업분야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06-2009	20
미국	취약계층주민의 경제사회활동지원	2005-2010	12
독일	농업생산 연구 및 현장지도(3건)	2005-2010	7
노르웨이	농업생산자조직 육성	2007-2011	5
기타	건조지대의 농민생활여건개선	2005-2013	6,081

자료: <표 4-7>과 같음

지금까지 검토내용을 종합하면 시급한 것은 피난민 수용시설 등 수복지구 관리를 위한 식량원조이다. 이는 명분이 뚜렷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정부계획대로라면 지원수요 자체가 단기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라. KOICA의 지원방안

(1) 식량위기 지원전략: 피해복구와 난민 정착지원

앞의 "나" 항(식량위기 상황분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WFP,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은 스리랑카의 식량위기를 초래한 요인으로 26년간 지속된 내전, 2004년의 쓰나미(Tsunami), 만성적인 가난, Top-down 방식의 정책수립, 농업부문에 대한 우선순위 부재,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개입, 농촌지역의 취약한 공공서비스 등 수 많은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지적된 요소 각각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이 수립 · 시행되어야 하나 그 대부분은 스리랑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고유한 몫이며, 외부 원조기관의 지원노력은 난민들에게 식량을 직접 원조하거나 내란으로 파괴된 시설 등을 복구하여 스스로 식량을 증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KOICA의 지원전략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긴급식량원조〉

현 시점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긴급 식량원조가 이루어진다면 그 대상은 당연히 긴급 수요가 가장 큰 내전관련 난민 수용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지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WFP는 내전종식 직후 난민 수용소용 식량공급을 위하여 1,700만 달러의 예산증액을 마쳤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국 등이 양자채널을 통해 3,600만 달러 규모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KOICA의 식량원조가 이루어진다면 현지의 심각한 식량상황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스리랑카 정부가 수용중인 난민의 80%를 연내에 재정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난민들이 수용소에서 원 거주지 등 재정착지로 이동하게 되면 수용소 운용과 관련한 긴급 식량원조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긴급 식량원조를 추진한다면 연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를 넘긴 다음의 긴급 식량지원은 실기한 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우리의 방침이 확정된 다음에도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이 더 걸리는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원조" 방식은 이미 적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없는 한, 시기적으로 서두를 수 밖에 없는 긴급 식량지원에 우리가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긴급 식량원조를 위하여 서두르는 것 보다는 내전으로 파괴된 시설과 시스템을 복구하고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구지원 우선대상지역〉

스리랑카 농업이 2008년에 풍작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심각한 위기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세 곳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내전의 영향과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의 영향이 서로 겹친 North주 지역, 둘째 2004년 쓰나미에 의해 파괴된 생산기반이 재대로 복구되지 못한 상태에서 곡물 가격급등을 맞은 해안지역, 마지막으로 자연재앙이나 내전과 무관하게 전통적으로 가난한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Central, Uva, Sabaragamuwa, Southern주 등이다. 세 지역 모두 식량상황이 어렵고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지만 ODA 공여

자 입장에서 보면 지원여건이 각각 다른 특성이 있다.

북부지역의 경우 내전 수복지구로 농업기반 시설이나 관리시스템이 오래 동안 방치되었던 지역이다. 그 지역의 농업복구 사업은 임시캠프에 수용된 피난민의 정착지원 사업과 연계되면서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고,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현장에 참여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안정과 지뢰 제거작업 등이 조기사업 착수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해안지역의 경우 농업생산 기반 복구 등 외부 지원 공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지역 파트너가 유사한 선행 사업들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 착수와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4~5년 전에 발생한 쓰나미와 관련된 사업을 뒤늦게 시작함으로서 상징성이 떨어지는 부담이 있다. 전통적으로 가난한 농가들이 많은 중남부지역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더 긴급을 요하는 북부나 해안지방을 외면하는 모양이 되어 원조사업의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부담이 있다.

내전이 종료된 현재 스리랑카의 최대 현안은 수복지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즉 대부분 농민으로 살아온 피난민을 조기에 귀향시키고 이들이 농민으로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농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식량사정이 가장 어려운 이 지역 주민이 스스로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선 지원 대상 지역은 북부지역(Northern Province)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현지 정부 관련부처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실 본 연구의 주제인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식량문제가 취약한 지역은 차, 고무농장 등 대규모 플랜테이션 주변 지역의 농업노동자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내전 수복지구의 식량상황은 이보다 더 악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스리랑카 정부의 판단이다.[71] 따라서 스리랑카 식량위기의 지역적 특성, 내전종식 이후 정세변화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할 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KOICA의 지원 대상 지역은 내전 수복지구 중 농업복구 수요가 가장 큰 북부지역부터 시작하여 해안지역 또는 중남부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타당한 접근전략으로 사료된다.

71) 스리랑카 농업개발부, 「National Program for Food Security-Development Strategy」, Colombo, SriLanka, 2009. 3. p.10

· CAS와의 관계: 한편 북부와 동부지역에서 내전이 진행 중인 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KOICA 국별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이하 CAS)에는 스리랑카의 특수한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무상협력사업은 치안이 확보된 중부, 남부,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정부와 LTTE간 평화협상 상황 등을 보아가며 빈곤지역인 북부나 동부지역 순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스리랑카 정세를 감안하고 제한된 무상협력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일반원칙이었다. 그러나 식량위기해결을 위한 지원 대상지역을 검토하는 현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제 내전이 종식되어 스리랑카의 정세와 치안상황의 지역적 구도가 바뀐 만큼 지원전략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식량위기 대응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해법은 그 분야와 현지의 특수상황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식량위기 상황을 기준으로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북부지역(Northern Province) 농업상황〉

경제 · 사회여건: 26년간 지속된 정부군과 LTTE간의 전쟁은 북부주 5개 Districts (Killinochchi, Jaffna, Mullaithivu, Mannar, Vavuniya)를 극도로 피폐한 지역으로 변모시켜 놓았다. 지역경제 붕괴, 마을단위의 기초인프라 파괴, 농업자재 및 농산물 시장 붕괴, 농업기술 및 행정지원 시스템 마비,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이 지역에 수용소의 난민을 귀향시켜 정착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난민의 대부분은 전쟁 이전 또는 전쟁 중에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며 이들에게는 농사가 생활의 원천인 만큼 이들이 귀향하여 농업활동을 재개함으로서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생산 기반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도전과 과제: 이상과 같은 경제사회적 제약요인 외에 농업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기술적 제약요인들도 있다. 당장 농장을 재개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매설된 지뢰와 군사시설이며 이들을 제거하고 농업생산기반을 복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스리랑카 정부는 UNDP와 국제 NGO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뢰제거 작업을 긴급히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제거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 전에 축조된 저수지와 배수시설 등은 전쟁 중에 파괴되고 지하수 시설도 방치되

어 오염된 상태이다. 특히 해안지역에 설치된 해수 유입방지 제방(Salt Water Exclusion Bunds)들은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농업용수 관리시스템도 작동이 정지된 상태로 남아있다.

과거에 정부가 운용하던 종자와 종축관련 시설들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농장들은 용수공급이 중단된 채 정글화 되어 농업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고, 내전 종식과정에서의 치열한 전투 이후 주인을 잃은 가축들은 농촌을 배회하고 있다. 일부 귀향한 소규모 농가들은 농기구와 농기계 등을 잃었으나 다시 장만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원대상분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외부 원조는 FAO가 추진 중인 소규모 사업이 긴급구호, 농업생산과 농업정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은행, UNDP, IFAD, 일본 등의 중기 사업이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반 복구, 농업연구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내전 수복지구 농업문제에 특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전종식 이후 수복지구 농업복구와 관련한 사업수요는 금년 5월 이후에 발생하였고 공식자료나 현지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대내외 기관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출입마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어 아직은 정확한 상황파악이 여의치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수복지구 농업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는 현지 관계기관 및 관계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농업 및 재난 관련부처, North주 정부와 지방의 농업용수 관리기관, 그리고 FAO 현지사무소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면 수복지구 농업복구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원대상 분야는 “농업용수 관련시설 복구”와 “종자 등 농업자재 공급시스템 복구”라는 것이다. 한편 내전 수복지구 농업복구 사업은 내전종식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외부원조사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협의 ·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 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복구지원사업: 쌀 생산기반 복구 사업

이와 같은 현지시각과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쌀 농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KOICA지원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안은 향후 기술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보완된 후 KOICA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세가지 사업은 (1안) 쌀 생산기반 종합복구 사업(Jaffna), (2안) 종자공급시스템 복구 사업(Murunkan, Paranthan), (3안) 농업연구시스템 복구 사업(북부지역) 등이다.

〈사업 1〉

① 사업 명: "내전 수복지역 쌀 생산기반 종합복구 사업(Jaffna)"
"Rehabilitation of Conflict-Affected Salt Water Exclusion Bunds in Jaffna Peninsula"

② 추진배경: 내전 수복지구의 농업복구와 관련하여 해당 주정부 (Northern Provincial Council)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본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 장기간 방치된 농지는 최우선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 해안지역 농지의 경우 해수 유입차단을 위한 관련시설을 시급히 보수
- 그 동안 부분적으로 농업활동이 계속된 농지는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
- 가능하면 최대한 유기농업 확산을 유도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

이 원칙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현 상태에서 전쟁기간 중 해수유입으로 장기간 방치된 농지의 관련시설을 조기에 복구하여 영농을 재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으며 정부도 같은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있다.

③ 사업목적: 내전기간 중 파손된 해수 유입방지 제방을 보수하여 쌀농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난민들이 귀향하여 영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식량위기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④ 대상지역: Jaffna District/Northern Province

스리랑카 최북단에 위치한 Jaffna District는 1983년 LTTE와 정부군 간의 내전이 시작된 곳이며 농지형태는 대부분 논으로 되어 있고 쌀농사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내전기간 중 주민이 피난가면서 농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후 농업생산 시설이 방치된 상태며, 오래 전에 축조된 해수 유입방지 제방이 붕괴되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의 논이 대부분이다.

⑤ 사업내용: Jaffna지역 농업복구를 위해서는 파손된 제방을 모래와 흙으로 다시 보수하는 작업이 첫 번째 과제이다. 제방 35개소 중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곳은 32개소인데, 그 중 11개소는 외부 지원을 받아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완공 예정이나 나머지 24개소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표 4-10). 한편 현재 임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난민의 정착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조기에 제방을 보수하고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부대시설을 갖추는 과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 4-10> Jaffna 지역 해수 유입방지 제방 현황

(세부내역은 별첨 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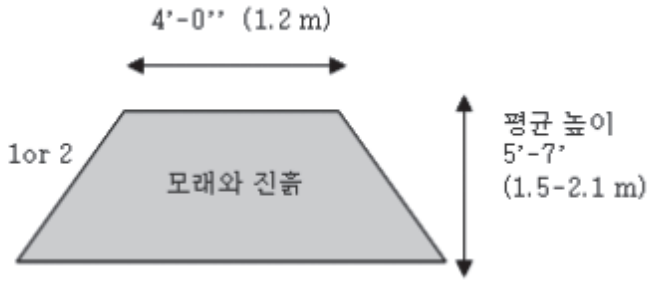
	제방 수	제방 길이		수혜면적	
		마일	Km	에이커	ha
복구공사 중(연내완공 목표)	11개소	13.75	22.1	3,575	1,447
복구공사 계획 미정(지원필요)	21	12.39	19.9	4,175	1,690
현지조사 미실시	3	6.31	10.2	1,000	405
합 계	35	32.45	52.2	8,750	3,541

주) 제방길이와 수혜면적: 통계가 없는 일부 제방의 길이와 수혜면적 미포함
자료) 스리랑카 Northern Provincial Council

해수 유입방지 제방복구: 공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방 24개소 중 예산사정, 제방의 훼손상태, 제방 상호간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일부 구간을 선택하거나 전체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모래와 흙을 가지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둑(Bund)을 쌓는 사업이며 현지에서 오래 전부터 활용되던 방법이지만 복구 사업의 세부내용은 조류, 파도, 강우량 등을 감안한 전문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소규모 저수지보수 및 건설: 제방보수 이후에도 가뭄 시 지하 해수유입으로 인한 염해 발생이 예상되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수유입 압력을 상쇄하기 위한 소규모 저수지를 보수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림 4-4> 해수 유입방지 제방 단면도



자료) 스리랑카 Northern Provincial Council

토양 및 수질개선: 제방보수가 완료되면 가능한 지역부터 영농을 시작하고 전쟁 중 해수 유입으로 오염된 토양과 수질상태를 검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쌀 종자 공급: 토양의 특성을 감안하여 염분에 강한 쌀 품종을 개발 또는 수입하여 보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재배하기 위하여 대 농민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방식: 제방 및 저수지 보수, 토양 및 수질개선, 벼 종자공급 및 농민교육 등 분야별로 각각 전문기관 세부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되 예산과 물적 지원 외에 관계기관의 전문가 파견, 사업추진 파트너 및 프로젝트 관계자의 초청연수, 공사현장 및 영농현장에 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방식을 적절하게 배합할 경우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⑥ 사업규모와 기간: 사업소요 예산: 제방보수 예산은 제방상태에 따라 소요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Km당 1.2백만 루피(약 10.5천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기준으로 가용예산 한도와 부대사업 예산을 감안하면서 제방보수 사업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저수지 보수 및 건설, 토양 및 수질개선, 염분에 강한 쌀 종자 공급 및 농민교육 관련 예산은 사업대상 제방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량이 가시화된 다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 기간: (1) 해수 유입방지 제방복구는 제방의 길이나 파손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당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 토양 및 수질 개선사업은 검사 자체는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겠지만 검사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소규모 저수지 보수 및 건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개별 저수지 보수 및 건설 공사는 당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벼 종자 공급 및 농민교육: 제방이나 저수지 등 토목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⑦ 기대효과와 수혜자: 재원부족으로 복구공사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나 (19.9Km) 현지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제방(10.2Km)을 모두 우리가 복구할 경우 2,000 ha의 논농사가 가능하다. 현재 Jaffna 난민 수용소에는 11천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외부 원조로 생활하던 난민들이 새롭게 식량생산 활동을 재개하게 되고 전쟁지역이 식량생산 기지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식량상황이 가장 심각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식량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전체의 식량수급 안정에도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⑧ 현지 사업파트너: “Northern Provincial Council”(지방정부), 중앙정부는 “Ministry of Irrigation and Water Management” 와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grarian Services”가 관장

⑨ 예상 문제점: 기술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업대상 지구 안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일단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그 지역부터 최우선적으로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므로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이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경우 사업 참여 능력과 의사가 있는 국내기관이나 업체들이 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참여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사업 확정을 위한 대정부 교섭과정에서 구체적인 신변안전 보장 장치를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2〉

① 사업명: 내전 수복지역 종자공급시스템 복구 사업(Murunkan, Paranthan) "Reactivation of Conflict-Affected Seed Supply System in Northern Sri Lanka"

② 추진배경: 내전 이전 스리랑카 정부는 쌀 주산지인 북부지방 농가에게 양질의 종자(주로 벼 종자)를 생산·보급하기 위하여 Murunkan과 Paranthan 두 곳에 각각 종자 공급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 종자 공급소의 활동이 중단되고 종자공급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상태이다. 내전종료 이후 피난민들의 귀향이 늘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벼농사를 기반으로 재정착을 시도하고 있어 양질의 종자공급이 긴요한 상황이다.

<표 4-11> 내전 이전 스리랑카 북부지역 종자공급소 현황

	Murankan	Paranthan
위치	Mannar Dist., Northern Prv.	Kilinochch Dist. Northern Prv.
면적	100 acre (약 40ha)	90 acre (약 36ha)
종자생산	연간 8,000 bushel의 벼 종자를 생산하여 Mannar Dist. 와 Vavuniya Dist.에 공급	연간 11,000 bushel의 벼 종자를 생산하여 Kilinochchi, Mullaithivu, Jaffna Districts에 공급
정선시설	2개소, 능력→ 500 bushel/일	2개소, 능력→ 500 bushel/일
민간시설	연간 5,000 bushel 공급	연간 5,000 bushel 공급
운영현황	1980년대 이후 운영중단	1990년대 이후 운영중단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grarian Services, Sri Lanka

③ 사업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전쟁으로 파괴된 종자보급 시스템을 복구하여 종자보급 활동을 재개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귀향민의 정착을 돕고 쌀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내전수복 지구의 식량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 사업은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취약지구의 식량안보 상황개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장기개발 계획인 "Mahinda Chintana"와 같은 선상에 있다. 또한 내전 수복지구의 농업복구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리랑카 정부의 최대 현안인 난민 재정착과 수복지구 안정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④ 대상지역: Murunkan 종자공급소: Mannar District, Northern Province.
Paranthan 종자공급소: Kilinochch District, Northern Province.

⑤ 사업내용과 규모: 전쟁기간 중 종자공급소의 건물, 기계, 시설장비 등이 거의 다 파괴되고, 인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 상태로는 종자생산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양질의 벼 종자를 생산하여 스리랑카 북부 쌀 주산지에 공급하고 과거처럼 종자포장과 선진 농업기술 시범포장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자공급소 건물과 종자포장의 시설장비 등을 복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스리랑카 정부가 Murankan과 Paranthan 포장의 종자생산 및 보급 시스템을 재가동하기 위하여 복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건물, 시설, 장비, 기계 등의 내역과 추정예산은 〈표 4-12〉 및 〈표 4-13〉과 같다.

이와 같은 물적 지원사업의 적정규모는 관련 전문가의 종자공급 시스템 전반에 관한 검토와 현지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더 깊이 있게 보완하거나 선택적인 참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자공급 시스템 복구와 관련하여 스리랑카 정부는 건물, 시설장비 등 물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지원만으로 정상적인 복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는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표 4-12> Murankan 종자공급소 복구 사업 내용과 예산규모

(단위: 백만 Rupee)

		사업내용	추정예산
단기사업 -긴급복구-		Double Cap(1) 7.0, 4륜 트랙터/트레일러(2) 6.0, 수로복구 1.5, 농장정리 1.0, 진입로 복구 1.0, 경운기(2) 0.5	17.0 (149천불)
장기 사업	국영 종자공급소	건물복구/신축(사무실, 매장, 숙소 등 8) 39.5, 수송 장비(4) 12.3, 기타 시설 장비 3.2	55.0 (482천불)
	국영 종자농장	건물복구/신축(매장, 숙소, 창고 등 13) 45.5, 수송 장비(6) 9.6, 기타 시설 장비 10.3	65.4 (574천불)
민간의 종자공급능력 증진지원		가공시설 및 기계 (3) 11.5, 매장시설(1) 7.5, 투입농자재 10, 농기계 및 농기구 등6.5	35.5 (311천불)
합계: 172.9 백만 Rupee (1,517천 US불)			

자료: <표 4-11>과 같음

<표 4-13> Paranthan 종자공급소 복구 사업 내용과 예산규모

(단위: 백만 Rupee)

		사업내용	추정예산
단기사업 -긴급복구-		Double Cap(1) 7.0, 4륜 트랙터/트레일러(2) 6.0,Lorry(1)5.0, 수로복구 1.5, 농장정리 0.5 사무실주변 울타리 2.0	22.0 (193천불)
장기 사업	국영 종자공급소	건물복구/신축(사무실, 매장, 숙소 등 8) 43.0, 수송 장비(3) 5.3, 기타 시설 장비 1.8	50.1 (348천불)
	국영 종자농장	건물복구/신축(사무실, 매장, 숙소, 창고 등 14) 64.0,수송 장비(8) 12.1, 기타 시설 장비 10.3	86.4 (756천불)
민간의 종자공급능력 증진지원		가공시설 및 기계(3) 11.5, 매장시설(1) 7.5, 투입 농자재 10, 농기계 및 농기구 등 11.5	40.5 (355천불)
합계: 199.0 백만 Rupee (1,746천 US불)			

자료: <표 4-11>과 같음

⑥ 사업기간: 종자공급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인원을 충원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물적 지원은 정부의 인적자원 충원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 정확한 사업기간 산정을 위해서는 기술팀의 실사결과와 진행 중인 지뢰제거 작업 상황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결정될 사항이다.

⑦ 기대효과와 수혜자: 양질의 종자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종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40~60% 이상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및 증산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그 만큼 식량위기 대응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는 종자공급관련 정부기관과 이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될 것이며, 2차적으로는 종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북부지역의 모든 쌀 생산농가가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식량위기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의 효과는 전 국민에게 확산될 것이다.

<표 4-14> 양질의 벼 종자 공급효과 추정

(단위: bushel/Acre)

	Murankan	Paranthan
지역생산 종자(A)	85	65
양질의 종자(B)	120	105
B/A (%)	141.2	161.5

자료: <표 4-11>과 같음

⑧ 현지 사업파트너: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grarian Services

(종자공급 사업은 중앙정부가 직할)

〈사업 3〉

① 사업 명: "내전 수복지역 농업연구시스템 복구 사업"
"Rehabilitation of Conflict-Affected Agriculture Research System in Northern Sri Lanka"

② 추진배경: 스리랑카 북부지역 "농업연구개발센터(Regional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는 1981년에 Kilinochchi District에 설치되었으며, 산하에 다음과 같이 5개의 지소를 두고 있다.

- Rice Research Station, Paranthon
- Agricultural Research Station, Mullaitivu.
- Agricultural Research Station, Murungan
- Agricultural Research Station, Jaffna.
- Adaptive Research Center, Vavuniya

내전 이전의 북부지역 연구센터와 5개 지소에는 훈련된 인적자원이 있었고,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많은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북부지역의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내전상황이 악화되면서 건물과 시설이 파괴되고 농업연구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어 연구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겨우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현재 Kilinochchi에 있는 북부농업연구 개발센터, Paranthon에 있는 쌀 연구소 그리고 Mullaitivu지소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Murungan과 Jaffna지소, 그리고 Vavuniya의 적응시험센터 사무실과 실험실 건물은 부분적으로 복구되었으나 숙소, 관개시설, 주변담장 등은 아직 복구되지 못한 상태이다.

③ 사업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전쟁 중 파괴된 북부지역의 농업연구시스템을 복구하여 이 지역 농업발전을 주도하게 함으로서 지역사회 스스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농업연구시스템의 복구는 스리랑카 정부의 인적자원 충원노력이 연구 성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파괴된 물적 자원을 적기에 복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는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④ 대상지역: 북부지역 농업연구개발센터가 있는 Northern Province 의 Kilinochchi District와 산하 5개 지소

⑤ 사업내용과 규모: 스리랑카 정부가 내전 수복지역의 농업연구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시한 시설복구 및 장비구입 등 물적 지원사업 내역과 예산은 〈표 4-15〉와 같다. 제시된 사업예산의 총합계는 314백만 루피(약 2,754천불)에 달하며 그 세부내역에는 관계기관의 의욕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구상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과 통합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을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15> 북부지역 농업연구 시스템 복구 사업 내용과 예산규모

(단위: 백만 루피)

	Kilinochchi 지역센터	Paranthon 쌀연구소	Mullaitivu 지소	Murungan 지소	Jaffna 지소	Vavuniya 적응시험
관개시설복구	3.0	2.0	2.0	2.0	2.0	2.0
사무실 복구	10.0	20.0	20.0	10.0	–	–
실험실 복구	20.0			–	–	–
숙소 재건축	30.0	15.0	15.0	15.0	25.0	20.0
도로 복구	5.0	–	–	–	–	–
울타리 복구	5.0	–	–	–	–	–
농기계 구입	3.0	2.5	2.5	2.5	2.5	2.5
농기구 구입	–	1.5	1.5	1.5	1.5	1.5
수송장비구입	20.0	10.0	10.0	10.0	8.0	10.0
합 계	96.0 (842천불)	51.0 (447천불)	51.0 (447천불)	41.0 (360천불)	39.0 (342천불)	36.0 (316천불)

자료: <표 4-11>과 같음

⑥ 사업기간: 농업연구사업의 핵심은 연구 인력인바 제2안(종자공급 시스템 복구)과 마찬가지로 물적 지원은 정부의 연구인력 충원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 물적 지원만으로 정상적인 상태로의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정확한 사업기간은 관련 기술팀의 실사결과와 진행 중인 지뢰제거 작업 상황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⑦ 기대효과와 수혜자: 파괴된 건물과 연구시설을 조기에 복구하여 마비된 농업연구 시스템을 되살림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를 재개하게 하고 이는 다시 이 지역의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1차적인 수혜자는 정부의 농업연구 관련기관이지만, 2차적으로는 연구결과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북부지역의 거의 모든 농가가 될 것이다.

⑧ 현지 사업파트너: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grarian Services(종자공급사업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사업도 중앙정부가 직할).

⑶ 국제기구와의 협력

이상 제시된 3개의 대안을 중심으로 KOICA의 원조대상사업이 결정되면 이를 스리랑카 정부와 양자채널을 통해서 직접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 사업 형식을 통한 소위 다자지원 채널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3개안 중 어느 것도 양자협력보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KOICA가 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한다면 그 협력대상은 FAO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당사국인 스리랑카 정부와 FAO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내전이 종식된 직후인 2009년 6월 스리랑카의 농업관련 4개 부처(농업개발부, 축산개발부, 관개 및 수자원관리부, 수산부)는 수복지구인 북부 농업복구를 위한 “180일 계획”과 “2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같은 달 4개 부처는 이 계획서를 FAO에 송부하고 보완 ·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재원부족분에 대한 국제원조 동원을 염두에 둔 요청이었고, 이에 대응하여 FAO는 2009년 7~8월에 특별 팀을 가동하여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완성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72)]

만일 KOICA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선호하여 FAO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이 계획에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이며, FAO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회원국과의 협력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상태이다.

(4) 사업의 구체화 절차

향후 이 대안들이 보다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원조계획 수립 및 집행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음 단계인 집행,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피드백(Feedback)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사이클(Project Cycle)을 염두에 두고 그 기초인 Project Design Matrix(이하 PDM)을 동시에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PDM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수혜자그룹, 수원국가의 사업수행기관, 정부기관, 관련 NGO, KOICA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지 워크숍(Workshop) 등을 통하여 논리적 분석 작업을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최초의(Version No.1) PDM 작성에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전문가 2~3명과 프로젝트 담당자로 구성되는 조사단이 약 2~3주간의 현지조사와 워크숍을 통하여 PDM을 작성하고 원조사업 진전에 따라 이 PDM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3)]

〈Project Design Matrix(PDM): 시안〉
사업명(Project Name): 내전 수복지역 쌀 생산기반 종합복구 사업(Jaffna)
사업기간(Duration): 사업대상 제방과 물량이 확정된 후 추후 결정
사업지역(Target Area): Jaffna District, Northern Province, Sri Lanka
수혜그룹(Target Group): 내전수복 지구(Jaffna) 귀향농민
작성일자(Date): 2009. 11. 수정본(Version No): 001

72) FAO「Sri Lanka, 「Recovery and Rehabilitation Program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n Conflict-Affected Areas of Northern Sri Lanka」, 2009. 8

73) KOICA, Project Cycle Management 교육자료

프로젝트 요약 (Narrative Summary)	증명 가능한 지표 (Verifiable Indicators)	자료 입수방법 (Means of Verification)	중요한 외부요건 (Important Assumptions)
사업목적 (Overall Goal): 스리랑카(특히 내전 복구 지역) 식량위기해소	기아인구 또는 영양 결핍인구 감소	스리랑카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통계수치	비농업부문 경제상황은 불변
사업목표 (Project Purpose): Jaffna 지역 식량위기 상황 해소	– Jaffna 지역 휴경 논의 쌀 농사재개 – 쌀 생산량 증가	–현장방문조사 –농정당국과 지방정부의 통계수치	내전 복구지역의 사회가 안정되어 있음
사업성과(Output) 1. 해수 유입방지 제방복구 2. 소규모 저수지 보수 및 건설 3. 토양 및 수질 개선 4. 쌀 종자공급	1. 제방이 복구되어 해수유입 없음 2. 저수지가 보수되어 염해가 없음 3. 쌀농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토양과 수질이 개선됨 4. 염해가 강한 품종이 보급 재배됨.	–현장방문조사 –관계기관 및 농민면담	–토목공사에 필요한 수준의 인력이 귀향함. –귀향한 주민들이 쌀농사 재개에 관심이 있고 협조적임.
사업 활동(Activities): 1,2–1 토목 전문가 파견 (제방과 저수지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 확정) 1,2–2 시공업체 선정 1,2–3 공사현장 준비 (파트너 인부동원 등) 1,2–4 제방과 저수지보수 공사 1,2–5 제방과 저수지관리 교육 3–1 토양/수질/종자 전문가 파견(현장검사) 3–2 토양/수질 개선 계획 수립 및 협의 3–3 사업주체 선정 3–4 토양/수질개선사업 3–5토양/수질 관련교육 4–1 쌀 종자 선정보급 4–2농민교육, 시범포장 등	전제조건(Pre–conditions): 내전과 관련한 물리적 장애(지뢰 등)가 제거됨		
	투입(Input)		
		KOICA	수원국가
	해수 유입방지 제방 및 저수지 복구	–현장조사/설계 –전문가파견 –토목공사시공 –시설관리교육	–공사현장준비 –공무원파견 –공사인력동원 –시설사후관리
	토양/수질개선	–토양/수질 조사 –전문가파견 –토양/수질개선 계획수립/집행 –관계자교육	–조사현장준비 –계획수립, 집행, 교육 협조

이와 같이 PD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가의 프로젝트 관련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참여적 접근(Participatory Approach)이 핵심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은 아직 KOICA 프로젝트로 확정되기 이전 단계의 시안이며, 그 점에서 확정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구분된다. 아직 KOICA 프로젝트로 확정되지도 않은 대안들에 대한 PDM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원국가의 수혜자 및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장기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하기 어려워 완결된 PDM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PDM을 통한 프로젝트 기획은 하나의 PDM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정과 보완을 전제로 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KOICA 프로젝트 확정 후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를 참여시켜 PDM을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제1안을 모델로 하여 PDM의 기초시안을 제시하였다. 비록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참여과정은 생략된 시도지만 프로젝트 확정 이후 PDM 작성 절차개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에티오피아 식량위기 지원방안

가. 농업여건과 현황

(1) 농업여건

에티오피아(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과 서남쪽으로 수단, 남쪽 방향으로 케냐, 동으로는 소말리아와 지부티, 그리고 북쪽과 동북쪽으로는 에리트레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한반도 5배 크기를 가진 이 나라는 중부지역이 해발 2,000~3,000m의 고원지대(4,600m이상되는 산도 있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고원은 국토의 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다양한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대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농촌은 에티오피아 인구의 84%가 생활하는 터전이고 GDP의 절반이 창출되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농업과 농촌은 이 나라경제와 사회에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과 역사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면서도, 오늘날 최빈국이라는 현실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림 4-5> 에티오피아 지도



Meles Zenawi 총리가 이끄는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이하 EPRDF)"은 오랜 투쟁의 역사를 거쳐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종족 자치 기구별로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전국적인 종족 연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에는 9개의 주 단위 지방자치 지역과 특별시가 있으며 각각 자율적 세입징수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 이 나라는 비교적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4-16> 에티오피아 경제 및 농업여건

국가	국토면적	1,114천㎢ (한반도의 약 5배), 경작 가능면적은 51.3백만ha지만 실제로는 그 20%인 10.6백만 ha 경작
	인 구	83백만 명(2008년)
	인 종	오로모(40%), 암하라(25%), 티그레이(7%) 등 80여 개
	종 교	이디오피아 정교 45%, 회교 40% 등
	언 어	암하릭어(공용), 영어, 이태리어 등 286개
	정부형태	연방제 공화국: 실권총리 중심의 내각책임제
경제	GDP	25십억 달러 (2008)
	1인당GDP	800 달러(2008)
	총수출	1,400백만 달러(2008: 커피, 원피, 두류 등)
	총수입	6,200백만 달러(2008:곡류, 석유, 자동차부품, 컴퓨터장비 등)
	물가상승률	41%(2008)
	화폐단위	Ethiopia Birr, 1US$ = 12.5 Birr(2009.8)
농업	국토/기후	중부고원지대는 해발 2,000-3,000m의 Afro-Alpine 기후로 연중 기온변화가 적고(16℃- 22℃). 저지대는 열대기후로 고온다습
	강우량	평균적으로 1,000-1,500㎜/년 의 비가 내리지만 지역별, 계절별 편차가 극심하고, 강우량은 6-9월 대우기에 집중
	농촌인구	전체인구의 84%, 간선도로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고원 오지에 주로거주
	농업생산 -주요품목	전체 GDP의 46%(2008), 수출의 90%, 고용의 85% -축산, 테프(Teff), 커피, 곡물, 두류 등

자료: 1) 외교통상부, 에티오피아 개황, 2008
2) IFAD, (http://www.ifad.org/)
3) 외교통상부, 국가별정보 DB, (http://countryinfo.mofat.go.kr/main/index.jsp)
4) US Department of State, Background Note: Ethiopia
(http://www.state.gov/)

<표 4-17> 에티오피아 역사

1차 세계 대전 이전	1930년대 이전	종교상의 교리차이로 인하여 에티오피아는 서구기독교 문화와 단절된 문화를 형성하면서 봉건왕조국가를 유지,
	1889	이태리가 국왕을 전사시킨 후 에리트리아 지역을 식민지화
	1896	이태리군 격퇴 후 독립, 에리트리아는 이태리 식민지화

셀라시에 황제 시대	1935	이태리가 에티오피아를 다시 점령 (1935-1941)
	1941	영국이 이탈리아군을 물리치고 에리트리아 접수
	1941	Selassie 황제 수도입성 및 이태리 점령 종식
	1962	에리트리아를 에티오피아의 1개 주로 강제 합병
	1964후	소말리아와 10년간 국경분쟁(오가덴 국경 분쟁)
군부 집권 시대	1974	군부 쿠데타로 공산군부가 정권장악: Sellasie황제 축출
	1975	군사정부, 주요재산의 국유화와 사회주의 정권추진
	1977	미 군사고문단 철수 소련의 군사원조 개시
	1977	소말리아와 오가덴 국경 분쟁
	1987	총선거로 멩기스투 대통령 취임, 인민민주주의공화국선포
과도 정부 시대	1991	공산독재에 저항하던 EPRDF 정부수립, 현대통령의 에리트리아 인민해방전선(EPLF)도 에리트리아에 동시입성
	1991	의회가 과도정부 대통령선출, 에리트리아 주민 자결권 확인
	1993	주민투표를 거쳐 에리트리아 독립 선포(99.8% 찬성)
민주 공화국 시대	1995	총선결과 EPRDF 압승으로 연방민주공화국 출범
	1998-2000	에리트리아와 전쟁 - 정전/평화협정체결 및 국경위원회(EEBC)설치
	2005	총선실시로 집권당인 EPRDF가 과반수를 넘는 327석 획득
	2008	에리트리아 국경지역분쟁 교착상태, 외교적 노력 실패

자료: 외교통상부, 에티오피아 개황, 2008. 2.

에티오피아는 광활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산지대에서부터 사막지대까지 고도와 지역별로 기후조건이 다양하여 18개의 서로 다른 농업생태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해발 2,000~3,000m의 고지대는 강우량이 많고 일정하여 좋은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연중 기온변화도 16~22℃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해발 1,800m 이하의 저지대는 강우가 불규칙하고 양도 적어 농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연중 기온이 25~36℃로 높은 편이다. 우기와 건기의 길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4계절로 분류하는데 4~5월을 온건기(Bega), 6월~9월을 대우기(Kiremt), 10월~1월을 냉건기(Meher), 그리고 2~3월을 소우기(Belg)라고 부른다.

⑵ 농업생산 현황

우기에 적절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거나 건기가 길어지는 경우 관개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영농이 불가능하여 주민의 생활터전이 사라지고 기근사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물 문제 즉 가뭄으로 인하여 식량생산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전 국토의 5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문제와 관련한 희망을 찾기가 어려우나, 아직 경작 가능한 토지가 많이 남아있고 농촌에는 풍부한 노동력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잠재력 자체가 적은 나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농업개발이 안 된 상태로 오랫동안 정체되어 온 것이다.

사실 에티오피아 농업을 정체시킨 보다 근원적인 배경을 찾자면 그 이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셀라시에 황제시대에 압도적 다수 국민이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이 부문에 배정된 정부예산은 겨우 2% 수준에 그쳤다. 그런 농업경시 풍조 하에서는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이나 농업기술개발과 같은 개념이 있을 리 없고, 그 결과는 결국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게 마련이다.

또한 황제가 이끄는 정부는 토지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교회 및 특수층으로 구성된 지주와 높은 소작료를 부담하는 소작농으로 이루어진 농촌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맞은 1972~1974의 가뭄과 기아에 대한 정부의 방관적 태도는 많은 아사자를 낳았으며 결국 1974년의 공산혁명을 맞아 황제시대는 최후를 맞고 말았다. 공산군부 집권과 동시에 토지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국민은 경작권만 갖는 토지제도 혁명이 이루어졌지만 이런 사회주의 정책의 효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며 농업을 더욱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990년대 초의 EPRDF 정부출범 이후 농업부문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농업개발 중심의 산업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농업기술 개선, 농지와 수자원 이용 개선, 농업금융 서비스 구축, 농민의 국내외 시장접근 강화 등 식량증산 사업을 위해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와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가 주도하고 있으며, 지방단위에서는 주정부의 재정경제개발국(Bureau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과 농업농촌개발국(Bureau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74]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농민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또 국민 식생활 면에서도 제일 중요한 품목은 축산과 곡물이며, 주요 식량작물로는 해발 1,500m 이상의 기후에서 재배되는 테프(Teff), 밀, 보리, 옥수수와 국경변방의 비교적 저지대에서 경작되는 수수, 기장 등이 있다. 이 나라의 토종 식량작물인 테프는 제분과 제빵용으로, 보리는 식용과 맥주용으로 각각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뭄에 강한 수수와 기장은 강우량이 적은 저지대에서 경작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옥수수는 주로 해발 1,500~2,200m 지대에서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곡물생산량이 ha당 1톤 수준에 그쳐 선진국의 생산량 5~6톤에 비해 현격하게 낮고 그것도 지역별, 연도별로 편차가 대단히 커서 안정적이지 못한 생산 패턴을 보이고 있다.

토지생산성이 낮은 것은 단순히 강우량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농지소유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농민은 경작권만 가지고 있으나 한정된 농지를 증가하는 인구에게 배정해 주기 위해 농지경작권을 매 3년마다 갱신하는 농지제도 운영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배정받은 경작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지에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투자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토심이 깊지 않고 농업용수도 충분하지 못한 경사지 등을 집약적으로 경작하면서 가축분뇨나 작물 부산물 등 유기물을 토양에 환원하기보다는 토지를 약탈하는 방식의 농업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토양침식을 유발하고 수분함량이 적어 가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관행 외에 식량증산에 역행하는 가격통제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와 함께 곡물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농경지가 좁은 것도(1,000명당 농지면적: 에티오피아 180ha,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288ha) 식량생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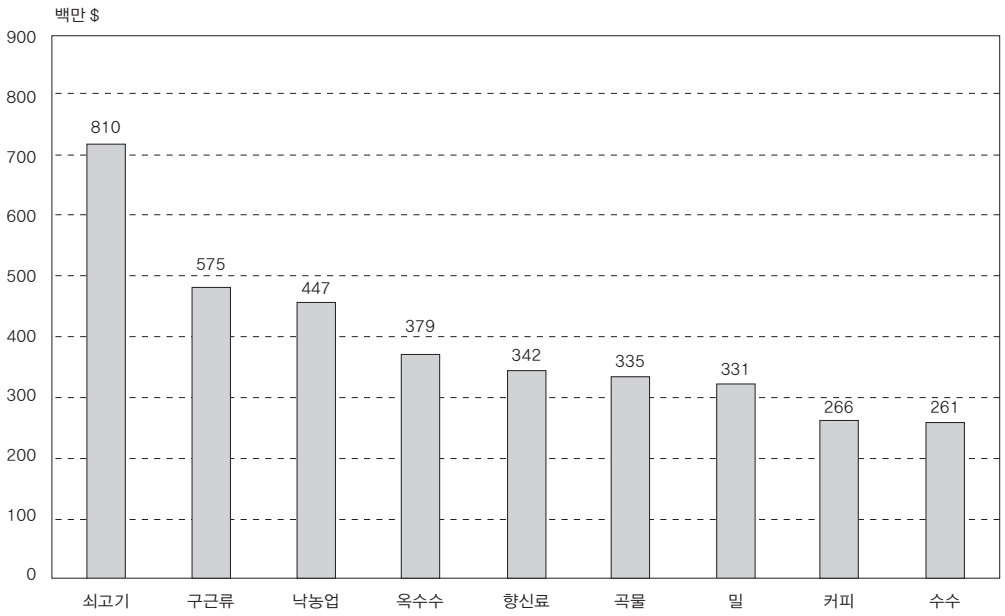
또한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는데 필요한 교통 · 통신 인프라, 금융지원제도, 시장정보, 품질검사와 보증제도 등이 전혀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그 결과 농작물

74) IFAD,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 Document EB 2008/95 R.11, 2008. 11

의 시장 출하율이 25%를 넘지 못하여 그들을 자급농업수준에 묶어두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가난으로 식량접근이 안 되어 기근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많다. 물론 여기에도 상인들이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활동영역이 거주하는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게 유통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곡물 중개상의 경우 은행거래자가 1/3을 넘지 못하며, 자동차 보유자 6%, 전화 보유자와 창고 보유자가 50% 이하이고 전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75]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농업생산액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쇠고기와 낙농 등 축산분야이며, 농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소, 식품, 교통수단, 연료생산 등 다양한 형태로 축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건기에 작물재배가 어려운 지역의 농민들은 방목형태로 소나 염소를 기르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가구당 경작지와 목초지 감소로 그마저 사육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림 4-6> 에티오피아의 주요농산물 생산현황(2007년 기준)



자료: FAO, FAOSTAT, (http://faostat.fao.org)

75)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http://www.ifpri.org/category/country/africa-south-sahara/ethiop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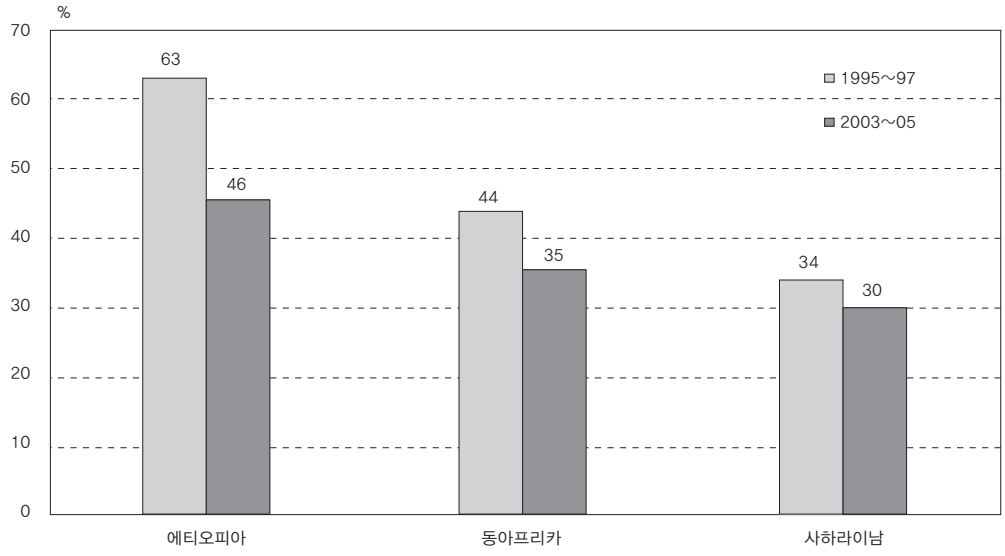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식량문제의 이론적 해법은 농업용수 개발 등에 대한 투자와 기술보급 확대이며, 농업생태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접근방법보다는 지역별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견해이다.

나. 식량위기 상황분석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가 되어 버린 에티오피아는 총인구의 44%가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하고 있으며 1,200만 명이 만성적 또는 주기적 식량부족 상태에 있는데 그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의 식량안보 상황은 1990년대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인구 대비 영양결핍 인구비율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실정이다. 국민의 8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의 농업활동은 기후조건이나 정치군사적 갈등에 대단히 취약하여 안정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최근에는 국제 시장의 곡물과 비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에티오피아의 빈농들은 식량접근에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은 우선 부족한 곡물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며 당장 2009년도에 수입해야 할 곡물이 65만 6,000톤에 이를 것으로 FAO는 전망하고 있다.

<그림 4-7> 에티오피아의 영양결핍인구 비율



자료: FAO, Global Statistics Service-Food Security Indicators, 2008.8

<표 4-18> 에티오피아의 2009년도 곡물수입 전망

(단위: 천톤)

2008년 실적			2009년 전망			
상업적 수입	외부 식량원조	합 계	연간 수입전망	2009년 6월말 실적		
				상업적 수입	식량원조	합 계
588.5	896.4	1,484.9	656.0	220.0	258.6	478.6

자료: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9. 7.
(http://www.fao.org/docrep/012/ai484e/ai484e07.htm)

USAID와 WFP가 운용하는 기아조기경보시스템 네트워크(Famine Early Warning Systems Network: 이하 FEWSN)는 2009년 하반기에 620만 명이 46만 2,000톤의 긴급 식량 원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76] FEWSN에 따르면 2~3월 소우기(Belg)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의 감산과 지난 해 수확 이후 동부지방의 냉건기(Meher) 작물 재고감소로 해당지역의 2009년 하반기 식량사정의 악화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동북부 Afar지역 목축지대, 남쪽의 Oromiya 지방, 그리고 Somali 지방은 지금까지 강우량이 정상수준을 밑돌고 향후 기상예보도 좋지 않아 하반기 식량사정의 악화와 외부 식량원조 수요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FEWSN의 비관적 전망은 "재해위험 관리 및 식량안보 센터(Disaster Risk Management and Food Security Center)"가 2009년 7월에 발표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2~3월 소우기(Belg) 기간 중 부족한 강우량이 4~5월의 온건기(Bego)로 바로 이어지자 그 기간 중 장기작물을 파종해야 할 동부지방 농민들이 파종을 포기하거나 단기작물로 전환하여 이 지방에서 생산되어야 할 작물의 감산이 불가피해졌다.

기상당국의 예보대로 5~9월 대우기(Kiremt) 기간 중 예상 강우량이 평균 이하에 그쳐 서북부, 동부 그리고 중부의 경종농업 지대와 서북부의 목축지대에 심각한 감산이 예상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해양기상당국은 해양에서 이미 엘니뇨(El-Nino) 조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76) USAID, "Ethiopia Food Security Outlook (July to December 2009)"
(http://www.fews.net/pages/country.aspx?gb=et&l=en)

이는 2009~2010년 겨울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엘니뇨는 대우기의 강우가 일찍 끝나면서 가뭄이 시작되고 이 가뭄이 냉건기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년 하반기의 감산과 높은 식량가격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8> 에티오피아 행정지도



주) 9개주 및 수도: Tigray, Afar, Amhara, Oromia, Somali, Benishangul-Gumuz, 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SNNPR), Gambela, Harar, Addis Ababa(metropolitan)

다. 외부 지원 사업 개요

(1) 긴급식량원조

WFP의 긴급 식량원조는 나름대로 에티오피아의 만성적인 식량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수단,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등에서 넘어온 난민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표 4-19> WFP의 2009년도 에티오피아 원조사업 예측

(단위: 백만 달러, %)

	원조수요	이월	부족재원	부족률
특별사업(SO)	3.1	-	3.1	100
복구를 위한 연장원조(PRRO)	747.9	13.0	732.1	97.9
개발원조(DO)	38.1	13.7	23.7	62.0
합 계	789.2	26.8	758.9	96.2

원조수요 내역 (단위: 천톤)

	곡물	두류	식용유	혼합식량	기타	합계
PRRO	733	74	29	105	1.0	942
DO	33	-	1	13	0.2	47
합계	766	74	30	118	1.2	989

주) WFP사업명칭(SO, PRRP, DO): 제2장. 3. 가. (3) "WFP의 기능과 활동"참조

자료: WFP, 「Projected Needs for WFP Projects and Operations」, 2009

특히 식량 원조를 자연재해 등 위험관리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파괴와 식량안보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주민들이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발전적 전략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대응능력 배양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WFP가 예측한 2009년도 에티오피아 식량 원조사업 수요는 7억 8,900만 달러 수준이며 물량으로는 FAO 전망치보다 많은 98만 9,000톤에 이른다.

WFP 지원 외에 양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량원조 사업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4-20〉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식량원조는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뒤를 잇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에 진행중인 식량원조 사업의 총 규모가 3억 달러를 넘고 있으며 각국의 식량원조 세부사례는 〈별첨 4-5〉로 첨부되어 있다.

<표 4-20> 각국의 에티오피아 식량원조 사업내역

(단위: 건, 천 달러)

국가	사업건수	식량 원조금액	국가	사업건수	식량 원조금액
EDF	3	99,740	EC	6	84,720
미국	182	52,499	캐나다	4	38,384
아일랜드	8	19,289	스웨덴	1	12,206
일본	4	11,250	프랑스	3	3,991
스페인	4	1,387	룩셈부르크	2	509
이태리	1	251	UNDP	3	232
영국	2	216	벨기에	1	202

자료: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AiDA
(http://aida.developmentgateway.org/aida/CountryView.do~iso3=ETH)

(2) 농업생산지원

OECD가 집계한 에티오피아의 ODA 수원총액은 연간 21억 8,500만 달러(2006~2007년 평균)에 달하며, 주 공여주체로는 IDA가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AfDF, 미국, EC, 영국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통계는 ODA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스리랑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과 무관한 지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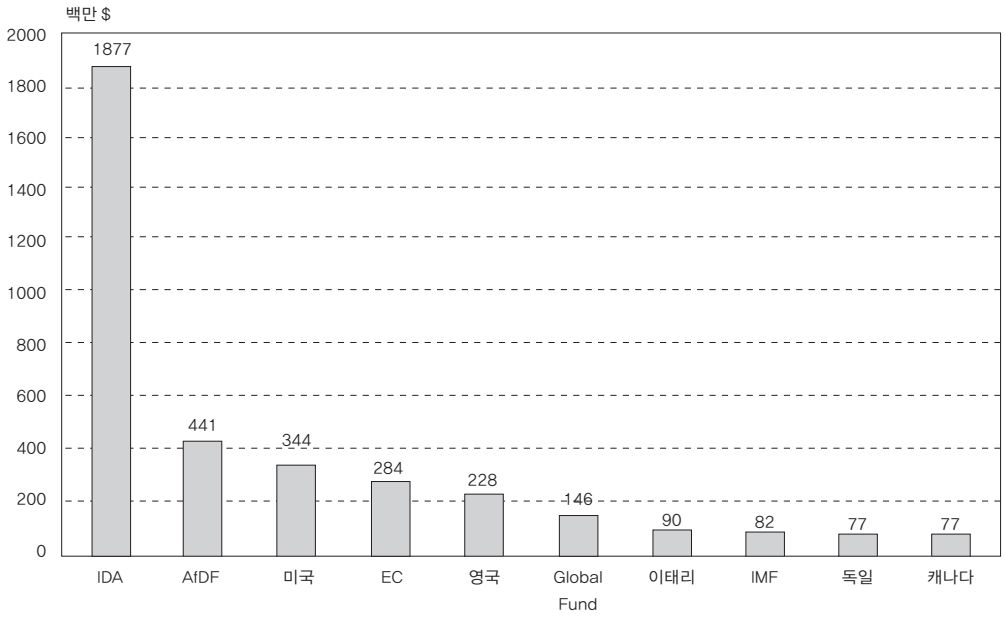
<표 4-21> 에티오피아의 ODA 수원현황

	2006	2007	2006/2007평균
Net ODA (백만 달러)	1,948	2,422	2,185
양자 원조비율(%)	54	53	53.5
Net ODA/GNI (%)	12.9	12.5	12.7

자료: OECD, Aid Statistics, (http://www.oecd.org/dataoecd/21/7/1880804.gif)

반면에 중장기 농업생산지원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구인 FAO가 2009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에티오피아와 관련된 사업의 총 규모는 7,6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그 사업의 60% 이상은 에티오피아가 포함된 광역사업이며, 에티오피아만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수는 43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소규모사업으로 금액은 2,8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FAO사업 중 에티오피아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의 개요는 〈표 4-22〉와 같다(세부사업 사례는 〈별첨 4-6〉으로 첨부).

<그림 4-9> 에티오피아에 대한 10대 ODA 공여주체(2006-2007평균 기준)



자료: <표 4-21>과 같음

<표 4-22> 진행 중인 FAO사업 중 에티오피아 관련사업 개요

(단위: 건, 천 달러)

	에티오피아 단독사업		아프리카지역사업 등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업생산분야	27	7,432	5	16,785	32	24,217
유통 및 교역			3	656	3	656
정책/연구/정보	4	2,879	2	6,941	6	9,820

자원관리분야	1	1,523	2	6,083	3	7,606
국민영양분야	2	7,006	1	350	3	7,356
농촌개발분야	1	3,000			1	3,000
긴급조치/복구	7	6,675	6	17,129	13	23,804
수산 분야	1	51			1	51
합 계	43	28,566	19	47,944	62	76,510

자료: FAO FPMIS 재분류
(http://extranet.fao.org/fpmis/FPMISReportServlet.jsp?div=&type=countryprofileopen&language=EN&countryId=ET)

식량농업 전문기구는 아니지만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기구 중 하나가 세계은행(World Bank/IDA)그룹이다. 세계은행은 이 나라의 경제도약이 가능하도록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면서 각종 기초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World Bank/IDA가 에티오피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 중 식량농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요약하면 〈표 4-23〉과 같다.

<표 4-23> 세계은행의 에티오피아 농업분야 지원 사업

Project Name	IBRD/IDA	Status	Approval Date
ETHIOPIA GLOBAL FOOD CRISIS RESPONSE PRO	250	Active	10-DEC-2008
Pasto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I	80	Active	29-MAY-2008
Tana & Beles Integrated Water Resources Development	45	Active	29-MAY-2008
ET-Sustainable Land Management Program (FY08)	0	Active	29-APR-2008
ET-Ethiopia Nutrition (FY08)	30	Active	29-APR-2008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100	Active	21-JUN-2007

자료: World Bank
(http://web.worldbank.org/external/default/main?menuPK=295961&pagePK=141155&piPK=141124&theSitePK=295930)

진행 중인 World Bank/IDA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본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은 2억 5,000만 달러를 융자 지원한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사업"이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2009 영농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화학비료를 수입하여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증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World Bank/IDA는 에티오피아가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화학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재원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비상복구 사업 (Emergency Recovery Operation)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다. 비료수입에 필요한 외화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할당되고 수입된 비료는 농민조합 등의 조직을 통하여 영세농을 포함한 전 국농가에 배분되지만 경종농업 중심지역인 Oromia와 Amhara주 ,그 다음으로는 SNNPR과 Tigray주 등에 중점 지원되고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에서 오랫동안 식량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IFAD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영세소농과 여성 등 농촌빈곤층의 소득창출과 식량안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하여 2009년 초부터 추진하고 있다.[77] IFAD가 에티오피아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한 핵심 분야는 (1) 토지와 물 등 자연자원의 이용증진, (2) 농축산업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 (3) 신뢰할 만한 농업금융 서비스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IFAD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표 4-24〉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표 4-24> IFAD의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 개요

(단위: 백만달러)

사업내용	총사업비	IFAD지원	
		융자	보조
지역사회의 자연자원 종합관리사업	25.4	6.5	6.5
주민참여 형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57.8	20.0	20.0
농산물유통개선사업	35.1	27.2	-
농촌금융중개사업	88.7	25.7	-

자료: IFAD, Operations-Ethiopia,
(http://operations.ifad.org/web/ifad/operations/country/projects/tags/ethiopia)

이와 같은 IFAD사업은 "토양침식-농업생산성저하-식량부족-농촌빈곤"으로 이어지

77) IFAD,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 Document EB 2008/95 R.11, 2008. 11

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비교적 적극적인 주민참여 하에 추진되고 있다. 전술한 FAO, World Bank, IFAD 외에 이 나라에서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 은행이 축산종합개발계획 등 농축산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총액은 6,100만 달러에 달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채널과 별도로 양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은 〈표 4-25〉와 같다.

<표 4-25> 각국의 에티오피아 농업분야 지원 사업 개요

(단위: 천달러)

	사업내용	사업건수	금액
독일	자원관리, 식량안보, 농업환경보호, 등	38	36,196
일본	식량증산지원, 종합지원 사업 등	35	23,817
네덜란드	농업개발 사업	1	10,351
아일랜드	농업개발, 축산개발 사업 등	18	8,253
스웨덴	농지조사, 농업연구	2	6,793
노르웨이	종자안보, 목축지대 개발, 농촌종합개발 등	6	4,505
프랑스	농업연구, 원예작물수출 등	7	3,220
영국	농업개발전략, 농업 총 조사	2	2,366
스페인	농업교육센터, 농산물산지유통 등	7	1,873
벨기에	원예용 관개, 식량작물생산, 물 관리 교육	5	529

자료: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AiDA 재분류
(http://aida.developmentgateway.org/aida/Search)

〈표 4-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양자지원은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세부사례는 〈별첨 4-7〉 참조).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5년간 총 97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그 중 농업분야 활동실적은 아직 미미하여 연수생 초청(농업정책, 원예기술, 농업용수 등 26명), 전문가 파견(잠업 2명), 봉사단 파견(축산, 원예 3명)이 전부이고 현재 진행 중인 농업지원 사업은 없다.[78)]

78) KOICA, KOICA Statistics, (http://stat.koica.go.kr/)

라. KOICA의 지원방안

(1) 식량위기 지원전략: 수리시설 구축

〈지원대상분야〉

에티오피아에서 오랫동안 식량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IFAD는 이 나라 농민들을 가난으로 몰고 간 요인이 가뭄, 낙후된 농업기술과 인프라, 비효율적인 농산물유통제도, 정책에 대한 농가의 접근제한 등이라고 보고,[79] 외부 지원이 필요한 핵심 분야로 (1) 농지와 물, (2) 농업기술, (3) 농업금융을 들었다.

실제 에티오피아의 농업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표 4-26〉과 같으며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업금융을 제외하고 IFAD가 제시한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에티오피아 식량위기의 근원적인 요인이 가뭄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과 부실한 농지관리 그리고 낙후된 농업기술에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새로울 것은 없는 것이다.

<표 4-26>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 분야

FAO	농업생산, 긴급복구, 농업정책/연구, 자원관리 등
세계은행	농업자재(비료), 수자원개발, 농지관리 등
IFAD	자원관리, 농업금융, 수자원개발, 농산물유통 등
독일	자원관리, 식량안보, 농업환경 등
일본	식량증산, 농업종합지원 등

자료: 표4-22, 23, 24, 25와 같음.

그런데 이 나라의 농지관리 문제는 농지제도 운용에서 파생된 문제이며 농지제도 운용 문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어 외국의 원조기관이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부적절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문제를 KOICA 사업 대상 분야로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79) IFAD, IFAD in Ethiopia

한편 농업기술 분야는 오래 동안 유럽 등 외부 원조기관의 협조로 이미 아프리카 지역에 맞는 열대농업 연구실적 등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가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중 영농여건이 완전히 상이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따라서 식량위기 대응차원에서 에티오피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 중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수자원개발 즉, 농업용수 개발 분야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열대농업 전문 인력과 기술이 축적되고 구체적인 기술지원 분야가 가시화될 때까지 이 나라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KOICA의 지원은 농업용수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CAS와의 관계: 사실 물 문제는 에티오피아 농업문제의 거의 전부이며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기도 하다. 또 우리의 국별 지원전략은 에티오피아 지원목표의 하나로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농촌개발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사회중심(Community-base)으로 추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농업 · 농촌분야의 지원사업의 하나로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에티오피아 식량문제해결 대안을 찾는 것은 국별 지원전략에도 합치하는 접근방법이다

〈지원대상지역〉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 서부지역은 해발이 높은 고지대로서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많고 좋은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연중 기온변화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해발 1,800m 이하의 저지대인 동부, 남부 등 다른 지방은 강우가 불규칙하고 강우량도 적어 농업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그런데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AO는 에티오피아를 "지역적으로 식량부족이 극심"하여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스리랑카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 식량위기상황에 큰 지역편차가 있다는 뜻이다.

식량위기의 지역별 편차와 관련하여 USAID와 WFP가 공동 운용하는 기아조기경보시스템 네트워크(Famine Early Warning Systems Network: FEWSN)는 2009년 7월 현재

에티오피아의 지역별 식량안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80]

① 식량사정이 극심한 지역(Extremely food insecure): Somali주 동부

② 식량사정이 심각한 지역(Highly food insecure): Oromia주 동부/남부, Somali 주의 서부, Tigray주의 남부, Afar주의 북부, Amhara주의 동부, 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SNNPR)주 동부

KOICA의 지원 대상지역은 "식량사정이 극심한" Somali주부터 시작하고 지원여력이 있을 경우 "식량사정이 심각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Somali주는 소말리아의 정정불안 영향을 받아 사회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주 정부도 국제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연방정부(농업농촌개발부)의 판단이며, 연방정부가 외부 원조기관의 신규 사업추진을 만류하고 있는 지역이다.

결론적으로 KOICA의 일차적인 지원 대상지역은 "식량사정이 극심한" Somali주 다음으로 "식량사정이 심각한" 지역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가능하면 KOICA 현지사무소의 제한된 인력과 수단으로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식량위기 대응사업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지원경험이 축적되고 또 현지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2단계로 Somali주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ICA가 진행 중인 사업〉

새로운 KOICA사업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KOICA와 에티오피아 간에 이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 개발 사업으로 본 연구주제인 식량위기 대응사업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에티오피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최초의 농업농촌분야 사업이고 양자가 사업내용이나 시행시기 측면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및 규모: 3년간, 약 150만 달러
· 대상지역: Tedo-Lema Kebele(리) Bulchana 마을, Hetosa Woreda(면),

80) USAID, "Ethiopia Food Security Outlook (July to December 2009)" (http://www.fews.net/pages/country.aspx?gb=et&l=en)

Arsi Zone(군), Oromia State(주).

· 세부사업:

① 젖소 입식사업: 일정규모의 사료재배지(0.1ha/두)를 확보한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임신한 젖소를 분양하여 새끼를 출산한 후 그 새끼가 임신하여 출산 시 어미 소를 반납하는 리볼빙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젖소 사육장 및 유가공시설을 건립하여 "KOICA 치즈"와 "KOICA 버터"를 생산할 계획이며 인공수정과 가축위생문제 등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②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곡물생산지원을 위한 탈곡기와 소형 정미소를 건립하고 10톤 규모의 물탱크를 2~3가구 당 1개씩 설치하여 우기에 빗물을 모아 건기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정 부산물의 젖소 사료 활용, 밀과 사료 작물의 사이짓기 보급, 채소 등의 시범포장 조성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③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공동우물개발(최소 2개소) 및 급수대 설치, 마을 진입로 정비(약 3km), 주택개량지원, 태양열 조리기 도입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지역사회 능력배양사업: 마을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가축분양, 물 관리 등), 축산 및 유가공 능력배양 연수(국내초청 또는 전문가 파견), 여성에 대한 소규모 대출사업(채소, 가내 수공업 등) 등이 지역사회능력 배양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 사업 성격

본 사업은 농촌개발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현장의 성공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확산 및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편 이 사업으로 추진될 "젖소 입식 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이 나라 식량문제의 가장 취약계층인 영세농에게 식량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 자체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이 사업이 식량위기에 대응한 KOICA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식량위기 대응차원의 신규 사업을 검토할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예산제약과 사업시행 시기문제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위기 대응사업〉

지금까지의 검토한 에티오피아의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지원사업 대상분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지제도 분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농업기술 분야보다는 농업용수 분야가 가장 적합하며, 둘째, 지원사업 대상지역은 Somali주 다음으로 "식량사정이 심각한" 지역 중 KOICA 현지사무소가 관리 가능한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고, 거기에 더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농촌지역 개발 사업과 식량위기에 대응한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농업용수개발 사업(안)을 제시한다. 이 구상은 향후 농촌지역 개발 사업과 식량위기 대응사업 간의 관계정리, 기술적인 검토와 절차 등을 거치면서 보완된 후 KOICA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1〉

① 사업명: "Dodota지역 농업용수개발 사업"
"Small Scale Irrigation Project in Dodota Woreda"

② 농업여건: Dodota 지역은 해발이 1,640m이며 에티오피아 기준으로 보면 저지대에 속한다. 연간 강우량이 평균 800mm이고 비가 오는 시기나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일정하지 않아 농업용수개발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지역이다. 토양은 대부분 양 토질(Silty loam, Sandy loam)로 되어있다.

③ 사업목적: 본 사업은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못하여 건기에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에 인근의 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용수 공급을 통하여 1차적으로 식량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사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④ 대상지역: Dire Kiltu마을, Dodota Woreda(면), Arsi Zone(군), Oromia State. Dodata지역은 Adama 도시로부터 45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Adama에서 Battale Kiltu로 이어지는 포장도로 25km, 그로부터 자갈포장도로 10km, 그리고 건기에만 접근 가능한 비포장도로 10km를 더 들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⑤ 사업내용: Awash River의 지류인 Keleta River에 높이 2.5m 내외의 소규모 둑(또는 수중 보)을 설치하여 저수지를 조성하고 이 물을 아래에 위치한 농지에 흘려보내는 총 연장 19km의 긴 수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입도로 건설, 둑(또는 수중 보)건설, 용수로 및 관련시설 설치(Drops, Diversion Box, Off takes, Turn outs, Farm bridges culvert, Foot bridges, Supper passages, Rejection Spillway), 배수로 및 관련시설 설치, 현장사무소 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⑥ 사업규모: ETB 36,600 /ha x 500 ha = ETB 18,300천(US$ 1,525천)

용수를 관리가 편리한 개수로 형태로 건설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분증발을 막기 위한 PVC관수로(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는 중간 흡수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⑦ 사업기간: 구체적인 사업기간 산정은 수로형태에 관한 협의결과와 기술진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되어야 한다.

⑧ 기대효과와 수혜자: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1) 수혜면적은 우기를 기준으로 하면 500ha, 건기를 기준으로 하면 330ha이며, (2) 1차적인 수혜농가는 Dire Kiltu 마을 농민회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734가구, 3,597명이지만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농업용수가 새로 공급될 경우 예상 작물은 옥수수, 감자, 두류, 과채류, 초지 등이다. (4) 완공 후 수리시설 사후관리는 지방정부의 물관리 기관과 이 지역 주민들의 기존 조직을 활성화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⑨ 현지 사업파트너: Oromia주의 주정부

〈Project Design Matrix(PDM): 시안〉

사업명(Project Name): Dodota지역 농업용수개발 사업

사업기간(Duration): 기술진의 조사와 수로형태 관련 결론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사업지역(Target Area): Dire Kiltu마을, Dodota Woreda, Arsi Zone, Oromia State, Ethiopia

수혜그룹(Target Group): Dire Kiltu 마을 734 농가, 3,597명

작성일자(Date): 2009. 11. 수정 본(Version No): 001

<table>
<tr><th>프로젝트 요약
(Narrative Summary)</th><th>증명 가능한 지표
(Verifiable Indicators)</th><th>자료 입수방법
(Means of Verification)</th><th>중요한 외부요건
(Important Assumptions)</th></tr>
<tr><td>사업목적(Overall Goal):
에티오피아 취약지역의 식량위기 해소</td><td>기아 또는 만성적 영양결핍인구 감소</td><td>에티오피아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통계수치</td><td>비농업부문 경제상황은 불변</td></tr>
<tr><td>사업목표
(Project Purpose):
Dire Kiltu 마을 식량위기 해소</td><td>-건기에 작물재배
-농업생산 증가</td><td>-현장방문조사
-농정당국/지방 정부 통계수치</td><td>농업용수개발 사업이 필요할 정도로 강우량 부족</td></tr>
<tr><td>사업성과(Output):
1. Keleta강에 진입도로와 2.5m 높이의 수중보건설
2. 19km의 수로와 부대시설 건설</td><td>1. 건기에 작물재배 가능 (330ha)
2. 우기 작물재배 면적 확대(500ha).</td><td>-현장방문조사
-관계기관 및 농민면담</td><td>건기의 취수에 영향을 줄만큼 Keleta 강 수위가 낮지 않음.</td></tr>
<tr><td rowspan="4">사업활동(Activities):
1. 전문가 파견 (조사/설계)
2. 시공업체 선정
3. 진입로 및 현장 사무소건설
4. 수중보 공사 시공
5. 수로건설공사 시공
6. 용수시설관리 교육</td><td colspan="3">전제조건(Pre-conditions):
공사현장에 충분한 전기가 공급되어야 함</td></tr>
<tr><td colspan="3">투입(Input)</td></tr>
<tr><td colspan="2">KOICA</td><td>수원국가</td></tr>
<tr><td colspan="2">-전문가파견(조사 설계)
-토목공사시공
-용수시설관리교육</td><td>-공사현장준비
-공무원파견
-공사인력동원
-용수시설사후관리</td></tr>
</table>

〈사업 2〉

① 사업 명: “Adama지역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
“Small Scale Pump Irrigation Project in Adama Woreda”

② 농업여건: 이곳은 해발 1,550m인 저지대로서(에티오피아 기준) 연평균 강우량이 800mm 정도이고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Dodota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지역이다.

③ 사업목적: 본 사업은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건기에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에 인근의 강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Dodota 지역과 같지만 강에 수중 보를 건설하는 대신 아주 소규모의 펌프를 설치하여 고지대로 양수한다는 점이 다르다. 두 사업이 규모는 다르지만 농업용수 공급을 통하여 식량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④ 대상지역: Kobo Luto 마을, Adama Woreda(면), East Shoa Zone(군),
Oromia State(주).

Adama 지역은 충분하지 못한 비가 부정기적으로 내리고 토지소유 및 영농규모가 대단히 작아 만성적인 가난과 식량부족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며, Kobo Luto 마을은 1980년대 정부 이주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마을이다.

⑤ 사업내용: Awash강을 수원으로 하는 Koka 호수 물을 높은 곳으로 양수하여 인근 농지에 중력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건설, 양수장 건물 신축, 펌프와 모터 등 관련기구 설치, 용수로 및 관련시설 설치(Diversion Box, Drops, Off takes, Turn outs, Box culvert), 배수로 및 관련시설 설치, 현장사무소 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펌프와 모터 등 관련기구: WHP=33hp, Actual BHP=45hp=34KW, Total Pressure Head=19.03m, Suction Pipe Size/Length=12’/6m, Sub main pipe size/length=12’/12m, Delivery pipe size/length=14’/208m, NPSH=4.6M

⑥ 사업규모: 추정예산은 ETB 3,052천(미화 25만불)이지만 수혜지역의 농가들이 노동력,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사업비의 10%를 부담할 예정이므로 실제 지원소요액은 ETB 2,746(미화 23만불) 정도의 아주 소규모 사업이다.

⑦ 사업기간: 기술진의 현장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될 사항이지만 이 사업은 규모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물자 조달이나 현지 사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업기간이 한 해를 넘길 이유가 없는 사업으로 사료된다.

⑧ 기대효과와 수혜자: 이 지원 사업이 완공될 경우 (1) 수혜면적은 100ha 내외가 될 것이며, (2) 1차적인 수혜농가는 이 마을에서 0.5ha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100농가이다. (3) 새로운 농업용수를 바탕으로 재배 가능한 예상 작물은 옥수수, 두류, 과채류, 초지 등이며, (4) 수리시설의 사후관리는 Dodota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관련기관과 이 지역 주민들의 기존 조직을 활성화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⑨ 예상문제점: 이 안은 에티오피아에 다른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KOICA의 예산제약을 감안한 보완적 성격의 소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이 공사가 독립적으로 시행될 경우 규모가 너무 작고 수송거리가 길어서 국내업체나 기관이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워 참여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현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양수장비 등도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현지나 주변국에서 구매하되 KOICA가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식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식량안보 5개년 계획 참여 방안〉

에티오피아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아직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부문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산업화(Agricultural Development-Led Industrialization Strategy)"라는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방향은 대체적으로 국제 사회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 사회의 지원노력이 이 나라 식량위기 해소와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부와 원조공여국가가 이 장기 전략을 중심으로 공동 노력하는 접근방식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양자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와 원조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식량문제에 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접근방식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즉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내용을 정부가 미리 종합하여 "식량안보 5개년 계획(Food Security Program)"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 시작된 "제1차 식량안보 5개년 계획"이 금년(2009)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제2차 5개년 계획시안(2010~2014)"이 마련되어 있다.

식량안보 5개년 계획

2005년 이전까지 에티오피아의 식량문제 대응방식은 국제 사회의 긴급원조에 피동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 수혜자의 필요에 맞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곤란하여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은 결국 만성적인 식량부족 가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배경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2003년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위 "제1차 식량안보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이 성과가 있다고 보고 금년에 제2차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제2차 계획은 다음과 같은 4개 부문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안전망사업(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만성적인 식량부족 지역을 Woreda(면) 단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현금 또는 식량을 지급하여 우선 생활을 안정시키고, 마을이나 지역 단위의 식량생산관련 공동시설 건설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그 지역의 농업생산성을 증진 시키는 사업이다.

농가재산형성 사업(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만성적인 식량부족 농가가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와 같은 소득원창출에 필요한 초기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소규모 투자 상담 및 기술지원 사업, 금융지원 사업 등이 이 부류에 속하는 사업들이다.

보충적 지역투자사업(Complementary Community Investment Program): 만성적인 식량부족지역에서 시행되는 다른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자원개발, 도로건설 등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사업이다.

주민 이주사업(Resettlement Program): 만성적인 식량부족 지역의 주민을 보다 영농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시켜 영농활동을 계속하게 함으로서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사업이다.에티오피아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식량안보 5개년 계획" 소요예산의 70% 정도를 외부 원조로 충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은행, WFP, USAID, 네덜란드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즉 식량문제에 관한 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외부 원조기관의 역할이 비교적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KOICA가 에티오피아의 식량위기 해소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미 마련해 놓은 이 "식량안보 5개년 계획"에 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KOICA가 독자적인 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KOICA가 ODA공여국가의 일원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당사자인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민이 식량문제 해소를 위하여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 마련한 대규모 국책사업 참여를 뜻하며 국제적 공조활동 그룹의 일원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 접근방법은 에티오피아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KOICA사업보다 성공가능성이 낮을 이유가 없으며 상응하는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ODA 선진국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노하우(Know-how)를 익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반적인 KOICA 사업의 규모에 비해 사업규모가 너무 커서(5년간 생산안전망사업만도 20억 달러, 농가재산형성 사업 6억 5,000만 달러)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사실 이 사업은 긴급 식량원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가 정부가 변형 · 발전시킨 측면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사업의 시행은 수원국가의 정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ODA 공여국가의 역할은 2선에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의 역할에 그치도록 되어있어 차별화된 집행이나 효과를 기대할 경우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KOICA가 이 대규모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접근방식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장기적으로 이 접근방식은 사업효율, 외교적 성과, ODA 업무 선진화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KOICA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별도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면서 이 분야의 경험을 축적하고 중장기적으로 더 선

진화된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KOICA 참여방안: 이상과 같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KOICA가 지원단의 일원으로 이 전국적인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형식은 ① 상술한 두 가지의 지역사업(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식량안보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모양이거나 ② 사업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소규모 지원의사와 규모만을 밝히고 지원단의 일원이 되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사업내용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원조국은 2선에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5개년계획의 개념과 상치되는 문제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KOICA가 그런 식량안보 5개년계획의 개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상대국 정부에 맡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에티오피아 정부와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국제 곡물 가격급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시작단계이며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이미 지원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이 분야의 지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KOICA가 협력대상국들의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전략적 쟁점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조 가이드라인

〈다자지원과 양자지원〉

KOICA의 원조사업이 구체화되면 이를 수원국과 양자채널을 통하여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다자채널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문제와 관련하여 그 장단점을 먼저 정리하였다. 또 KOICA의 다자 원조사업을 위한 협력대상 기구로는 분야별 UN산하 전문기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식량원조 사업 분야에는 WFP가, 식량증산 지원 사업 분야에는 FAO가 있다. ① 식량원조 사업의 경우 WFP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관계설정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긴급 식량원조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관계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FAO를 통한 식량증산 지원은 필요할 경우 신탁기금사업을 추진하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1단계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과 지역을 중심으로 Earmarked Funding 방식의 사업을 확대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제2단계 협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단계에서는 KOICA와 FAO간에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보다 포괄적인 신탁기금운용, FAO와의 협의정례화 등을 통해 원조효과를 높이면서 원조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다.

〈지원 우선순위〉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대상국가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1순위는 FAO가 발표한 식량위기 국가 중 특히 식량사정이 열악한 국가로서 KOICA의 중점협력 대상국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이라크 등 4개국, ② 2순위는 FAO가 발표한 식량위기 국가 중 특히 식량사정이 열악한 KOICA의 일반협력 대상국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DR콩고, 수단, 케냐, 짐바브웨 등 6개국, ③ 3순위는 FAO가 발표한 식량위기 국가 중 KOICA의 일반 협력국가로서 2순위에 속하지 않는 국가: 네팔, 미얀마, 이란, 동티모르, 코트디부아르 등 5개국

〈식량원조방안〉

KOICA의 식량위기 대응방법 중 하나인 식량원조는 다음과 같이 까다로운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우며, 특히 보유하고 있는 식량재고를 현물로 원조하는 경우에는 더욱 추진하기 힘들다. ① 국내산 식량을 무상원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합의도출에 필요한 UMR 보장준비, 원조비용 및 효과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WTO 협정 상 전제조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응할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② 국내산으로 식량을 장기차관 형식으로 원조하는 안은 수출보조관련 법적 문제해소, WTO 협정상 전제조건과의 충돌 등에 대한 대응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실현가능하며, ③ 수입된 식량재고를 원조하는 경우에는 UMR 보장준비 외에 MMA의 원조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KOICA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입장을 사전에 정리해 두고, 향후 DDA 협상 진전 또는 관세화 유예 상황의 변화 등 통상규범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주시하면서 이를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식량원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원조보다는 현금원조 또는 수원국내 시장에서 구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국제논의 동향이나 규범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접근이다. 둘째, 상황에 따라서는 수출국들과의 사전협의 의무가 면제되는 긴급식량원조, WFP 등 국제기구에 대한 증여,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식량원조 등의 활용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후통보는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량 원조를 추진하더라도 이는 단기조치에 그쳐야하며 동일한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식량원조가 반복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식량원조는 적절한 시점에서 식량증산 지원으로 전환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량생산지원 방안〉

식량위기 대응방법 중 또 다른 축인 식량증산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협력대상국들의 농업기본 요소가 국가별로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전략은 지원사업의 콘텐츠를 수원국의 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리 하느냐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우선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유교 또는 불교 문화권에서 정착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농구조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경험과 교훈을 전수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물적 지원 외에 "농업발전의 기본요소"나 "농업발전의 가속요인"과 관련된 지원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남아시아 지역은 정정불안과 자연재해가 겹쳐 난민이 상존하고 있으며, 식량원조, 시설복구, 공공서비스 확충에 대한 단기 원조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기술과 시설 등에 대한 원조가 이 지역의 식량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저소득국 단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이농확대와 농촌인력 부족, 농지전용 확대 등은 그간 우리가 경험하면서 발전시켜 온 영농 후계자 제도, 우량농지 보호제도, 농업기계화 촉진제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력과 수질저하,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자원 감소문제 등은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협력대상국들의 공동대응 노력(필요시 한국 참여)을 지원하거나 전문가 교류촉진 등의 원조방식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극한 수준의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많아 당장 식량원조가 절실한 협력대상국이 많다. 이 지역의 식량증산과 관련한 최대의 제약요인은 물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업용수 개발, 관개시설 투자, 수리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은 식량증산의 가장 핵심적인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별 특성 외에 수원국의 상황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긴급 식량원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며, 이와 같은 재난상황이 종료된 상황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농업 생산시설과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복구 사업과 이재민 또는 난민의 영농재개 지원 사업을 연계시켜 원조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그 밖에 재난 이외의 구조적인 요인의 대부분은 물 부족인 바 수원확보와 관계시설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또 토지제도 등 경제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식량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 지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원조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식량증산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은 이상과 같이 수원국가의 필요에 맞는 분야를 잘 찾아 지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분야와 사업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주곡 자급실현을 위해 그 동안 경험하고 발전시켜온 분야가 다른 선진 공여국가들이 갖지 못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가족농중심의 생산구조를 가진 국가의 식량증산에 의미있는 교훈과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야의 실례를 들면 농지관리 및 수리시설, 농업기계화 및 영농자재 지원, 양곡관리 제도와 운용, 농촌신용과 협동조합, 육종 축산 원예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2. 조기 우선 지원방안

〈스리랑카〉

이상과 같은 전략에 따라 2개의 우선 지원 대상국을 선정하면 스리랑카와 에티오피아가 된다. 스리랑카의 식량위기는 곡물 가격 폭등이라는 국제요인보다 내전관련 국내요인이 얽혀 있다. 농업생산 잠재력은 높으나 26년간 지속된 내전, 2004년의 쓰나미에 의한 농업생산 시설과 시스템 붕괴, 그에 따른 난민발생이 가장 직접적인 위기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원조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실행에는 국제규범상의 어려움도 예상되므로 피해복구와 난민정착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지역은 피해가 크고 최근까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전 수복지구 농업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쌀 생산기반 종합복구 사업(Jaffna 지역)을 추진하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종자공급시스템 복구 사업(Murunkan, Paranthan 지역), 세 번째 사업으로 농업연구시스템 복구 사업(북부지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업은 내전기간 중 파손된 해수 유입방지 제방을 보수하여 쌀농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난민들이 귀향하여 영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식량위기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두 번째 사업은 양질의 종자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종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40~60% 이상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및 증산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그 만큼 식량위기 대응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본 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는 종자공급관련 정부기관과 이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될 것이며, 2차적으로는 종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북부지역의 모든 쌀 생산농가가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식량위기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의 효과는 전 국민에게 확산될 것이다. 세 번째 사업은 전쟁 중에 파괴된 북부지역의 농업연구시스템을 복구하여 이 지역 농업발전을 주도하게 함으로서 지역사회 스스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한편, 에티오피아는 농업생산여건이 열악하고 1,200만 명이 만성적 식량부족상태에 있는 최빈개도국이며 이번 곡물 가격급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이다. 에티오피아는 토지제도 등이 식량문제와 같이 연관되어 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농업기술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식량생산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업용수 분야가 KOICA 지원사업으로 가장 적합하고, 사업지역은 식량사정이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인 Dodota지역과 Adama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농촌개발 사업과 식량위기에 대응한 신규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첫 번째 사업으로는 Dodota지역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Adama지역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들은 에티오피아에 다른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KOICA의 예산제약을 감안한 보완적 성격의 소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이 공사가 독립적으로 시행될 경우 규모가 너무 작고 수송거리가 길어서 국내업체나 기관이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워 참여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현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양수장비 등도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현지나 주변국에서 구매하되 KOICA가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식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참고 문헌

권율 외, 「국제 사회의 언타이드 원조동향과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언타이드화 방안」, 외교통상부, 2007. 12

김병률 외,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자료, 2008. 3

김영훈, 「미국의 대외식량지원 프로그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9

김은미 외, 「개발협력집행체계 개선방안 및 유엔기구와의 다자개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2007

이계우 외, 「다자간 개발원조기관과의 협력지원정책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위한 연구」, 외교통상부, 2006

이용기, 「국제농업통상론」, 도서출판 해남, 2001

이정환 외, "08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GS&J 시선집중 69호」,GS&J 인스티튜트, 2008. 11

정기환 외, 「대 개도국 농촌개발경험 전수방안연구」,KOICA 정책연구 2008. 1

허장 외, 「국제농업협력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3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8. 9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09

법무부, 「농업통상법」, 1999

외교통상부, 2009년도 외교통상부 업무계획,

_____,"대변인 브리핑자료", 2009.1.29,

_____,"에티오피아 개황", 2008. 2. ,

_____,"최근 시장정보", 08.12.4 ,

_____,"OECD/DAC 개황", 2009

한국국제협력단, 「2008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2009

해외공관, 협력대상국 관련 자료

Demeke, M., et al. 「Country responses to food security crisis」, FAO, 2009

Dixon, John, et al.「Farming Systems and Poverty: Improving Farmers' Livelihoods in a Changing World」, FAO and World Bank, Rome and Washington DC. 2001.

Edouard Martin and Steven Symansky, "Macroeconomic Impact of the Drug Economy and Counter-Narcotics Effort"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6. 7~2009. 7,

____, "Monitoring process towards hunger reduction targets of the World Food Summit (WFS)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2008. 8,

___, 「Reporting Procedures and Consultative Obligations Under the FAO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A Guide for Members of FAO Consultative Subcommittee on Surplus Disposal」, 2001

FAO Trade and Markets, "The FAO Rice Price Update", 2009. 6

FAO World Food Situation, "The ten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rise in food prices in the marketing year 2007/2008", 2008. 6

FAO/Sri Lanka, 「Recovery and Rehabilitation Program for Agricultural Sector in Conflict-Affected Areas of Northern Sri Lanka」, 2009.8

Haggett, David E. "The Indian Subcontinent" Encyclopedia of World Geography. New York.

IFAD,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 Document EB 2008/95 R.11, 2008. 11

International Relation Center, "Congress rejects food aid for local development" Bad Neighbour Policy No.1. 10 October 2005.

Madhab Karkee, 「Nepal Economic Growth Assesment(Agriculture)」, USAID/Nepal, August 12, 2008

Mahajan, Sandeep. "Bangladesh: Strategy for Sustained Growth"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Network, World Bank, 2007.

Martin, Edouard et al. 「Macroeconomic Impact of the Drug Economy and Counter-Narcotics Effort」, World Bank.

Miller, Daniel. "Afghanistan Agriculture Moving Forward". Afghanistan/USAID. 2006. 2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Sri Lanka,

「National Program for Food Security-Development Strateg, Sri Lanka」, 2009. 3,

_____, 「Rehabilitation and Strengthening of Conflict Affected Agriculture Research System in the North」, 2009.

_____, "Proceedings of the Workshop to Develop Strategies for Advancement of Agricultural Sector in Tsunami Affected Areas of Sri Lanka", 2006. 3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Ethiopia, 「Food Security Program: 2010-2014」, 2009. 8

Ministry of Foreign Affairs/Japan, 「Japan's ODA White Paper 2008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2009. 2

Mosher, A. T. "Getting Agriculture Moving: Essentials for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New York · Wasington · London). 1966

Muhammad Hanif, et al. "Agricultural Perspective and Policy",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vestock, Islamabad, 2004. 1

OECD, "DAC list of ODA Recipients Effective for Reporting on 2008, 2009 and 2010 flows", Approved in September 2008,

_____,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food aid: does tying matter?」 2006

OECD & FAO, 「Agricultural Outlook」, 2009. 6

O'neil, J. et al, "How Solid are BRICs?", Global Economics Paper No:134. Goldman Sachs., 2005. 12

Ricardo Sibrian, "Undernourishment and critical food poverty: Indicators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SDWPS ESSG 2009-14, FAO

R. Schnepf, "Iraq's Agriculture: Background and Status", CRS Report for Congress, 2003. 5

Robert E. Handford, 「Ivory Coast: A Country Study」, Washington: GPO for

Library of Congress, 1988

Shultz, T. W., "Value of Farm surpluses to under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farm economics, 42(1960):1019-1030

Steinberg, David L., 「Burma: The State of Myanmar」,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2. 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2009. 3

UN Country Team, "Building Blocks for a Nation(East Timor)", Common Country Assessment, 2000. 11

USAID, "Breaking the Cycle of Food Crisis: Famine Prevention in Ethiopia", 2004. 5,

_____, "Ethiopia Food Security Outlook-July to December", 2009 ,

_____, 「Global Food Insecurity and Price Increase」, 2009. 5

US CIA, 「The World Fact Book」

USDA Amber Waves, "Rising Food Prices Intensify Food In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2008

USDA, 「Rice Yearbook」, 2009. 3,

_____, 「Rice Outlook」, RCS-09f, 2009.6

Watkins T.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of Myanmar Economics」, San Hose State University.

World Bank, "Nepal Development Policy Review, Restarting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Report No. 29382-NP, 2005 .3,

_____,"Project Appraisal Document on a Proposed Credit in the Amount of SDR 55 million in Support of an Adaptable Program Loan to the Republic of Kenya for the Kenya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Agribusiness Project", 2009. 5 ,

_____,"Afghanistan: Priorities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WTO, 「The Legal Text」

WTO Committee on Agriculture, "Revised Draft Modality for Agriculture", TN/AG/W/4/Rev.4, WTO, 2008. 12

ActionAid, http://www.actionaid.org

AiDA, http://aida.developmentgateway.org

CARE, http://www.care.org

DFID/UK, http://www.dfid.gov.uk

FAO, http://www.fao.org

FAOSTAT, http://faostat.fao.org/

FEWSN, http://www.fews.net

IFAD, http://www.ifad.org

IFPRI, http://www.ifpri.org

JICA, http://www.jica.go.jp

KOICA, http://www.koica.go.kr

KOICA Statistics, http://stat.koica.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Japan, http://www.mofa.go.jp

OECD, http://www.oecd.org

Oxfam, http://www.oxfam.org

Sri Lanka Guardian, http://www.srilankaguardian.org

UN, http://www.un.org

USAID, http://www.usaid.gov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US CIA http://www.cia.gov

USDA, http://www.usda.gov

USDS, http://www.state.gov/

US Library of Congress, http://memory.loc.gov

Welthungerhilfe, http://www.welthungerhilfe.de

WFP, http://www.wfp.org/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World Bank, http://web.worldbank.org

World Vision, http://www.wvi.org

별첨 자료

별첨 3-1: 협력대상국별 식량농업현황 기본지표
별첨 3-2: 식량위기에 처한 협력대상국의 식량농업개황
별첨 3-3: WTO농업협정의 식량원조 관련조항
별첨 3-4: 식량원조 관련조항 개정 시안(WTO/DDA협상)
별첨 3-5: 식량농업분야 지원 협력대상기관

별첨 4-1: 스리랑카에 대한 각국의 식량원조 사업 사례
별첨 4-2: 스리랑카에 대한 FAO 지원사업 사례
별첨 4-3: 스리랑카 농업생산을 위한 각국 지원사업 사례
별첨 4-4: Jaffna지역 해수 유입방지 제방 세부내역

별첨 4-5: 에티오피아에 대한 각국의 식량원조 사업 사례
별첨 4-6: 에티오피아에 대한 FAO 지원사업 사례
별첨 4-7: 에티오피아 농업생산을 위한 각국 지원사업 사례

〈별첨 3-1〉 협력대상국별 식량농업현황 기본지표

차 례

1. 기본지표 내용 및 자료출처

   별첨 표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별첨 표2 농업생산 관련지표

   별첨 표3 주요 농산물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

2. 아시아 국가별 기본지표(16개국)

3. 중남미 국가별 기본지표(11개국)

4. CIS 국가별 기본지표(6개국)

5. 중동 국가별 기본지표(5개국)

6. 아프리카 국가별 기본지표(18개국)

1. 기본지표 내용 및 자료출처

가. "〈별첨 표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의 내용 및 자료출처

· 국토면적, 총인구, GDP 및 산업별 GDP구성비는 2008년 기준 World Bank, ODA 및 기타 공적지원은 2007년 기준 World Bank 자료임
(http://ddp-ext.worldbank.org/ext/ddpreports/ViewSharedReport?&CF=&REPORT_ID = 9147 & REQUEST_TYPE=VIEWADVANCED)

· 1인당 GDP는 상기 GDP를 총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 인구 구성, 종교, 언어는 외교통상부의 국가정보DB자료임
(http://countryinfo.mofat.go.kr/main/index.jsp)

· FAO 1인당 열량섭취(Kcal/일), FAO 영양부족 인구(백만명), FAO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FAO, "Monitoring progress towards hunger reduction target of the World Food Summit(WFS)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 2008. 8의 자료임.
(http://www.fao.org/economic/ess/food-security-statistics/monitoring-progress-by-country-2003-2005/en)

· WFP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World Food Program이 작성한 자료를 정리한 것임.
(http://www.wfp.org/country)

· OECD/ODA 수원국 소득수준 분류는 World Bank 2007년도 GNI를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국(LIC)은 1인당 GNI $935 미만, 하위중소득국(LMIC)은 $936~$3,705, 상위중소득국은 $3,706~$11,455 해당국으로 OECD/DAC가 2009년 8월 수정 발표한 것임. 다만 최빈국(LDC)(LDCs)은 별도로 UN이 지정한 국가임. OECD의 "DAC List of ODA Recipients Effective for reporting on 2009 and 2010"의 자료임

· World Bank 소득분류는 2008년도 GNI를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국(LIC)은 1인당 GNI=$975, 하위중소득국(LMIC)은 $976〈1인당GNI〈$3,855, 상위중소득국

은 $3,856<1인당GNI<$11,905, 고소득국은 1인당GNI=$11,905 해당국을 말함. World Bank의 자료임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DATASTATISTICS/0,,contentMDK:20421402~pagePK:64133150~piPK:64133175~theSitePK:239419,00.html)

· WFP 식량위협 요인은 세계식량계획(WFP)의 자료임
(http://www.wfp.org/countries)

· FAO 식량위기 원인은 FAO가 2009년 7월 20일 발표, 외부 식량원조가 필요한 식량 위기국(30개국)의 식량위기 원인
(http://www.fao.org/giews/english/hotspots/index.htm)

· 여행제한은 나라별로 여행유의(신변안전유의), 여행자제(신변안전 특별유의 및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 및 여행의 가급적 취소·연기), 여행금지(즉시 대피·철수 및 방문금지) 등의 4단계로 구분됨. 2009년 10월 현재 외교통상부 자료임.
(http://www.0404.go.kr/safety/Safety03_2.jsp)

나. "<별첨 표2> 농업생산 관련지표"의 내용 및 자료출처

구분	내용	자료원
농업성장 지수	1989~91년 평균을 100으로 한 96~98년 지수	FAO
농지면적 비중	국토면적 중 농지면적의 비중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농지면적 (Agricultural land)	FAO 정의에 의한 다년생작물 재배면적 및 다년생 초지면적 포함, 다년생 초지에는 자연적 초지도 포함됨.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농업용 트랙터	농업에 사용되는 트랙터 (정원용 제외)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	경지 및 다년생작물(커피, 코코아, 과수원 등) 재배면적	World Resources Institute
경지면적 (Arable land)	FAO 정의에 의한 다년생작물 재배면적 및 다년생 초지경작면적 (단, 2모작 이상의 재배면적은 1회만 산정)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쌀 재배면적	2003/2004년 기준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추정치

쌀 소비량	2003/2004년 기준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추정치
쌀 생산량	2003/2004년 기준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추정치
맥류 및 잡곡	밀, 보리, 옥수수, 호밀, 연맥, 기장, 수수, 메밀 등의 곡물 (단, 건초용이나 사일리지용 및 완숙 이전에 수확하여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1999-2001 평균)	World Resources Institut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면화 수출량	2003/2004년 기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면화 생산량	2003/2004년 기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비료 사용량	경지 및 다년생작물 재배면적 ha당 비료소비량(FAO에 의한 성분량 기준)	World Resources Institute
식량생산지수	식량작물은 식용작물로서 영양소 함유 작물로 커피・차 등 영양소 미포함작물은 식량생산량에서 제외함.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농업 노동자 비율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중 농업부문 노동력의 구성비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주요 농산물	주요농업분야 생산품목	CIA World Factbooks (2003 ~ 2008)

자료: http://www.nationmaster.com/

다. "〈별첨 표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의 내용과 자료출처

・주요 품목, 생산액, 생산량은 FAO 2007년도 기준 자료임.
(http://faostat.fao.org/site/339/default.aspx)

・품목별 수출입량은 FAO 2007년도 기준 자료임.
(http://faostat.fao.org/site/406/default.aspx)

2. 아시아 국가별 기본지표

(1) 라오스

(2) 베트남

(3) 인도네시아

(4) 캄보디아

(5) 필리핀

(6) 몽골

(7) 방글라데시

(8) 스리랑카

(9) 미얀마

(10) 네팔

(11) 동티모르

(12) 중국

(13) 파키스탄

(14) 아프가니스탄

(15) 피지

(16) 파푸아뉴기니

(1) 라오스(Laos)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236.8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6.2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5.2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837.4	GDP/총인구
	인구구성	라오인(68%), 기타 소수민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불교(95%), 가톨릭, 개신교 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라오어(공용어), 프랑스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40.0	World Bank 2007년 기준
	광공업	31.0	World Bank 2007년 기준
	서비스・기타	29.0	World Bank 2007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30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 인구(백만)		1.1	'03~'05 기준
FAO 영양부족 인구비율(%)		19	'03~'05 기준
WFP 영양부족 인구비율(%)		19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 요인		Droughts, Floods, Pest outbreaks, Environmental degradation, Relocation to areas without sufficient land for paddy cultivation, Unexploded ordnance, Poor education levels	

FAO 식량위기 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396.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2	
농지면적 비중(%)	8.49	
농지면적(㎢)	19,590	
농업용 트랙터 (대)	1,08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958	
경지면적(ha)	1,00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2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160.5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9.1	
식량생산지수(%)	116.80	
농업 노동자 비율(%)	76.30	
육류 생산량(1000톤)	71	
주요 농산물	sweet potatoes, vegetables, corn, coffee, sugarcane, tobacco, cotton, tea, peanuts, rice, water buffalo, pigs, cattle, poultry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Rice, paddy	496,450	2,710,050		5	
2	Vegetables fresh nes	123,849	660,000	F	46	
3	Tobacco, unmanufactured	75,727	41,535		292	
4	Indigenous Cattle Meat	47,543	22,986	Fc	1	
5	Indigenous Pigmeat	46,776	46,191	Fc	0	0
6	Chillies and peppers, dry	35,642	12,000	F	10	0
7	Maize	33,432	690,795		1,280	22,910
8	Indigenous Buffalo Meat	30,221	18,690	Fc		
9	Coffee, green	27,142	33,200			16,886
10	Indigenous Chicken Meat	19,956	17,109	Fc	7	
11	Groundnuts, with shell	16,174	35,070		51	477
12	Cassava	15,138	233,420			
13	Sweet potatoes	10,698	126,465		0	
14	Hen eggs, in shell	9,863	12,800	F	1	
15	Watermelons	7,507	72,000	F		
16	Pineapples	7,155	37,000	F	0	
17	Bananas	6,840	48,000	F	669	
18	Sesame seed	6,634	7,500	F		2,110
19	Other melons (inc.cantaloupes)	6,383	36,000	F	8	
20	Fruit Fresh Nes	6,061	38,000	F	1,573	1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2) 베트남(Vietnam)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329.3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86.2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90.7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052.1	GDP/총인구
	인구구성	베트남인(90%)외 54개 소수민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불교(80%), 가톨릭(9%)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베트남어	현지 대사관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0.0	World Bank 2007년 기준
	광공업	42.0	World Bank 2007년 기준
	서비스・기타	38.0	World Bank 2007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65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 인구(백만)		11.5	'03~'05 기준
FAO 영양부족 인구비율(%)		14	'03~'05 기준
WFP 영양부족 인구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 요인			
FAO 식량위기 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497.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 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관련 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43	
농지면적 비중(%)	30.93	
농지면적(㎢)		
농업용 트랙터 (대)	163,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7,350	
경지면적(ha)	6,600,000	
쌀 재배면적(ha)	7,470,000	
쌀 소비량(1000톤)	17,700	
쌀 생산량(1000톤)	22,08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43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4,780.3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65	
비료 사용량(kg/ha)	285.3	
식량생산지수(%)	124.40	
농업 노동자 비율(%)	66.90	
육류 생산량(1000톤)	1,530	
주요 농산물	paddy rice, coffee, rubber, cotton, tea, pepper, soybeans, cashews, sugar cane, peanuts, bananas, poultry, fish, seafood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Rice, paddy	7,334,530	35,867,500			
2	Indigenous Pigmeat	2,189,673	2,162,319	F		13,322
3	Vegetables fresh nes	1,238,490	6,600,000	F	5,331	3,723
4	Cashew nuts, with shell	793,429	1,207,600			
5	Coffee, green	785,838	961,200		473	1,229,000
6	Cassava	575,391	7,984,900			
7	Fruit Fresh Nes	438,652	2,750,000	F	38,261	188,052
8	Pepper (Piper spp.)	416,769	90,300			83,000
9	Sugar cane	356,981	17,378,500			
10	Natural rubber	322,739	601,700			
11	Indigenous Cattle Meat	296,812	143,507	F		0
12	Indigenous Chicken Meat	278,232	238,534	Fc	156,198	24
13	Groundnuts, with shell	236,662	505,000		1,149	5,560
14	Chillies and peppers, dry	233,158	78,500	F		1,900
15	Hen eggs, in shell	205,782	254,000	F	4	1,679
16	Bananas	193,101	1,355,000	F		10,574
17	Tea	177,531	164,000			114,000
18	Indigenous Buffalo Meat	177,297	109,650	Fc		
19	Sweet potatoes	131,745	1,456,700			
20	Maize	113,969	4,107,500		535,532	176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3) 인도네시아(Indones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904.6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28.3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514.4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2,253.6	GDP/총인구
	인구구성	자바족(45%), 순다족(13.6%), 마두루족(7%) 등 300여 종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회교(87%), 개신교(6%), 가톨릭(3%), 힌두교(2%), 불교(1%)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 (자바어, 순다어등 지방어 및 지방사투리를 포함 모두 583종)	현지 대사관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4.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48.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37.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440	'03~'05 기준
FAO 영양 부족 인구(백만)		37.1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비율(%)		17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비율(%)		6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Natural disasters, Social instability, High unemployment, High food price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796.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0	
농지면적 비중(%)	26.39	
농지면적(㎢)	478,000	
농업용 트랙터 (대)	94,582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33,546	
경지면적(ha)	23,000,000	
쌀 재배면적(ha)	11,900,000	
쌀 소비량(1000톤)	36,950	
쌀 생산량(1000톤)	35,02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0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4,312.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2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37	
비료 사용량(kg/ha)	73.8	
식량생산지수(%)	117.40	
농업 노동자 비율(%)	47.70	
육류 생산량(1000톤)	1,974	
주요 농산물	rice, cassava, peanuts, rubber, cocoa, coffee, palm oil, copra, poultry, beef, pork, egg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Rice, paddy	11,845,150	57,157,436		1,629	1,200
2	Palm oil	5,116,644	16,900,000	*	1,154	8,875,419
3	Coconuts	1,774,885	19,625,000	*	1,546	77,515
4	Indigenous Chicken Meat	1,552,070	1,330,627	Fc	4,735	82
5	Natural rubber	1,477,819	2,755,172		8,148	7,610
6	Cassava	1,411,516	19,988,058			
7	Maize	1,044,118	13,287,527		701,953	101,740
8	Hen eggs, in shell	931,317	1,174,600		526	19
9	Indigenous Cattle Meat	816,775	394,905	Fc	2,836	4
10	Bananas	777,281	5,454,226		25	2,378
11	Indigenous Pigmeat	612,552	604,900	Fc	31	12
12	Cocoa beans	569,937	740,006		19,655	379,829
13	Coffee, green	553,058	676,475		47,937	320,600
14	Palm kernels	534,481	4,090,000	*	2,478	20,548
15	Sugar cane	525,481	25,300,000	*	0	72
16	Oranges	461,472	2,625,884		23,568	94
17	Mangoes, mangosteens, guavas	442,815	1,818,619		1,088	1,198
18	Pineapples	432,779	2,237,858		189	473
19	Chillies and peppers, green	389,534	1,128,790		310	1,362
20	Beans, green	380,537	867,560		1,892	76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4) 캄보디아(Cambod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대상국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81.0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4.7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9.6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651.0	GDP/총인구
	인구구성	크메르인(95%), 기타 소수민족 (중국, 베트남, 참족, 고산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소승 불교(95%), 기타(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크메르어, 불어(50대 이상), 영어(청년층)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32.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7.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41.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16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3.6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6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33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Repeated natural disasters, Small landholdings, Lack of adequate rural credit, Lack of irrigation, Limited off-farm employment opportunitie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672.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31	
농지면적 비중(%)	30.34	
농지면적(㎢)	53,560	
농업용 트랙터 (대)	2,62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3,807	
경지면적(ha)	3,700,000	
쌀 재배면적(ha)	2,240,000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2,96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31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999.1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0	
비료 사용량(kg/ha)		
식량생산지수(%)	105.40	
농업 노동자 비율(%)	69.70	
육류 생산량(1000톤)	164	
주요 농산물	rice, rubber, corn, vegetables, cashews, tapioca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Rice, paddy	1,375,592	6,727,000		1,160	
2	Cassava	159,612	2,215,000			
3	Indigenous Pigmeat	141,271	139,506	Fc	0	
4	Indigenous Cattle Meat	126,578	61,200	Fc	5	0
5	Vegetables fresh nes	91,385	487,000	F	19	9
6	Maize	57,362	523,000		2,900	80,430
7	Chillies and peppers, dry	29,701	10,000	F	4	372
8	Sesame seed	27,132	31,000		0	317
9	Tobacco, unmanufactured	26,072	14,300	F	2,528	100
10	Soybeans	24,813	117,000		1,635	22,072
11	Beans, dry	22,484	54,490		756	206
12	Indigenous Chicken Meat	20,179	17,300	Fc	1	0
13	Bananas	18,526	130,000	F	0	
14	Indigenous Buffalo Meat	17,336	10,721	Fc		
15	Groundnuts, with shell	13,337	30,000		0	4
16	Natural rubber	11,800	22,000	F	377	
17	Pepper (Piper spp.)	11,538	2,500	F	0	39
18	Oranges	11,071	63,000	F	164	0
19	Indigenous Duck Meat	10,739	82,50	Fc	0	
20	Hen eggs, in shell	10,575	13,300	F	35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5) 필리핀(Philippines)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300.0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90.4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66.9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847.4	GDP/총인구
	인구구성	여러 민족간의 혼혈, 말레이계가 대부분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가톨릭(83%), 개신교(9%), 회교(5%), 기타(1%)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영어, 타갈로그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5.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2.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3.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47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13.3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6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18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Ongoing conflict, Internally displaced populations, Poverty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634.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1	
농지면적 비중(%)	40.92	
농지면적(㎢)	122,000	
농업용 트랙터 (대)	11,5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0,050	
경지면적(ha)	5,700,000	
쌀 재배면적(ha)	4,090,000	
쌀 소비량(1000톤)	9,700	
쌀 생산량(1000톤)	9,20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1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023.4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3	
비료 사용량(kg/ha)	73.1	
식량생산지수(%)	115.50	
농업 노동자 비율(%)	38.90	
육류 생산량(1000톤)	1,848	
주요 농산물	sugarcane, coconuts, rice, corn, bananas, cassavas, pineapples, mangoes, pork, eggs, beef; fish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Rice, paddy	3,229,486	1,6240,194		1,717	510
2	Indigenous Pigmeat	1,637,879	1,617,418	Fc	13,832	8
3	Coconuts	1,325,836	1,485,2927		2,439	4,628
4	Bananas	959,899	748,4073		34	1,793,930
5	Vegetables fresh nes	844,424	4,500,000	F	92	2,627
6	Indigenous Chicken Meat	769,889	660,044	Fc	51,871	3,523
7	Hen eggs, in shell	424,588	530,000	F	125	5
8	Sugar cane	423,469	22,235,297			0
9	Pineapples	389,963	2,016,462		0	270,054
10	Fruit, tropical fresh nes	389,164	3,400,000	F	4	740
11	Indigenous Cattle Meat	338,269	163,551	F	1,968	
12	Maize	317,339	6,736,940		181,151	667
13	Mangoes, mangosteens, guavas	249,311	1,023,907		23	27,068
14	Natural rubber	216,736	404,072		318	168
15	Indigenous Buffalo Meat	136,365	84,335	F		
16	Cassava	129,790	1,871,138			
17	Coffee, green	80,020	97,877		9,195	92
18	String beans	75,280	116,928			
19	Cashew nuts, with shell	73,953	112,558		17	0
20	Citrus fruit, nes	72,421	201,619		482	2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6) 몽골(Mongol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25.7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0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9.5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4666.7	GDP/총인구
	인구구성	할흐몽골족(90%),카자흐족(5.9%), 브리아드계(2%) 등 17개 부족	현지 대사관
	종교	라마교(90%), 이슬람교(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Khalkh Mongol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1.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8.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60.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19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0.8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9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13.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관련 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89	
농지면적 비중(%)	83.31	
농지면적(㎢)	1,305,000	
농업용 트랙터 (대)	5,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176	
경지면적(ha)	1,198,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89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819.7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2.9	
식량생산지수(%)	93.60	
농업 노동자 비율(%)	23.60	
육류 생산량(1000톤)	243	
주요 농산물	wheat, barley, vegetables, forage crops; sheep, goats, cattle, camels, horse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Sheep Meat	132,523	66,989	F	1	77
2	Indigenous Cattle Meat	97,198	46,995	F	6	3,812
3	Cow milk, whole, fresh	77,069	307,800		3,312	
4	Indigenous Goat Meat	53,369	35,052	F		0
5	Indigenous Horse Meat	51,065	37,995	F		7,073
6	Wool, greasy	27,792	16,500	F	0	271
7	Goat milk, whole, fresh	17,833	69,600			
8	Wheat	12,565	109,560		91,840	0
9	Indigenous Camel Meat	10,507	7499	F		
10	Potatoes	10,338	114,490		30,170	15
11	Sheep milk, whole, fresh	9,490	32,900			
12	Nuts, nes	7,393	5,200	F	177	23
13	Carrots and turnips	4,170	22,536		0	
14	Vegetables fresh nes	3,344	24,400	F	5,577	0
15	Cabbages and other brassicas	2,286	20,563		12,926	0
16	Camel milk, whole, fresh	1,213	3,800			
17	Onions, dry	618	3,354		1,803	
18	Cucumbers and gherkins	486	2,881		1,833	0
19	Hen eggs, in shell	343	400	F	2,477	
20	Pulses, nes	339	1,350	F	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7) 방글라데시(Bangladesh)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44.0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60.0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79.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493.7	GDP/총인구
	인구구성	벵갈인(98%), 비할, 챠크마, 무갈, 아랍인, 파탈족 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회교(86.6%, 국교), 힌두교(12.1%), 불교(0.6%), 기독교(0.3%)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벵갈어(90%, 공용어), 힌두어(8%), 영어(통용)	현지 대사관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9.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9.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2.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23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40.1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7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30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	
WFP 식량위협요인		Chronic deprivation of socially vulnerable, Natural disasters, Poor health and hygiene services	

FAO 식량위기원인	Cyclones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502.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자제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11	
농지면적 비중(%)	69.26	
농지면적(㎢)	90,150	
농업용 트랙터 (대)	5,53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8,484	
경지면적(ha)	7,955,000	
쌀 재배면적(ha)	10,900,000	
쌀 소비량(1000톤)	26,400	
쌀 생산량(1000톤)	26,15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11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551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70	
비료 사용량(kg/ha)	156.3	
식량생산지수(%)	104.60	
농업 노동자 비율(%)	54.70	
육류 생산량(1000톤)	409	
주요 농산물	rice, jute, tea, wheat, sugarcane, potatoes, tobacco, pulses, oilseeds, spices, fruit; beef, milk, poultry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Rice, paddy	7,981,474	4,305,7000		54,647	8,955
2	Potatoes	691,163	516,7000		4,958	4,532
3	Goat milk, whole, fresh	607,703	2,016,000	F		
4	Chillies and peppers, dry	457,272	153,955		31,704	103
5	Indigenous Cattle Meat	384,758	186,028	Fc	7	0
6	Jute	312,861	838,682		36	652,560
7	Indigenous Goat Meat	297,357	195,300	Fc	0	0
8	Cow milk, whole, fresh	217,538	818,000	F	153	
9	Vegetables fresh nes	205,664	1,096,000		33	22,744
10	Mangoes, mangosteens, guavas	186,739	766,930		0	0
11	Indigenous Chicken Meat	169,945	145,698	Fc	22	0
12	Onions, dry	164,802	894,255		96,446	0
13	Spices, nes	151,241	116,725		2,735	1,481
14	Hen eggs, in shell	144,742	180,000	F	0	0
15	Bananas	143,154	1,004,520		0	0
16	Garlic	136,388	176,710		109,443	0
17	Sugar cane	119,841	5,769,945		0	
18	Wheat	108,905	737,000		2,415,044	0
19	Fruit, tropical fresh nes	105,986	925,965		4,251	1
20	Maize	96,315	902,150		223,145	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8) 스리랑카(Sri Lank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65.6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0.2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40.7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2,019.3	GDP/총인구
	인구구성	싱할라족(74%), 타밀족(18%), 무어족(7%), 말레이족, 버거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불교(69%), 힌두교(11%), 회교(7.6%), 기독교(7.5%) 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3.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9.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7.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36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4.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1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22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Ongoing conflict, Natural disasters, Poverty, Difficult access to food	
FAO 식량위기원인		Conflict, IDPs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589.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제한(일부), 자제(일부)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11	
농지면적 비중(%)	36.45	
농지면적(㎢)	23,560	
농업용 트랙터 (대)	10,5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910	
경지면적(ha)	916,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11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438.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5	
비료 사용량(kg/ha)	128.9	
식량생산지수(%)	95.60	
농업 노동자 비율(%)	45.20	
육류 생산량(1000톤)	91	
주요 농산물	rice, sugarcane, grains, pulses, oilseed, spices, tea, rubber, coconuts; milk, eggs, hides, beef; fish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Rice, paddy	645,100	3,131,000		195	81
2	Tea	330,403	305,220		13,521	190,203
3	Coconuts	197,220	2,180,680		29	42,059
4	Plantains	115,057	518,720		0	25
5	Indigenous Chicken Meat	112,806	96,712	F	3,377	21
6	Pepper (Piper spp.)	89,492	19,390		47	6,940
7	Natural rubber	63,051	117,550		342	5,068
8	Indigenous Cattle Meat	60,571	29,286	F	0	1
9	Hen eggs, in shell	40,166	51,910		15	350
10	Cow milk, whole, fresh	38,122	143,350		1	9
11	Onions, dry	23,902	149,200		142,646	286
12	Cinnamon (canella)	23,200	13,360		17	12,686
13	Chillies and peppers, green	21,668	62,790		26	344
14	Mangoes, mangosteens, guavas	20,682	84,940		227	442
15	Beans, green	18,128	41,330		76	332
16	Pumpkins, squash and gourds	17,084	96,950			
17	Sugar cane	16,252	782,510		0	0
18	Tomatoes	15,435	65,150		1	585
19	Eggplants (aubergines)	14,942	92,900			177
20	Buffalo milk, whole, fresh	13,616	27,26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9) 미얀마(Myanmar)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676.6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49.2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GDP/총인구
	인구구성	버마족(70%), 소수족(25%, 카친, 카렌족 등), 기타(5%, 중국, 인도 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불교(89.5%), 기독교(5%), 회교(4%), 힌두교(0.0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미얀마어(공용어), 영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57.0	World Bank 2000년 기준
	광공업	10.0	World Bank 2000년 기준
	서비스・기타	33.0	World Bank 2000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38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8.8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9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5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Regional production disparities caused by local policies, High food prices, General increased vulnerability, Natural disasters, Pest outbreaks, Limited agricultural and financial inputs	

FAO 식량위기원인	Past cyclone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90.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제한(일부), 자제(일부), 유의(일부)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39	
농지면적 비중(%)	17.17	
농지면적(㎢)	112,930	
농업용 트랙터 (대)	10,605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0,495	
경지면적(ha)	10,093,000	
쌀 재배면적(ha)	6,300,000	
쌀 소비량(1000톤)	10,200	
쌀 생산량(1000톤)	10,73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39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442.90	
면화 수출량(1000 베일)	5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270	
비료 사용량(kg/ha)	20	
식량생산지수(%)	115.40%	
농업 노동자 비율(%)	69.90%	
육류 생산량(1000톤)	382	
주요 농산물	rice, pulses, beans, sesame, groundnuts, sugarcane; hardwood; fish and fish products	

3. 〈주요농산물 생산 및 교역관련 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Rice, paddy	6,224,919	32,610,000	*		300
2	Indigenous Chicken Meat	653,708	560,439	F	79	
3	Vegetables fresh nes	600,480	3,200,000	F	125	90
4	Sesame seed	507,318	590,000	*		61,200
5	Groundnuts, with shell	462,943	1,000,000	F		1,117
6	Beans, dry	413,441	1,765,000	F	48	547,989
7	Indigenous Pigmeat	349,776	345,407	Fc	0	
8	Cow milk, whole, fresh	260,704	980,314		137	
9	Indigenous Cattle Meat	242,507	117,250	Fc	1	21
10	Pigeon peas	242,435	540,000	F		535
11	Chillies and peppers, dry	210,882	71,000	F		966
12	Fruit Fresh Nes	183,436	1,150,000	F	3,229	
13	Hen eggs, in shell	181,524	231,462		430	0
14	Sugar cane	147,103	7,450,000	F	0	
15	Plantains	139,740	630,000	F		
16	Onions, dry	136,374	740,000	F	10	5,088
17	Buffalo milk, whole, fresh	110,120	220,462			
18	Garlic	98,792	128,000	F	4,373	1,295
19	Cotton lint	89,068	60,000	F	220	39
20	Chick peas	88,067	225,000	F		82,393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0) 네팔(Nepal)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47.2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8.6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2.6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441.2	GDP/총인구
	인구구성	아리안족(80%), 티벳, 몽골족, 기타 소수민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힌두교(87%), 불교(8%), 회교(4%)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네팔어(공용)외 10여개 소수부족어	현지 대사관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34.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17.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0.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43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4.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17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Poverty, Floods, Landslides, Declining aggregate food availability, Difficult access to food, Inadequate markets and infrastructures	

FAO 식량위기원인	Poor market access and drought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598.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자제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17	
농지면적 비중(%)	29.52	
농지면적(㎢)	42,220	
농업용 트랙터 (대)	5,6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2,968	
경지면적(ha)	2,357,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1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2,281.7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25.6	
식량생산지수(%)	110.50	
농업 노동자 비율(%)	92.90	
육류 생산량(1000톤)	220	
주요 농산물	rice, corn, wheat, sugarcane, jute, root crops; milk, water buffalo meat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Rice, paddy	767,014	3,680,839		4,2457	0
2	Buffalo milk, whole, fresh	478,822	958,603			
3	Vegetables fresh nes	437,026	2,328,945		3,446	19
4	Potatoes	252,857	1,943,246		64,094	0
5	Indigenous Buffalo Meat	237,767	147,048	Fc		
6	Wheat	200,073	1,515,139		188	75
7	Maize	166,405	1,819,925		58,956	0
8	Cow milk, whole, fresh	104,458	392,791		19	0
9	Indigenous Cattle Meat	101,962	49,298	Fc	1	10
10	Ginger	90,482	158,905		246	41,731
11	Fruit Fresh Nes	82,945	520,000	F	7,495	98
12	Indigenous Goat Meat	62,326	40,935	Fc	3	
13	Sugar cane	51,382	2,599,789			0
14	Millet	47,710	284,813		5,676	487
15	Chillies and peppers, dry	46,242	15,569		4,528	37
16	Mustard seed	42,339	135,660			
17	Oilseeds, Nes	36,622	125,000	F	12	70
18	Lentils	35,904	164,694		232	4,109
19	Mangoes, mangosteens, guavas	33,180	136,270		12,077	0
20	Hen eggs, in shell	24,961	30,048	*	40	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1) 동티모르(Timor Leste)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4.9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1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0.5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454.5	GDP/총인구
	인구구성	주로 말레이족 및 파푸안족 계통, 테툼족(약 40%) 기타 32개 종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가톨릭(80.3%), 개신교(18.0%), 기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2000.2월 포르투갈어와 테툼어 (현지어)를 공용어로 채택. 테툼어는 32개 부족어로 부족간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테툼어 86%, 인니어 59%, 포르투갈어 37%, 영어 22%, 기타 13%('04년)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16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0.2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2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9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Extreme climatic instability, Subsistence farming, Limited off-farm employment, Land/ mudslides, Deforestation, Civil unrest,	
FAO 식량위기원인	IDPs	
ODA 및 기타 공적지원(경상US$,백만)	278.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자제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농지면적 비중(%)	22.86	
농지면적(㎢)	3,400	
농업용 트랙터 (대)	115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경지면적(ha)	122,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926.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식량생산지수(%)	112.90	
농업 노동자 비율(%)		
육류 생산량(1000톤)		
주요 농산물	coffee, rice, corn, cassava, sweet potatoes, soybeans, cabbage, mangoes, bananas, vanilla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ffee, green	11,445	14,000	F	1,000	934
2	Indigenous Pigmeat	10,207	10,080	Fc		
3	Rice, paddy	8,053	41,386	F	4,857	
4	Maize	6,441	63,430	F	1,611	
5	Roots and Tubers, nes	5,388	45,000	F		
6	Cassava	3,582	49,720	F		
7	Vegetables fresh nes	3,002	16,000	F	2	
8	Sweet potatoes	2,482	26,000	F		
9	Indigenous Cattle Meat	2,275	1,100	Fc		
10	Indigenous Chicken Meat	2,146	1840	Fc	118	
11	Beans, dry	1,850	4,500	F	4,000	0
12	Groundnuts, with shell	1,836	4,000	F		
13	Hen eggs, in shell	1,278	1,600	Fc		
14	Coconuts	1,266	14,000	F		
15	Indigenous Buffalo Meat	921	570	Fc		
16	Mangoes, mangosteens, guavas	730	3,000	F		
17	Natural honey	697	400	F		
18	Spices, nes	453	350	F	0	350
19	Indigenous Goat Meat	365	240	Fc		
20	Bananas	285	2,000	F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2) 중국(Chin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9,598.1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325.6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4,326.2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3,263.5	GDP/총인구
	인구구성	한족(93%) 및 55개 소수민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	
	언어	보통화(북경어에 기초)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1.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49.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 · 기타	40.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99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122.7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9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439.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49	
농지면적 비중(%)	59.49	
농지면적(㎢)	5,548,510	
농업용 트랙터 (대)	995,421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35,557	
경지면적(ha)	103,397,000	
쌀 재배면적(ha)	26,510,000	
쌀 소비량(1000톤)	135,000	
쌀 생산량(1000톤)	112,46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49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5,105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5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25,500	
비료 사용량(kg/ha)	255.6	
식량생산지수(%)	117.80	
농업 노동자 비율(%)	66	
육류 생산량(1000톤)	53,747	
주요 농산물	rice, wheat, potatoes, corn, peanuts, tea, millet, barley, apples, cotton, oilseed; p/ork; fish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Pigmeat	44,534,620	43,978,294	Fc	25,582	11,861
2	Rice, paddy	35,526,760	187,397,460		4,496	21,425
3	Vegetables fresh nes	23,777,510	147,212,000	F	16,178	410,048
4	Hen eggs, in shell	18,540,600	21,833,300		232	119,580
5	Wheat	15,348,160	109,298,296		1,427,548	2,337,144
6	Indigenous Chicken Meat	12,460,400	10,682,602	Fc	875,586	126,345
7	Indigenous Cattle Meat	12,073,450	5,837,434	Fc	2,717	25
8	Cotton lint	11,317,680	7,624,000		2,638,361	21,258
9	Asparagus	9,961,629	6,253,141	F	10,435	1,063
10	Cow milk, whole, fresh	9,460,634	35,574,315		6,501	45,181
11	Garlic	9,311,747	12,064,662	F	8,779	1,438,152
12	Apples	8,003,659	27,865,953		164,718	1,020,315
13	Tomatoes	7,960,108	33,596,881	F	285	89,777
14	Potatoes	6,743,942	56,196,000		19,223	364,578
15	Watermelons	6,583,176	66,454,773	*	170,098	36,680
16	Groundnuts, with shell	6,112,785	13,067,885		419	87,312
17	Maize	5,818,754	151,948,870		4,529,508	4,916,662
18	Cabbages and other brassicas	5,101,838	36,530,009	F	42,759	278,027
19	Spinach	4,907,504	12,012,005	F	58	10,410
20	Sweet potatoes	4,855,120	84,431,197		56	16,035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3) 파키스탄(Pakista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796.1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66.0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68.3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013.5	GDP/총인구
	인구구성	아리안족(서북부와 Punjab주), 드라비다족(남부), 터키아리안족 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회교(국교)-97%(수니파:77%, 시아파 : 20%), 힌두교, 기독교 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우르두어(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용어), 영어(공공문서는 모두 영어사용), 펀잡어(펀잡지방), 신드어(신드지방), 발루치어(발루치 지방), 세라이키어(뮬탄과 바하왈푸르 지방), 파쉬토어(북서변경 지방)	현지 대사관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0.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7.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3.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34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35.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3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24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Earthquake, Poverty,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Low education levels	
FAO 식량위기원인	Conflict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212.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제한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9	
농지면적 비중(%)	35.12	
농지면적(㎢)	270,700	
농업용 트랙터 (대)	320,5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21,960	
경지면적(ha)	21,275,000	
쌀 재배면적(ha)	2,460,000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4,85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9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2,562.8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0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8,350	
비료 사용량(kg/ha)	135.1	
식량생산지수(%)	110.60	
농업 노동자 비율(%)	46.60	
육류 생산량(1000톤)	2,083	
주요 농산물	cotton, wheat, rice, sugarcane, fruits, vegetables; milk, beef, mutton, egg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Buffalo milk, whole, fresh	9,667,023	20,372,000			
2	Wheat	3,361,010	23,294,700		135,960	458,882
3	Cotton lint	2,942,239	1,982,000		461,106	45,568
4	Cow milk, whole, fresh	2,811,917	11,130,000		0	18,805
5	Rice, paddy	1,709,320	8,303,000		25	
6	Indigenous Cattle Meat	1,356,607	655,910	Fc	1,189	6,986
7	Indigenous Buffalo Meat	1,112,734	688,173	Fc		
8	Sugar cane	1,023,285	54,741,600		0	0
9	Indigenous Chicken Meat	646,982	554,674	Fc	13	0
10	Cottonseed	477,624	3,965,000		0	0
11	Mangoes, mangosteens, guavas	418,603	1,719,180		0	62,057
12	Hen eggs, in shell	396,820	479,259	*	162	565
13	Indigenous Goat Meat	390,539	256,500	Fc	42	3,505
14	Onions, dry	387,009	2,100,000	F	0	9,754
15	Chillies and peppers, dry	386,122	130,000	*	1,010	6,376
16	Potatoes	338,387	2,581,500		32,111	162,640
17	Maize	324,662	3,605,000		6,347	487
18	Oranges	302,448	1,721,000	F	50	244
19	Indigenous Sheep Meat	299,707	151,500	Fc	226	3,883
20	Chick peas	225,208	838,000		136,677	78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4)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652.1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31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2006)
	GDP(경상US$,10억)	12.8	현지 대사관 (`08년 추정)
	1인당 GDP(경상US$)	457	현지 대사관 (`08년 추정)
	인구구성	파슈툰(44%), 타지크(25%), 하자라(10%), 우즈벡(8%) 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84%, 시아파 1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37.0	World Bank 2007년 기준
	광공업	2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서비스·기타	38.0	World Bank 2007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Insecurity, Difficult access to markets, Poor sanitation, Low education level, Drought, Floods, Environmental degradation	

FAO 식량위기원인	Conflict and insecurity, inadequate rainfall	
ODA 및 기타 공적지FAO 식량위기원인원 (경상US$,백만)	3,951.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금지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12	
농지면적 비중(%)	58.35	
농지면적(㎢)	380,480	
농업용 트랙터 (대)	84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8,054	
경지면적(ha)	7,91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12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5	
면화 생산량(1000 베일)	85	
비료 사용량(kg/ha)	0.6	
식량생산지수(%)		
농업 노동자 비율(%)	66.60	
육류 생산량(1000톤)	231	
주요 농산물	opium, wheat, fruits, nuts; wool, mutton, sheepskins, lambskin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Wheat	671,054	4,484,000		122,185	0
2	Cow milk, whole, fresh	381,357	1,434,000			
3	Indigenous Cattle Meat	283,156	136,904	Fc	393	
4	Grapes	162,365	350,000	F		61,827
5	Indigenous Sheep Meat	130,091	65,760	Fc		
6	Rice, paddy	113,332	552,000			
7	Vegetables fresh nes	112,590	600,000	F	26,327	1,312
8	Indigenous Goat Meat	65,318	42,900	Fc		
9	Sheep milk, whole, fresh	41,232	121,500	Fc		
10	Potatoes	40,730	300,800		858	12,767
11	Berries Nes	39,153	57,000	F		
12	Goat milk, whole, fresh	34,062	113,000			
13	Almonds, with shell	32,884	31,481			3,150
14	Maize	28,706	360,000		44	
15	Sesame seed	27,683	32,000	*		8,500
16	Cotton lint	27,462	18,500	*	14	9,632
17	Barley	26,891	370,000		4,179	
18	Watermelons	20,854	200,000	F		2,963
19	Wool, greasy	16,338	9,700	F	34	367
20	Fruit Fresh Nes	15,951	100,000	F	24,463	8,405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5) 피지군도(Fiji Islands)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8.3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0.8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3.5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4,202.4	GDP/총인구
	인구구성	피지인(51%), 인도인(44%), 기타 유럽 및 중국계(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기독교(52%), 힌두교(38%), 이슬람교(8%)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영어(공통어), 피지어, 힌두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5.0	World Bank 2005년 기준
	광공업	22.0	World Bank 2005년 기준
	서비스・기타	63.0	World Bank 2005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301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상위중소득국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상위중소득국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57.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98	
농지면적 비중(%)	25.18	
농지면적(㎢)	4,600	
농업용 트랙터 (대)	5,644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285	
경지면적(ha)	20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98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2,326.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26.3	
식량생산지수(%)	95.50	
농업 노동자 비율(%)	39.60	
육류 생산량(1000톤)	24	
주요 농산물	sugarcane, coconuts, cassava, rice, sweet potatoes, bananas; cattle, pigs, horses, goats; fish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Sugar cane	52,195	2,513,000			0
2	Indigenous Cattle Meat	17,191	8,311	Fc	114	0
3	Cow milk, whole, fresh	15,424	58,000	F	3,578	0
4	Indigenous Chicken Meat	13,741	11,781	F	1,082	29
5	Coconuts	12,661	140,000	F	84	137
6	Taro (cocoyam)	6,352	61,662		1	12,661
7	Indigenous Pigmeat	4,032	3,982	Fc	86	9
8	Cassava	3,980	61,379			
9	Rice, paddy	3,057	14,849		0	1
10	Hen eggs, in shell	2,394	3,438		405	2
11	Ginger	1,771	3,111		10	1,263
12	Fruit Fresh Nes	1,595	10,000	F	25	2
13	Papayas	1,425	9,091		2	470
14	Indigenous Goat Meat	1,415	929	F	26	0
15	Vegetables fresh nes	1,313	7,000	F	364	1,005
16	Bananas	926	6,500	F	0	130
17	Pepper (Piper spp.)	738	160	F	36	0
18	Tomatoes	663	2,800	F	141	1
19	Eggplants (aubergines)	643	4,000	F	0	99
20	Tobacco, unmanufactured	484	266		36	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6)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462.8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6.5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8.2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266.7	GDP/총인구
	인구구성	멜라네시안(96%), 마이크로네시안(2%), 폴리네시안(1%), 중국계 및 유럽계(1%)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기독교(90%), 기타 토착신앙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영어(공용어), Pidgin어 및 Motu어등 800여종의 각기 상이한 부족어	현지 대사관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33.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48.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19.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317.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04	
농지면적 비중(%)	2.32	
농지면적(㎢)	10,500	
농업용 트랙터 (대)	1,16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855	
경지면적(ha)	225,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04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533.3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13.7	
식량생산지수(%)	107.70	
농업 노동자 비율(%)	73.60	
육류 생산량(1000톤)	67	
주요 농산물	coffee, cocoa, copra, palm kernels, tea, sugar, rubber, sweet potatoes, fruit, vegetables, vanilla; shell fish, poultry, pork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Game meat	540,394	330,000	F	35	
2	Fruit Fresh Nes	133,988	840,000	F	119	0
3	Palm oil	119,590	395,000	*	3,000	368,300
4	Bananas	111,585	870,000	F	0	
5	Berries Nes	71,437	104,000	F	0	
6	Indigenous Pigmeat	68,851	67,991	Fc	1,175	0
7	Coffee, green	61,644	75,400	*	19	54,600
8	Coconuts	61,227	677,000	F	0	10
9	Yams	58,519	290,000	*		
10	Sweet potatoes	52,254	520,000	*	0	
11	Vegetables fresh nes	49,727	265,000	F	533	
12	Maize, green	46,245	235,000	F	22	
13	Roots and Tubers, nes	36,643	306,000	*	30	
14	Cocoa beans	36,429	47,300	*	1	46,900
15	Taro (cocoyam)	26,785	260,000	*		
16	Palm kernels	12,937	99,000	*	0	14,000
17	Tea	9,742	9,000	F	4	6,400
18	Sugar cane	9,346	450,000	*	0	
19	Cassava	9,007	125,000	*		
20	Nuts, nes	7,962	5,600	*	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3. 중남미 국가별 기본지표

(1) 과테말라

(2) 파라과이

(3) 페루

(4) 니카라과

(5) 도미니카

(6) 볼리비아

(7) 에콰도르

(8) 엘살바도르

(9) 온두라스

(10) 자메이카

(11) 콜롬비아

(1) 과테말라(Guatemal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08.9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3.7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39.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2,849.4	GDP/총인구
	인구구성	원주민(23개 부족) 43%, 메스티조 50%, 백인등 기타 7%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카톨릭 70%, 개신교 30%	현지 대사관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24개 부족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1.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8.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62.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27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2.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6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22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Natural disasters, Harsh environmental conditions, Difficult access to food and safe water, Low sanitation levels, Low education level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450.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17	
농지면적 비중(%)	42.9	
농지면적(㎢)	46,520	
농업용 트랙터 (대)	4,3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905	
경지면적(ha)	1,44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1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759.5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3	
비료 사용량(kg/ha)	111.1	
식량생산지수(%)	104.40	
농업 노동자 비율(%)	45.50	
육류 생산량(1000톤)	191	
주요 농산물	sugarcane, corn, bananas, coffee, beans, cardamom; cattle, sheep, pigs, chicken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Sugar cane	526,867	25,436,764		0	47
2	Bananas	223,521	1,569,460		12,253	1,408,804
3	Coffee, green	206,025	252,000	*	17	230,621
4	Indigenous Chicken Meat	160,027	137,195	F	60,147	4,114
5	Indigenous Cattle Meat	130,409	63,052	F	119	0
6	Maize	92,674	1,294,394		701,337	8,761
7	Cow milk, whole, fresh	89,940	338,200	F	12,074	0
8	Avocados	73,523	114,410		950	4,408
9	Hen eggs, in shell	68,384	85,000	F	900	253
10	Tomatoes	67,705	285,763		88	20,123
11	Other melons (inc. cantaloupes)	61,924	349,245		40	344,110
12	Potatoes	60,086	419,249		3,428	81,564
13	Oranges	47,801	272,000	F	54,609	148
14	Pineapples	44,589	230,566		1,135	47,460
15	Beans, dry	40,760	100,000	F	14,545	3,738
16	Palm oil	39,358	130,000	*	24,754	110,186
17	Tobacco, unmanufactured	39,199	21,500	F	3,078	11,658
18	Nuts, nes	38,390	27,000	F	36	1,837
19	Lemons and limes	32,147	123,032		0	5,789
20	Mangoes, mangosteens, guavas	31,094	127,702		65	20,49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2) 파라과이(Paraguay)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406.8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6.2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6.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2,565.0	GDP/총인구
	인구구성	스페인, 이태리, 독일계등 유럽 인종이 대부분이며 이들과 원주민 인디오 혼혈도 많음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천주교 97%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스페인어 및 과라니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3.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0.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7.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59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0.7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1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08.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07	
농지면적 비중(%)	62.51	
농지면적(㎢)	248,360	
농업용 트랙터 (대)	16,5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2,378	
경지면적(ha)	3,04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0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2,092.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30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350	
비료 사용량(kg/ha)	27.4	
식량생산지수(%)	115	
농업 노동자 비율(%)	33.90	
육류 생산량(1000톤)	385	
주요 농산물	cotton, sugarcane, soybeans, corn, wheat, tobacco, cassava, fruits, vegetables; beef, pork, eggs, milk; timber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Soybeans	1,211,682	5,856,000	*	15,322	3,520,813
2	Indigenous Cattle Meat	421,711	203,894	F	0	1,447
3	Maize	219,810	1,900,000		13,445	2,109,145
4	Wheat	103,726	800,000	F	12,983	273,572
5	Indigenous Pigmeat	100,852	99,592	Fc	0	1,115
6	Cow milk, whole, fresh	99,727	375,000	F	343	3,126
7	Cassava	92,597	5,100,000	F		
8	Cotton lint	90,627	61,050	F	2,211	41,909
9	Hen eggs, in shell	84,483	100,000	F	586	
10	Sesame seed	61,922	70,000	*	916	45,511
11	Sugar cane	57,532	3,400,000	F	0	0
12	Sunflower seed	45,150	192,000	*	594	36,198
13	Indigenous Chicken Meat	42,010	36,017	Fc	446	0
14	Oranges	33,390	190,000	F	14,301	43
15	Beans, dry	31,498	78,000	F	15	205
16	Maté	29,227	87,500	F	84	463
17	Tobacco, unmanufactured	28,259	15,500	F	32,042	4,993
18	Rice, paddy	27,648	132,000	F	379	51,858
19	Rapeseed	22,718	80,000	*	226	26,320
20	Tomatoes	21,323	90,000	F	11,132	36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3) 페루(Peru)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285.2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8.8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27.4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4,418.5	GDP/총인구
	인구구성	인디오 45%, 혼혈 37%, 백인 15%, 기타 3%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천주교 90%이상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스페인어 및 께추아어 (1975년 추가) 백인 및 혼혈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인디오들은 께추아어 및 아이마라어 사용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7.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8.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5.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45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3.9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12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상위중소득	
WFP 식량위협요인		Natural disasters,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Difficult access to food, Low educational level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63.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35	
농지면적 비중(%)	16.57	
농지면적(㎢)	212,100	
농업용 트랙터 (대)	13,191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4,210	
경지면적(ha)	3,70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35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540.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184	
비료 사용량(kg/ha)	57.9	
식량생산지수(%)	110.20	
농업 노동자 비율(%)	29.70	
육류 생산량(1000톤)	715	
주요 농산물	asparagus, coffee, cotton, sugarcane, rice, potatoes, corn, plantains, grapes, oranges, coca; poultry, beef, dairy products; fish, guinea pig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hicken Meat	855,447	733,396	F	7,673	90
2	Rice, paddy	511,252	2,435,134		0	5
3	Chillies and peppers, dry	490,078	165,000	F	108	43,711
4	Asparagus	452,593	284,103			96,329
5	Potatoes	451,810	3,383,020		0	258
6	Cow milk, whole, fresh	414,822	1,579,834		827	103
7	Plantains	406,912	1,834,511		0	65,500
8	Indigenous Cattle Meat	316,287	152,923	F	52	21
9	Hen eggs, in shell	196,770	257,621		292	2,445
10	Coffee, green	184,762	225,992		14	173,615
11	Sugar cane	170,908	8,228,623		0	9
12	Onions, dry	116,912	634,393		0	86,183
13	Cotton lint	106,585	71,800	F	60,323	1471
14	Indigenous Pigmeat	104,277	102,975	F	0	1
15	Grapes	91,204	196,604		1,617	26,095
16	Cassava	83,448	1,158,042			
17	Avocados	78,220	121,720		404	37,521
18	Mangoes, mangosteens, guavas	71,693	294,440		0	82,512
19	Artichokes	68,429	134,244		0	8
20	Indigenous Sheep Meat	66,549	33,640	F	2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4) 니카라과(Nicaragu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30.0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5.7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6.6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160.2	GDP/총인구
	인구구성	메스티조(69%), 백인(17%), 흑인(9%), 인디언(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카톨릭(85%), 개신교(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서반어(공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9.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0.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1.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35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1.2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2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27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Natural disasters, Poverty, Low infrastructures, Low education level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834.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17	
농지면적 비중(%)	57.46	
농지면적(㎢)	69,760	
농업용 트랙터 (대)	2,93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2,746	
경지면적(ha)	1,925,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1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789.3	
면화 수출량(1000 베일)	9	
면화 생산량(1000 베일)	10	
비료 사용량(kg/ha)	10.7	
식량생산지수(%)	123.10	
농업 노동자 비율(%)	19.30	
육류 생산량(1000톤)	90	
주요 농산물	coffee, bananas, sugarcane, cotton, rice, corn, tobacco, sesame, soya, beans; beef, veal, pork, poultry, dairy products; shrimp, lobster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attle Meat	186,438	90,141	F	2	8,425
2	Cow milk, whole, fresh	184,670	708,405		816	466
3	Sugar cane	93,067	4,480,873		16	0
4	Indigenous Chicken Meat	81,833	70,158	F	1,005	264
5	Coffee, green	74,323	90,909		2,615	72,605
6	Beans, dry	69,840	168,560		2,652	53,260
7	Rice, paddy	56,172	269,858		137,026	344
8	Groundnuts, with shell	52,138	109,722		0	327
9	Maize	50,231	484,704		131,621	6,185
10	Hen eggs, in shell	15,794	21,456		2,606	0
11	Oranges	12,653	72,000	F	3,866	35,194
12	Pineapples	9,862	51,000	F	51	1,286
13	Plantains	8,850	42,000	F	195	23,553
14	Indigenous Pigmeat	6,713	6,630	F	59	0
15	Bananas	6,708	47,072		2,553	38,934
16	Tobacco, unmanufactured	6,198	3,400	F	1	777
17	Potatoes	4,612	33,000	F	8,287	0
18	Sesame seed	4,077	4,683		0	6,626
19	Cassava	3,963	115,000	F		
20	Indigenous Horse Meat	2,822	2,100	F	0	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5) 도미니카(Dominican Republic)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48.7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9.8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45.8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4,653.5	GDP/총인구
	인구구성	흑인(90%), 카리브 인디안(원주민), 인도계 및 백인계(소수)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카톨릭(77%), 기독교(15%), 무교(2%), 기타(6%)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영어(공용어), 프랑스어 방언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1.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8.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61.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30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2.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1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상위중소득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28.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농지면적 비중(%)	76.4	
농지면적(㎢)	36,960	
농업용 트랙터 (대)	1,87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596	
경지면적(ha)	1,096,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4,135.5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3	
비료 사용량(kg/ha)	54.3	
식량생산지수(%)	102.60	
농업 노동자 비율(%)	16	
육류 생산량(1000톤)		
주요 농산물	sugarcane, coffee, cotton, cocoa, tobacco, rice, beans, potatoes, corn, bananas; cattle, pigs, dairy products, beef, egg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hicken Meat	345,645	296,330	F	3,045	3
2	Cow milk, whole, fresh	200,784	755,000	F	173	
3	Rice, paddy	156,218	748,986		58	0
4	Indigenous Cattle Meat	151,378	73,190	F	140	27
5	Plantains	111,932	504,631			3,649
6	Avocados	108,509	183,535			18,624
7	Sugar cane	100,192	4,823,910			
8	Indigenous Pigmeat	78,966	77,980	F	3,713	
9	Bananas	70,639	495,678			208,653
10	Tomatoes	69,183	292,000	F	282	1463
11	Hen eggs, in shell	56,856	86,042	F	255	
12	Mangoes, mangosteens, guavas	38,081	170,000	F		3,294
13	Goat milk, whole, fresh	35,268	117,000	F		
14	Coffee, green	33,709	41,232			2133
15	Cocoa beans	32,466	42,154			39,512
16	Tobacco, unmanufactured	21,878	12,000	F	8,475	607
17	Pineapples	17,713	91,593		118	390
18	Oranges	14,690	83,594			1,039
19	Beans, dry	11,841	28,528		30,912	20
20	Chillies and peppers, green	10,048	29,118			7,844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6) 볼리비아(Boliv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098.6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9.7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6.7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722.1	GDP/총인구
	인구구성	인디오 50%, 혼혈 35%, 유럽계 백인 1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천주교 9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스페인어(공식언어), 께추아어, 아이마라어, 기타 토속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4.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42.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44.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17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2.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2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23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Natural disasters, Insufficient food production, Difficult access to food, Low education level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476.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33	
농지면적 비중(%)	34.2	
농지면적(㎢)	370,870	
농업용 트랙터 (대)	6,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2,206	
경지면적(ha)	3,05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33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787.4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5	
면화 생산량(1000 베일)	23	
비료 사용량(kg/ha)	3.4	
식량생산지수(%)	110.30	
농업 노동자 비율(%)	43.90	
육류 생산량(1000톤)	359	
주요 농산물	soybeans, coffee, coca, cotton, corn, sugarcane, rice, potatoes; timber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attle Meat	362,021	175,035	F	0	0
2	Soybeans	217,760	1,595,947		244,490	66,057
3	Indigenous Chicken Meat	158,887	136,218	Fc	5	1,071
4	Sugar cane	133,329	6,419,313		0	
5	Indigenous Pigmeat	108,792	107,433	Fc	0	0
6	Plantains	91,981	445,898		0	0
7	Rice, paddy	76,969	369,141		80	0
8	Potatoes	72,706	735,254		17,108	127
9	Cow milk, whole, fresh	69,346	260,759		114	0
10	Chestnuts	68,850	55,000	F	0	0
11	Maize	56,748	770,365		3,565	24,177
12	Hen eggs, in shell	47,742	62,585	F	37	12
13	Sunflower seed	45,187	191,317		1,048	5,872
14	Cotton lint	38,002	25,600	F	8,368	2,559
15	Indigenous Sheep Meat	35,614	18,003	F	0	
16	Tomatoes	29,457	124,328		533	0
17	Bananas	24,186	182,490		0	79,466
18	Wheat	23,890	165,165		110,007	0
19	Coffee, green	20,784	25,422		0	5,023
20	Beans, dry	16,181	39,200		11	31,681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7) 에콰도르(Ecuador)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주재원 파견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283.6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3.5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52.6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3,899.9	GDP/총인구
	인구구성	인디오 35%, 혼혈 45%, 백인 10%, 기타 10%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천주교 90%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스페인어(일부 인디오는 께추아어 사용)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7.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6.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7.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30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1.9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6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	
WFP 식량위협요인		Poverty, Chronic deprivation of socially vulnerable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1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45	
농지면적 비중(%)	27.28	
농지면적(㎢)	75,520	
농업용 트랙터 (대)	14,7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3,001	
경지면적(ha)	1,348,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45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2,624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21	
비료 사용량(kg/ha)	54.8	
식량생산지수(%)	107.20	
농업 노동자 비율(%)	25.20	
육류 생산량(1000톤)	420	
주요 농산물	bananas, coffee, cocoa, rice, potatoes, manioc, plantains, sugarcane; cattle, sheep, pigs, beef, pork, dairy products; balsa wood; fish, shrimp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Bananas	855,388	6,002,302		0	5,174,565
2	Indigenous Cattle Meat	427,187	206,542	F	2	0
3	Cow milk, whole, fresh	389,652	4,759,378		0	0
4	Rice, paddy	363,423	1,734,135		22	1
5	Indigenous Chicken Meat	243,144	208,454	F	25	682
6	Sugar cane	171,144	8,360,001			5
7	Plantains	112,185	595,027			111,649
8	Indigenous Pigmeat	105,159	103,845	Fc	1,645	0
9	Palm oil	89,314	295,000	F	76	171,638
10	Cocoa beans	66,151	85,891		0	80,093
11	Hen eggs, in shell	60,315	77,500	F	2,503	187
12	Maize	43,236	944,952		562,341	17,656
13	Potatoes	39,002	317,221		50	65
14	Mangoes, mangosteens, guavas	38,227	157,000	F	0	41,379
15	Fruit Fresh Nes	32,699	205,000	F	467	4,337
16	Coffee, green	31,628	38,687		54	10,889
17	Indigenous Sheep Meat	22,706	11,478	Fc	26	0
18	Avocados	18,314	28,500	F	40	3,797
19	Tomatoes	16,607	70,094		3	3,543
20	Onions (inc. shallots), green	14,537	93,000	F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8) 엘살바도르(El Salvador)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21.0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6.1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22.1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3,606.9	GDP/총인구
	인구구성	메스티소(백인-원주민 혼혈) 91%, 백인 6%, 원주민(인디오) 3%	현지 대사관
	종교	로마가톨릭교 83%, 기타 17%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에스파냐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3.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8.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8.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53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0.6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0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11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Natural disasters, Poverty, Insufficient food production, High food prices, Low education level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88.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07	
농지면적 비중(%)	82.24	
농지면적(㎢)	17,040	
농업용 트랙터 (대)	3,43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810	
경지면적(ha)	66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0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2,484.7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1	
비료 사용량(kg/ha)	103	
식량생산지수(%)	104.80	
농업 노동자 비율(%)	28.40	
육류 생산량(1000톤)	87	
주요 농산물	coffee, sugar, corn, rice, beans, oilseed, cotton, sorghum; beef, dairy products; shrimp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w milk, whole, fresh	142,454	535,664		3,470	45
2	Indigenous Chicken Meat	116,035	99,480	F	6,512	2,567
3	Coffee, green	78,041	95,456		89	73,778
4	Sugar cane	73,523	4,956,477		53	0
5	Hen eggs, in shell	54,857	70,000		576	2,471
6	Indigenous Cattle Meat	50,995	24,656	F	7,379	0
7	Beans, dry	41,366	99,305		21,636	3,441
8	Maize	37,479	836,695		596,002	217
9	Plantains	18,040	88,526		65,501	0
10	Indigenous Pigmeat	17,980	17,755	Fc	1,446	
11	Sorghum	17,192	181,694		79	0
12	Lemons and limes	13,381	51,215		442	915
13	Oranges	11,770	66,978		33,370	183
14	Papayas	10,238	65,295		5,080	0
15	Tomatoes	9,484	40,032		87,599	20
16	Watermelons	9,230	88,529		31,756	88
17	Bananas	8,450	65,000	F	53,807	0
18	Rice, paddy	6,637	31,540		72,309	12
19	Chillies and peppers, green	6,001	17,390		11,022	1,240
20	Maize, green	5,903	30,000		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9) 온두라스(Honduras)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12.1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7.2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4.1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944.8	GDP/총인구
	인구구성	혼형(메스티조)90%, 원주민 (인디오) 7%, 흑인 2%, 백인 1%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카톨릭(85%), 기독교(10%), 기타(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스페인어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3.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7.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61.0	World Bank 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59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0.8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2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25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Frequent mild earthquakes, Hurricanes, Floods, Land degradation, Deforestation, Soil erosion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464.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17	
농지면적 비중(%)	26.24	
농지면적(㎢)	29,360	
농업용 트랙터 (대)	5,3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427	
경지면적(ha)	1,068,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1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488.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4	
비료 사용량(kg/ha)	126.5	
식량생산지수(%)	111	
농업 노동자 비율(%)	30.80	
육류 생산량(1000톤)	98	
주요 농산물	bananas, coffee, citrus; beef; timber; shrimp, tilapia, lobster; corn, African palm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ffee, green	178,188	217,951		2	206,766
2	Cow milk, whole, fresh	175,999	661,800	F	2,904	2,671
3	Indigenous Chicken Meat	162,137	139,004	F	8,320	2,135
4	Indigenous Cattle Meat	134,428	64,995	F	314	56
5	Bananas	108,307	910,000	F	7,164	566,539
6	Sugar cane	99,928	5,958,300		0	
7	Plantains	61,039	290,000	F	8,857	78
8	Palm oil	52,983	175,000	F	1,728	178,047
9	Oranges	50,964	290,000	F	32	22,206
10	Beans, dry	44,402	108,499		10,469	979
11	Maize	41,907	617,158		230,480	506
12	Tomatoes	36,724	155,000	F	440	34,608
13	Other melons (inc. cantaloupes)	34,575	195,000	F	434	172,767
14	Pineapples	29,782	154,000	F	314	52,965
15	Hen eggs, in shell	26,346	41,000	F	2,939	317
16	Cucumbers and gherkins	12,651	75,000	F	63	24,621
17	Tobacco, unmanufactured	11,267	6,180	F	5,719	1,787
18	Vegetables fresh nes	10,320	55,000	F	3,130	16,538
19	Indigenous Pigmeat	10,030	9,905	Fc	1,447	0
20	Cabbages and other brassicas	9,842	67,000	F	740	203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0) 자메이카(Jamaic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1.0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7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5.1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5,602.2	GDP/총인구
	인구구성	흑인계 90.9%, 혼혈 7.3%, 동인도계 1.3%, 중국계 0.2%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신교 56%, 카톨릭 5%, 기타 39.1%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영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5.0	World Bank 2007년 기준
	광공업	2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서비스・기타	69.0	World Bank 2007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81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상위중소득국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상위중소득국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6.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0	
농지면적 비중(%)	47.37	
농지면적(㎢)	5,130	
농업용 트랙터 (대)	3,08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274	
경지면적(ha)	174,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0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160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81.8	
식량생산지수(%)	99.40	
농업 노동자 비율(%)	20.30	
육류 생산량(1000톤)	82	
주요 농산물	sugarcane, bananas, coffee, citrus, yams, ackees, vegetables; poultry, goats, milk; crustaceans, mollusk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hicken Meat	112,365	96,334	F	20,640	185
2	Goat milk, whole, fresh	49,737	16,5000	F		
3	Sugar cane	40,875	1,968,000			18
4	Coconuts	28,126	311,000	F	5	209
5	Oranges	24,955	142,000	F		2,232
6	Chillies and peppers, dry	24,355	8,200	F	79	474
7	Yams	22,827	113,124			9,661
8	Indigenous Cattle Meat	21,489	10,390	F	70	0
9	Bananas	17,599	125,000	F		1,7391
10	Indigenous Pigmeat	7,898	7,800	F	420	0
11	Grapefruit (inc. pomelos)	7,418	43,500	F		13
12	Fruit, tropical fresh nes	6,524	57,000	F	18	1
13	Lemons and limes	6,270	24,000	F		1
14	Pumpkins, squash and gourds	5,947	33,749		0	538
15	Spinach	4,981	12,192		16	
16	Tomatoes	4,638	19,576		359	0
17	Plantains	4,233	19,087			0
18	Cow milk, whole, fresh	3,748	14,094		27	1
19	Tobacco, unmanufactured	3,646	2,000	F	1	48
20	String beans	3,602	5,596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1) 콜롬비아(Colomb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141.8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44.5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242.3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5,440.6	GDP/총인구
	인구구성	메스티조(혼혈) 58%, 백인계 20%, 물라토(혼혈), 14%, 흑인 4%, 삼보 3%, 인디언 원주민 1%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천주교 96%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스페인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9.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4.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7.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67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4.3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0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13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상위중소득국	
WFP 식량위협요인		Poverty, Population displacement, Low food production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731.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04	
농지면적 비중(%)	38.36	
농지면적(㎢)	425,570	
농업용 트랙터 (대)	21,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4,545	
경지면적(ha)	2,004,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04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613.8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155	
비료 사용량(kg/ha)	144.8	
식량생산지수(%)	109.70	
농업 노동자 비율(%)	19.90	
육류 생산량(1000톤)	1,325	
주요 농산물	coffee, cut flowers, bananas, rice, tobacco, corn, sugarcane, cocoa beans, oilseed, vegetables; forest products; shrimp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attle Meat	1,695,403	819,716	F	8	72,153
2	Cow milk, whole, fresh	1,078,653	4,225,000	F	0	5,098
3	Indigenous Chicken Meat	891,704	764,480	F	268	129
4	Sugar cane	655,689	32,000,000	F		55,245
5	Coffee, green	570,147	697,377		5,942	637,421
6	Plantains	554,480	2,780,642		8,2981	109,410
7	Rice, paddy	513,668	2,471,545		0	284
8	Hen eggs, in shell	388,246	489,794		333	3,882
9	Potatoes	287,433	2,379,575		0	22,272
10	Citrus fruit, nes	269,400	750,000	F	0	6
11	Palm oil	236,152	780,000	*	14,617	315,575
12	Fruit, tropical fresh nes	131,629	1,150,000	F	0	0
13	Indigenous Pigmeat	129,398	127,781	F	418	5
14	Avocados	101,247	157,552		11,226	2
15	Cassava	89,256	1,287,864			
16	Tomatoes	87,833	370,713		3,752	211
17	Pineapples	66,142	342,014		1,332	150
18	Cotton lint	62,403	42,037		53,307	901
19	Oranges	62,033	352,983		5,507	6,942
20	Onions, dry	61,573	334,110		44,713	1,626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4. CIS 국가별 기본지표

(1) 우즈베키스탄

(2) 카자흐스탄

(3) 아제르바이잔

(4) 우크라이나

(5) 투르크메니스탄

(6) 키르기스스탄

(1)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447.4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7.3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27.9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022.3	GDP/총인구
	인구구성	우즈베키스탄(71%), 러시아(6.3%), 타지크인(4.7%),카자흐인(3.9%), 고려인(1%)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이슬람교88%(수니파), 그리스정교 9%, 기타3%	현지 대사관
	언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공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3.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3.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43.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44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3.6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4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66.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94	
농지면적 비중(%)	64.08	
농지면적(㎢)	272,590	
농업용 트랙터 (대)	170,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4,850	
경지면적(ha)	4,70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94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466.3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149.9	
식량생산지수(%)	105.20	
농업 노동자 비율(%)	27	
육류 생산량(1000톤)	494	
주요 농산물	cotton, vegetables, fruits, grain; livestock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tton lint	1,677,462	1,130,000		1,000	938,025
2	Indigenous Cattle Meat	1,138,716	550,562	Fc	49	
3	Cow milk, whole, fresh	990,732	5,061,000	*	17	
4	Wheat	732,700	6,197,400		144,892	11,217
5	Tomatoes	409,888	1,730,000	*		33,085
6	Grapes	408,371	880,300		0	110,871
7	Cottonseed	291,941	2,250,000	*		648
8	Indigenous Sheep Meat	164,141	82,972	Fc	2	
9	Potatoes	163,659	1,188,000		15,414	566
10	Carrots and turnips	150,807	815,000	*		2,884
11	Apples	145,046	530,000	*	31	4,403
12	Vegetables fresh nes	131,223	699,300	*	6	28,971
13	Onions, dry	120,157	652,000	*		48,916
14	Hen eggs, in shell	104,180	121,200	*	40	
15	Apricots	87,333	240,000	*		5,048
16	Silk-worm cocoons, reelable	60,704	18,000	F		289
17	Cabbages and other brassicas	54,646	400,000	*	2	37,248
18	Cucumbers and gherkins	48,076	285,000	*		4,900
19	Cherries	47,988	55,000	*		
20	Watermelons	44,698	840,000			11,096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2) 카자흐스탄(Kazakhsta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2,724.9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5.7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32.2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8,438.4	GDP/총인구
	인구구성	카자흐인 53.4%, 러시아인 30%, 우크라이나 3.7%, 우즈벡인 2.5%, 독일인 2.4%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이슬람교 47%, 러시아정교 44%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통용)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6.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42.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2.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311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상위중소득국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02.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56	
농지면적 비중(%)	76.9	
농지면적(㎢)	2,075,980	
농업용 트랙터 (대)	50,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21,671	
경지면적(ha)	22,364,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56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019.8	
면화 수출량(1000 베일)	425	
면화 생산량(1000 베일)	450	
비료 사용량(kg/ha)	1.7	
식량생산지수(%)	103.10	
농업 노동자 비율(%)	17.30	
육류 생산량(1000톤)	740	
주요 농산물	grain (mostly spring wheat), cotton; livestock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Wheat	1,921,185	16,466,870		1,743	6,178,065
2	Cow milk, whole, fresh	1,179,870	5,038,100		24,646	161
3	Indigenous Cattle Meat	798,078	385,865	Fc	8,381	0
4	Potatoes	268,182	2,414,800		63,481	48
5	Indigenous Sheep Meat	229,030	115,772	Fc	34	0
6	Indigenous Pigmeat	196,331	193,878	Fc	3,806	0
7	Cotton lint	163,992	110,471		46,794	170,509
8	Tomatoes	122,064	515,190		1762	29,197
9	Barley	105,297	2,441,190		65,051	647,330
10	Hen eggs, in shell	93,503	148,300	*	15,317	2
11	Indigenous Horse Meat	85,784	63,828	Fc	0	0
12	Indigenous Chicken Meat	71,708	61,477	Fc	146,312	2,933
13	Onions, dry	59,236	341,430		1443	86,479
14	Rice, paddy	59,035	294,350		812	0
15	Wool, greasy	57,606	34,200		100	1,459
16	Carrots and turnips	50,602	283,470		1,011	2,264
17	Cabbages and other brassicas	47,554	337,720		1,346	14,454
18	Sunflower seed	46,080	205,800		62,925	4,310
19	Vegetables fresh nes	45,917	292,700	*	683	3,423
20	Watermelons	43,843	476,720		64	97,367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3)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86.6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8.7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46.3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5,329.5	GDP/총인구
	인구구성	·	
	종교	·	
	언어	아제르바이잔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6.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71.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23.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53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1.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2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7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Droughts, Severe environmental degradation, Soil pollution from the use of DDT, Soil salinity in Central region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2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57	
농지면적 비중(%)	57.57	
농지면적(㎢)	47,586	
농업용 트랙터 (대)	30,14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907	
경지면적(ha)	1,843,2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5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2,735.8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1.1	
식량생산지수(%)	121.10	
농업 노동자 비율(%)	26.20	
육류 생산량(1000톤)	92	
주요 농산물	cotton, grain, rice, grapes, fruit, vegetables, tea, tobacco; cattle, pigs, sheep, goat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w milk, whole, fresh	347,397	1,314,072		3,762	172
2	Wheat	158,506	1,305,458		1,446,888	0
3	Indigenous Cattle Meat	155,586	75,225	Fc	2,032	
4	Potatoes	119,001	1,037,317		81,108	62,976
5	Tomatoes	102,450	432,406		61	27,179
6	Indigenous Sheep Meat	88,808	44,892	Fc	119	0
7	Indigenous Chicken Meat	56,147	48,136	Fc	8,040	0
8	Apples	53,711	187,003		11,736	72,455
9	Cotton lint	51,956	35,000	*	112	34,006
10	Grapes	47,950	103,363		308	158
11	Vegetables fresh nes	44,880	239,169		0	3,618
12	Watermelons	43,055	417,622		1	36
13	Hen eggs, in shell	42,331	52,460		1,286	583
14	Persimmons	38,314	128,407		0	
15	Onions, dry	35,209	191,055		8,972	8,762
16	Cucumbers and gherkins	29,835	176,866		40,689	10,034
17	Hazelnuts, with shell	26,818	27,462		2	10,023
18	Wool, greasy	23,957	14,223		5	0
19	Fruit Fresh Nes	23,925	149,992		79	88,058
20	Garlic	18,396	23,835		618	79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4) 우크라이나(Ukraine)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603.6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46.3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80.4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3,898.6	GDP/총인구
	인구구성	우크라이나인78%, 러시아인17%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우크라이나정교, 러시아 정교, 카톨릭교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우크라이나어(러시아어는 공식 언어는 아니나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8.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7.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5.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40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55	
농지면적 비중(%)	71.29	
농지면적(㎢)	413,040	
농업용 트랙터 (대)	390,838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33,496	
경지면적(ha)	32,452,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55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2,626.8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0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0	
비료 사용량(kg/ha)	13.1	
식량생산지수(%)	115.40	
농업 노동자 비율(%)	14	
육류 생산량(1000톤)	1,905	
주요 농산물	grain, sugar beets, sunflower seeds, vegetables; beef, milk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w milk, whole, fresh	2,713,359	12,002,900		1,013	3,074
2	Wheat	1,292,716	13,937,700		323,246	1,619,450
3	Indigenous Cattle Meat	1,130,824	546,746	Fc	1	34,412
4	Potatoes	997,636	19,102,000		11,998	2,222
5	Sunflower seed	952,412	4,174,400		10,358	334,008
6	Indigenous Chicken Meat	716,178	613,996	Fc	117,109	2,652
7	Hen eggs, in shell	662,584	807,200		2,309	8,512
8	Indigenous Pigmeat	639,051	631,068	Fc	26,999	0
9	Sugar beet	477,795	16,977,700		24,908	0
10	Maize	451,186	7,421,100		26,350	809,066
11	Tomatoes	300,806	1,269,600		12,025	33,370
12	Apples	205,620	754,900		167,603	52,049
13	Barley	202,649	5,980,800		56,474	2,520,940
14	Rapeseed	178,240	1,047,400		23,941	639,893
15	Grapes	166,864	359,700		74,569	483
16	Onions, dry	133,002	721,700		1,330	73,970
17	Natural honey	117,989	67,700		146	4,058
18	Vegetables fresh nes	114,419	1,145,900		2,930	4,883
19	Cabbages and other brassicas	110,101	1,309,500		8,997	1,470
20	Carrots and turnips	104,566	597,100		4,465	117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5)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 관련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488.1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5.0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8.3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3,632.2	GDP/총인구
	인구구성	투르크멘인 85%, 러시아인 7%, 우즈베크인 5%, 기타 3%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이슬람교 (수니파, 89%), 동방정교 (9%), 기타 (2%)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이슬람교 (수니파, 89%), 동방정교 (9%), 기타 (2%)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4.0	World Bank 2000년 기준
	광공업	44.0	World Bank 2000년 기준
	서비스・기타	31.0	World Bank 2000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78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0.3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6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8.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72	
농지면적 비중(%)	70.15	
농지면적(㎢)	329,660	
농업용 트랙터 (대)	50,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695	
경지면적(ha)	2,20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72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302.1	
면화 수출량(1000 베일)	40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700	
비료 사용량(kg/ha)	62.2	
식량생산지수(%)	131	
농업 노동자 비율(%)	33	
육류 생산량(1000톤)	117	
주요 농산물	cotton, grain; livestock	

3. 〈주요농산물 생산 및 교역관련 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tton lint	460,188	310,000	*		129,332
2	Indigenous Cattle Meat	210,914	101,976	Fc	25	
3	Cow milk, whole, fresh	197,637	1,332,800	F		
4	Indigenous Sheep Meat	178,430	90,194	Fc		
5	Wheat	171,543	2,700,000	*	133,794	
6	Grapes	81,182	175,000	F		
7	Cottonseed	63,498	620,000	*		
8	Tomatoes	60,654	256,000	F	0	41
9	Wool, greasy	34,025	20,200	F		132
10	Hen eggs, in shell	28,712	33,900	*	153	
11	Rice, paddy	21,641	110,900	*		
12	Potatoes	19,799	159,000	F	2,292	0
13	Watermelons	17,648	240,000	F		59
14	Onions, dry	17,507	95,000	F	3,140	81
15	Natural honey	14,814	8,500	F	10	
16	Indigenous Chicken Meat	14,696	12,599	Fc	325	
17	Sugar beet	10,126	234,000	F		
18	Carrots and turnips	10,047	54,300	F		48
19	Indigenous Goat Meat	9,742	6,398	Fc		
20	Apples	9,363	39,600	F	25	582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6) 키르기스스탄(Kyrgyz Republic)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99.9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5.3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4.4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837.1	GDP/총인구
	인구구성	키르기즈인 66%, 러시아인 11%, 우즈베크인 14%, 위구르인1%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이슬람교, 러시아정교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34.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19.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47.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312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74.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93	
농지면적 비중(%)	56.02	
농지면적(㎢)	107,450	
농업용 트랙터 (대)	21,921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435	
경지면적(ha)	1,284,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93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303.4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20.2	
식량생산지수(%)	97.90	
농업 노동자 비율(%)	25.10	
육류 생산량(1000톤)	187	
주요 농산물	tobacco, cotton, potatoes, vegetables, grapes, fruits and berries; sheep, goats, cattle, wool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w milk, whole, fresh	299,069	1,197,468		294	17,621
2	Indigenous Cattle Meat	185,809	89,837	Fc	261	12
3	Potatoes	120,248	1,373,780		4,443	748
4	Wheat	94,072	708,877		416,896	1,425
5	Indigenous Sheep Meat	74,580	37,700	Fc		3
6	Cotton lint	44,534	30,000	*	111	32,748
7	Tomatoes	42,725	180,331		264	14,834
8	Apples	37,913	132,000	*	51,110	9,101
9	Indigenous Horse Meat	36,826	27,400	Fc		0
10	Beans, dry	30,754	70,594		58	64,999
11	Tobacco, unmanufactured	26,307	14,429		1,648	6,405
12	Onions, dry	23,274	126,292		358	19,288
13	Garlic	22,029	28,542		3,312	361
14	Carrots and turnips	20,595	169,120		0	16,003
15	Vegetables fresh nes	19,141	112,300	*	8	157
16	Hen eggs, in shell	17,694	20,810	*	639	36
17	Wool, greasy	16,967	10,073		530	731
18	Indigenous Pigmeat	16,502	16,296	Fc	7,929	0
19	Maize	15,682	460,678		2,708	0
20	Cabbages and other brassicas	12,668	100,331		55	1,179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5. 중동 국가별 기본지표

(1) 이라크

(2) 예멘

(3) 요르단

(4) 이란

(5) 팔레스타인

(1) 이라크(Iraq)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438.3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8.9	현지 대사관
	GDP(경상US$,10억)	56.1	현지 대사관 (2007년, EIU 추정치)
	1인당 GDP(경상US$)	1,941.2	GDP/총인구
	인구구성	아랍족 75-80%, 쿠르드족 15-20%, 투르크족, 아시리아족 등 기타 5%	현지 대사관
	종교	이슬람교 97%(시아파 60-65%, 순니파 32-37%), 기독교 등 기타 3%	현지 대사관
	언어	아랍어(공용어), 북부지역에서는 KURD어, 상거래에는 영어도 통용됨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5.0	World Bank 2000년 기준
	광공업	84.0	World Bank 2000년 기준
	서비스・기타	10.0	World Bank 2000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312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Conflict, Insecurity, High number of internally displaced people, Difficult access to food, Low infrastructure	

FAO 식량위기원인	Conflict and inadequate rainfall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9,11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금지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98	
농지면적 비중(%)	22.91	
농지면적(㎢)	100,190	
농업용 트랙터 (대)	46,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5,540	
경지면적(ha)	5,75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98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30	
비료 사용량(kg/ha)	67	
식량생산지수(%)		
농업 노동자 비율(%)	9.60	
육류 생산량(1000톤)	111	
주요 농산물	wheat, barley, rice, vegetables, dates, cotton; cattle, sheep, poultry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Tomatoes	196,651	830,000	F	655,481	11
2	Wheat	140,849	2,228,000		2,423,713	579
3	Dates	123,820	440,000			37,063
4	Cow milk, whole, fresh	101,057	400,000	F		0
5	Indigenous Chicken Meat	98,100	84,104	F	119,446	
6	Grapes	85,357	184,000			1
7	Indigenous Cattle Meat	84,172	40,696	Fc	152	
8	Rice, paddy	80,389	393,000		6	0
9	Cucumbers and gherkins	71,187	422,000		50,606	7
10	Potatoes	62,185	598,000		168,962	57
11	Eggplants (aubergines)	61,119	380,000	F	35,882	0
12	Watermelons	60,268	578,000			
13	Okra	58,209	141,000			
14	Sheep milk, whole, fresh	50,904	150,000	F		
15	Leguminous vegetables, nes	46,270	175,000			
16	Garlic	43,221	56,000			0
17	Indigenous Sheep Meat	39,517	19,976	Fc	504	
18	Other melons (inc.cantaloupes)	37,235	210,000	F		0
19	Hen eggs, in shell	37,104	50,000	F	57,321	40
20	Chick peas	31,153	85,000	F	3,763	881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2) 예멘((Yeme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	비대상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528.0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3.1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26.6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153.1	GDP/총인구
	인구구성	아랍족 (이디오피아계 및 유태계 소수혼재)	현지 대사관
	종교	이슬람교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아랍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0.0	World Bank 2000년 기준
	광공업	47.0	World Bank 2000년 기준
	서비스・기타	43.0	World Bank 2000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01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6.5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32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38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Poverty, Social instability, High number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Harsh environmental condition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2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2	
농지면적 비중(%)	33.59	
농지면적(㎢)	177,340	
농업용 트랙터 (대)	6,5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669	
경지면적(ha)	1,537,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2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808.8	
면화 수출량(1000 베일)	4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65	
비료 사용량(kg/ha)	11.3	
식량생산지수(%)	110.50	
농업 노동자 비율(%)	49.90	
육류 생산량(1000톤)	144	
주요 농산물	grain, fruits, vegetables, pulses, qat, coffee, cotton; dairy products, livestock (sheep, goats, cattle, camels), poultry; fish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hicken Meat	130,959	112,274	F	89,086	46
2	Indigenous Cattle Meat	117,730	56,921	F	232	0
3	Mangoes, mangosteens, guavas	85,221	350,000	F	22,891	11,404
4	Sorghum	71,325	601,040		0	0
5	Indigenous Sheep Meat	65,661	33,191	Fc	568	0
6	Cow milk, whole, fresh	61,751	232,200	F	286	581
7	Grapes	58,358	125,800		53	236
8	Tomatoes	50,229	212,000	F	0	6,452
9	Hen eggs, in shell	37,244	51,600	F	138	3
10	Tobacco, unmanufactured	36,829	20,200	F	5,874	51
11	Potatoes	33,313	249,010		792	102
12	Wheat	32,318	218,520		2,190,107	11,902
13	Onions, dry	32,066	174,000	F	504	56,247
14	Indigenous Goat Meat	23,029	15,125	Fc	163	
15	Chick peas	22,062	54,000	F	533	1
16	Sesame seed	19,275	22,000	F	7,946	258
17	Oranges	17,749	101,000	F	215	74
18	Bananas	16,032	112,500	F	0	76,200
19	Dates	15,673	50,000	F	13,136	0
20	Watermelons	15,431	148,000	F	0	6,869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3) 요르단(Jorda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88.8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5.9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20.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3,385.8	GDP/총인구
	인구구성	아랍족(베두윈 및 팔레스타인)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회교 96%(Sunni), 기독교 4%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아랍어 (영어도 널리 통용)	현지대사관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4.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2.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64.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82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6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Decline in economic indicators, Low and erratic annual precipitation, Soil degradation, Insufficient food production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504.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66	
농지면적 비중(%)	11.47	
농지면적(㎢)	10,120	
농업용 트랙터 (대)	5,77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401	
경지면적(ha)	184,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66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334.9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비료 사용량(kg/ha)	49.4	
식량생산지수(%)	118.20	
농업 노동자 비율(%)	11.10	
육류 생산량(1000톤)	115	
주요 농산물	citrus, tomatoes, cucumbers, olives; sheep, poultry, stone fruits, strawberries, dairy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hicken Meat	154,156	132,162	F	24,283	2,618
2	Tomatoes	146,250	617,272		0	386,968
3	Olives	62,533	125,000		0	1
4	Cow milk, whole, fresh	54,517	205,000	F	84	0
5	Sheep milk, whole, fresh	30,542	90,000	F		
6	Hen eggs, in shell	26,048	45,000	F	66	3,467
7	Cucumbers and gherkins	25,370	150,399		0	111,980
8	Eggplants (aubergines)	15,723	97,756		0	60,811
9	Chillies and peppers, green	14,337	41,546		66	24,093
10	Vegetables fresh nes	13,323	71,000	F	476	18,951
11	Potatoes	12,843	97,400		37,114	20,699
12	Lettuce and chicory	12,546	36,904		27	32,300
13	Cauliflowers and broccoli	10,036	44,323		0	22,672
14	Pumpkins, squash and gourds	9,635	54,678		0	0
15	Grapes	9,298	20,044		4,941	1,616
16	Apples	9,065	31,563		20,885	2,162
17	Peaches and nectarines	7,626	21,362		103	12,889
18	Lemons and limes	5,835	22,332		6,234	2,217
19	Goat milk, whole, fresh	5,546	18,400	F		
20	Oranges	5,538	31,514		24,786	784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4) 이란(Ira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745.2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72.0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385.1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5,352.1	GDP/총인구
	인구구성	페르시아족(51%), 아제르바이잔족(247%), 길락-마란다족(8%), 쿠르드족(7%), 아랍족(3%) 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이슬람교(98%), 시아파 94%, 수니파 4%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페르시아어(공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0.0	World Bank 2000년 기준
	광공업	45.0	World Bank 2000년 기준
	서비스・기타	45.0	World Bank 2000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310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4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Still recovering from internal conflict, High number of refugees	

FAO 식량위기원인	Past drought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02.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자제(일부), 유의(일부)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41	
농지면적 비중(%)	37.65	
농지면적(㎢)	616,000	
농업용 트랙터 (대)	258,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경지면적(ha)	16,100,000	
쌀 재배면적(ha)	560,000	
쌀 소비량(1000톤)	3,100	
쌀 생산량(1000톤)	2,18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41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2,559.7	
면화 수출량(1000 베일)	8	
면화 생산량(1000 베일)	380	
비료 사용량(kg/ha)		
식량생산지수(%)	115.40	
농업 노동자 비율(%)		
육류 생산량(1000톤)	1,437	
주요 농산물	wheat, rice, other grains, sugar beets, sugar cane, fruits, nuts, cotton; dairy products, wool; caviar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w milk, whole, fresh	1,715,313	6,450,000	F	0	522
2	Indigenous Chicken Meat	1,453,219	1,245,879	F	0	1,519
3	Grapes	1,391,700	3,000,000	F	0	9,144
4	Tomatoes	1,184,650	5,000,000	F	0	2,951
5	Wheat	1,169,603	9,500,000	*	153,257	113,152
6	Indigenous Sheep Meat	779,840	394,203	Fc	0	229
7	Apples	764,005	2,660,000	F	0	19,217
8	Pistachios	760,184	230,000	F		135,228
9	Potatoes	729,601	5,240,000	F	92,559	11,943
10	Indigenous Cattle Meat	709,448	343,013	F	112	0
11	Hen eggs, in shell	543,543	711,000	F	991	458
12	Rice, paddy	471,135	3,500,000	F	418	0
13	Oranges	404,202	2,300,000	F	40,083	1,947
14	Watermelons	344,091	3,300,000	F		8,712
15	Vegetables fresh nes	328,387	1,750,000	F	0	1,847
16	Dates	313,470	1,000,000	F	0	242,092
17	Onions, dry	313,293	1,700,000	F	46	18,070
18	Cucumbers and gherkins	290,146	1,720,000	F		72,856
19	Sugar beet	243,959	5,300,000	F	0	0
20	Fruit Fresh Nes	223,314	1,400,000	F	0	21,742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5) 팔레스타인(Palestine)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	비대상	주재원 파견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0.6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총인구(백만)	3.8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2006, IMF)
	GDP(경상US$,10억)	·	
	1인당 GDP(경상US$)	·	
	인구구성	팔레스타인인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이슬람교(97%), 기독교(3%)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아랍어, 영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 · 기타	·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16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WFP 식량위협요인		Social instability, Movement restrictions, Limited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and resource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6. 아프리카 국가별 기본지표

(1) 나이지리아

(2) 세네갈

(3) 이집트

(4) 에티오피아

(5) 탄자니아

(6) 수단

(7) 모로코

(8) 알제리

(9) 앙골라

(10) 잠비아

(11) 짐바브웨

(12) 카메룬

(13) 튀니지

(14) 코트디부아르

(15) DR콩고

(16) 가나

(17) 케냐

(18) 마다가스카르

(1) 나이지리아(Niger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923.8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51.3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212.1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40.2	GDP/총인구
	인구구성	하우사·풀라니族(30%, 북부), 요루바族(20%, 서부), 이보族(20%, 동부) 등 250여 부족	현지 대사관
	종교	이슬람교 50%, 그리스도교 40%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영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31.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41.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28.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60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12.5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9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042.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제한(일부), 자제(일부)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37	
농지면적 비중(%)	79.71	
농지면적(㎢)	726,000	
농업용 트랙터 (대)	30,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30,850	
경지면적(ha)	30,500,000	
쌀 재배면적(ha)	1,800,000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2,20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3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056.6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0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450	
비료 사용량(kg/ha)	6.1	
식량생산지수(%)	106.20	
농업 노동자 비율(%)	32.40	
육류 생산량(1000톤)	1,187	
주요 농산물	cocoa, peanuts, palm oil, corn, rice, sorghum, millet, cassava, yams, rubber; cattle, sheep, goats, pigs; timber; fish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Yams	5,026,346	31,136,000			
2	Cassava	2,479,584	34,410,000			
3	Groundnuts, with shell	1,778,082	3,835,600	F	4	6
4	Citrus fruit, nes	1,194,340	3,325,000	F	0	2
5	Millet	1,158,718	8,090,000		0	529
6	Sorghum	920,653	9,058,000		0	378
7	Vegetables fresh nes	912,301	4,861,720		109	78
8	Plantains	663,433	2,991,000	F		1
9	Rice, paddy	652,545	3,186,000		65	0
10	Maize	535,137	6,724,000		36	10,416
11	Okra	528,422	1,280,000			
12	Taro (cocoyam)	514,687	4,996,000			92
13	Indigenous Cattle Meat	492,360	238,053	Fc	30	3
14	Hen eggs, in shell	467,959	552,800	F		
15	Cashew nuts, with shell	433,639	660,000	F	20	18,320
16	Indigenous Goat Meat	405,978	266,640	Fc		
17	Palm oil	393,588	1,300,000	F	726	157
18	Cocoa beans	385,090	500,000	*	0	174,900
19	Indigenous Chicken Meat	288,012	246,920	F	149	
20	Indigenous Sheep Meat	280,747	141,915	Fc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2) 세네갈(Senegal)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96.7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2.2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3.2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081.9	GDP/총인구
	인구구성	WOLOF(44%), PEUL(23%), SERERES(1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회교(94%), 기독교(5%), 기타 토속(1%)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불어(공용어) 및 Wolof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5.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3.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62.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15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3.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6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20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Natural disasters, Locust infestations, Poverty, Insufficient local food production, Low sanitation levels, Low levels of literacy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843.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02	
농지면적 비중(%)	42.37	
농지면적(㎢)	81,570	
농업용 트랙터 (대)	7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2,400	
경지면적(ha)	2,460,000	
쌀 재배면적(ha)	102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974.5	
면화 수출량(1000 베일)	65	
면화 생산량(1000 베일)	85	
비료 사용량(kg/ha)	18.9	
식량생산지수(%)	81.60	
농업 노동자 비율(%)	73.40	
육류 생산량(1000톤)	159	
주요 농산물	peanuts, millet, corn, sorghum, rice, cotton, tomatoes, green vegetables; cattle, poultry, pigs; fish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Groundnuts, with shell	111,722	331,195		1	59
2	Indigenous Cattle Meat	78,516	37,962	Fc	30	15
3	Millet	47,234	318,822		0	8
4	Tomatoes	42,315	178,600		743	8,858
5	Rice, paddy	39,475	193,379		1,570	0
6	Indigenous Chicken Meat	38,095	32,660	F	0	38
7	Cow milk, whole, fresh	27,217	102,343		7,503	79
8	Indigenous Sheep Meat	26,977	13,636	Fc	383	13
9	Onions, dry	26,169	142,000		95,608	89
10	Hen eggs, in shell	25,818	31,500	F	969	96
11	Cassava	22,216	308,312		0	
12	Mangoes, mangosteens, guavas	20,453	84,000	F	0	8,846
13	Cotton lint	17,813	12,000	F	191	21,415
14	Sugar cane	17,363	836,000	F		
15	Maize	16,334	158,266		97,272	1,407
16	Cow peas, dry	15,814	59,812			0
17	Watermelons	15,696	150,539		4	2,314
18	Indigenous Goat Meat	15,130	9,937	Fc	0	11
19	Sorghum	11,513	100,704		20	0
20	Indigenous Pigmeat	10,526	10,395	Fc	129	8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3) 이집트(Egypt)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001.5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81.5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62.8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997.1	GDP/총인구
	인구구성	이집트인, 베드윈,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된 햄족이 99%, 그리스, 누비안,아르메니아인 등 소수민족 1%	현지 대사관
	종교	순니파회교(93.7%), 콥틱교(6.3%)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아랍어, 영어, 불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4.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6.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0.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3,32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4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Poverty, Environmental conditions, Low education, Limited income-generating activitie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083.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38	
농지면적 비중(%)	3.54	
농지면적(㎢)	35,200	
농업용 트랙터 (대)	89,7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3,291	
경지면적(ha)	3,000,000	
쌀 재배면적(ha)	630,000	
쌀 소비량(1000톤)	3,300	
쌀 생산량(1000톤)	3,900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38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7,516.3	
면화 수출량(1000 베일)	70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1,000	
비료 사용량(kg/ha)	385.8	
식량생산지수(%)	110.90	
농업 노동자 비율(%)	32.60	
육류 생산량(1000톤)	1,221	
주요 농산물	cotton, rice, corn, wheat, beans, fruits, vegetables; cattle, water buffalo, sheep, goat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Tomatoes	1,788,822	7,550,000	F	0	19,891
2	Rice, paddy	139,2410	6,876,830		26	625
3	Buffalo milk, whole, fresh	114,8850	2,300,000	F		
4	Wheat	105,3476	7,378,920		5,911,036	7,153
5	Grapes	688,896	1,485,010		497	53,697
6	Indigenous Chicken Meat	664,530	569,718	F	9,037	32
7	Indigenous Cattle Meat	646,103	312,386	F	845	506
8	Cow milk, whole, fresh	585,068	2,200,000	F	0	1,894
9	Indigenous Buffalo Meat	432,887	267,720	F		
10	Potatoes	364,142	2,760,460		69,227	389,698
11	Dates	354,221	1,130,000	F	926	4,704
12	Cotton lint	335,492	226,000	*	22,739	128,335
13	Oranges	316,332	1,800,000	F	144	271,551
14	Sugar cane	304,903	16,200,000	F	367	1,887
15	Sugar beet	246,638	545,8210		0	0
16	Onions, dry	193,504	1,050,000	F	0	201,235
17	Hen eggs, in shell	177,129	240,000	F	0	17
18	Watermelons	169,960	1,630,000	F	0	1,997
19	Chillies and peppers, green	163,917	475,000	F		6,718
20	Eggplants (aubergines)	160,840	1,000,000	F		96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4) 에티오피아(Ethiop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104.3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80.7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26.5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328.2	GDP/총인구
	인구구성	오로모(40%),암하라(32%), 티그레이(9%) 등 90여개 종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이디오피아 정교 45%, 회교 35% 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암하릭어(공용), 영어, 이태리어 등 286개 언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43.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13.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45.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1,81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35.2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46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46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Frequent droughts, Deforestation, Soil erosion, Floods, Poverty, Fall in world prices of cash crops (coffee)	

FAO 식량위기원인	Adverse weather, Insecurity in parts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422.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제한(일부), 유의(일부)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1	
농지면적 비중(%)	31.77 %	
농지면적(㎢)	317,690	
농업용 트랙터 (대)	3,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0,728	
경지면적(ha)	11,056,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1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243.6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70	
비료 사용량(kg/ha)	14.7	
식량생산지수(%)	112.10	
농업 노동자 비율(%)	82	
육류 생산량(1000톤)	622	
주요 농산물	cereals, pulses, coffee, oilseed, cotton, sugarcane, potatoes, qat, cut flowers; hides, cattle, sheep, goats; fish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attle Meat	810,041	391,649	F	0	30
2	Roots and Tubers, nes	574,800	4,800,000	F	0	737
3	Cow milk, whole, fresh	446,779	1,680,000	F	8	3,040
4	Maize	379,115	3,336,795		31,912	17
5	Chillies and peppers, dry	341,569	115,000	F	6	11
6	Cereals, nes	334,892	2,404,674		4	354
7	Wheat	330,578	2,219,095		600,238	1
8	Coffee, green	266,361	325,800	*	47	158,234
9	Sorghum	261,415	2,173,599		16,468	2,402
10	Indigenous Sheep Meat	156,040	78,877	F	1	1,512
11	Game meat	132,642	81,000	F		
12	Sesame seed	131,027	149,388		3	139,653
13	Broad beans, horse beans, dry	127,748	576,156		3	41,016
14	Barley	116,557	1,270,680		0	141
15	Nuts, nes	108,062	76,000	F	10	
16	Chick peas	98,819	253,871		26	43,891
17	Indigenous Goat Meat	98,442	64,655	Fc		
18	Hops	98,011	25,000	F	52	104
19	Beans, dry	92,156	222,700		8	71,194
20	Vegetables fresh nes	84,442	450,000	F	0	167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5) 탄자니아(Tanzan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947.3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42.5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20.5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482.3	GDP/총인구
	인구구성	129개 종족	현지 대사관
	종교	기독교(40%), 이슬람교(30%), 토속종교(30%)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스와힐리어, 영어(공식어), 아랍어(잔지바르 공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46.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17.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37.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01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13.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3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44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Poverty, Drought, Floods, Pests, Fall in world prices of cash crops (coffee)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811.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01	
농지면적 비중(%)	54.44	
농지면적(㎢)	481,000	
농업용 트랙터 (대)	7,6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경지면적(ha)	4,00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01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47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면화 생산량(1000 베일)	7,148	
비료 사용량(kg/ha)		
식량생산지수(%)	105.60	
농업 노동자 비율(%)		
육류 생산량(1000톤)	306	
주요 농산물	coffee, sisal, tea, cotton, pyrethrum (insecticide made from chrysanthemums), cashew nuts, tobacco, cloves, corn, wheat, cassava, bananas, fruits, vegetables; cattle, sheep, goat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attle Meat	514,372	248,695	Fc	20	0
2	Bananas	498,785	3,500,000	F	2	111
3	Cassava	439,566	6,600,000	F		
4	Maize	390,631	3,659,000		6,609	87,076
5	Rice, paddy	272,212	1,341,835		0	1,025
6	Cow milk, whole, fresh	226,049	850,000	F	2,172	0
7	Beans, dry	182,323	450,000	F	2,183	3,521
8	Vegetables fresh nes	179,205	955,000	F	52	2
9	Groundnuts, with shell	142,362	300,000	F	647	224
10	Plantains	130,424	600,000	F		
11	Sorghum	105,945	900,000	*	390	427
12	Cotton lint	99,460	67,000	*	0	33,999
13	Sweet potatoes	96,470	960,000	F	1	0
14	Tobacco, unmanufactured	92,254	50,600		1,224	40,743
15	Potatoes	79,777	650,000	F	7	32
16	Cashew nuts, with shell	60,840	92,600		0	8,861
17	Sugar cane	56,162	2,750,000	F	0	0
18	Mangoes, mangosteens, guavas	53,567	220,000	F	1	0
19	Indigenous Chicken Meat	52,630	45,121	F	2	0
20	Natural honey	47,056	27,000	F	16	127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6) 수단(Suda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2,505.8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41.4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58.4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413.3	GDP/총인구
	인구구성	아랍계(70%), Dinka(12%), Bija(7%), 서부아프리카인(6%) 등 약 597개 부족 (주요종족 19)	현지 대사관
	종교	이슬람교(64%), 원시종교(9%), 기독교(27%)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아랍어(공용어),영어 등 총 114개 언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6.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4.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40.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29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7.4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1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26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Ongoing conflict, Extremely low, level of basic infrastructures, Internally displaced populations,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FAO 식량위기원인	Civil strife (Darfur), insecurity (southern Sudan), localized crop failure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104.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제한(일부), 자제(일부)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56	
농지면적 비중(%)	56.65	
농지면적(㎢)	1,346,000	
농업용 트랙터 (대)	11,856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16,433	
경지면적(ha)	17,00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56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398.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45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500	
비료 사용량(kg/ha)	2.3	
식량생산지수(%)	107.80	
농업 노동자 비율(%)	60.20	
육류 생산량(1000톤)	588	

주요 농산물	cotton, groundnuts (peanuts), sorghum, millet, wheat, gum arabic, sugarcane, cassava, mangos, papaya, bananas, sweet potatoes, sesame; sheep, livestock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w milk, whole, fresh	1,407,354	5,292,000		448	
2	Indigenous Cattle Meat	941,916	455,410	Fc	85	632
3	Sorghum	663,625	5,840,000		199,214	113,396
4	Goat milk, whole, fresh	425,729	1,456,000			
5	Indigenous Sheep Meat	356,609	180,263	Fc	124	1,998
6	Groundnuts, with shell	269,658	564,000		0	31
7	Indigenous Goat Meat	264,959	174,020	Fc		4
8	Sesame seed	205,227	242,000		235	105,464
9	Sheep milk, whole, fresh	160,551	498,000			
10	Sugar cane	155,775	7,500,000	F		13
11	Tomatoes	152,109	642,000		20	0
12	Cotton lint	126,774	85,400			22,699
13	Wheat	123,380	803,000		1,176,368	
14	Millet	122,085	796,000			5,581
15	Vegetables fresh nes	120,658	643,000	F	88	1
16	Dates	104,072	332,000		125	7
17	Okra	89,563	216,950			
18	Wool, greasy	77,482	46,000	F		0
19	Indigenous Camel Meat	68,128	48,624	Fc		
20	Fruit Fresh Nes	62,208	390,000	F	142	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7) 모로코(Morocco)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446.6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31.2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86.3	GDP/총인구
	1인당 GDP(경상US$)	2,764.3	GDP/총인구
	인구구성	아랍인(60%), 베르베르인(36%), 기타(4%)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회교(수니파)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6.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0.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64.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319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090.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07	
농지면적 비중(%)	68.06	
농지면적(㎢)	303,760	
농업용 트랙터 (대)	49,01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9,734	
경지면적(ha)	8,484,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0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813.9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1	
비료 사용량(kg/ha)	37.2	
식량생산지수(%)	132.10	
농업 노동자 비율(%)	35.30	
육류 생산량(1000톤)	510	
주요 농산물	barley, wheat, citrus, wine, vegetables, olives; livestock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Olives	329,727	659,100		0	0
2	Indigenous Chicken Meat	321,275	275,436	Fc	327	0
3	Indigenous Cattle Meat	321,242	155,318	F	7,007	0
4	Cow milk, whole, fresh	319,115	1,600,000		1,116	2
5	Tomatoes	293,089	1,237,030		0	297,593
6	Indigenous Sheep Meat	238,215	120,416	F	33	1
7	Potatoes	189,814	1,437,215		36,169	45,937
8	Wheat	176,667	1,582,630		3,683,482	40
9	Hen eggs, in shell	150,820	200,000	F	0	0
10	Grapes	150,210	323,800		390	9,696
11	Oranges	131,805	750,000	F	0	253,201
12	Other melons (inc. cantaloupes)	130,192	734,265		113	43,277
13	Onions, dry	129,079	700,417		0	909
14	Apples	122,590	426,816		5,953	1
15	String beans	120,384	186,985		24	102,008
16	Sugar beet	114,338	2,484,000			
17	Strawberries	106,090	100,000	F	0	18,066
18	Tangerines, mandarins, clem.	101,893	450,000	F		243,983
19	Almonds, with shell	85,067	81,437		0	0
20	Beans, green	78,953	180,000	F	0	299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8) 알제리(Alger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2,381.7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34.4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73.9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5,060.5	GDP/총인구
	인구구성	아랍인(81%), 베르베르인(19%)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회교(순니파)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아랍어(공용어), 불어(통용),베르베르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9.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69.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23.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3,10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4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상위중소득국	
WFP 식량위협요인		Social instability, Insecurity, Low agricultural technologies, Desert environment, Occasional torrential rain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390.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7	
농지면적 비중(%)	16.78 %	
농지면적(㎢)	399,560	
농업용 트랙터 (대)	97,18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8,195	
경지면적(ha)	7,545,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466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0	
비료 사용량(kg/ha)	11.3	
식량생산지수(%)	116.80	
농업 노동자 비율(%)	24.10	
육류 생산량(1000톤)	511	
주요 농산물	wheat, barley, oats, grapes, olives, citrus, fruits; sheep, cattle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w milk, whole, fresh	425,504	1,600,000	F	195	0
2	Wheat	377,736	2,600,000	*	4,851,101	0
3	Indigenous Sheep Meat	352,280	178,075	F	8,183	3
4	Indigenous Chicken Meat	294,748	252,695	F	0	3
5	Potatoes	275,355	2,000,000	F	198,081	420
6	Indigenous Cattle Meat	245,421	118,659	Fc	44	23
7	Dates	156,735	500,000	F	87	25,039
8	Onions, dry	152,332	826,590		0	0
9	Olives	150,081	300,000	F		
10	Hen eggs, in shell	145,436	185,000	F	70	0
11	Tomatoes	134,412	567,310		2	8
12	Grapes	113,655	244,999		1,127	0
13	Chillies and peppers, green	92,503	268,055		5	10
14	Oranges	86,273	490,915		4,096	3
15	Vegetables fresh nes	84,442	450,000	F	40	862
16	Watermelons	71,946	690,000	F	227	19
17	Sheep milk, whole, fresh	69,568	205,000	F		
18	Goat milk, whole, fresh	69,331	230,000	F		
19	Almonds, with shell	57,451	55,000	F	0	0
20	Apples	54,574	190,010		89,416	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9) 앙골라(Angol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246.7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8.0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83.4	GDP/총인구
	1인당 GDP(경상US$)	4,627.1	World Bank 2008년 기준
	인구구성	Ovimbundu (37%), Kimbundu (25%), Bakongo (13%),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카톨릭(55%), 기독교(15%), 토착종교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포르투갈어(공용), 반투어(토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0.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86.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4.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1,88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7.1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46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35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Displaced populations, Landmines, Poor infrastructure, Soil depletion, Recurrent floods, Drought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241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 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7	
농지면적 비중(%)	46.19	
농지면적(㎢)	575,900	
농업용 트랙터 (대)	10,3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3,300	
경지면적(ha)	3,30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597.3	
면화 수출량(1000 베일)	5	
면화 생산량(1000 베일)	20	
비료 사용량(kg/ha)	0.4	
식량생산지수(%)	112.9	
농업 노동자 비율(%)	71.6	
육류 생산량(1000톤)	105	
주요 농산물	bananas, sugarcane, coffee, sisal, corn, cotton, manioc, tobacco, vegetables, plantains; livestock; forest products; fish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assava	634,128	8,800,000	F		
2	Indigenous Cattle Meat	175,493	84,849	F	2,168	1
3	Potatoes	71,799	615,000	F	25,008	0
4	Sweet potatoes	70,343	700,000	F		
5	Maize	61,555	570,000	F	7,060	0
6	Cow milk, whole, fresh	51,858	195,000	F	6,275	13
7	Vegetables fresh nes	45,974	245,000	F	278	0
8	Beans, dry	42,956	110,000	F	36,554	0
9	Bananas	42,753	300,000	F		0
10	Natural honey	40,085	23,000	F	57	0
11	Indigenous Pigmeat	28,237	27,884	F	7,420	0
12	Citrus fruit, nes	28,017	78,000	F		0
13	Groundnuts, with shell	26,384	60,000	F	37	0
14	Millet	24,451	147,000	F	300	503
15	Palm oil	16,651	55,000	*	64,100	12,000
16	Indigenous Goat Meat	14,045	9,225	Fc		
17	Game meat	12,281	7,500	F		
18	Indigenous Chicken Meat	8,985	7,703	Fc	137,543	0
19	Pineapples	7,735	40,000	F		0
20	Sugar cane	7,402	360,000	F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0) 잠비아(Zamb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752.6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2.6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4.3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133.9	GDP/총인구
	인구구성	반투족(9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기독교(70%), 회교, 토착신앙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영어(공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1.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46.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33.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1,89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5.1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4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46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Floods, Drought, Cattle diseases, Low agricultural technologies,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04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07	
농지면적 비중(%)	47.47	
농지면적(㎢)	352,890	
농업용 트랙터 (대)	6,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5,279	
경지면적(ha)	5,26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0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594.8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75	
면화 생산량(1000 베일)	240	
비료 사용량(kg/ha)	5.7	
식량생산지수(%)	108	
농업 노동자 비율(%)	68.60	
육류 생산량(1000톤)	107	
주요 농산물	corn, sorghum, rice, peanuts, sunflower seed, vegetables, flowers, tobacco, cotton, sugarcane, cassava, coffee; cattle, goats, pigs, poultry, milk, eggs, hide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Maize	152,800	1,366,158		20,102	24,863
2	Indigenous Cattle Meat	122,452	59,204	F	0	0
3	Cotton lint	78,677	53,000	F	1,626	32,314
4	Cassava	67,736	940,000	F		
5	Game meat	54,858	33,500	F	0	0
6	Sugar cane	51,925	2,500,000	F		
7	Indigenous Chicken Meat	45,981	39,421	F	1	1
8	Vegetables fresh nes	40,344	215,000	F	157	364
9	Hen eggs, in shell	38,267	46,900	F	25	355
10	Cow milk, whole, fresh	22,338	84,000	Fc	11	157
11	Wheat	17,829	115,843		27,200	0
12	Cottonseed	16,958	105,000	F	0	35,318
13	Groundnuts, with shell	13,801	40,000	*	54	0
14	Indigenous Pigmeat	11,139	11,000	Fc	4	0
15	Fruit, tropical fresh nes	8,813	77,000	F	41	0
16	Tobacco, unmanufactured	8,751	4,800	F	402	36,649
17	Indigenous Goat Meat	7,216	4,740	Fc		
18	Sweet potatoes	6,783	67,500	F	0	0
19	Tomatoes	5,923	25,000	F	22	1
20	Pulses, nes	5,194	23,500	F	1	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1) 짐바브웨(Zimbabwe)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390.8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2.5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5	현지 대사관(2008년, EIU 추정치)
	1인당 GDP(경상US$)	120.0	GDP/총인구
	인구구성	Shona족(74%), Ndebele족(20%) 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토착신앙(75%), 기독교(20%)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영어(공용어), 토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9.0	World Bank 2005년 기준
	광공업	24.0	World Bank 2005년 기준
	서비스・기타	57.0	World Bank 2005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04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5.2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40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47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Poverty Low, agricultural technologies, HIV/AIDS	

FAO 식량위기원인	Problem of economic transition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46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12	
농지면적 비중(%)	53.12	
농지면적(㎢)	205,500	
농업용 트랙터 (대)	24,0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3,350	
경지면적(ha)	3,22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12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717.1	
면화 수출량(1000 베일)	40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575	
비료 사용량(kg/ha)	49.3	
식량생산지수(%)	86.40	
농업 노동자 비율(%)	61.90	
육류 생산량(1000톤)	134	
주요 농산물	corn, cotton, tobacco, wheat, coffee, sugarcane, peanuts; sheep, goats, pig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Indigenous Cattle Meat	195,516	94,530	F	1	1
2	Tobacco, unmanufactured	144,034	79,000		4,937	65,511
3	Cotton lint	114,305	77,000	F		
4	Maize	100,682	952,600		399,400	594
5	Cow milk, whole, fresh	66,485	250,000	F	63	1,540
6	Sugar cane	62,310	3,000,000	F		0
7	Groundnuts, with shell	54,606	125,000		11	2
8	Game meat	52,401	32,000	F		169
9	Indigenous Chicken Meat	42,356	36,313	Fc	133	560
10	Chillies and peppers, dry	38,612	13,000	F	1	2,181
11	Indigenous Pigmeat	28,115	27,764	Fc	32	722
12	Vegetables fresh nes	25,332	135,000	F	49	1,131
13	Tea	24,139	22,300	F	5,111	6,840
14	Soybeans	23,514	112,300		33	2
15	Cottonseed	20,973	155,000	F	696	10,764
16	Indigenous Goat Meat	19,549	12,840	Fc		
17	Wheat	19,528	128,000		93,200	623
18	Hen eggs, in shell	17,761	22,000	F	0	1,438
19	Oranges	16,343	93,000	F	1	38,370
20	Cassava	13,835	192,000	F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2) 카메룬(Cameroon)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475.4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8.9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23.4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238.1	GDP/총인구
	인구구성	212개 종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기독교(45%), 회교(22%) 및 토착신앙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불어・영어 공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0.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33.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48.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23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4.0	00~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23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26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Poverty, Low agricultural technologies, Drought, Low infrastructures, Difficult access to food, Deforestation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933.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0	
농지면적 비중(%)	19.68	
농지면적(㎢)	91,600	
농업용 트랙터 (대)	5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7,160	
경지면적(ha)	5,96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0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727.4	
면화 수출량(1000 베일)	425	
면화 생산량(1000 베일)	475	
비료 사용량(kg/ha)		
식량생산지수(%)	104.70	
농업 노동자 비율(%)	58.20	
육류 생산량(1000톤)	202	
주요 농산물	coffee, cocoa, cotton, rubber, bananas, oilseed, grains, root starches; livestock; timber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Plantains	310,534	1,400,000	F		0
2	Indigenous Cattle Meat	179,867	86,964	Fc	1	0
3	Cocoa beans	138,046	179,239	*	0	161,961
4	Cassava	136,193	2,100,000	F		
5	Bananas	122,558	860,000	F	0	224,546
6	Cotton lint	103,913	70,000	F	17	72,791
7	Tomatoes	99,510	420,000	F	8	0
8	Taro (cocoyam)	98,899	1,200,000	F		
9	Game meat	98,253	60,000	F		
10	Vegetables fresh nes	90,072	480,000	F	20	1,159
11	Maize	88,149	923,000	F	1,580	0
12	Beans, dry	81,119	200,000	F	158	3
13	Groundnuts, with shell	65,720	160,000	*	0	44
14	Sorghum	58,311	500,000	F	0	
15	Palm oil	52,074	172,0,00	*	27,355	68
16	Yams	48,429	300,000	F	0	0
17	Coffee, green	39,439	48,240	*	4	42,281
18	Cow milk, whole, fresh	35,901	135,000	F	1,176	0
19	Avocados	35,344	55,000	F	0	0
20	Indigenous Chicken Meat	34,966	29,977	Fc	1,917	5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3) 튀니지(Tunisi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163.6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0.3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40.2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3,889.6	GDP/총인구
	인구구성	아랍족, 베르베르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회교(99%)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아랍어(불어 공용)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10.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8.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62.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3,28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5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하위중소득국(LM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310.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0	
농지면적 비중(%)	62.98	
농지면적(㎢)	97,840	
농업용 트랙터 (대)	35,1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5,014	
경지면적(ha)	2,79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0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450.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10	
비료 사용량(kg/ha)	22.2	
식량생산지수(%)	101.60	
농업 노동자 비율(%)	24.30	
육류 생산량(1000톤)	173	
주요 농산물	olives, olive oil, grain, tomatoes, citrus fruit, sugar beets, dates, almonds; beef, dairy product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Olives	450,243	900,000		0	0
2	Cow milk, whole, fresh	261,153	982,000		3,299	2,478
3	Tomatoes	236,930	1,000,000		436	3,657
4	Wheat	207,263	1,442,800		1,696,283	0
5	Indigenous Cattle Meat	114,475	55,348	Fc	550	0
6	Indigenous Sheep Meat	112,286	56,760	Fc	938	0
7	Indigenous Chicken Meat	103,871	89,051	Fc	1,583	76
8	Chillies and peppers, green	95,935	278,000		43	104
9	Hen eggs, in shell	69,592	85,000	F	408	0
10	Almonds, with shell	60,585	58,000		0	260
11	Grapes	58,915	127,000		0	632
12	Potatoes	47,170	350,000		102,513	11,438
13	Watermelons	41,301	466,000		800	10,837
14	Onions (inc. shallots), green	40,640	180,000		2,002	1,675
15	Peaches and nectarines	36,055	101,000			1611
16	Dates	34,979	124,000		88	68,856
17	Indigenous Turkey Meat	30,744	28,129	Fc	983	1
18	Onions, dry	29,486	160,000			
19	Apples	29,296	102,000		0	0
20	Citrus fruit, nes	25,862	72,000	F	0	1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4)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322.5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0.6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23.4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137.0	GDP/총인구
	인구구성	Baoule, Agni, Malinke족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회교(40%), 기독교(26%), 원시신앙(30%)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불어(공용어) 및 30여개의 토착민어	현지 대사관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4.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5.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51.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52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2.6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14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13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하위중소득국(LMIC)	
WFP 식량위협요인		Political instability causes Insecurity and displacements, Low level of infrastructures and high transport costs, Lack of access to health facilities and medicines, Falling world market prices for local cash crops	

FAO 식량위기원인	Conflict related damage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6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자제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25	
농지면적 비중(%)	62.58	
농지면적(㎢)	199,000	
농업용 트랙터 (대)	3,8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7,350	
경지면적(ha)	3,30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25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262.2	
면화 수출량(1000 베일)	55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500	
비료 사용량(kg/ha)	9.9	
식량생산지수(%)	101.20	
농업 노동자 비율(%)	48.10	
육류 생산량(1000톤)	143	
주요 농산물	coffee, cocoa beans, bananas, palm kernels, corn, rice, manioc, sweet potatoes, sugar, cotton, rubber; timber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coa beans	1,065,929	1,384,000		0	803,886
2	Yams	895,963	5,842,207		0	802
3	Plantains	335,105	1,510,778		0	0
4	Game meat	212,882	130,000	F		
5	Cashew nuts, with shell	183,968	280,000		12	250,545
6	Cassava	168,775	2,342,158			
7	Coffee, green	139,679	170,849		20	120,016
8	Rice, paddy	119,777	606,310		2	56
9	Natural rubber	101,124	188,532		0	3,080
10	Cotton lint	94,185	63,447		0	79,605
11	Palm oil	87,442	288,819		5,021	89,381
12	Bananas	51,303	360,000	F	0	290,757
13	Maize, green	49,197	250,000	F		
14	Okra	46,458	112,537			
15	Maize	45,196	531,940		2,986	508
16	Chillies and peppers, dry	41,582	14,000	F	12	5
17	Indigenous Cattle Meat	39,720	19,204	Fc	119	7
18	Sugar cane	33,986	1,636,330		0	0
19	Groundnuts, with shell	31,379	69,256		0	68
20	Pineapples	30,878	159,668		0	96,558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5) 콩고(Congo DR)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2,344.9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64.2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1.6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180.5	GDP/총인구
	인구구성	Kongo족(48%),Teke(17%), M'Bochi(12%) 등 75종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카톨릭(25%), 토착신앙(35%)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불어(공용어), Kikongo등 토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41.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7.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31.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1,50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43.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76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74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Ongoing conflict, High insecurity levels, Insufficient food production, Disrupted infrastructures, Internal populations' displacement, Low sanitary conditions	

FAO 식량위기원인	Civil strife, returnees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217.0	
여행제한	제한(일부)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11	
농지면적 비중(%)	10.06	
농지면적(㎢)	228,000	
농업용 트랙터 (대)	2,43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220	
경지면적(ha)	6,70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11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766.7	
면화 수출량(1000 베일)	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15	
비료 사용량(kg/ha)	22.7	
식량생산지수(%)	97.50	
농업 노동자 비율(%)	39.90	
육류 생산량(1000톤)	24	
주요 농산물	coffee, sugar, palm oil, rubber, tea, quinine, cassava, palm oil, bananas, root crops, corn, fruits; wood product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assava	1,070,407	15,004,430			
2	Plantains	267,250	1,204,860			
3	Groundnuts, with shell	157,845	369,370		54	11
4	Game meat	145,657	88,948		12	
5	Maize	125,073	1,155,720		11,528	71
6	Chillies and peppers, dry	100,985	34,000	F	18	
7	Vegetables fresh nes	65,677	350,000	F	115	580
8	Rice, paddy	63,781	316,180		230	0
9	Mangoes, mangosteens, guavas	48,698	200,000	F		
10	Beans, dry	46,191	112,250		559	
11	Bananas	44,879	314,920		0	430
12	Avocados	39,843	62,000	F		
13	Pineapples	37,711	195,000	F		
14	Papayas	34,473	219,840			
15	Oranges	31,756	180,700		38	
16	Palm oil	31,487	104,000	*	47,353	652
17	Sugar cane	31,002	1,550,000	F	0	
18	Indigenous Goat Meat	27,030	17,753	Fc		
19	Coffee, green	26,104	31,930		8	4,813
20	Indigenous Cattle Meat	24,958	12,067	Fc	20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6) 가나(Ghan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238.5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23.4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16.1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690.4	GDP/총인구
	인구구성	·	
	종교	토착종교 38%, 회교 30%, 기독교 25%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영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32.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26.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 · 기타	42.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69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1.9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9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12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Drought, Floods, Poverty, High food prices, Insufficient food production through subsistence farming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151.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52	
농지면적 비중(%)	64.76	
농지면적(㎢)	147,350	
농업용 트랙터 (대)	3,60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5,809	
경지면적(ha)	4,185,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52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457.6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5	
면화 생산량(1000 베일)	70	
비료 사용량(kg/ha)	2	
식량생산지수(%)	121	
농업 노동자 비율(%)	56.60	
육류 생산량(1000톤)	140	
주요 농산물	cocoa, rice, cassava, peanuts, corn, shea nuts, bananas; timber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Yams	716,354	3,550,000	F		0
2	Cassava	695,379	9,650,000	F		
3	Plantains	649,903	2,930,000	F		175
4	Cocoa beans	473,660	615,000	*	0	506,358
5	Chillies and peppers, dry	240,583	81,000	F	1	1
6	Groundnuts, with shell	194,455	440,000	*	0	746
7	Taro (cocoyam)	171,219	1,662,000	F		0
8	Maize	116,490	1,100,000	*	3,225	173
9	Chillies and peppers, green	96,280	279,000	F	0	32
10	Game meat	94,159	57,500	F		
11	Oranges	84,355	480,000	F	20	3,473
12	Rice, paddy	50,142	242,000	*	22	0
13	Okra	44,585	108,000	F	0	0
14	Tomatoes	42,647	180,000	F	13,778	0
15	Sorghum	42,281	350,000	*	3,691	1
16	Indigenous Chicken Meat	34,176	29,300	F	75,373	0
17	Palm oil	33,000	109,000	F	150,900	92,000
18	Indigenous Cattle Meat	30,419	14,707	Fc	1,973	1
19	Coconuts	28,579	316,000	*	1	45
20	Millet	26,966	160,000	*	44	3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7) 케냐(Kenya)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대상국	있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580.4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38.5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34.5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895.7	GDP/총인구
	인구구성	키쿠유족, 후인족, 루해야족, 캄바족, 칼렌진족, 키시족, 마사이족 등 43개 부족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기독교(30%), 토착신앙(50%)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스와힐리어(통용어), 영어(공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1.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13.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기타	65.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04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11.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32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31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저소득국(LI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Poverty, High demographic growth, Arid and semi-arid lands in the north and east, Droughts, HIV/AIDS	

FAO 식량위기원인	Adverse weather, lingering effects of civil strife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1,275.0	World Bank 2007년 기준
여행제한	제한(일부), 자제(일부)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08	
농지면적 비중(%)	45.72	
농지면적(㎢)	260,200	
농업용 트랙터 (대)	12,844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4,520	
경지면적(ha)	4,65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08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1,322.3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20	
비료 사용량(kg/ha)	31.3	
식량생산지수(%)	104.30	
농업 노동자 비율(%)	75	
육류 생산량(1000톤)	401	
주요 농산물	tea, coffee, corn, wheat, sugarcane, fruit, vegetables; dairy products, beef, pork, poultry, egg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Cow milk, whole, fresh	112,4926	4,230,000		201	1,285
2	Indigenous Cattle Meat	820,116	396,520	F	0	338
3	Tea	400,095	369,600		8,655	374,329
4	Maize	325,398	2,928,793		113,768	48,328
5	Beans, dry	186,460	427,996		93,116	5,716
6	Bananas	169,122	1,186,740		8	53
7	Plantains	134,195	605,000	F		
8	Tomatoes	132,605	559,680		4,269	35
9	Sugar cane	108,091	5,204,214		24	20
10	Vegetables fresh nes	106,960	570,000	F	41	51,506
11	Potatoes	102,115	800,000	F	1	680
12	Mangoes, mangosteens, guavas	93,612	384,461		0	3,160
13	Cabbages and other brassicas	89,504	609,292		0	34
14	Pineapples	82,976	429,065		121	16
15	Sweet potatoes	81,550	811,531			1
16	Avocados	60,175	93,639			
17	Indigenous Goat Meat	55,252	36,288	Fc		42
18	Hen eggs, in shell	54,796	68,600	F	188	42
19	Wheat	53,955	354,249		564,332	2,257
20	Indigenous Sheep Meat	53,425	27,006	Fc	2	103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18)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KOICA 중점협력대상국 여부	FAO 식량위기국 여부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비대상국	비대상국	없음

1. 〈농업여건 및 식량관련 지표〉

구 분		내용	비 고
농업 여건	국토면적(천㎢)	587.0	World Bank 2008년 기준
	총인구(백만)	19.1	World Bank 2008년 기준
	GDP(경상US$,10억)	9.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당 GDP(경상US$)	469.4	GDP/총인구
	인구구성	·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종교	토착신앙(47%), 기독교(48%)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언어	말라가시어 및 불어(공용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DB
산업별 GDP 구성비	농업	25.0	World Bank 2008년 기준
	광공업	17.0	World Bank 2008년 기준
	서비스 · 기타	57.0	World Bank 2008년 기준
1인 열량 섭취량(Kcal/일)		2,000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백만)		6.6	'03~'05 기준
FAO 영양부족인구 비율(%)		37	'03~'05 기준
WFP 영양부족인구 비율(%)		38	
OECD/DAC 소득수준분류(09/10)		최빈국(LDC)	
WORLD BANK 소득수준분류		저소득국(LIC)	
WFP 식량위협요인		Cyclones, Drought, Floods, Locust infestations, Low sanitary conditions, Low education levels	

FAO 식량위기원인		
ODA 및 기타 공적지원 (경상US$,백만)	892.0	
여행제한	해당없음	

2. 〈농업생산 관련지표〉

구분	내용	비고
농업성장 지수	107	
농지면적 비중(%)	47.37	
농지면적(㎢)	275,500	
농업용 트랙터 (대)	3,550	
경지 및 다년생작물 면적(1000ha)	3,500	
경지면적(ha)	2,950,000	
쌀 재배면적(ha)		
쌀 소비량(1000톤)		
쌀 생산량(1000톤)		
맥류 및 잡곡 생산량(1000톤)	107	
단위면적당 맥류 및 잡곡 생산량(kg/ha)	2,380.3	
면화 수출량(1000 베일)	10	
면화 생산량(1000 베일)	60	
비료 사용량(kg/ha)	2.6	
식량생산지수(%)	107.60	
농업 노동자 비율(%)	73.80	
육류 생산량(1000톤)	264	
주요 농산물	coffee, vanilla, sugarcane, cloves, cocoa, rice, cassava, beans, bananas, peanuts; livestock products	

3.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관련지표(2007 기준)〉

Rank	Commodity	Production ($1000)	Production (MT)	Flag	수입량 (MT)	수출량 (MT)
1	Rice, paddy	724,660	3,596,000	F	0	0
2	Indigenous Cattle Meat	302,818	146,410	Fc	0	0
3	Cassava	172,944	2,400,000	F		
4	Cow milk, whole, fresh	138,288	520,000	F	139	1
5	Sweet potatoes	61,198	870,000	F		72
6	Indigenous Pigmeat	54,936	54,249	Fc	7	0
7	Vegetables fresh nes	54,418	290,000	F	1	25
8	Maize	54,306	500,000	F	8,160	1,615
9	Sugar cane	53,835	2,700,000	F		
10	Mangoes, mangosteens, guavas	51,132	210,000	F	2	8
11	Coffee, green	50,688	62,000	F	22	1,0747
12	Bananas	41,327	290,000	F	0	59
13	Indigenous Chicken Meat	41,231	35,348	Fc	0	0
14	Beans, dry	35,959	88,000	F	1,350	2,707
15	Groundnuts, with shell	27,593	61,500	F	0	12
16	Indigenous Geese Meat	24,033	12,597	Fc		
17	Pepper (Piper spp.)	24,000	5,200	F		1,892
18	Potatoes	22,573	225,000	F	0	53
19	Fruit, tropical fresh nes	21,175	185,000	F	0	186
20	Cloves	15,777	10,000	F	10	13,583

* : Unofficial figure F : FAO estimate Fc : Calculated data

〈별첨 3-2〉 식량위기에 처한 협력대상국의 식량농업개황

차 례

1. 동아시아 · 태평양지역 식량위기 국가

2. 남아시아 식량위기 국가

3. 중동 · 북아프리카 식량위기 국가

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식량위기 국가

1. 동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식량위기 국가

미얀마 (Union of Myanmar)

미얀마는 1948년 독립 이전까지 동남아의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다.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을 뿐 아니라 세계 티크 원목생산량의 75%를 차지하였으며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높아 양질의 노동력과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신속한 성장궤도에 올라서는 듯했다. [81]그러나 버마의 독립과 함께 우누(U Nu)수상이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중앙계획경제를 시도하면서 경제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쌀 수출은 1/3로 줄었고, 광물 수출은 96%가 감소하였다. 정부의 계획경제는 화폐발행고의 증가로 뒷받침되었으며 이는 인플레로 이어졌다.[82] 1962년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네윈의 쿠데타(1962) 이후 기업의 대대적인 국유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의 침체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1988년 반정부 시위와 유혈사태 그리고 네윈의 사임까지 몇 달 동안의 이른바 '랑군의 봄' 이후 다시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듬해 나라 이름을 미얀마로 바꾸었다.

국토면적은 68만 Km^2이며 북위 9.5~28도에 위치하여 열대성 몬순기후대에 속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미얀마는 국제적인 재제조치, 국유화된 산업구조, 부정부패, 외화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부존자원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은 2000년을 기준으로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고용의 2/3를 점하고 있다. 미얀마의 농업은 한마디로 쌀 농업이다. 전체 국토면적의 15%가 넘는 1,050만ha 정도가 작물재배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 600만ha의 농지에 쌀을 재배한다. 지역에 따라 2모작 또는 3모작으로 벼농사를 할 수 있으나 해안선을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의 유입, 홍수피해의 위험, 계절적 병충해 발생 등의 제약이 있다.

지난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1,700만 톤 미만이었던 미얀마의 쌀 생산량은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여 2,000만 톤을 초과하였고 정체상태에 있던 쌀 수출 역시 2001~2002년에는 93만 9,000톤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의 쌀 수출금지조치에 이후 쌀 수출은 급감하였다. 미얀마의 쌀 생산은 비료 및 우수 종자의 부족, 열악한 저장시설 및 운송수단 등의 요

81) Steinberg, David L. Burma:The State of Myanmar. Georgetown University Press, February 2002.

82) Watkins, T.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of Myanmar(Burma) Economics". San Hose State University.

인으로 인해 그 생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품질 또한 낮아서 주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 수출된다.[83]

쌀 이외의 주요 농산물로는 사탕수수, 땅콩, 옥수수, 참깨 등이 있는데, 2007년을 기준으로 FAO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생산액 기준으로 쌀 다음가는 품목은 닭고기(56만 톤)이고, 채소류(320만 톤)가 3위로 되어 있다. 또한 국토의 66%가 산림인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아시아 제3의 임산자원 보유국으로서 특히 티크(teak)는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원이 되어 왔다.

인적자원개발의 부족, 인프라의 열악성, 정치상황 및 인권문제와 관련된 서방세계의 제재조치 등으로 경제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84] 상황에서 2008년 5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 피해는 미얀마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왔다.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하여 14만 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산업시설의 파괴는 물론이고 주요 곡창지대의 농경지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어 농경지의 염분피해를 제거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농민들이 집과 재산과 식량 그리고 종자와 영농기자재를 상실하였다.[85]

동티모르 (Democratic Republic of Timor Leste)

2002년에 독립국가로 탄생한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티모르 섬의 동북부 절반가량을 국토로 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1만 4,800Km^{2}로 강원도 크기이며 인구는 100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86] 연평균기온 27~30°C의 고온 다습한 열대성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우기(11~4월)와 건기(5~10월)의 구분이 뚜렷하고, 해발 2,963m의 높은 산을 끼고 있다.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여서 경작가능 면적은 전체의 8.2%에 불과하고 홍수, 산사태, 지진, 쓰나미, 열대 사이클론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이다. 또 광범위한 화전(火田)식 농업으로 산림훼손과 토양유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업은 2006년 현재 노동력의 90%, GDP의 32.2%(2005년)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9년의 정치적 혼란으로 산업시설과 인프라의 70%가

83)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미얀마의 경제개황(2008-10-23)"

84)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미얀마의 경제개황(2008-10-23)"

85) http://www.wfp.org/countries/myanmar

86) US CIA의 World Fact Book에 의하면 이 나라의 인구는 113만 명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 7월 현재 800천명으로 보는 추계도 있다는 주석을 달고 있음.

파괴[87]된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농업의존은 불가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티모르의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은 커피인데 이는 이 나라 최대의 외화 획득원이기도 하다. 응달재배(shade grown)되고 비료나 농약을 거의 쓰지 않으며 전지 작업도 하지 않는 동티모르산 커피는 국제 시장에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커피농업은 2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포르투갈인 또는 인도네시아인에 의해 운영되는 대규모 농장인데 이들은 약 2만ha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규모 농장들은 많은 농민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현금소득원이 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커피생산에는 약 4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그 가운데 2만 5,000가구가 농가소득의 상당부문을 커피에서 얻고 있다.

한편 FAO는 동티모르의 전통적 농업을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 가운데 3가지 또는 그 이상이 복합된 영세소농으로 파악하였다. 즉, ① 화전식 농업과 천수답에서의 옥수수 생산 ② 경사지 천수답에서 계단식 농업에 의한 쌀 생산 또는 일부 저지대의 관개수에 의한 쌀 생산 ③ 소규모 토지에서의 커피(고지대) 또는 코코넛(저지대)재배 ④ 옥수수, 카사바, 두류, 채소 등의 정원(庭園)재배 ⑤ 임차한 버팔로를 이용한 벼농사용 경운작업 ⑥ 현금 소득을 목적으로 한 소수의 가축사육(물소, 소, 말, 돼지, 양, 닭, 거위) ⑦ 나무열매, 땔감, 백단, 향 그리고 구황(救荒)식품인 사고(sago)나 얌(yam) 등의 채취 ⑧ 해안지방의 어업 ⑨ 소득보완용 과실 등이다.[88]

최근의 UN보고서는 하루 0.88달러 이하 수준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절반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2001년의 36%보다 크게 악화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89] 거의 90%의 빈곤층이 농촌주민이고 농촌빈곤의 주요 원인은 농업부문의 저개발, 소규모 영농, 관개시설의 부족, 농산물의 막대한 수확 후 손실, 유통채널의 취약성, 농외취업 기회의 희소성, 빈약한 농촌 인프라, 사회불안으로 인한 빈번한 피난 등에 있다.[90] 한편 WFP는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은 이 나라 특히 농촌지역 주민의 식량접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91]

---

87) US CIA. The World Fact Book

88) UN country team, Building Blocks for a Nation (East Timor). Common Country Assessment, November 2000 pp.73-75
(http://www.undg.org/archve_docs/1717-East_Timor_CCA-_East_Timor_2000.pdf)

89) UN, 200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mor-Leste. p.8

90) 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UNDAF Timor-Leste 2009-2013. pp.17-18

91) WFP.(http://www.wfp.org/countries/timor-leste)

2. 남아시아 식량위기 국가

아프가니스탄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

국토면적 65만 Km^2인 아프가니스탄은 동서남북으로 주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이다. 인구는 약 3,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종교는 이슬람교(수니파 85%, 시아파 15%)가 압도적이다.[92]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북동쪽은 대체로 해발 2,000m가 넘고(최고봉은 해발 7,485m), 남쪽과 북쪽의 낮은 지대도 보통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국가로서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 주로 비가 오지만 연간 강수량은 약 300mm수준에 불과하여 물이 귀하다.

아프가니스탄은 국토의 12%가 경작 가능한 면적인데 현재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 면적은 그 절반인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농업은 아편을 제외하고서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 75%가 농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93] 아편산업은 아프가니스탄 경제와 농업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 양귀비 재배면적은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2004년의 경우 13만 1,000ha, 2005년의 경우 10만 4,000ha에 달하였고, 아편산업은 이 나라 최대의 외화 획득원인 동시에 농촌지역에서는 중요한 소득원이자 일자리 공급원이다. Ha당 아편재배농가의 수입은 2005년의 경우 관개농지에서 재배되는 밀이 575달러인데 비해 10배 가까운 5,385달러로 나타났다.

아편 다음으로 중요한 아프가니스탄의 농산물은 밀로서 2007년 생산량은 4,484톤이었고, 쌀은 밀에 다음가는 곡물인데 조곡기준 생산량은 55만 2,000톤이었다. 그 밖의 식량작물로는 옥수수(36만 톤), 보리(37만 톤) 등이 있고 감자(30만 톤)와 포도, 채소류, 면화, 참깨 등이 주요 경종작물이다. 축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경종작물보다 훨씬 비중이 큰데 주로 우유,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양과 염소의 젖 등이다.[94] 아프가니스탄의 식량위기는 단지 열악한 농업여건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1979년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89년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끝났으나 1992년 이슬람 세력의 집권, 1997년 탈레반의 집권,

92)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아프가니스탄 개관(2009.3.29)

93) Edouard Martin and Steven Symansky, "Macroeconomic Impact of the Drug Economy and Counter-Narcotics Effort" The World Bank. "Afghanistan: Priorities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hapter 2)"(http://go.worldbank.org/0NRZAEWOT0)

94) FAO, (http://faostat.fao.org/site/567/)

1999년 UN의 제재 개시, 2001년 탈레반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전쟁과 테러 등의 혼란 속에서 농업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25년의 전쟁과 내전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장기간의 극심한 가뭄은 농업분야에 큰 타격을 입혔다.[95]

아프간 농업은 토질이 척박한데다 영세소농에 의한 생계농업에 의존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 전쟁으로 발생한 많은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관개시설이 파괴된 농지는 쓸모없게 되어버린 상태다. 목축업 역시 가뭄으로 인한 목초지의 상실로 타격을 받았다. 유목생활을 하는 쿠치(Kuchi)[96]들은 식량획득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그룹이 되었다. 물이 부족한 탓으로 2000년에는 경작가능 면적의 절반 밖에 작물을 심지 못했고, 2003년에 가서야 외국의 지원과 강우량의 증가로 농업생산이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2007~2008년에는 밀 생산면적의 상당부분이 아편재배로 돌아간데다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고 곡물 수입량 또한 감소되어 아프간의 곡물부족은 다시 심화되었다.[97]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하나로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허덕이며, 2007~2008년의 경우 인구의 거의 1/3에 해당하는 740만 명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40만 명 이상이 가뭄, 홍수, 지진, 혹한 등 자연재해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WFP는 보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45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98]

방글라데시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방글라데시는 북위 21~26도에 위치한 열대성 몬순기후대에 속하는 나라로서 세계에서 강우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동남지방 일부가 미얀마와 접경하고 남쪽으로 벵골만에 접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방글라데시의 전 국토는 인도에 둘러싸여 있다. 국토면적은 14만 8,000Km^2, 인구는 1억 4,800만 명으로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이 나라는 농업이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고용의

95) Daniel Miller. "Afghanistan Agriculture Moving Forward". USAID/Afghanistan. 2006.2

96) 2000년대 초에 약 3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프간의 유목민들로서 주로 양과 염소 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며, 고기와 치즈 털 등을 생산한다. 3백만 명 중 최소한 60%는 전적으로 유목생활을 한다.

97) US Library of Congress. "Country Profile: Afghanistan". August 2008 (http://memory.loc.gov/frd/cs/profiles/Afghanistan.pdf)

98) WFP, (http://www.wfp.org/countries)

약 60%를 담당하는 농업 국가이다. 쌀과 주트가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경종작물이 농업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쌀이 경종작물 부가가치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쌀이 농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물을 기반으로 방글라데시의 여러 지방에서는 쌀을 1년에 3번 수확할 수 있다. 쌀 다음으로 중요한 곡물인 밀 생산량은 2001~2005기간 중 연평균 140만 톤(68만 4,000ha)이었으며, 쌀 생산량 증가추세와는 달리 밀 생산은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99] 주트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방글라데시 외화 수입액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으나 화학섬유 발달로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우유생산이나 쇠고기 생산은 사료곡물 가격의 상승 및 각종 가축질병에 대처할 수의사의 부족으로 상대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닭고기와 계란 생산은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농업과 식량사정은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개선되어 왔다. 방글라데시 경제는 2003~2008년의 6년간 연평균 6%의 GDP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도 1990년 이후 3.3%의 고율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런 성장추세를 반영하여 세계은행은 2016년 무렵이면 방글라데시가 현재의 최빈국에서 벗어나 중소득국(MICs, Middle Income Countries)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측하였고[100] 2003년 BRICs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은 2005년에 발행된 한 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를 "차기11개국"(N-11, Next 11 Countries)에 포함시킨 바 있다.[101]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 나타난 도시화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경작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농업부문의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배수 시설에 대한 투자, 다수확 신품종의 재배, 비료사용의 일반화 등으로 방글라데시의 식량생산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 추계에 의하면 방글라데시는 5,600만 명의 인구가 빈곤선 이하의 생

99) Sandeep Mahajan. "Bangladesh: Strategy for Sustained Growth"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Network, World Bank, 2007

100) Sandeep Mahajan. "Bangladesh: Strategy for Sustained Growth"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Network, World Bank, 2007

101) 2003년 BRICs를 강조했던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은 2005년에 발행된 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를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터키, 베트남과 함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큰 차기 11개국으로 선정한 바 있다. Jim O'neil and Dominic Wlson, et al. "How Solid are BRICs?", Global Economics Paper No:134. Goldman Sachs. December 1, 2005.

활을 하고 있고, WFP는 2007~2008년의 식량가격 상승으로 750만 명의 기아인구가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102] 더욱이 방글라데시의 식량사정은 기본적으로 그 특이한 지형과 기후에 의존한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국토의 거의 전부가 해발 12m이하의 낮은 표고를 나타냄으로서 만약 바다의 수면이 1m만 높아져도 전국의 50%가 홍수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10~3월 사이의 겨울철은 다소 온화한 편이지만 6~10월의 무덥고 다습한 몬순기간에는 홍수, 열대성 사이클론, 토네이도, 해일 등의 피해가 거의 매년 발생한다. 전 국토의 2/3와 3,000만 채의 가옥을 물에 잠기게 했던 1998년의 홍수는 약 1,000명의 사망자를 내고, 3,000만 명을 무주택 이재민으로 만들었으며, 1만 1,000Km의 도로를 파괴 또는 유실시킴으로서 근세 역사상 지상 최대의 홍수피해로 기록되었다.[103] 또한 지구의 온난화는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지형적 기후적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온난화는 해수면의 높이를 끌어 올리는 동시에 히말라야산맥의 눈이 녹아 내려 방글라데시의 강으로 흘러내리는 수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네팔 (Nepal)

북쪽으로는 중국과 접경하고 3면이 인도에 둘러싸인 내륙국가인 네팔의 국토면적은 약 14만 7,000Km^2, 인구는 2008년 현재 2,600~3,00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비롯하여 10대 고봉(高峯) 가운데 8개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자원은 네팔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104] 북위 26~30도에 위치하여 아열대에 속하지만 국토의 75%가 산악지대로 되어있는 이 나라의 기후는 표고에 따라 기온이나 강우량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해발 3,000m까지는 고도가 높을수록 강수량이 증가하고 그 이상은 감소한다. 또한 동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서부로 갈수록 강수량이 줄지만 중부까지도 강우량은 풍부하다. 연간 강수량의의 80%가 대개 6~10월 중순의 몬순기에 내리고 그 이후 3월까지는 건조하고 선선하다가 3~6월 기간은 덥고 건조하다.[105]

네팔은 OECD의 분류상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로서 대부분의 국민에게 농업은 식량과 소득 그리고 고용의 원천이다. GDP의 약 1/3과 고용의 2/3가 농업에 의존한다. 1990년대

102) WFP, (http://www.wfp.org/countries)

103) Haggett, David E. “The Indian Subcontinent” Encyclopedia of World Geography. New York. (http://en.wikipedia.org/wiki/Bagladesh)에서 재인용

104) Facts about Nepal, (http://worldfacts.us/Nepa.htm)

105) US Library of Congress-Federal Research Division. Country Profile: Nepal, November 2005

초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은 GDP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1990년대 네팔의 경제성장은 연평균 4.5%였으나 2001~2006기간 중에는 3.2%로 정체되었고 농업부문 성장률은 같은 기간 중 각각 2.7%와 2.8%였다. 연평균 인구증가율 2% 정도를 감안한다면 그러한 성장률은 빈곤문제나 식량문제가 거의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네팔정부 통계에 의하면 국토면적의 18%가 농업용으로 쓰이는데 그 중 초지와 다년생 수목(樹木)작물 재배면적을 제외하면 경작가능 면적은 약 250만ha인데 대부분이 경사가 심한 언덕에 위치하여 계단식 농업이 불가피하다.[106] 세계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1962~2002년 동안 네팔의 농지면적은 57%가 증가하였고, 농가 수는 120%가 증가하였으며, 인구는 1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동 기간 동안 1.1ha에서 0.8ha로 감소하여 97%의 농가가 2.0ha 이하의 영세 소농이고 65%의 농가가 관개수 혜택 없이 강우에만 의존한다.

비료, 농약, 관개수농업, 다수확 품종재배 등은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그 대부분이 극소수에 불과한 2.0ha 이상의 대농에 의한 것이다.[107] 영세 소농의 대부분은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기에도 충분치 못할 정도로 자가소비 위주의 생계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으며, 전통적으로 쌀을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 재배가 일반적이다. 농업부문 경작면적의 80%가 곡물생산에 이용되고 그 절반가량을 쌀이 차지한다. 쌀 다음으로 경작면적이 많은 작물은 옥수수(약20%)와 밀(약 17%)이다. 농민들은 복합영농형태로 쌀, 옥수수, 밀 등의 식량재배와 함께 가축 사양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축은 우유와 퇴비 공급원이기도 하고 역축(役畜)으로도 이용된다. 곡물의 ha당 수확량은 비교적 기상조건이 순조로웠던 2007년의 경우에도 벼는 2.77톤, 옥수수는 2.16톤, 밀은 2.23톤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108]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품목은 버팔로 젖(95만 9,000톤)이었고, 각종 채소류(232만 9,000톤)와 감자(194만 4,000톤)는 생산액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버팔로 고기, 우유, 쇠고기, 생강, 과실류, 염소고기, 사탕수수 등이 5위와 8~13위까지를 차지하였다.[109]

네팔 정부가 농업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농업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적지 않다. 관개시설이 발달하지 않아 하늘에 의존하면서도 물 사용량이 많은 쌀농사가 중심이 되어 있어 기상조건에 취약하다. 증산에 필요한 우

106) 전게서

107) 전게서

108) Madhab Karkee. 「Nepal Economic Growth Assesment(Agriculture)」, USAID Nepal, 2008

109) FAO, (http://faostat.fao.org/site/567/)

수한 종자의 공급이나 농기계 사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료가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다는 점, 농민들의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 등 참으로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지형과 기후조건을 지님으로써 차, 감귤류, 화훼, 종자생산 등 다양한 원예작물 재배가 가능하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인도와 중국, 방글라데시 등 큰 소비시장에 인접해 있다는 장점[110]이 십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네팔이 가진 지형적, 기후적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상업영농에는 교통,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이 부분 또한 전기 혜택을 보는 농촌인구가 전체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111]이기 때문이다. 2006년 내전 종식과 2008년 신정부 출범으로 빈곤과 배고픔의 완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팔 전체 인구의 41%는 저 영양 상태에 있고, 24%의 국민이 1일 1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국내정치의 불안정과, 고질적인 식량부족, 자연재해의 빈발 등은 수백만 네팔국민의 빈곤과 기아의 원인이 되고 있다.[112]

파키스탄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북위 23.5~36.5도에 위치한 파키스탄의 동북 및 서북지방은 산악지대이고 인더스 강 유역 주변은 평원지대를 이루고 있다. 인더스 강을 축으로 남북 간 1,600Km, 동서 간 885Km에 걸친 국토면적은 80만Km^2이고 인구는 1억 7,600만 명 수준이다. 뿌리가 다른 여러 아리안 족이 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드라비다족이 살고 있다. 파키스탄의 국토면적 가운데 약 60%는 사막, 산악, 그리고 도시용지로 쓰이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면적은 약 2,100만 ha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70% 정도가 펀잡(Punjab)주에 있다.[113]

파키스탄의 농업은 GDP의 24%와 고용의 48.4%를 차지하고 인구의 68%가 농촌인구이며 외화 획득액의 약 70%가 원료농산물이거나 그 가공품일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높다. 1990년대의 농업성장률은 연평균 4.5%였고 이는 주로 농업용수의 공급확대에 기인한다. 주

110) World Bank. "Nepal Development Policy Review, Restarting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March 24, 2005(Report No. 29382-NP)

111) Madhab Karkee, 전게서

112) WFP, (http://www.wfp.org/countries)

113)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ies. (http://lc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field(DOCID+pk0084))

요 작물은 밀, 면화, 쌀, 사탕수수로 이들 작물이 농업부문 부가가치의 41%를 차지하고 기타 작물이 10%이다. 축산분야는 농업부가가치의 37.5%, GDP의 9.4%에 해당하는 성장분야로 대두되었다. 1960년대의 농업부문 성장률은 신품종 밀과 옥수수 재배로 연평균 5.1%의 성장을 보였으나 70년대에는 민간기업의 대대적인 국유화 영향으로 성장률이 반감하여 2.4%에 불과하였다.[114)]

농업은 이 나라의 고온 건조한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1~3월은 건조하고 4~18℃의 서늘한 날씨를 보이다가 4~9월의 혹서기로 접어들면 낮 기온이 30~50℃를 보인다. 7~8월은 몬순기로 강우량이 많고, 10~12월에는 최고 기온 20℃의 쾌적한 날씨에 강우량도 거의 없다. 아열대성 몬순기후이기는 하지만 전국토의 90%이상 지역에서 강우량이 510mm이하이며 그 대부분이 7월에 집중된다. 이처럼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국토의 25%에 해당하는 넓은 경작지를 지니고 있는 파키스탄의 농업용수는 이 나라 농업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변수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관개시설 확충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나라의 관개 시스템은 1994년에 이미 1,600만 ha의 수혜면적, 5만 8,000Km의 송수관, 160만Km의 소수로(ditch)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관개시스템을 확보하였다. 관개시스템은 그 규모에서 세계 최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5) 116)]이러한 관개시설의 발달은 경작면적의 꾸준한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경작면적 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농지소유 구조와 관련이 있다. 소수 지주들에게 집중된 농지소유를 완화하기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농지개혁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소수의 대지주들이 경작지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관개시설 또한 이들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농지와 농업용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117)]

면화, 쌀, 사탕수수 등은 kharif(5~11월)기간에 재배되고, 밀은 대표적인 rabi(11~4월) 작물이다. 파키스탄은 또 전통적으로 면화의 세계 최대 생산국의 하나로서 편잡

114) Muhammad Hanif, et al. “Agricultural Perspective and Policy”,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vestock, Islamabad. January 2004

115) http://en.wikipedia.org/wiki/Agriculture_Of_Pakistan

116)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ies. (http://lc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field(DOCID+pk0085)

117) http://www.nationsencyclopedia.com/economies/Asia-and-the-Pacific/Pakistan-AGRICULTURE.html

(Punjab)주가 주산지이다. 2003/04~2005/06년의 3년간 평균으로 원면은 파키스탄 총 수출액의 58.2~62.3%를 차지할 정도이다.[118] 뿐만 아니라 면화는 이 나라 주요 공업부문인 섬유산업과 연계되어 파키스탄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FAO통계에 의하면, 생산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버팔로유(乳)이고, 그 다음이 밀, 면화, 우유로 되어 있다. 쌀은 파키스탄 농업에서 제5위의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다. 파키스탄은 식량생산에 있어서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 실제로 원면 이외에도 쌀과 피혁 등을 매년 수출하는 농산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파키스탄의 식량상황은 농업 이외의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의 세 번에 걸친 전쟁을 거쳐 결국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1971)한 뒤, 인도의 핵실험과 파키스탄의 핵실험(1998), 카시미르를 둘러싼 분쟁, Bhuto대통령의 암살(2007) 그리고 최근의 탈레반과의 무력충돌 등 이어지는 사회적 불안정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더욱이 2005년 10월 74천명의 인명손실과 3.5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지진에 이어 2008년 10월 다시 지진이 겹치면서 파키스탄 경제는 외환보유고의 감소와 인플레로 인한 화폐의 평가절하, 경상수지의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119] 전체 인구의 84.6%가 하루 2달러 미만의 빈곤생활을 하고 있으며, 2008~2009년간 최소한 55만 명의 인구가 피난길에 올랐다. 2009년 5월 전투가 심해지면서 3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고 그 중 약 20%만이 수용소생활을 통해 그나마 배고픔을 면하고 있는 실정이다.[120]

3. 중동 · 북아프리카의 식량위기국가

이란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은 북위 24~39도에 위치한 국토면적 165만 Km^2, 인구 7,000만 명의 다양한 기후를 지닌 국가이다. 세계 석유매장량의 10%, 천연가스 매장량의 15%를 점유하고 수출의 50~70%와 정부 재정수입의 80%가 석유에서 얻어지는 이란은 국토의 35%가 사막지대이고, 11%가 산림지대이다. 대체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 4계절이 뚜렷하지만 북쪽 카스피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내고, 남서쪽 페르시아만 연안은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냄으로

118)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 파키스탄경제개황(2007-01-25)

119) USCIA. The World Fact Book

120) http://www.wfp.org/countries/pakistan

서 다양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한다. 중부고원지대를 비롯하여 국토의 90% 정도가 건조지대이다.

이란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생산이 자급수준에 도달했으나 점차 하락하여 1979년까지 65%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농지의 표토가 엷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지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9년 혁명이후 서방에 대한 식량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증산보조금 확대, 단기금융 공급확대, 세금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자급률 향상에는 역부족이어서 1980년대의 농산물 수입의존도는 오히려 1970년대보다 높아졌다.[121)]

이란의 국토면적 중에서 경작가능 지역은 12% 수준이고 그 중 관개 가능면적은 1/3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농에 알맞은 정도의 비가 내리는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10% 정도인데 그 대부분은 카리브해를 낀 남서부 지방과 토양이 비옥한 북서부 지방이다. 따라서 이란농업은 주로 북서부지방에 의존한다. 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이고 이 기간을 지나면 고온 건조하다. 또 우기에는 연간 강수량의 거의 전부가 며칠 사이에 쏟아질 정도로 폭우가 되어 홍수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란에서는 전통적으로 가나트(qanat)라는 지하수로를 이용하는 관개방법을 사용하여 물 부족을 완화시켜왔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은 이 나라의 주식인 밀과 보리인데, 이중에서 밀은 이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품목이다. 약 650만 ha의 면적에서 밀이 생산되는데 2008년 생산량은 약 800~9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집트와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의 밀 수입국인 이란은 2009년에도 500~600만 톤의 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 다음으로 이란의 중요한 곡물은 쌀이다. 연간 약 300만 톤이 소비되고 220만 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란 정부 통계에 의하면 약 120만 톤의 수입수요가 있다.[122)] 이란의 쌀 생산량 가운데, 길란 지방에서 소량(60~70만 톤) 생산되는 향미(香米)는 장립종 쌀의 일종으로 그 독특한 맛과 향기로 국제 시장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이란은 그 다양한 기후조건을 토대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중 피스타치오는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데이트도 수출물량으로는 세계 최대이다.

---

121) http://countrystudies.us/sudan/55.htm

122) 주이란한국대사관, 이란의 농업개황(2008.2)

축산 또한 이란농업의 중심축을 이루는데, FAO 추정 2007년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우유(6,400천 톤)가 이란의 농축산물 품목 가운데 1위이고, 닭고기(124만 6,000톤)가 2위, 양고기(39만 4,000톤)가 6위, 쇠고기(34만 3,000톤)가 10위, 계란(71만 1,000톤) 등[123]이고 돼지 사육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란농업은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 혁명 이후 지속되었던 이란-이라크전쟁, 고질적인 물 부족, 농업여건이 우수한 카스피해 연안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등에 있다. 또한 30여년 이상 지속된 국내외적인 갈등과 서방국가와의 마찰 그리고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증산유인책의 부족 등도 이유가 되고 있다. 이란은 국민경제의 60%가 공공부문이고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존하며, 과도한 행정규제, 만연된 부정부패, 기타 종교적 요인에 의한 경직성이 민간부문에 의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124]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포장 가공 유통기술의 낙후로 인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약 30%가 중간단계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25]

여기에 더하여 주변국의 분쟁과 관련된 수많은 난민유입 또한 이란의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2년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UNHRC)와 이란정부 그리고 아프간 정부는 이란에 유입된 많은 난민의 본국송환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160만 명의 아프간 난민과 대부분의 이라크 난민이 귀환하였으나, 아직도 95만 명의 아프간 난민과 50만 명의 이라크 난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WFP는 보고 있다.[126]

이라크 (Republic of Iraq)

44만 Km^2의 국토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라크의 인구는 2,900만이며 아랍인과 크루드족이 각각 79%와 16%를 차지하고 있다.[127] 강우량이 많은 곳이 연간 400mm에 불과할 정도로 고온 건조한 기후인데 남서부로 갈수록 더욱 건조하여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광활한 사막을 이루어, 국토면적의 40%가 사막이다. 그러나 북쪽에서 흘러내려 오

123) FAO, (http://faostat.fao.org/site/567/)

124) Economy of Iran,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Iran)

125) 주이란한국대사관, 이란의 농업개황(2008.2)

126) WFP, (http://www.wfp.org/countries)

127) 주이라크한국대사관, 개관

는 유프라테스 강과 터키에서 발원된 티그리스 강이 국토의 중앙부와 동쪽부분을 남동쪽 방향으로 흘러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이룬다. 이런 특성 때문에 농업분야에 활용되는 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20% 정도인 950만 ha로 추정되지만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계절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잠깐 방목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지이다. [128]그리고 34만 ha의 토지는 무화과, 포도, 올리브, 데이트 등의 다년생 수목작물이고 일반 경종작물 재배면적은 대략 350~400만 ha이며 경종작물면적의 80% 내외는 밀과 보리 생산에 이용된다.[129]

이라크의 농업은 크게 강우(rain fed)에 의존하는 북부지방과 관개수에 의존하여 곡물, 과실, 채소 등을 생산하는 중남부지방의 농업으로 구분된다. 북부지방은 주로 밀, 보리 등의 겨울작물 재배가 일반적인데, 곡물생산량의 대략 1/3정도가 이라크 북동부 산간지역인 쿠르디스탄(Kurdistan)지방에서 생산된다. 대체로 9~11월에 파종하여 5~6월에 수확하는 이 지방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보잘 것 없고 특히 강우량에 크게 좌우된다. 이에 반해 이라크 곡물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중남부 관개수 농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이들 두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발달해 있다. 이 지역은 토질이 좋으나 전통적으로 염류화(salinization)의 우려가 크고 강우량이 빈약하다. 따라서 약 255만ha의 농지가 관개수에 의존하여 겨울에는 밀, 보리 등을 재배하고 여름작물로 쌀, 옥수수, 면화, 채소, 과실류 등을 생산한다.

이라크의 식량사정은 20여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악화되어 왔다. 사담 후세인 집권초기인 1980~1989년 기간 중에만 하더라도 이라크 정부는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배경으로 다수확 품종보급, 관개시설투자 확대, 선진국의 농업기술도입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산물 유통에 대한 규제완화 등 농업증산에 주력하였다. 주로 중남부 관개농업지대에 집중되었던 증산정책에 힘입어 1985~1989년간 곡물과 원예작물의 재배면적은 1970~1979년에 비해 28%가 늘었고, 생산량은 14%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생산은 후진적인 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농민들의 영농관행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못하였고, 인구증가와 함께 1980~1988년의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곡물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여 수입곡물 의존도는 1980년대에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한 69%에 이르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라크는 쌀, 밀, 사료곡물, 유지작물, 면화, 설탕, 입담배 등을 중

128) PECAD, FAS, USDA. “Iraq Crop Production” January 16, 2003

129) R.Schnepf. CRS Report for Congress. “Iraq’s Agriculture: Background and Status” May 13, 2003

심으로 미국의 중요한 수출대상국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UN의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가 발동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중단되었고, 1991년의 걸프전으로 이라크 농업에 핵심요소인 관개시설을 비롯한 인프라의 상당부분이 파괴되었고, 비료 농기계 병충해 방제기구의 부족과 함께 토양의 염류화가 겹쳐 이의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30]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쿠웨이트와의 전쟁(1990), 걸프전(1991), 미국과 영국의 공습(1998), 미국과 이라크 전쟁발발과 후세인 정권붕괴(2003), 사담 후세인 사형(2006)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UN의 OFF(Oil for Food)프로그램의 시행 등의 여파로 1980년 이후 거의 30여년간 이라크의 농업은 사실상 붕괴의 길을 치달았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의 영양부족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93만 명이고 280만 명이 식량배급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기구는 보고 있다.[131] WFP는 93만 명의 영양부족 인구 이외에 공공 식량 공급(PDS, Public Food Distribution System)에 의존하는 640만 명을 취약분야로 보고 있고, 교육과 공중보건 부문에서의 후유증이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132]

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식량위기 국가

콩고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34만 Km^2의 국토를 가진 콩고는 인구 6,800만의 다민족국가이며 아프리카의 중심에 위치하여 9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133] 1960년에 독립한 이 나라는 1965년 Motubu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이름을 Zaire로 바꾼 뒤 32년간 대통령자리에 있었다. 1997년 Motubu정권이 무너지고 Kabila가 정권을 잡은 뒤 국명을 현행 콩고 민주 공화국(DRC)으로 바꾸었다. 대통령이 된 Kabila가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자 주변국 군대가 개입된 무장세력 간의 내전이 다시 시작되어 2003년 7월까지 지속되었다. 이 제2차 콩고내전은 세

130) The Economist, "Digging for Defeat: Iraq" May2, 1998, Vol. 348, No. 8066, P44, R.Schnepf. CRS Report for Congress. "Iraq's Agriculture: Background and Status" May 13, 2003에서 재인용

131)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UK(http://www.dfid.gov.uk/)

132) WFP. (http://www.wfp.org/countries/iraq)

133) World Fact Book, US CIA (http://www.cia.gov/libray/publictions/the-world-factbook/)

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쟁으로 불린다. 2001년에는 Kabila 대통령이 암살되고 아들 Joseph Kabila가 국가수반이 되었다가 2003년에는 대통령으로서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2005년 헌법개정과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2006년 의회가 출범하고, 2007년 초에 지방선거를 치렀다.[134)]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 등 풍부한 자원 보유국인 콩고는 정치군사적인 불안정으로 수십 년 동안 쇠퇴의 길을 걸었다. 지극히 취약한 사회간접자본, 오랜 독재정권과 극에 달한 부정부패 그리고 전쟁 등으로 콩고 경제는 피폐해져있다. 농업부문은 커피, 코코아, 설탕, 야자유, 고무, 차 등의 현금작물과 플라테인, 옥수수, 카사바, 땅콩, 쌀 등이 생산된다. 현금작물은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의한 생산과 영세농에 의한 생산으로 양극화 되어 있다. 이러한 농업부문 역시 여러 가지 양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래 지속적인 침체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주로 내전이 진행되면서 정부가 농산물의 저가격 정책을 추진하였고, 값싼 수입 농산물 도입을 장려했으며, 농민들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송과 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다.[135)]

북위 4도~남위 12도 사이에 위치하여 적도를 끼고 있는 이 나라는 국토의 태반이 열대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면적의 10% 정도만이 경작지로 쓰이고 있다. 기후는 고온다습하여 연간 2,0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곳도 있다. 남쪽 고원지대는 건조하고 상대적으로 선선하며, 동쪽 고원지대는 다습하고 선선하다. 적도의 북쪽으로는 4~9월까지가 우기이고 11~2월이 건기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적도의 남쪽지방은 11~3월이 우기이고 4~10월이 건기이다.

2007년 현재 농업이 GDP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게 4가지의 농업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대림 농업지대이다. 농민들은 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곡물이나 땅콩을 심고, 이어서 카사바를 심는 식으로 2~5년 동안 경작하고는 해당 토지를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버려진 토지는 7~20년간 휴경지가 된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휴경기간은 급격하게 짧아지게 되는데 카사바가 가장 중요한 작물이 되고 옥수수, 수수, 두류 등이 보완작물이다. 물리적으로 시장과 거리가 멀고 인프라 기반도 취약하여 이 농업지대에는 극심한 빈곤이 일반화 되어 있다. 강우량이 많고, 미사용 토지가 많아 농업

134) World Fact Book, US CIA (http://www.cia.gov/libray/publictions/the-world-factbook/)

135) http://www.nationsencyclopedia.com/economies/Africa/Congo-Republic-of-The.html

성장 잠재력은 다소 인정되지만 환경관련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콩고의 두 번째 농업형태는 남부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구근작물 농업지대다.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이 농업지대에서는 카사바와 얌이 대표적인 작물이다. 이 농업지대는 강우량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생산도 안정적이다. 카사바와 얌 등 구근작물의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농민들의 비농업부문 활동가능성도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콩고의 남쪽 국경지역과 동북부 수단 및 우간다와의 국경을 따라 옥수수 중심의 곡물재배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농업지대는 제한된 면적에 불과하지만 이 농업지대의 인구밀도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옥수수가 주식용 작물이고 소와 염소를 비롯한 반추동물의 사육, 그리고 담배, 커피, 면화, 두류 등이 농민들의 현금 소득 작물이 되고 있다. 한편 콩고의 서쪽 끝에 위치한 이 나라의 수도 Kinshasa 남쪽의 앙골라와 접경지역에 국소적으로 다년생 수목농업(tree farming)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주로 코코아, 커피, 착유용 야자(palm), 고무나무 등이 중심작물이고 이들 농장 사이에 식량용작물이 보충 작물로 재배된다. 풍흉의 기복은 거의 없고, 인구 밀도도 비교적 높으며, 농업증산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136] FAO가 조사한 2007년도 콩고의 품목별 농산물 생산량을 보면, 카사바 생산량이 1,500만 톤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사탕수수와 바나나의 일종인 Plantain이 잇고 있는 전형적인 열대농업 국가이다. 커피는 구리와 원유에 뒤이어 이 나라의 세 번째 수출품목으로 2007년 생산량은 약 3만 2,000톤이다.[137]

WFP에 의하면 약 500만 명의 인명손실을 가져온 1996년 이래의 무력사태로 국가는 황폐화 되었으며 특히 식량의 주산지였던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력충돌이 지속되고 있고 2009년 7월 현재의 피난민(IDP)수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교적 안전문제가 호전돼 있는 지방에 있어서도 사회간접자본의 손실로 식량생산 능력이 크게 위축되었고, 정치환경의 불안정성과 약탈위협 때문에 가계나 수입업자들의 재고도 최저수준이다. 2009년 5월 현재 식량가격은 전년보다 53%나 폭등하였고 일부지역의 식량부족은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서 있다.[138]

136) John Dixon and Adan Gulliver with David Gibon. Farming Systems and Poverty: Improving Farmers' Livelihoods in a Changing World. FAO and World Bank, Rome and Washington DC. 2001. pp. 29-39.

137) FAO. (http://faostat.fao.org/site/567/)

138) WFP. (http://www.wfp.org/countries/congo-democratic-republic)

케냐(Republic of Kenya)

케냐는 북위 4도~남위 4도 사이에 위치하여 적도가 국토를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는 나라다.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해발 5,199m의 케냐 산을 중심으로 서쪽 고원지대는 강우량이 풍부하고 토양도 비옥하여 아프리카에서 뛰어난 농업생산여건을 갖추고 있다. 바로 이곳이 케냐 독립 이전에 유럽인들의 플랜테이션 회사들이 농업을 영위하던 이른바 "백색 고원지대(White Highlands)"이다. 그러나 동부와 북부지방은 대부분 건조지대며 이 지대가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작물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전 국토의 10% 미만이다. 1993년 통계에 의하면 농경지는 국토의 8% 수준이며, 초지와 임야가 각각 37%와 30%를 차지하고 있다 [139)]

케냐는 오랫동안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3년 독립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의 친 서방국가로 출범하였다. 43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독립과 함께 최대 부족인 Kikuyu족 출신의 Kenyatta 대통령이 집권하여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아프리카의 우등생"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수 부족의 연합으로 Kalenjin족 출신 Mwai 대통령 집권이후에는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대한 탄압과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2006년에는 세계은행, IMF, EU 등의 자금지원 동결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케냐의 농업부문은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67%의 국민과 80%의 빈곤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연평균 3.5%의 농업성장률을 보였으나 1990년대에는 평균 인구증가율의 절반 수준인 1.3%의 성장에 그쳤다.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의 복합적인 농업정책에 힘입어 5%의 농업성장률을 나타냈고 수출증가율은 8%에 달하는 등 농업부문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최근 케냐 정부는 "Vision 2030"을 제시하여 순차적인 5개년계획을 통해 농업선도성장(agriculture-led growth)을 표방하고 있다.[140)]

주요 농산물생간을 보면 우유가 가장 많고 쇠고기가 그 다음이다. 강우량이 작물재배에는 부족한 상태에서 낙타, 소, 양, 염소 등의 사육이 지배적이며, 가축은 초지를 따라 이동

139) http://www.jambokenya.com/jambo/kenya/econ02.htm

140) World Bank, "Project Appraisal Document on a Proposed Credit in the Amount of SDR 55 million(US$82 million Equivalent) in Support of an Adaptable Program Loan to the Republic of Kenya for the Kenya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Agribusiness Project", 2009. 5

하며 사육하는 유목에 의존한다. 축산물 외에 옥수수, 두류, 바나나, Plantain, 카사바 등도 생산된다. 일부 유럽인 소유의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차(tea)와 커피를 생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케냐의 농업은 전반적으로 영세농구조를 보이고 있다. 농업생산액의 75%가 농지면적 0.2~3.0ha 규모의 영세농에 의존한다. 아직 개량종자나, 비료, 농약, 배합사료, 농기계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으며, 관개수를 이용한 영농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차와 커피 등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밀, 옥수수 등의 식량을 수입하는 케냐는 최근 곡물 가격 폭등으로 식량사정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4년 연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의 가뭄은 2000년대 들어와 가장 극심한 것이어서 WFP는 380만 명에 대한 식량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의 국내 옥수수가격이 평년보다 100~130% 높은 수준에 있고, 많은 케냐인들이 자녀들의 학업을 중단시키고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일에 종사하게 하고 있으며,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연명하는 등 절망적인 생존전략을 강요당하고 있다.[141]

코트디부아르 (Cote d'Ivoire)

코트디부아르는 국토 32만Km^2, 인구 2,000만 명의 서아프리카의 국가이다. 1960년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코코아, 커피, 야자유 등의 수출과 해외자본 유치에 의존하던 이 나라는 외채증가, 코코아와 커피의 국제가격 하락, 그리고 1999년 쿠데타 이후의 지속된 정치 불안으로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1999년에 비해 15%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09년 현재까지도 정부군과 반군사이의 대치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이다.[142]

대서양 연안은 열대성 기후를 띄고 있고 북쪽지방은 건조한 기후인데 11~3월은 따뜻하고 건조하며, 3~5월은 무덥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다가 6~10월은 무덥고 다습한 날씨가 계속된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이며 북쪽으로 고산지대를 형성한다. 국토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남쪽의 평지는 연간 2,000mm의 강우량을 보이는 열대림 지역으로 코코아, 커피, 야자, 캐쉬넛, 천연고무 등 다년생 수목작물 생산이 지배적이다. 반면 국토의 약 60%를 차지하는 북쪽 지역은 나무가 없는 초원지대 즉 사바나 지대를 형성하는데 이 지역은 연간 강

141) http://www.wfp.org/countries/kenya

142) 주 코트디부아르 한국대사관.

우량이 1,100mm이지만 6~10월 사이에 집중된다.[143]

2007년 현재 취업자의 68%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부문의 GDP비중은 28%(2008년)로 추정되고 있는데[144] 생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코코아가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2007년 기준으로 코코아 생산량은 138만 4,000톤으로 세계 제1의 생산국이며, 국제 시장 점유율이 전통적으로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카사바 생산량도 242만 3,000톤에 이르고 있으며, 쌀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제8위를 기록하고 있는 농산물이다. 2007년 쌀 생산량은 60만 6,000톤(조곡)에 달하는데 주로 밭벼 재배에 의존한다. 밭벼는 생육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고 재배도 용이하며 다른 작물 사이에 간작으로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논벼에 비해 30% 정도 떨어진다.

코트디부아르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탁월한 수준이다. 1만Km에 달하는 포장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이동전화, 인터넷 등 최신 통신시설도 잘 발달되어 있고, 이 나라의 수도인 아비장(Abidjan)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규모가 큰 항구이다. 코트디부아르의 식량위기는 기본적으로 내전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피난민(IDP)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특히 북부와 서부가 심각한 상황이다. WFP는 2002년 이후 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45]

수단 (Republic of Sudan)

수단은 국토가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아프리카 최대국가이다. 국토의 대부분 특히 동부와 남부는 평원지대이고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은 사막과 사바나지대이다. 남부지방은 열대성 기후로 강우량이 풍부하여 많은 늪지와 함께 열대 우림지대를 형성하는데 북부지방의 우기가 3개월(7~9월)인데 반해 남쪽은 6개월(6~11월)이다. 하부브(haboob)로 알려진 북쪽 건조지방의 모래바람은 심한 경우 완전히 태양을 차단할 정도이다.[146] 1956년에 독립한 수단은 600여개의 부족이 400여개의 토착어를 쓰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부지방의 아랍계 회교도와 남부지방의 비 회교도로 크게 구분된다. 남부와 북부간

143) Robert E. Handford,ed. Ivory Coast: A Country Study, Washington: GPO for Library of Congress, 1988

144) US CIA. The World Fact Book

145) WFP. (http://www.wfp.org/countries)

146) http://en.wikipedia.org/wiki/Sudan

의 오랜 내전은 바로 인종문제와 종교문제에 그 근원이 있다. 석유, 천연가스, 구리 등의 지하자원을 보유한 수단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오일머니 유입과 국제원조에 힘입어 "아랍의 빵바구니(Breadbasket of Arab)"로 여겨지기도 했다. 1999년부터 시작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힘입어 2000년대에 들어와 견실한 경제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1983년 이래 20여 년간의 남북내전으로 200여만 명이 죽고, 4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데다가, 2003년에는 서부 다푸르(Dafur)지방에서 또 다른 반군이 일어나 2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많은 피난민이 고향을 찾아 돌아갔지만 아직도 이들 피난민의 식량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WFP는 2008년 현재 매월 360만 명이 외부의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동부의 몇 개 주 주민의 식량부족 상황은 긴급 상황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147] 수단의 농업은 고용 인력의 80%, GDP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가 수출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만 해도 농산물이 해외수출의 80%를 차지했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농작물은 나일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고, 주요 작물별 생산량은 2007년을 기준으로 수수(584만 톤), 땅콩(56만 4,000톤), 참깨(24만 2,000톤), 사탕수수(750만톤) 등이며 참깨는 우리나라로 수출되기도 한다.

한편 수단의 농업부문에서 생산액을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는 품목은 대부분 축산분야인데 우유(529만 2,000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토종 쇠고기(45만 5,000톤)이며, 염소젖, 양고기, 염소고기 등이다.[148] 이는 거의 전국적으로 소, 염소 등의 목축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수단의 목축업은 초지를 따라 가축을 이끌고 이동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 유목민들은 정착생활을 하는 경종농업 종사자에 비해 교육시스템 확충이 어려워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경지면적당 인구부양능력도 떨어진다.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남성이 약 30%, 여성이 약 50%이다.[149]

수단의 경작지 면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계가 있는데, 수단 정부는 잠재적인 경작 가능 면적을 1960년대 중반의 360만ha에서 1974년에는 840만ha로 발표한바 있는데,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면적은 1980년대의 75만ha에서 126만ha까지로 다양하다. 목축에 이용되는 초지면적 또한 다양한 통계가 있는데, FAO는 240만ha를, ILO와 UNDP는 120~150만

147) WFP, (http://www.wfp.org/countries)

148) FAO, 전게서

149) http://worldfacts.us/sudan

ha를 목축 가능한 초지로 추정한 바 있다.[150] 이러한 추정은 수단의 내전이 종식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전국에 매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200만 개의 지뢰제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짐바브웨 (Republic of Zimbabwe)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국토면적 39만Km^2의 짐바브웨는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이다. 1980년 영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1980년대에는 비교적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1992년과 1995년의 가뭄, 2001년의 홍수, 2002년 이후의 가뭄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게 되었다. 더 중요한 요인은 독립 이래 지금까지 대통령을 맡고 있는 무가베(Mugabe)정부의 무리한 토지정책과 이로 인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악화 및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마찰 등으로 원조와 자금지원이 중단되면서 농업은 물론 경제전반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짐바브웨는 아열대성 기후대에 속하지만 고원지대이고 토질도 비옥하여 유럽인들이 많은 플랜테이션 농장을 개발했던 나라이다. 6천여 개에 이르는 백인 농장은 그 면적이 전체 농지의 45%에 달하는 1,570만ha에 달했고, 흑인 소유 농지는 독립당시에 140만ha의 상업농지와 1,640만ha의 척박한 농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51] 이런 상황에서 무가베 정부는 백인들이 소유한 농장을 수용하여 흑인들에게 분배하려는 토지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1997년에는 1,500개의 백인농장에 대한 강제수용을 강행하였고, 2000년에는 백인농장에 대한 폭력적인 무단점거사태가 발생하면서 짐바브웨는 정치사회 경제적 혼란에 빠져들어 갔다.

외국항공사의 취항중단, 미국과 영국의 경제 제재(2001년), 리비아의 석유공급중단, IMF 및 World Bank의 자금지원 중단 등으로 이어지면서 극심한 인플레까지 겹쳐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짐바브웨 경제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4.6%와 -5.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2008년도 성장률은 -14.1%로 추정 된다.[152] 특히 백인농장의 강제수용과 무단점거 등으로 대규모 상업농 체제가 무너지고, 농장을 분배받은 흑인들은 영농기술과 영농자재 부족으로 생산성이

150) http://countrystudies.us/sudan/55.htm

151) 주 짐바브웨 대사관. "짐바브웨 공화국개황", (2009.06)

152) World Fact Book, US CIA (http://www.cia.gov/libray/publictions/the-world-factbook/)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짐바브웨는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천문학적인 인플레의 지속으로 국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EU는 짐바브웨 영세농에게 곡물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위기 완화를 위해 2,270만 달러 상당의 비료와 종자지원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EU는 인권탄압과 부정선거를 이유로 무가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EU 방문금지 등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총 5억 1,0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함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최대 공여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심각했던 2008년의 경우 짐바브웨 인구의 50%가 넘는 700만 명이 외부 원조기관의 식량원조에 의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53]

짐바브웨의 2007년도 농산물 생산액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쇠고기(9만 4,000톤)인데 소 사육은 주로 대규모 상업적 농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EU로 수출되는 품목이다. 쇠고기 다음으로는 잎담배(7만 9,000톤)로서 짐바브웨는 전통적으로 세계최대의 잎담배 수출국이다. 곡물생산은 옥수수가 95만 톤으로 가장 많은데 한 때는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일부 수출까지 했었다. 옥수수 다음으로는 땅콩(12만 5,000톤), 대두(11만 2,000톤), 밀(12만 8,000톤) 등이 생산된다.[154]

153) Africa News Network, October 08, 2009

154) FAO, (http://faostat.fao.org/site/567/)

〈별첨 3-3〉 WTO 농업협정의 식량원조 관련 조항

"AGREEMENT ON AGRICULTURE"

Article 10
Prevention of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Commitments

1. Export subsidies not listed in paragraph1 of Article 9 shall not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results in, or which threatens to lead to,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commitments; nor shall non-commercial transactions be used to circumvent such commitments.

2. Members undertake to work towar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ly agreed disciplines to govern the provision of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and, after agreement on such disciplines, to provide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only in conformity therewith.

3. Any Member which claims that any quantity exported in excess of a reduction commitment level is not subsidized must establish that no export subsidy, whether listed in Article 9 or not, has been granted in respect of the quantity of exports in question.

4. Members donors of international food aid shall ensure:

(a) that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food aid is not t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commercial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to recipient countries;
(b) that international food aid transactions, including bilateral food aid which is monetized,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FAO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and Consultative Obligation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e system of Usual Marketing Requirements (UMRs); and
(c) that such aid shall be provided to the extent possible in fully grant form or on terms no less concessional than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Food Aid Convention1986.

〈별첨 3-4〉 식량원조 관련조항 개정시안(DDA협상)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WTO Committee on Agriculture/Special Session,TN/AG/W/4/Rev.4, 6 December 2008

Ⅲ Export Competition

E. International Food Aid

167. International food aid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L.

ANNEX L

"Possible New Article 10.4 TO REPLACE THE CURRENT ARTICLE
10.4 of the Agreementon Agriculture"

International Food Aid

1. Members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maintain an adequate level of international food ai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od aid"[155]), to take account of the interests of food aid recipients and to ensure that the disciplines contained hereafter do not unintentionally impede the delivery of food aid provided to deal with emergency situations. Members shall ensure that food aid is provided in full conformity with the disciplines below, thereby contributing to the objective of preventing commercial displacement.

General disciplines applicable to all food aid transactions

2. Members shall ensure that all food aid transactions are provided in conformity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155)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term food aid is used to refer to both in-kind and cash-based food aid donations.

(a) they are needs-driven;

(b) they are in fully grant form;

(c) they are not t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commercial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r of other goods and services;

(d) they are not linked to the market development objectives of donor Members; and

(e) agricultural products provided as food aid shall not be re-exported in any form, except where, for logistical reasons and in order to expedite the provision of food aid for another country in an emergency situation, such re-exportation occurs as an integral part of an emergency food aid transaction that is itself otherwise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3. The provision of food aid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local market conditions of the same or substitute products. Members shall refrain from providing in-kind food aid in situations where this would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foreseen to cause, an adverse effect on local or regional production of the same or substitute products.[156] Members are encouraged to procure food aid from local or regional sources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d that the availability

156) It is conceivable that there could be circumstances where strict application of this obligation would have the effect of acting as an unintended impediment to the capacity of Members to respond fully and effectively to genuine need with in-kind food aid in an emergency situation envisaged under paragraphs 6 to 10 below. Therefore it is recognized that, in such an emergency situation, Members may be permitted to depart from the strict application of this obligation, but only and strictly to the extent that this is a necessary and unavoidable consequence of the nature of the emergency itself such that to act in strict conformity would manifestly compromise the capacity of a Member to respond effectively to meet food aid needs. Furthermore, a Member shall in any case be obliged to avoid or, if this is not possi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nimize, any adverse effects on local or regional production through the provision of in-kind food aid otherwise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6 to 10 below.

and prices of basic foodstuffs in these markets are not unduly compromised. Members commit to making their best efforts to move increasingly towards more untied cash-based food aid.

4. Untied cash-based food aid that i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bove shall be presu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is Article.

5. The recipient government has a primary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organization,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od aid activities within its territory.

Further disciplines for food aid transactions in emergency situations (Safe Box)

6. To ensure that there is no unintended impediment to the provision of food aid during an emergency situation, food aid provided under such circumstances (whether cash orin-kind) shall be in the ambit of the Safe Box and, therefore, dee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is Article, provided that:

(a) there has been a declaration of an emergency by the recipient country or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r

(b) there has been an emergency appeal from a country; a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y, including the World Food Programme and the United Nations Consolidated Appeals Proces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r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and Red Crescent Societies; a relevant regional or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agency; a non-governmental humanitarian organization of recognized standing traditionally working in conjunction with the former bodies; and in either case, there is an assessment of need coordinated under the auspices of a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y, including the World Food Programme;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r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157]

7. Following the emergency declaration or appeal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6 above, there may well be a period where the needs assessment outcome is pending.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is period shall be deemed to be 3 months in duration. Should any Member consider that the food aid concerned would fail to satisfy the conditions provided for under paragraph 6 above, no initiation of dispute settlement on these grounds may occur until that period has elapsed (provided that the relevant multilateral agency referred to in paragraph 6 above has not, within this period, given a negative assessment or has otherwise demonstrably not consented to a needs assessment). Where, within or by the end of this period, the relevant multilateral agency has either itself carried out a positive needs assessment or has demonstrably provided its consent or approval pursuant to footnote3, and the other conditions of paragraph 6 have been satisfied, the food aid concerned shall remain in the Safe Box hereafter provided it is also in conformity with all the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rticle.

8. There shall be no monetization for food aid inside the Safe Box, except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here there is a demonstrable needs to do so for the sole purpose of transport and delivery. Such monetization shall be carried out sol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cipient least-developed country In the case of a landlocked Member, additionally for the transport/delivery from the extra-territorial continentally contiguous port of final unloading to the destination territorial border. such that commercial displacement is avoided or, if not feasible, at least minimized.

157) Needs assessment should be done with the involvement of the recipient government and may involve a relevant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r an NGO, but while the latter bodies may be so involved, this is in a context where they are in coordination with the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y or ICRC/IFRCRCS as the case may be. A needs assessment shall not have standing for the purposes of access to the safe box under these provisions unless it has been conducted in such a coordinated manner, and has obtained the demonstrable consent or approval of the latter multilateral agencies.

9. A notification will be required on an ex-post basis by donor Members at six-month intervals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10. Subject to its continued conformity with other provisions of this Article, food aid that is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6 may be provided as long as the emergency lasts subject to an assessment of continued genuine need as a result of the initial onset of the emergency. The relevant multilateral agency shall be responsible to make or convey such determination.

Further disciplines for food aid transactions in non-emergency situations

11. Further to the disciplines set out in paragraphs 1 to 5 above, in-kind food aid in non-emergency situations outside the Safe Box shall be:

(a) based on a targeted assessment of need whether carried out by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is should involve the recipient country government and may involve humanitaria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orking in partnership with the recipient country government., including the UN, or, where such a targeted assessment is not reasonably obtainable, by a donor government or a humanitaria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f recognized standing, working in partnership with a recipient country government. That assessment would incorporate and reflect objective and verifiable poverty and hunger data published by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r by a recipient country that objectively identifies the food insecurity needs of the target popula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b) below;

(b) provided to redress food deficit situations which give rise to chronic hunger and malnutrition and, accordingly, such food aid shall be targeted to meet the nutritional requirements of identified food insecure groups and

(c) be provided consistently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or at the very least minimizing, commercial displacement. Commercial displacement in this context shall arise where the provision of in-kind food aid by a Member materially displaces commercial transactions that would otherwise have occurred in or into a normally functioning market in the recipient country for the same product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12. Monetization of in-kind food aid in non-emergency situations shall be prohibited except where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1 above and, as a means to meet direct nutritional requirements of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it is necessary to fund the internal transportation and delivery of the food aid to, or the procurement of agricultural inputs to low-income or resource-poor producers in, those Members. Monetization shall be carried ou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cipient least-developed or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y.[158] Additionally, commercial displacement shall be avoided.

Monitoring and surveillance

13. Food aid donor Members shall be required to notify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on an annual basis, all relevant data.

158) In the case of a landlocked Member, additionally for the transit transport/delivery from the extra-territorial continentally contiguous port of final unloading to the destination territorial border.

〈별첨 3-5〉 식량농업분야지원 협력대상기관

1. 기술협력

가. 육종 및 생산기술분야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립식량과학원	벼농사, 육종, 맥류, 간척지농업 기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1	031-290-6600	www.nics.go.kr
국립종자원	품종보호제도, 종자공급, 육종지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	031-467-0222	www.seed.go.kr
한국육종학회	농작물육종기술분야 학술단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국립식량과학원내	031-296-6898	www.breeding.or.kr
한국작물학회	농작물 기술분야 학술단체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1 국립식량과학원내	031-296-6898	www.cropscience.or.kr
한국식물병리학회	식물병리분야 학술단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국립농업과학원내	031-291-5442	www.kspp.org
한국종자협회 (회원: 50사)	채소종자 생산업체들의 단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4-5	031-706-1620	www.kosaseed.or.kr

나. 아열대농업기술분야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열대 및 아열대 농업	제주도 제주시 아연로 316	064-741-2540	www.nihhs.go.kr
아열대농업생물 과학연구소	아열대 농업연구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064-754-3357	www.subtropic.cheju.ac.kr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아열대 원예 농업연구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064-754-3396	www.shri.ac.kr

다. 농업생산기반관련 분야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전반, 용수개발, 기반정비, 관개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30	031-420-3114	www.ekr.or.kr
해외사업팀	해외기술협력, 외국인 교육훈련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30	031-420-3060	www.ekr.or.kr

해외농업지원팀	남북농업협력, 동북아 농촌 농업협력 교류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30	031-420-3251	www.ekr.or.kr
농어촌연구원	수자원, 물관리분야, 토양시험, 수실시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391	032-400-1700	www.rri.ekr.or.kr
대한건설협회 (회원:7,272사)	토건,토목, 건축,조경, 산업설비회사 단체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02-3485-8200	www.cak.or.kr
해외건설협회 (회원:618사)	해외건설회사들의 단체 (회원사수:618사)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02-3406-1114	www.icak.or.kr

2. 농업자재지원

가. 비료 분야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 병충해, 농약, 잠업 기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031-290-0114	www.naas.go.kr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 농약 농기계업무, 비료대북지원경험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02-2080-5114	www.nonghyup.com
한국토양비료학회	토양 및 비료 기술분야 학술단체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49 국립농업과학원내	031-295-7335	www.ksssf.or.kr
한국비료공업협회 (회원:8사)	비료생산 회사들의 단체(회원사:8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2 남해빌딩	02-552-2814	www.fert-kfia.or.kr
남해화학㈜		전남여수시 낙포동 343	02-2262-0500	www.nhchem.co.kr
(주)동부하이텍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02-3484-1500	www.dongbuhitek.co.kr
삼성정밀화학㈜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0-10	02-2255-0700	www.sfc.samsung.co.kr
주식회사 조비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7-4	02-3488-5826	www.chobi.co.kr
㈜카프로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02-399-1200	www.hcccapro.co.kr
KG케미칼㈜		경기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29-1	02-2680-4312	www.kgchem.co.kr
주식회사 풍농		서울 마포구 마포동 309-1	02-712-8791	www.pungnong.co.kr
㈜협화		서울 종로구 도림동 60	02-737-2751	www.khhc.co.kr

나. 농약 분야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농약과학회	농약기술분야 학술단체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서둔동249 국립농업과학원내	031-296-4088	www.kjps.or.kr
한국식물병리학회	식물병리분야 학술단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국립농업과학원내	031-291-5442	www.kspp.org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원:36사)	농약회사들의 단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8-9	02-3474-1590/4	www.koreacpa.org
㈜경농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7-4	02-3448-5800	www.knco.co.kr
㈜동방아그로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55-2	02-580-3600	www.dongbangagro.co.kr
성보화학		서울 중구 소공동 112-35 성보빌딩	02-735-2721	www.sungbochem.co.kr
㈜ 영일케미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삼성플라자 9층	031-738-5200	www.yichem.co.kr
㈜동부하이텍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02-3484-1500	www.dongbuhitek.co.kr
한국삼공㈜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537-10	02-2287-2900	www.30agro.co.kr

다. 농기계 분야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농업기계학회	농업기계분야 학술단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49 국립농업과학원내	031-293-2392	www.ksam76.or.kr
한국농공학회	농업기계, 농업토목 분야 학술단체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02-562-3627	www.ksae.re.kr
한국농기계 협동조합 (회원:402사)	농기계제조 회사들의 단체	서울 송파구 잠실동 305-21	02-2140-7900	www.kamico.or.kr
동양물산기업㈜	종합형(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 대용빌딩	02-3014-2800	www.tym.co.kr
대동공업㈜	종합형(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2	053-610-3000	www.daedong.co.kr
국제종합기계㈜	종합형(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1	043-730-1000	www.kukje21.co.kr
(주)대원지에스아이	농산가공(도정기, RPC시설 등)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0-2	054-973-2221	www.daewon.com
한성공업㈜	농산가공(건조기, 수분측정기, RPC시설)	전북 익산시 신흥동 803-18	063-830-8200	www.hs21.co.kr

라. 종자 분야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종자협회 (회원: 50사)	채소종자생산 업체들의 단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4-5	031-706-1620	www.kosaseed.or.kr
국립종자원	종자보급, 종자보호			

3.유통 및 가공분야 지원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 전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02-6300-1114	www.at.or.kr
식량관리처	식량수급관련업무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02-6300-1211/5	www.at.or.kr
유통교육원	농산물유통 교육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148-1	031-400-3510	www.at.or.kr
한국식품연구원	RPC, 식품가공, 유통기술 개발, 연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뒷냇골길52	031-780-9114	www.kfri.re.kr
한국식품유통학회	농산물 유통분야 전반 학술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식품유통학회사무국	02-2080-6145	www.kfma.ne.kr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농산물 포장, 저장, 수송기술분야 학술	대구시 북구 산경동1370 경북대 농생명과학대학	053-950-6781	www.kosfop.or.kr
농협중앙회 RPC지원팀	RPC운영분야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02-2080-6302	www.nonghyup. com

4. 축산분야 지원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 분야 전반의 연구 교육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축산길 77	031-290-1500	www.nias.go.kr
대한양돈협회	양돈기술분야 생산자 단체, 교육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19	0-581-9751	www.koreapork.or.kr
가축위생방역 지원 본부	가축질병 예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031-436-8770	www.okbangyok.org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생산 회사들의 단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031-707-2740	www.kahpa.or.kr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 생산 회사들의 단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1-13	02-581-5721	www.kofee.or.kr
한국종축개량협회	가축의 품종개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02-588-9302	www.aiak.or.kr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단체, 축산 수의분야 교육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031-702-8686	www.kvma.or.kr
대한양계협회	양계기술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6-5	02-598-7651	www.poultry.or.kr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축산기술 분야 전반의 학술 연구	서울 강남구 역삼도 635-5	02-562-0377	www.ksast.org
한국축산시설 환경학회	축산시설분야의 학술연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축산길 77	031-290-1713	www.kslhe.org

5. 연수생 초청사업 참여 희망기관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농촌진흥청	농촌개발 농업기술이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031-299-2200	www.rda.go.kr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 농업용수 및 지하수 개발관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30	031-420-3114	www.ekr.or.kr
국립종자원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	031-467-0222	www.seed.go.kr
국립식물검역원	식물검역전문가 연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320	031-449-0524	www.npqs.go.kr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기술전반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02-961-2521	www.kfri.go.kr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 채소재배기술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053-950-5114	http://cals.knu.ac.kr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인적개발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053-754-3302	http://todaud.jejunu.ac.kr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예	경기도안성시 중앙로 167	031-670-5097	www.hankyong.ac.kr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 농촌개발관련 모든 분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길 1	033-250-6803	www.kangwon.ac.kr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농업경제, 농촌개발, 유통 등	경남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	055-350-5100	www.pusan.ac.kr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친환경농업 등 농업기술지원분야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062-530-5114	www.jnu.ac.kr
진주산업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량 및 기능성 식품소재	경남진주시 칠암동 150	055-751-3114	www.chinju.ac.kr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량생산, 원예, 농촌경제 연수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1, 고대 생명과학대학	02-3290-4061	http://lifesci.korea.ac.kr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작물생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산29	041-550-1114	www.dankook.ac.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 농촌개발 (개도국 공무원 대상)	서울동대문구회기로 119-1	02-3299-4255	www.krei.re.kr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서울강남구 역삼동 706-25 육성빌딩 8층	02-539-0072	www.kds.re.kr
농협중앙회 해외협력국	농촌발전, 협동조합, 농업금융 지도자훈련	서울중구충정로1가75	02-2080-5114	www.nonghyup.com

6. 잠재적 연수생 초청사업 가능 예상기관

	주요 기능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농수산대학	농업생산분야 전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031-229-5114	www.kn.ac.kr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농·식품가공관련 훈련 및 기술지원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333	063-290-1114	www.woosuk.ac.kr
새마을운동중앙 연수원	새마을운동 관련 연수 (외국인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1	031-780-7992	www.suti.com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전반	서울강남구 대치3동 1008-4	02-2600-3600	www.saemaul.com
국제협력단	외국인 교육지원, 개도국지역사회개발	서울강남구 대치3동 1008-4	02-2600-3669	www.saemaul.com
한국식품연구원	RPC, 식품가공, 유통기술 개발, 연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뒷냇골길52	031-780-9114	www.kfri.re.kr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품질검사, 소비안전, 원산지관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10	031-446-0124	www.naqs.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농산물유통 교육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48-1	031-400-3510	www.at.or.kr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가축질병, 축산물위생, 동물약품 및 질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031-467-1997	www.nvrqs.go.kr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업관련 전반연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80-1	051-72105114	www.nfrdi.go.kr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분야 전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축산길 77	031-290-1500	www.nias.go.kr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수자원, 물관리분야, 토양시험, 수실시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391	032-400-1700	www.rri.ekr.or.kr

〈별첨 4-1〉 스리랑카에 대한 각국의 식량원조 사업 사례

Activity Name	Donor	Donor Org	Amount
FOOD FOR PROGRESS TITLE I - COMMODITY VALUE OF MILLED RICE (BY 50 KG)/METRIC TONS: 5700 [THROUGH UN WORLD FOOD PROGRAM]	United States	USDA	1,843,000USD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missing specific project title)	United States	USDA	516,000USD
Food -Commodity Value of Wheat, Hard Red Spring (by Bulk)/Metric Tons: 6888	United States	USDA	1,198,000USD
Food Aid	Japan	MOFA	4,244,482USD
German contribution to the World Food Programme in 2007	Germany	BMZE	482,987USD
IMMEDIATE AGRICULTURAL AID SUPPORT TO RETURNED FAMILIES AT THE WEST SIDE OF THE DISTRICT OF BATTICALOA.	Spain	ESMF	410,677USD
Promotion of Food Security & Reconciliation in Batticaloa	Germany	DGTZ	753,110USD
SECTION 416(B) FOOD AID - COMMODITY VALUE OF NONFAT DRY MILK (BY 25 KG)/METRIC TONS: 500 [THROUGH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United States	USDA	882,000USD
TOTAL FREIGHT FOR RICE, BAGGED / METRIC TONS: 1000.	United States	USAI	165,000USD
Total Freight Cost of Wheat, Hard Red Winter /Metric Tons: 18112	United States	USDA	3,118,000USD
Total Freight Cost of Wheat, Hard Red Winter /Metric Tons: 6888	United States	USDA	1,186,000USD
Total Freight Cost of Wheat, Soft White / Metric Tons: 8780	United States	USDA	939,000USD

자료: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AiDA; Accessible Information on Development Activities, http://aida.developmentgateway.org/aida/CountryView.do?iso3=LKA

〈별첨 4-2〉 스리랑카에 대한 FAO 지원 사업 사례

Symbol	Title	From To	Budget($)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Trade Policy			
GCP / RAS/170/JPN	Development of a Vulnerability Information Base, Mapping and Dissemination System for Asia in Support of the Food Insecurity and Vulnerability Information and Mapping System (FIVIMS) – Phase II	1997 2009	3,664,561
Crop production systems management			
TCP/ SRL/3102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y for hybrid rice development and use for food security and poverty alleviation	2007 2009	329,000
Diseases and pests of animals and plants			
GCP / RAS/226/JPN	Co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for phytosanitary capacity in Asian countries through capacity building	2007 2011	1,424,331
Emergency Response Operations			
GCP / SRL/059/EC	Enhancing food security among the most vulnerable farm families in eastern Sri Lanka	2009 2011	7,111,784
OSRO/ SRL/602/USA	Immediate Assistance for HPAI Emergency Preparedness	2006 2009	900,000
OSRO/ SRL/704/SPA	Immediate agricultural assistance in support of household returnees to Batticaloa West in the district of Batticaloa, Sri Lanka	2007 2008	441,390
Emergency and post crisis management			
TCP/ SRL/3201	Input supply to vulnerable populations under ISFP	2008 2009	500,000
FPMIS Temporary Technical Cooperation PWB for Biennium 2006/2007			

GCP / RAS/208/IFA	Organic Production of under-utilized Medicinal, Aromatic and Natural Dye Plants Programme for sustainable Livelihoods in South Asia	2006 2010	1,400,000
Fisheries and aquacultur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GCP / SRL/054/CAN	Capacity enhancement of NARA for marine resource surveys and stock assessments in coastal waters of Sri Lanka	2008 2009	1,177,686
Food Production in Support of Food Security in LIFDCs			
SPFP/ RAS/6702	Support for the Preparation of Regional Programme on Food Security	2008 2008	359,516
TFD-03/ SRL/001	Processing and Oil Extraction of Medicinal Herbs - Telefood project proposal from Sri Lanka	2004 2005	9,818
Food and Agricultural Information			
GCP / RAS/170/JPN	Development of a Vulnerability Information Base, Mapping and Dissemination System for Asia in Support of the Food Insecurity and Vulnerability Information and Mapping System (FIVIMS) - Phase II	1997 2009	3,664,561
Food and Agricultural Monitoring, Assessments and Outlooks			
MTF / SRL/051/CFC	Supervisory Body "Pilot Facility for Efficient Coir Processing and Quality Control"	2004 2008	30,000
Food and agriculture policy			
GCP / RAS/214/IFA	Pro-Poor Policy Formulation, Dialogue and Implementation at the Country Level	2007 2010	1,500,002
TCP/ RAS/3206	Complimentary Assistance to the FAO-IFAD Collaborative Programme on Pro-Poor Policy Formulation, Dialogue and Implementation at the Country Level	2008 2010	438,000
Food security, poverty reduction and other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s			
TFD-05/ SRL/003	Poverty Alleviation through Market Integration: A Case of Establishing Collecting and Grading Centre for Banana in Thunkama, Embilipitiya, Sri Lanka	2006 2007	10,000

Forestry Policy and Institutions			
GCP / RAS/218/JPN	Regional Programme for Participatory and Integrate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velopment for Long-term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in Tsunami-affected Areas	2006 2011	4,353,663
Leveraging resources and investment			
SPFM/ SRL/6601	Formulation National Programme for Food Security Sri Lanka	2006 2009	40,412
Rural infrastructure and agro-industries			
TCP/SRL/3202 BABY01	National seminar on value addi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2008 2009	23,080
Technology, research and extension			
TCP/ SRL/3101	Formulation of a National Agricultural Bi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me and Investment Plan	2007 2009	196,000
Trade and marketing			
GCP / INT/079/EC	Soaring Food Products` Prices Needs assessment and Responses	2008 2009	673,856

자료: FAO, FPMIS; Field Progr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https://extranet.fao.org/fpmis/FPMISReportServlet.jsp

〈별첨 4-3〉 스리랑카 농업생산을 위한 각국 지원 사업 사례

Activity Name	Donor	Donor Org	From	To	Amount
AMPARA INTEGRATED REHAB and amp; DEVELOP PROG - TSUNAMI 2004 -AMPARA	Canada	CIDA	2006	2009	3,788,066 USD
Dispatch of Expert**	Korea	EBKO			99,850USD
Dispatch of Volunteers**	Korea	EBKO			45,730USD
Dry Zone Livelihood Support and Partnership Programme	UNKNOWN	FOUN	2005	2013	30,404,000 USD
ENHANCED ECONOMIC and amp; SOCIAL OPPORT. FOR DISADVANTAGED GROUPS	United States	USAI			120,000USD
FONDO IN LOCO - SVILUPPO DEL COMPARTO AGRICOLO NEL DISTRETTO DI AMPARA	Italy	DGCS			996,577USD
GENRES-05-BMZ-DEU-PROGRAMM	Germany	DGTZ			21,923USD
IBTF for North East Reconstruction Fund		IDA	2003		100,000,000 USD
SRI LANKA LAND RECLAMATION PROJECT - TSUNAMI 2004 PRE-APPROVAL	Canada	CIDA	2005	2009	82,528USD
Strengthening Farmers and apos; Institutions	Norway	NORA	2007	2011	46,456USD
TC AGGREGATED ACTIVITIES	Japan	JICA			750,446USD
VERBESSERUNG DES MANAGEMENTS PFLANZENGENETISCHER RESSOURCEN	Germany	BMZE			25,059USD
the Assistance for Underprivileged Farmers	Japan	MOFA			2,801,358 USD

자료: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AiDA; Accessible Information on Development Activities
http://aida.developmentgateway.org/aida/CountryView.do?iso3=LKA

〈별첨 4-4〉 Jaffna 지역 해수 유입방지제방 세부내역

재 방			길 이		수혜면적	
공사진행	No.	제방 이름	마일, 피트	m	에이커	ha
복구 공사 중 (연내 완공)	1	Mankumban Bund	2M, 4,646 ft	4,635	400	161.9
	2	Mudalikuli Bund	810 ft	247	225	91.1
	3	Kalikulam Bund	1,500 ft	457	300	121.4
	4	Solanodai Bund	792 ft	241	325	131.5
	5	Uppukali Bund	1,000 ft	305	225	91.1
	6	Thevanikulam Bund	1.5 M	2,414	300	121.4
	7	Panankani	–	–	50	20.2
	8	Athankaradai	750 ft	229	100	40.4
	9	Vellaikadal S.W.E. Bnd	400 ft	122	350	141.6
	10	Araly Bund	6 M	9,656	1,000	404.7
	11	Kallundai Bund	2M, 2,000 ft	3,828	300	121.4
	소계			22,134	3,575	1,446.7
복구 공사 계획 미정	1	Mandai tiuv	3 M, 792 ft	5,069	400	161.9
	2	Saravanai Bund	2 M	3,219	400	161.9
	3	Kukukukadal Bund	534 ft	163	300	121.4
	4	Nelinchi minai Bund	515 ft	157	300	121.4
	5	Maniyan Vaikal Bund	200 ft	61	250	101.1
	6	Naranthanai Bund	1,400 ft	427	150	60.7
	7	Kali Aru Bund	2,500 ft	762	300	121.4
	8	Madathineli Bund	300 ft	91	100	40,5

복구 공사 계획 미정	9	Allaipiddy Bund	–	–	25	10.1
	10	Thillai Bund	2,700 ft	823	250	101.1
	11	Vellai	–	–	–	–
	12	Vernan Dam	5,100 ft	1,554	60	24.2
	13	Sambalodai Bund	2,640 ft	804	40	16.2
	14	Chakkalavadi Vaikal B	3,960 ft	1.207	–	–
	15	Periyamathavadi V.kal	3,960	1,207	200	80.9
	16	Irupiddy Bund	2,640 ft	804	300	121.4
	17	Kalavanthavalang Flood Bund	300 ft	91	–	–
	18	Kiluvani Vaikal Bund				
	19	Survil Vaikal to Kurikkukandal Bund	1M, 1,420 ft	2,042		
			1,000 ft	305	–	–
	20	Thuvanampiddy Bund	3,000 ft	914	100	40.5
	21	Solankanodai Bund	800 ft	243	1,000	404.7
	소계			19,943	4,175	1,689.5
	1	Vathrawathai Kaputhu	2 M	3,218	30	12.1
	2	Kopay Neerveli Bund	2 M	3,218	500	202.3
	3	Madhn F. P. Bund	2M, 1,650 ft	3,720	470	190.3
	소계			10,156	1,000	404.7
합계				52,229	8,750	3,540

주) 합계에는 통계가 없는 일부 제방의 길이 및 수혜면적미포함.

〈별첨 4-5〉 에티오피아에 대한 각국의 식량원조 사업 사례

Activity Name	Donor	Donor Org	Amount
AIDE ALIMENTAIRE LOCALE**	Belgium	DGCD	202,983USD
AIDE ALIMENTAIRE:EXPORTATION DE 3000T DE BL	Luxembourg	LUXE	98,770USD
Asset Protection for Food Security(APFS)	Canada	CIDA	18,337,522US
Bulgur / nb of people fed: 45000. / Metric Tons: 4320	United States	USAI	1,210,000 USD
CLoTURE Rï¿½GIE D and apos; and apos;AVANCE ETHIOPIE 1996	European Development Fund	EDFD	66,524USD
COMMODITY VALUE FOR VEGETABLE OIL, 4 LITERS / METRIC TONS: 850.	United States	USAI	893,000USD
Coalition for Food Security in	UNDP	UNDP	1,000USD
Commod Value for Corn Soya Blend	United States	USAI	32,000USD
Commodity Value for Vegetable Oil, 4Liter / M. Tons: 244.	United States	USAI	211,000 USD
Commodity Value for Wheat, Hard Red Winter bagged / Metric Tons: 4336.	United States	USAI	807,000 USD
ETHIOPIA SUPPORT NATIONAL SAFETY NET	United Kingdom	DFID	112,847USD
EXPANDING THE SCOPE OF FOOD SECURITY IN ETHIOPIA - DESCRIPTION: THE MAIN OBJECTIVE IS TO IMPROVE NUTRITION AND FOOD SECURITY OF THE POPULATIONS NORTH OF SHOA AND SOUTH OF RIGRAY AS WELL AS TO REDUCE POVERTY IN THE RURAL AREAS OF ETHIOPIA. THE PROJECT IS EXPECTED TO IMPROVE THE ABILITY OF COMMUNITIE	Spain	ESMF	547,570 USD

FOOD AID	Japan	MOFA	1,850,138 USD
FOOD SECURITY FUND	U. Kingdom	DFID	103,615USD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Italy	ITCA	250,787USD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missing specific project title)**	Ireland	DFA_	7,674,817 USD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missing specific project title)	France	FRMA	2,529,879USD
FOOD SOVEREIGNTY PROMOTION IN THE AREAS MOST AFFECTED BY THE DROUGHT IN HARSHIN, SOMALI REGION(ETIOPIA)	Spain	ESMF	539,955USD
FOOD-2005/ 017756	E C	CEC_	12,428,535 USD
FOOD/2004/017-005-FOOD-AID ALLOCATION IN FAVOUR OF ETHIOPIA 2004	European Commission	CEC_	23,605,416 USD
FOOD/2004/017-005-FOOD-AID ALLOCATION IN FAVOUR OF ETHIOPIA 2004	European Commission	CEC_	13,666,293 USD
FSARD - FOOD SEC., AGR., & RURAL DEV'T - PR-APPROBATION / PRE-APPROVAL	Canada	CIDA	1,152,870 USD
Food - Commod Value of Wheat, Hard Red Spring /Metric Tons: 16500	United States	USDA	2,591,000 USD
Food Security**	UNDP	UNDP	211,535USD
MOU 2007 - 2010**	Luxembourg	LUXE	410,677USD
Productive Safety Net PSNP	Sweden	SIDA	12,206,203 USD
REHABILITATION ASSISTANCE**	Ireland	DFA_	229,842USD
SUPPORT TO THE SAFETY NETS PROGRAMME	European Development Fund	EDFD	74,571,215 USD

Safety Net Consolidation Project	Canada	CIDA	18,616,773 USD
THE FOOD AID	Japan	MOFA	3,951,890USD
TOTAL FREIGHT FOR BULGUR / APPROXIMATE NUMBER OF PEOPLE FED: 43200. / METRIC TONS: 5760.	United States	USAI	1,588,000 USD
Vulnerability/Social Protect**	Ireland	DFA_	66,738USD
WFP 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S	N/A	FOUN	10,372,024 USD
WFP development operations	N/A	FOUN	5,554,692USD
aide alimentaire	France	MFAF	821,144USD

자료: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AiDA; Accessible Informationon Development Activities, http://aida.developmentgateway.org/aida/CountryView.do~iso3=ETH

〈별첨 4-6〉 에티오피아에 대한 FAO지원 사업 사례

Symbol	Title	From To	Budget($)
Agriculture information and statistics			
GCP/GLO/ 208/BMG	CountrySTAT for Sub -Saharan Africa ? Improved access to nationally owned, quality statistics on food and agriculture in 17 Sub-Saharan Africa Countries	2007 2009	5,607,000
Crop product ion systems management			
TCP/ ETH/3102	Strengthening see d supply systems at the community level in East Hararghe, West Hararghe and East Shoa Zones of the Oromiya Region	2008 2009	321,000
Crops			
GCP / ETH/064/FIN	Prevention and Disposal of Obsolete Pesticide Stocks in Ethiopia	2003 2008	1,055,884
Diseases and pests of animals and plants			
TCP/ ETH/3103	Emergency as sistance for the control of Desert Locusts	2008 2009	433,000
Emergency Response Operations			
OSRO/ ETH/903/CHA	Drought Emergency interventions in Somali and Oromia Regions	2009 2009	1,499,989
OSRO/ RAF/801/EC	Regional Support Programme for the coordination and capacity strenghtening for disaster and drought preparedness in the Horn of Africa.	2008 2009	4,027,892
Emergency and post crisis management			
GCP/GLO/ 216/SPA BABY06	FAO Initiative on Soaring Food Prices (ISFP) Response	2008 2010	551,100

OSRO/ RAF/704/WBK	Rapid Assessment of Avian and Human Influenza in Sub Saharan Africa	2007 2009	2,416,031
FPMIS Temporary Technical Cooperation P WB for Biennium 2006/2007			
GCP / GLO/162/EC	EC/FAO Food Security Programme Phase II (Year 2 and 3) Account 3	2006 2009	10,472,623
TFD-05/ ETH/001	Alssa-Bollo Kebele Community Date Palm Development Project	2006 2007	10,000
Food Production in Support of Food Security in LIFDCs			
TFD-02/ ETH/004	Vegetable Production in three PAs of Dire Dawa	2003 2004	9,664
Food and Agricultural Information			
GCP / GLO/162/EC	EC/FAO Food Security Programme Phase II (Year 2 and 3) Account 2-Facility for Consultancy Service	2006 2008	1,314,871
Food and Agricultural Monitoring, Assessments and Outlooks			
GCP / ETH/071/EC	Support to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in Ethiopia	2006 2009	2,640,799
Food and agriculture policy			
TCP/ ETH/3202	TCP Facility	2008 2009	110,712
ood security, poverty reduction and other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s			
TFD-05/ ETH/002	Hamedoita village Community Date Palm Development Project	2006 2007	10,000
Livestock			
ETH/07/001/ 01/99	Strengthening Local Capacity for the Achievement of the MDGs	2007 2008	957,000
Natural Resources			

GCP / INT/945/ITA	Information Products for Decisions on Water Policy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Nile Basin GCP/INT/752/ITA	2004 2009	5,517,001
Nutrition			
GCP / ETH/060/BEL	Improving Nutrition and Household Food Security in Northern Shoa & Southern Zone of Tigray (Phase II GCP/ETH/056/BEL)	2001 2011	6,832,050
Nutr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MTF /INT/034/ STB	Set up of child centres “We are the Future” (WAF) to deliver an effective urban gardening and nutrition and health education programme for children and youth, especially of orphans and vulnerable children (OVCs)	2006 2008	350,000
GTFS/ ETH/067/ITA	Crop Diversification and Marketing Development Project (TFComponent: Food Security)	2005 2010	2,999,998
GCP/ ETH/074/SPA	Scaling up food security interventions in Northern Shoa and Southern Tigray	2008 2010	1,523,094
GCP/GLO/216 /SPA BABY06	FAO Initiative on Soaring Food Prices (ISFP) Response	2008 2010	551,100
TCP/ETH /3202 BABY04	Project formulation re. to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2008 2009	89,287

자료: FAO: FPMIS(Field Progr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http://extranet.fao.org/fpmis/FPMISReportServlet.jsp?div=&type=countryprofileopen&language=EN&countryId=ET

〈별첨4-7〉에티오피아 농업생산을 위한 각국지원 사업 사례

Activity Name	Donor	Donor Org	From	To	Amount
ADD SNV/ETHIOPIA: BOAM	Netherlands	MFAN	2005	2010	10,351,440 USD
ADDA Phase VI, Food Security Project in Irob District 2007-2010	Germany	BMZE			547,570USD
AGRICULTURAL DEVELOPMENT	Ireland	DFA_			2,007,332 US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DUCATION CENTRE OF MEKI	Spain	AG__			328,514USD
AGRICULTURAL SERVICES	Ireland	DFA_			116,241USD
AGRICULTURE (TC RCEHERCHE)	France	MEF_			253,210USD
AGRICULTURE SECTOR SUPPORT PROG**	African DB	AFDF			31,471,329 USD
APPUI EXPORTATIONS PRODUITS HORTICOLES	France	AFDE	2008	2010	2,327,173 USD
APPUI AU DEVELOPPEMENT D'UNE DYNAMIQUE ECONOMIQUE - MICRO-FINNACE ET BANQUES DE CEREALES	Belgium	DGCD			198,085USD
ASSESSING THE EFFECTS OF LONG-TERM SEED AID IN ETHIOPIA	Canada	IDRC			237,798USD
Agricultural land resources	Germany	BMZE			689,943USD
Bikilal Integrated Rural Dev. (BIRDP). - food crop production	Norway	NORA	2007	2009	21,057USD
Contrle de trypanosoma equiperdum et T. evans en Ethiopie	Belgium	DGCD	2006		259,612USD
DCG Ethiopia	Norway	NORA	2007	2011	301,322USD

Dispatch of Volunteers**	Korea	EBKO			11,440USD
ENSEIGNEMENT ET RECHERCHE AGRICOLES ET VETERINAIRES**	France	MFAF			79,848USD
ENTWICKLUNGSORIENTIERTE UND UMWELTVERTRGLICHE BIOTECHNOLOGIE	Germany	BMZE			40,452USD
Ethiopia Strategic Support Programme	U. Kingdom	DFID	2005	2012	1,669,622USD
FAO Seed Security Phase II (2007-2011) Oromia	Norway	NOMF	2007	2011	4,096,681USD
FEDERAL STATES CONTRIBUTIONS	Germany	LG__			31,059USD
FOOD CROP PRODUCTION	Australia	AUSA	2003		19,864USD
FOOD CROP PRODUCTION	Ireland	DFA_			320,534USD
FSARD - FOOD SEC., AGR., & RURAL DEV'T - WORLD BANK GRANT CONTRIBUTION	Canada	CIDA	2003	2009	88,160USD
Fight against poverty and protection of ressources in Verga-wetland	Germany	BMZE			14,120USD
Food Security Project in Gamo Gofa	Austria	ADA_	2007	2009	342,231USD
GENDER ROLES IN URBAN DAIRY PRODUCTION IN ETHIOPIA : ENHANCING MARKET-ORIENTED PRODUCTION SYSTEMS	Canada	IDRC			14,218USD
GENRES-05-BMZ-DEU-PROGRAMM	Germany	DGTZ			39,075USD
GESTION DES RESSOURCES EN EAU**	France	MFAF			16,871USD
GRANT ASSISTANCE FOR UNDERPRIVILEGED FARMERS	Japan	MOFA			3,848,797USD
INCREASED FOOD PRODUCTION	Japan	MOFA			3,633,060USD

Improving food security in Irob Woreda through increased livestock	Germany	BMZE			364,000USD
Integrated Food Security for Pastoralists and AgroPastoralists in Somalia Region, Phase II	Germany	BMZE			704,996USD
LIVESTOCK DEVELOPMENT MASTERPLAN STUDY**	African DB	AFDF			3,467,180USD
LandSurvey BDar Universit BDU	Sweden	SIDA	2007	2009	5,475,397USD
MANAGEMENT PGR-04-BMZ-DEU-LI	Germany	DGTZ			192,207USD
MARKET ACCESS FOR FAMILY BASED AGRICULTURE	Spain	ESMF			238,209USD
MULTI ANNUAL PROGS**	Ireland	DFA_			2,365,924USD
Managing risk, reducing vulnerability and enhancing productivity under a**	Canada	IDRC	2007	2011	98,389USD
NGO LOCAL FUNDING SCHEME**	Ireland	DFA_			5,354USD
PARTECIPAZIONE AL PROGETTO NAZIONALE PER LA SICUREZZA ALIMENTARE. FONDO ESPERTI.**	Italy	DGCS			102,213USD
PARTNER FOR FOOD SECURITY ETHIOPIA -II	Canada	CIDA	2004	2009	5,323,099USD
PERS FUNDING/VOL 21/NEW INIT.**	Ireland	DFA_			3,105USD
Post-Harvest Management to Improve Livel	Canada	CIDA	2007	2013	2,792,516USD
Raytu Comm. Dev. Project (RCDP), Pastoral development	Norway	NORA	2007	2009	29,498USD
Research Ethiopia 06-07 Addis Ababa University**	Sweden	SIDA	2006	2009	1,318,269USD
Resources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e	U. States	USAI			298,000USD

Rural Capacity Building Project	Canada	CIDA	2007	2009	18,151,354 USD
STRENGTH.SOIL & WATER CONSERVATION TRAINING & RESEARCH	Belgium	DGCD			30,135USD
SUPPORT TO THE ETHIOPIAN AGRICULTURAL CENSUS	United Kingdom	DFID		2004	695,540USD
SUSTAINABLE UTILISATION OF NATURAL RESOURCES FOR IMPROVED FOOD SECURITY	Germany	DGTZ			3,728,560USD
SUSTAINABLE UTILIZ. NAT. RESOU	Germany	KFWI	2004	2009	13,604,174 USD
Small-scale commitments aggregated by sector and recipient	Austria	XAUT			18,567USD
Strategic Food Security dev. through appropriate Irrigation Schemes	Germany	BMZE			877,370USD
TC AGGREGATED ACTIVITIES	Japan	GJPN			1,042,573USD
Tech Asst/Mon/Eval - Rural Cap Bldg Proj	Canada	CIDA	2007	2009	279,251USD
Traninig Program**	Korea	EBKO			6,440USD
Urban Agriculture Promotion Project in Bishoftu, Ethiopia	Germany	BMZE			238,435USD
WHIST - PHASE 2	Canada	CIDA		2005	5,143,771USD

자료: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AiDA; Accessible Information on Development Activities
http://aida.developmentgateway.org/aida/SearchDo.do?sector=5000&iso3=ETH&archive=0&page=1&order=name&orderDirection=asc&sourcePage=countrySector&donor=All&exportTyp

연구자 약력

이정환(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일본 북해도 대학 농업경제학 박사
(전)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명수(GS&J 인스티튜트 이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농업경제학 석사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전) 주 Denmark 대사관 대사

고영곤(GS&J 농정전략연구센터 소장)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농업경제학 박사
(전) 농협중앙회 상무
(전) 농협대학 학장

김재훈(GS&J 농정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충북대학교 석사

연구자료 정책연구 2009-10-122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KOICA 지원방안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정책연구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우: 461-833)
전 화 031)740-0301
팩 스 031)740-0681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아데라커뮤니케이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88133-93-4 13320